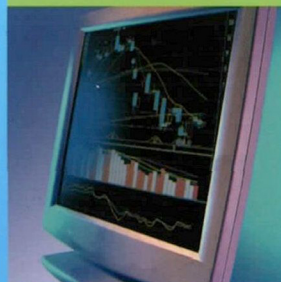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2012. 10



한국은행 경기본부
GYEONGGI BRANCH, THE BANK OF KOREA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2012년 지역경제 세미나 결과보고서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2012. 10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한국은행 경기본부
GYEONGGI BRANCH, THE BANK OF KOREA

여 백



< 개회사 > 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 축사 > 성태경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 주제발표 > 손명기 유아컨설턴트 부설 연구소장



< 토 론 >

차 례

◇ 세미나 개요	1
◇ 개회사	2
◇ 축사	4
◇ 주제발표 논문	5
요약	13
본문	37
◇ 토론 및 질의 · 응답	179

여 백

세미나 개요

1. 일 시 : 2012. 10. 2(화) 15:00~17:00
2. 장 소 : 경기대학교 자연과학관 5층 공과대학 세미나실
3. 주 최 : 한국은행 경기본부·경기대학교 부설 한국산업경제연구소
4. 주 제 :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5. 세미나 참가자
 - 주제발표자 : 손명기 (유아컨설턴트 부설 연구소장)
 - 사 회 자 : 김기홍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자 : 신낭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
신범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부장)

개 회 사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윤면식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성태경 학장님과 여러 교수님,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는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세계화와 지방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 뿐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협력이 증진되는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현행 16개 광역시·도를 묶어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권역으로 구분한 5+2 권역권을 설정하여 경제권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도 내의 시·군·구별 기초 행정단위로는 아직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간 상호 협력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간 연계 발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현재의 광역경제권을 기초자치단체 부문까지 세분하여 중규모의 경제권역 설정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오늘 세미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건설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경기도가 인접지역과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좋은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가 곧바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지역경제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훌륭한 논문을 준비해 주신 손명기 박사님, 그리고 세미나 사회를 맡아주신 경기대학교 김기홍 교수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신남현 과장님,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부 이상대 부장님, 경기대학교 신범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대학교는 지난해 10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공동 세미나 개최, 금융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과 FTA의 영향」,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등 2건의 조사연구와 「금융시장론」 과목의 협동강좌 실시, 현장실습교육 실시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 협력이 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성태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성태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를 위해 저희 학교를 찾아주신 한국은행 윤면식 경기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본교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조사연구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키로 MOU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는 본교 부설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계신 김기홍 교수께서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상호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연구과제로 발전시켜 본교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간에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조사연구 결과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본교의 경상대학 부설 한국산업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공동으로 본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논문 발표, 사회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유아컨설턴트 손명기 소장님, 경기도 신남현 경제정책과장님,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부장님과 본교의 김기홍 교수님, 신범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세미나가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손명기 (유아컨설턴트 부설 연구소장)

김기홍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문갑 (한국은행 경기본부 차장)

— 목 차 —

< 요 약 >	13
I 연구의 개요	37
II 분석권역 경제권역 선정 기준설정	43
III 분석권역 인구구조 분석	55
IV 분석권역 산업구조 분석	75
V 경기도 및 인접지역 전략산업 분석	99
VI 경기도와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119
VII 결론 및 연구한계	167

*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여 백

목 차

요약	13
I 연구의 개요	37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39
2 연구범위 및 방법	40
3 선행연구 검토	42
II 분석권역 경제권 선정 기준설정	43
1 산업분류의 조정	45
2 분석권역 시군구 선정	46
3 분석이론과 분석방법	48
III 분석권역 인구구조 분석	55
1 분석권역 시군구별 인구분포	57
2 분석권역 인구의 집중과 지역격차분석	59
3 분석권역 인구이동 분석	65
IV 분석권역 산업구조 분석	75
1 분석권역 지역내총생산(GRDP)	77
2 분석권역 산업분포	80
3 분석권역 시군구별 지역경제 분석	86
V 경기도 및 인접지역 전략산업분석	99
1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101
2 분석권역 광역시도 전략산업 현황	104
3 분석권역 시군구별 전략산업분석	106
4 분석권역 기반시설 분석	114
VI 경기도와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119
1 경제권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121
2 생활권 기준에 의한 경제권역 설정	122
3 산업경제 기준에 의한 경제권역 설정	126
4 경기도와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131
5 설정 권역별 특성	139
VII 결론 및 연구한계	167
부록 광역시도별 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I-1> 연구흐름도	41
<표 II-1> 산업분류 부문통합 기준	45
<표 II-2> 권역 광역시 도 행정구역 개편 현황	46
<표 II-3> 분석 권역 선정 시 군	47
<표 III-1> 광역시도별 인구분포	57
<표 III-2> 광역시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990-2010)	57
<표 III-3> 분석권역별 인구분포	58
<표 III-4> 분석권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990-2010)	58
<표 III-5> 분석권역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990-2010)	59
<표 III-6> 분석권역 시군구별 상위 인구점유율 및 인구증가율(2010)	60
<표 III-7> 권역별 인구 지니계수(1990-2010)	61
<표 III-8> 분석권역 허핀달지수(1990-2010)	61
<표 III-9> 분석권역 권역별 노령화지수(1990-2010)	62
<표 III-10> 분석권역 시군구별 노령화지수와 경제활동가능 인구비(1990-2010)	63
<표 III-11> 분석권역 자체지역 인구가동이 많은 지역(전입기준)	65
<표 III-12> 분석권역 시도간 인구가동이 많은 지역(전입기준)	65
<표 III-13> 권역내 시군구별 인구가동(2000-2010)	66
<표 III-14> 시군구별 지역간 인구가동(전입지 비율, 2000-2010)	68
<표 III-15> 분석권역 지역 간 상위 인구가동(2007)	69
<표 III-16> 시군구별 지역간 인구가동(전입지 비율, 2000-2010)	70
<표 III-17> 분석권역 지역 간 인구가동(2007)	71
<표 III-18> 분석권역 시군구별 통근 통학율(2005-2010)	72
<표 III-19> 시군구별 지역 간 통행(O-D)율(2006)	73
<표 IV-1> 권역별 GRDP(2005-2008)	77
<표 IV-2> 권역별 GRDP(2008)	77
<표 IV-3> 시군구별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78
<표 IV-4> 시군구별 연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79
<표 IV-5> 분석권역 산업현황(2000,2010)	80
<표 IV-6> 분석권역 시군구별 사업체수(2000, 2010)	81
<표 IV-7> 분석권역 시군구별 종사자수(2000, 2010)	82
<표 IV-8> 분석권역 사업체수(2000,2010)	83
<표 IV-9> 분석권역 종사자수(2000,2010)	83
<표 IV-10> 분석권역 내 시도별 사업체수 및 점유율(2000)	84
<표 IV-11> 분석권역 내 시도별 사업체수 및 점유율(2010)	84
<표 IV-12> 분석권역 내 시도별 종사자수 및 점유율(2000)	85
<표 IV-13> 분석권역 내 시도별 종사자수 및 점유율(2010)	85
<표 IV-14> 분석권역 내 업종별 입지계수 상위 시군구(2000)	85
<표 IV-15> 분석권역 내 업종별 입지계수 상위 시군구(2010)	88

<표Ⅳ-16> 분석권역 내 시도별 입지계수(종사자수, 2000)	89
<표Ⅳ-17> 분석권역 내 시도별 입지계수 추이(사업체수, 2010)	91
<표Ⅳ-18> 분석권역 내 시도별 입지계수 추이(종사자수, 2010)	93
<표Ⅳ-19> 분석권역 내 종사자수 성장효과(2000-2010)	96
<표Ⅳ-20> 분석권역 변이 할당분석 결과(2000-2010)	96
<표Ⅳ-21> 분석권역 산업의 성장률 시차분석(2000-2010)	97
<표Ⅳ-22> 분석권역 시군별 총종사자수 기준 경쟁우위 산업분석 결과(2000-2010)	98
<표Ⅴ-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	101
<표Ⅴ-2> 광역시도별 4대 전략산업 및 세부계획	102
<표Ⅴ-3> 강원도 세부 전략산업 현황	104
<표Ⅴ-4> 충청남도 세부 전략산업 현황	105
<표Ⅴ-5> 광역시도별 세부 전략산업 현황	105
<표Ⅴ-6>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사업체수 기준, 2010년)	106
<표Ⅴ-7>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종사자수 기준, 2010년)5	107
<표Ⅴ-8>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LQ)(사업체수 기준, 2010년)	108
<표Ⅴ-9>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LQ)(종사자수 기준, 2010년)	109
<표Ⅴ-10> 분석권역 광역시도별 전략산업 경쟁력 평가	110
<표Ⅵ-11> 분석권역 대비 시군구별 점유율 5% 이상 시군구(2010년 종사자수 기준)	111
<표Ⅵ-12> 전략산업별 상위 점유율 시군구 현황(2010년 종사자수 기준)	112
<표Ⅵ-13> 시군구별 경쟁우위 산업(2010년 종사자수 기준)	113
<표Ⅴ-14>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현황	114
<표Ⅴ-15>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현황(계속)	115
<표Ⅴ-16> 전국 산업단지 지정 현황	116
<표Ⅴ-17> 분석권역 시군구별 산업단지현황	116
<표Ⅴ-18>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117
<표Ⅵ-1> 분석권역 시군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2000-2010)	122
<표Ⅵ-2>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지역	122
<표Ⅵ-3> 시군구별 인구이동 현황 (2010)	124
<표Ⅵ-4> 상위 10위 지역 간 통행 시군구(2006)	125
<표Ⅵ-5>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2010, 종사자수 기준)	126
<표Ⅵ-6> 산업 비중을 이용한 분석권역 중심지역	126
<표Ⅵ-7> 분석권역 업종별 경쟁우위 시 군 구(2010년 기준)	128
<표Ⅵ-8> 분석권역 지역별 경쟁우위 업종현황(2010년 기준)	129
<표Ⅵ-9> 지역 간 물동량 이동량 (2003)	130
<표Ⅵ-10>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지역선정	131
<표Ⅵ-11> 중심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변 시군구 현황	132
<표Ⅵ-12> 경제권역 설정 및 해당 시군구	133
<표Ⅵ-13> 분석권역 경제권역 설정	136
<표Ⅵ-14> 분석권역 1차 소권역 경제권역 설정	137
<표Ⅵ-15> 분석권역 2차 대권역 경제권역 설정	137

<표 VI-16> 경기도 및 주변지역 경제권역별 시군구 현황	139
<표 VI-17> 경제권역별 인구현황	139
<표 VI-18> 수원권 종사자수 현황	139
<표 VI-19> 수원권 종사자수 기준 업종별 현황	140
<표 VI-20> 수원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41
<표 VI-21> 화성 부천권 인구현황	142
<표 VI-22> 화성 부천권 종사자수 현황	142
<표 VI-23> 화성 부천권 업종별 현황	143
<표 VI-24> 화성 부천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44
<표 VI-25> 광주권 인구현황	145
<표 VI-26> 광주권 종사자수 현황	145
<표 VI-27> 광주권 업종별 현황	146
<표 VI-28> 광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47
<표 VI-29> 남양주권 인구현황	148
<표 VI-30> 남양주권 종사자수 현황	148
<표 VI-31> 남양주권 업종별 현황	149
<표 VI-32> 남양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50
<표 VI-33> 고양 양주권 인구현황	151
<표 VI-34> 고양 양주권 종사자수 현황	151
<표 VI-35> 고양 양주권 업종별 현황	152
<표 VI-36> 고양 양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53
<표 VI-37> 부평권 인구현황	154
<표 VI-38> 부평권 종사자수 현황	154
<표 VI-39> 부평권 업종별 현황	155
<표 VI-40> 부평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56
<표 VI-41> 경제권역별 인구현황	157
<표 VI-42> 천안 청주권 종사자수 현황	157
<표 VI-43> 천안 청주권 업종별 현황	158
<표 VI-44> 천안 청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59
<표 VI-45> 춘천권 인구현황	160
<표 VI-46> 춘천권 종사자수 현황	160
<표 VI-47> 춘천권 업종별 현황	161
<표 VI-48> 춘천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62
<표 VI-49> 원주권 인구현황	163
<표 VI-50> 원주권 종사자수 현황	163
<표 VI-51> 원주권 업종별 현황	164
<표 VI-52> 원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165
<표 VI-53> 분석권역별 종합특성	166

그림 목차

<그림Ⅲ-1> 분석권역별 인구증가율(1990-2010)	58
<그림Ⅲ-2> 권역별 인구 지니계수(1990-2010)	61
<그림Ⅲ-3> 권역별 인구 허핀달지수(1990-2010)	62
<그림Ⅲ-4> 권역내 시군구별 순 인구이동(2000년)	67
<그림Ⅲ-5> 권역내 시군구별 순 인구이동(2010년)	67
<그림Ⅲ-6> 분석권역 지역 간 인구이동(2007)	71
<그림Ⅴ-1>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사업체수 기준, 2010년)	106
<그림Ⅴ-2>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종사자수 기준, 2010년)	107
<그림Ⅴ-3>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사업체수 기준, 2010년)	108
<그림Ⅴ-4>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종사자수 기준, 2010년)	109
<그림Ⅴ-5> 전국 산업단지 분포도	117
<그림Ⅵ-1> 인구규모에 따른 중심지 위계 시군구 현황	123
<그림Ⅵ-2> 인구증가율에 따른 중심지 위계 시군구 현황	123
<그림Ⅵ-3> 인구에 의한 중심지 지역 현황도	123
<그림Ⅵ-4>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종사자수 점유율 기준, 2010)	127
<그림Ⅵ-5>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종사자수 증가율 기준, 2000-2010)	127
<그림Ⅵ-6> 산업비중을 이용한 분석권역 중심지 시 군 구 현황도	127
<그림Ⅵ-7> 소경제권역도	137
<그림Ⅵ-8> 대경제권역도	137
<그림Ⅵ-9> 경기도와 인접지역 9개 경제권역도	138

여 백

요약

여 백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세계경제가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경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으며, 국가 간 교류의 확대와 함께 국가 내부의 도시 및 지역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에 두고 둘러싸인 대규모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서울의 배후 지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울이 확대되면서 배후 지원공간으로서 산업의 집중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전국의 타 시도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개발밀도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개발밀도 상승은 수도권 규제정책과 맞물려 경기도 인접지역의 개발압력을 가중시켜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의 시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및 인접지역의 개발은 수도권이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 생활권과 경제권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력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내부적 문제점으로 등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역정책에 있어 지역 간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권역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단위인 경제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정책으로 인하여 농촌과 도시, 도시 간 불균형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내부 지역 간 갈등으로 지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의 현실적인 계획권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분석대상 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위계와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경기도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경기도와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통계를 이용하여 중심성 및 위계구분, 각종 지수의 측정, 성장기여도 산출 등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통하여 광역시도 전략산업 파악 등 정성적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지역공간구조내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시군구별 인구 및 산업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경제권역을 최종적으로 설정하였다. 인구 및 산업지표 등의 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는 SPSS와 Arc View를 이용하여 통계분석과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II. 분석권역 인구구조 분석

1. 분석권역 시군구별 인구분포

분석권역 권역별 인구분포는 경기권역이 1,120만명으로 전국대비 23.3%, 인천권 262만명 5.5%, 충북권 118만명 2.5%, 충남권 105만명 2.2%로 나타났다

<표-1> 분석권역별 인구분포

(단위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 '90-'10
		%		%		%		%		%	
전국	43,390	100.0	44,554	100.0	45,985	100.0	47,041	100.0	47,991	100.0	0.51
권역전체	10,062	23.2	12,219	27.4	13,915	30.3	15,533	33.0	16,722	34.8	2.57
경기권역	6,063	14.0	7,638	17.1	8,938	19.4	10,341	22.0	11,196	23.3	3.11
인천권역	1,890	4.4	2,292	5.1	2,453	5.3	2,505	5.3	2,618	5.5	1.64
강원권역	563	1.3	585	1.3	625	1.4	643	1.4	681	1.4	0.96
충북권역	910	2.1	1,009	2.3	1,089	2.4	1,125	2.4	1,178	2.5	1.30
충남권역	637	1.5	696	1.6	811	1.8	919	2.0	1,050	2.2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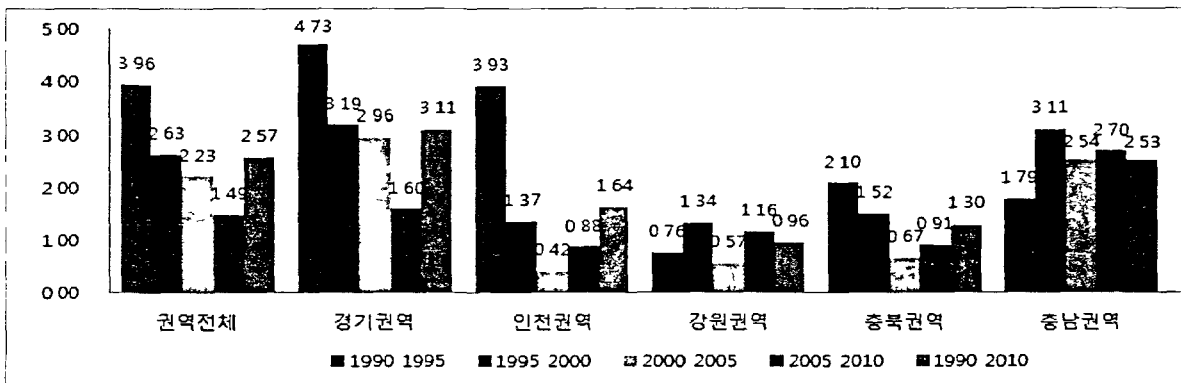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각 년도

분석권역의 1990-2010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며 1990-2010년까지 5년 간격 인구증가율은 1990-1995년 3.96%에서 2005-2010년 1.49%로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충남은 1990-1995년 1.79%에서 2005-2010년은 2.70%로 증가하였다

<표-2> 분석권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990-201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1990-2010
전국	0.53	0.63	0.46	0.40	0.51
권역전체	3.96	2.63	2.23	1.49	2.57
경기권역	4.73	3.19	2.96	1.60	3.11
인천권역	3.93	1.37	0.42	0.88	1.64
강원권역	0.76	1.34	0.57	1.16	0.96
충북권역	2.10	1.52	0.67	0.91	1.30
충남권역	1.79	3.11	2.54	2.70	2.53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각 년도



분석권역의 인구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권역 전체는 1990년 0.40에서 2010년 0.46으로 집중도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경기·인천의 집중도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강원·충북·충남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인구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충북 강원권역이며, 인천·충남권역은 낮게 나타났으나 충남은 1990년 0.11에서 2010년 0.38로 집중도가 타 권역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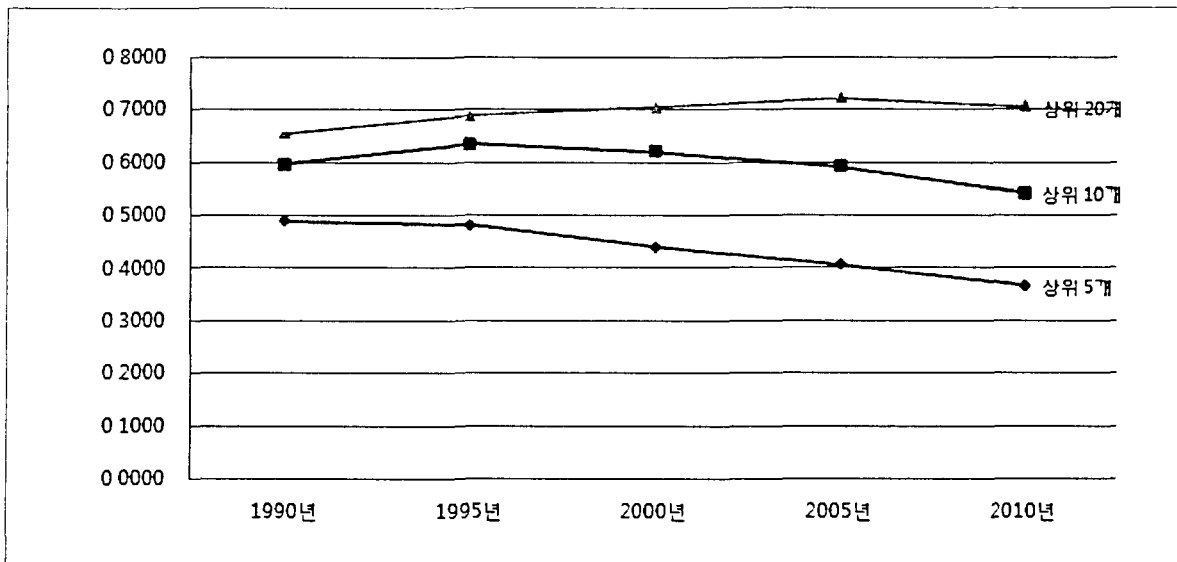
<표-3> 권역별 인구 지니계수(1990-2010)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권역전체	0.4064	0.4578	0.4613	0.4690	0.4630
경기권역	0.4124	0.4600	0.4509	0.4466	0.4347
인천권역	0.3235	0.3313	0.3281	0.3236	0.3279
강원권역	0.3908	0.4307	0.4624	0.4808	0.4961
충북권역	0.4290	0.4939	0.5046	0.5227	0.5153
충남권역	0.1103	0.2628	0.3137	0.3820	0.3813

분석권역 상위 시군구의 인구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 지수는 권역 내 총인구 중 상위 5개 시군구의 인구집중이 1990년 0.49에서 2000년 0.44, 2005년 0.40, 2010년 0.36으로 점차 집중이 완화되고 있으며, 상위 10개 시군구에서도 1990년 0.59에서 2010년 0.54로 다소 감소하였다. 단, 상위 20개 시군구에서는 1990년 0.65에서 2010년 0.70으로 증가하여 권역 내 중소도시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 분석권역 허핀달지수(1990-2010)

시군구수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상위 5개	0.4900	0.4810	0.4404	0.4063	0.3661
상위 10개	0.5964	0.6347	0.6197	0.5912	0.5425
상위 20개	0.6551	0.6889	0.7035	0.7219	0.7060



2. 분석권역 인구이동 분석

분석권역 인구이동은 2000년 시도내 자체지역 이동이 37.96%에서 2010년 39.44%로 약간 증가한 반면 시도 간 이동은 2000년 35.82%에서 2010년 34.15%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분석권역 자체지역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전입기준)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권역	37.96	26.21	35.82	39.06	26.30	34.63	39.44	26.41	34.15
1 정주시	57.53	17.25	25.23	60.67	14.86	24.47	60.36	15.70	23.93
2 춘천시	60.06	15.01	24.93	61.10	14.43	24.47	59.05	12.99	27.96
3 원주시	56.62	13.64	29.74	58.01	13.64	28.35	56.79	12.97	30.24
4 충주시	58.33	10.84	30.84	57.50	10.09	32.40	55.78	9.05	35.17
5 천안시	46.72	14.06	39.22	48.41	13.91	37.68	50.78	12.98	36.2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0

<표-6> 분석권역 시도간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전입기준)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1 철원군	22.45	9.10	68.45	22.79	10.34	66.87	18.82	7.74	73.44
2 화진군	19.28	25.63	55.09	15.52	25.65	58.83	15.95	21.26	62.79
3 평장군	14.68	31.48	53.84	15.58	30.62	53.80	14.49	25.97	59.53
4 음성군	16.14	24.60	59.25	20.32	25.11	54.57	18.08	22.46	59.46
5 횡성군	16.16	38.55	45.29	15.06	37.31	47.63	15.19	31.93	52.8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0

2007년 전출입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는 화성시↔수원시, 경기 인천은 부천시↔부평구, 경기 충남은 평택시↔천안시, 경기 충북은 수원시↔청주시 인천 내는 남구↔남동구, 충남 충북은 천안↔청주 간에 이동이 많았다

<표-7> 분석권역 전출입 지역 간 인구이동 상위지역(2007)

순위	경기도 내	경기-인천	경기-강원	경기-충남	경기-충북	인천시 내	충북-충남
1	화성↔수원	부천↔부평	수원↔원주	평택↔천안	수원↔정주	남구↔남동	천안↔정주
2	용인↔성남	부천↔남동	남양주↔춘천	수원↔천안	용인↔정주	남동↔부평	연기↔정주
3	고양↔파주	김포↔서구	용인↔원주	평택↔아산	성남↔정주	부평↔계양	연기↔정원
4	-	부천↔계양	성남↔원주	용인↔천안	안산↔정주	-	천안↔정원
5	-	시흥↔남동	포천↔철원	성남↔천안	이천↔음성	-	아산↔정주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정보서비스, 2012

Ⅲ. 분석권역 산업구조 분석

1. 분석권역 지역내총생산(GRDP)

2008년 기준 권역 내 GRDP는 316조원으로 전국 1,02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이며, 인구 구성비(34.8%)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이는 분석권역에 거주하는 인구 중 다수가 서울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권역별 GRDP를 보면 권역 전체적으로는 2005-2008년까지 연평균 5.67%가 증가하였으며, 권역별로는 충남권이 7.14%로 높게 증가한 반면 충북권은 4.69%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권역별 점유율은 2005년 대비 2008년은 경기권이 다소 낮아진 반면 충남권이 10.3%에서 10.7%로 다소 높아졌다

<표-8> 권역별 GRDP(2005-2008)

(단위 10억원, %)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05-08)
권역	268,121	100.0	287,019	100.0	309,250	100.0	316,382	100.0	5.67
경기권	169,315	63.1	180,859	63.0	193,658	62.6	198,948	62.9	5.52
인천권	40,184	15.0	43,083	15.0	47,519	15.4	47,565	15.0	5.78
강원권	9,616	3.6	10,220	3.6	11,116	3.6	11,374	3.6	5.76
충북권	21,518	8.0	23,054	8.0	24,629	8.0	24,690	7.8	4.69
충남권	27,488	10.3	29,804	10.4	32,328	10.5	33,805	10.7	7.14

자료 KOSIS

분석권역의 지역내총생산 기준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1.9%, 제조업 34.6%, 서비스업 63.5% 비중을 보였으며,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제조업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2차 산업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충남권(56.1%), 충북권(41.0%)은 높은 반면, 강원권(13.7%), 인천권(29.9%)은 낮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강원권(80.9%), 인천권(69.4%)의 비중이 높은 반면, 충남권(40.8%), 충북권(55.2%)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충북 경기지역은 제조업 중심지역으로, 강원·인천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9> 권역별 GRDP (2008)

(단위 10억원, %)

	권역전체		경기권역		인천권역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	
전체	316,382	100.0	198,948	100.0	47,565	100.0	11,374	100.0	24,690	100.0	33,805	100.0
1차산업	5,981	1.9	3,030	1.5	314	0.7	612	5.4	947	3.8	1,077	3.2
2차산업	109,605	34.6	64,744	32.5	14,229	29.9	1,559	13.7	10,125	41.0	18,948	56.1
3차산업	200,796	63.5	131,174	65.9	33,023	69.4	9,203	80.9	13,618	55.2	13,779	40.8

자료 KOSIS

2 분석권역 산업분포

분석권역의 사업체수는 2010년 기준 104만6천개로 2000년(79만6천개)보다 31.4%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는 2000년 381만9천명에서 2010년 557만4천명으로 46.0%가 증가하였다

<표-10> 분석권역 산업현황(2000,2010)

(단위 업체,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0년		2010년		증가율	2000년		2010년		증가율
전국	3,013,417	100.0	3,355,470	100.0	11.4	13,604,274	100.0	17,647,028	100.0	29.7
권역내	796,056	26.4	1,045,902	31.2	31.4	3,818,716	28.1	5,573,697	31.6	46.0
경기권	488,147	16.2	687,020	20.5	40.7	2,416,082	17.8	3,758,001	21.3	55.5
인천권	141,261	4.7	162,126	4.8	14.8	663,826	4.9	822,899	4.7	24.0
강원권	47,377	1.6	50,807	1.5	7.2	181,810	1.3	234,833	1.3	29.2
충북권	69,040	2.3	80,572	2.4	16.7	317,901	2.3	356,532	2.0	12.2
충남권	50,231	1.7	65,377	1.9	30.2	239,097	1.8	401,432	2.3	67.9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00-2010), 2012.6

2000년 종사자수 기준 분석권역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0.2%, 제조업 33.5%, 서비스업 66.3%로 제조업은 전국(24.0%)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전국(75.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11> 분석권역 종사자수(2000,2010)

(단위 명, %)

	2000년					2010년				
	전국		권역내		전국비	전국		권역내		전국비
전산업	13,604,274	100.0	3,818,716	100.0	28.1	17,647,028	100.0	5,573,697	100.0	31.6
1차산업	77,514	0.6	8,864	0.2	11.4	46,795	0.3	9,112	0.2	19.5
2차산업	3,267,465	24.0	1,278,128	33.5	39.1	3,417,698	19.4	1,533,163	27.5	44.9
3차산업	10,259,295	75.4	2,531,724	66.3	24.7	14,182,535	80.4	4,031,422	72.3	28.4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00-2010), 2012.6

2000년 종사자수 기준 분석권역 시군구의 입지계수를 보면 농림어업은 당진 화성 청원 평창 등이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김포 양주 시흥 화성 광주 등이 2.0이상으로 높았으며, 서비스업은 과천 연수구 춘천 평창 화천 가평 정주 등이 높게 나타났다

변이 할당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을 분석하면 권역 내 성장유망산업은 농림어업,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 전기, 전자통신제조업,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이며, 서비스업은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IV. 경기도 및 인접지역 전략산업분석

1 분석권역 광역시도 전략산업 현황

광역시도별로 세부전략산업을 보면 경기도는 신성장동력과 잠재력이 높은 성장산업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경기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과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등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제1차 국토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된 4대 전략산업은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IT산업이다. 인천의 전략산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물류산업의 경우 동북아 종합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 수송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자동차산업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계 금속산업은 기계 금속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신소재(철강 나노) 관련 기술개발, IT산업은 디지털 콘텐츠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이다. 강원도는 지역여건과 자원 잠재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 방재산업, 관광문화산업을 세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강원 권역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 및 육성하고 있으며, 4대 전략산업은 바이오 및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이다. 충청남도는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대중국교역의 교두보로서 서해안 생산기지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축으로 기흥-천안-청주 지역을 연계하는 IT밸리, 천안 아산-서산-당진을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의 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첨단문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표-12> 광역시도별 세부 전략산업 현황

전략산업	경기도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정보통신	●	●			
생명	●				
문화콘텐츠	●				
물류	●	●			
자동차	●	●			●
부품소재	●				
기계금속		●			
바이오			●	●	
의료기기			●		
신소재 방재			●		
관광문화			●		
반도체				●	
이동통신				●	
차세대전지				●	
전자 정보기기					●
첨단문화					●
농 축산 바이오					●

2 분석권역 광역시도 전략산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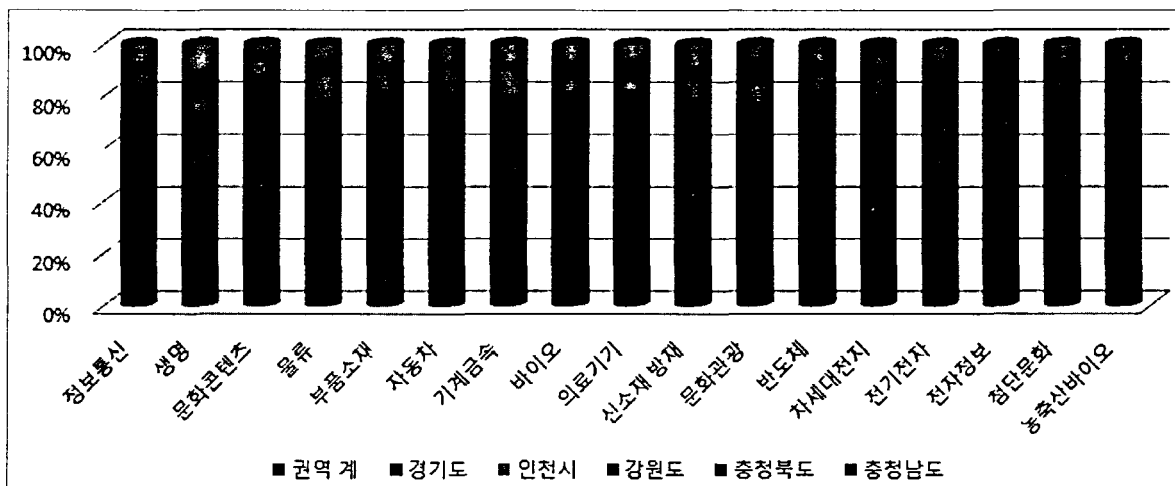
1) 광역시도별 전략산업분석

종사자수 기준 광역시도별 전략산업을 보면 전국 대비 분석권역 광역시도가 48.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0.7%), 인천(6.1%), 충남(6.0%), 충북(4.0%), 강원(1.4%) 순이다. 분석권역 내는 전자정보 정보통신 차세대전지 등이 높은 반면, 문화관광 문화콘텐츠 물류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13>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종사자수 기준, 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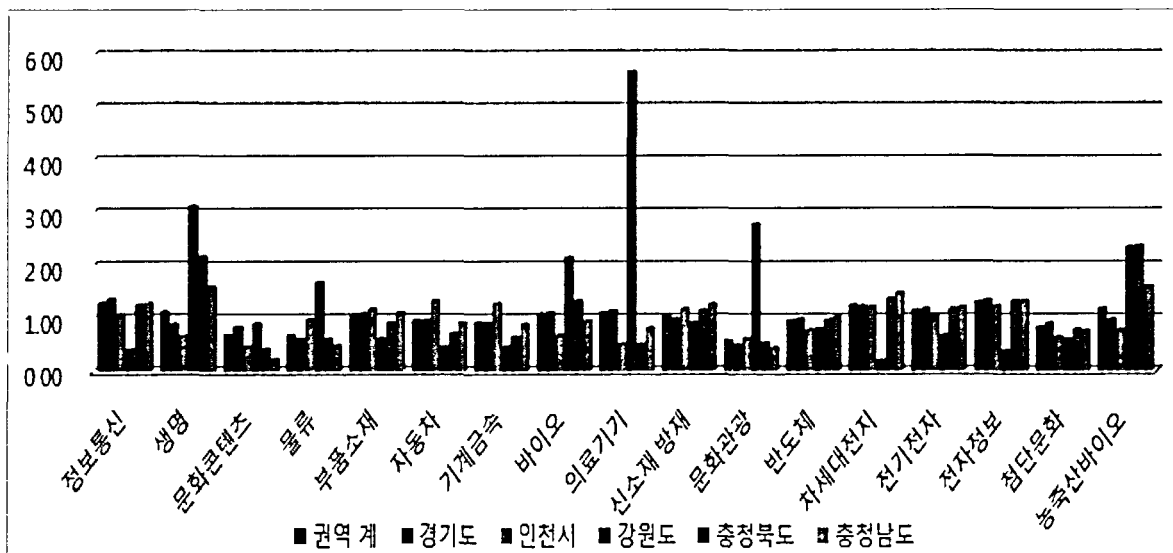
	전국	소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01 정보통신	1000	620	421	66	06	50	77
02 생명	1000	540	272	41	44	86	96
03 문화콘텐츠	1000	327	256	29	13	17	13
04 물류	1000	325	188	60	24	24	29
05 부품소재	1000	518	334	72	09	36	66
06 자동차	1000	468	296	82	07	28	55
07 기계금속	1000	441	277	81	06	25	53
08 바이오	1000	520	338	42	30	53	57
09 의료기기	1000	532	351	31	80	20	49
10 신소재 방재	1000	510	303	72	13	46	76
11 문화관광	1000	278	153	38	39	21	26
12 반도체	1000	462	303	48	11	38	61
13 차세대전지	1000	600	378	75	03	54	89
14 전기전자 융합부품	1000	554	361	64	09	47	73
15 전자정보	1000	627	413	76	05	53	80
16 첨단문화	1000	400	275	39	09	31	46
17 농축산바이오	1000	571	299	48	33	94	97
합계	1000	482	307	61	14	40	60



종사자수 기준 분석권역 및 해당 광역시도별 LQ를 보면 해당권역은 전자정보(130), 정보통신(129), 차세대전지(124), 농축산바이오(119), 전기전자 융합부품(115), 생명(112), 의료기기(110), 바이오(108), 부품소재(107), 신소재 방재(106)는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나타났으나 문화관광(058), 물류(067), 문화콘텐츠(068), 첨단문화(083), 반도체(096), 자동차(097)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는 전자정보(134), 정보통신(137)이 인천시는 자동차(134), 전자정보(124)가, 강원도는 의료기기(567), 생명(311)이, 충북은 농축산바이오(238), 생명(218)이, 충남은 생명(161), 농축산바이오(161)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LQ)(종사자수 기준, 2010년)

	권역 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01 정보통신	129	137	108	040	125	128
02 생명	112	089	067	311	218	161
03 문화콘텐츠	068	083	047	090	042	022
04 물류	067	061	098	168	062	048
05 부품소재	107	109	118	062	091	111
06 자동차	097	096	134	046	071	092
07 기계금속	092	091	128	047	065	089
08 바이오	108	110	068	215	133	095
09 의료기기	110	114	051	567	051	082
10 신소재 방재	106	099	117	092	115	127
11 문화관광	058	050	063	277	054	044
12 반도체	096	099	078	079	097	102
13 차세대전지	124	123	122	019	137	149
14 전기전자 융합부품	115	118	105	067	118	121
15 전자정보	130	134	124	038	133	133
16 첨단문화	083	090	064	060	079	077
17 농축산바이오	119	097	079	235	238	161



<표-15> 분석권역 광역시도별 전략산업 경쟁력 평가

(단위 %)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산업	접유율	LQ	산업	접유율	LQ	산업	접유율	LQ	산업	접유율	LQ	산업	접유율	LQ
01 정보통신	○	421	137	○	66	108					50	125		77	128
02 생명	○						44	311			86	218		96	161
03 문화콘텐츠	○														
04 물류	○			○	60			068							
05 부품소재	○	334	109		72	118									111
06 자동차				○	82	134							○		
07 기계금속				○	81	128									
08 바이오		338	110				○		215	○	53	133			
09 의류기기		351	114				○	80	567						
10 신소재 방재		303			72	117	○			○		115		76	127
11 문화관광							○	39	277						
12 반도체		303								○					102
13 자세대전기		378	123		75	122				○	54	137		89	149
14 전기전자 융합부품		361	118		64	105						118	○	73	121
15 전자정보		413	134		76	124						133	○	80	133
16 집단문화															
17 농축산바이오									235	○	94	238	○	97	161

주1)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발표한 광역시도 전략산업

주2) LQ계수는 10이상인 산업을 표시

분석결과 지역전략산업과 접유율 및 경쟁우위(LQ) 산업이 일치하는 시도는 경기도 정보통신, 인천시 정보통신 자동차 기계금속, 강원도 의류기기 문화관광, 충북 바이오 자세대전기 농축산바이오, 충남 전기전자 융합부품 전자정보 농축산바이오이며, 지역산업과 전략산업 간 차이점이 있는 산업으로는 경기도는 생명 문화콘텐츠 물류, 강원도 신소재 방재, 충북 반도체, 충남 자동차 등으로 분석되었다

V. 경기도와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1 인구 통계를 이용한 중심지 위계

중심지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시군구별 인구규모 비중과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시군구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유형구분은 점유율 및 성장률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제1유형에서 제3유형까지는 중심지 지역으로 위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성장률에 따른 중심지 위계는 제1, 2유형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표-16>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성 측정 및 중심지 선정

	중심지 위계 시 군 구
인구규모 기준	수원시(630), 성남시(560), 고양시(537), 용인시(507), 부천시(504), 안산시(418), 정주시(396), 안양시(357), 전안시(338), 부평구(324), 남양주시(315), 화성시(284), 남동구(271)
인구 성장률 기준	용인시(743), 시흥시(639), 고양시(638), 오산시(544), 광주시(525), 안산시(497), 군포시(492), 전안시(480), 남양주시(471), 화성시(552), 양주시(376)
중심지 선정 시 군 구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정주시, 안양시, 전안시, 부평구, 남양주시, 화성시, 남동구,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2 업종별 산업비중을 통한 중심지 위계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분석권역내 시 군 구별 종사자수 비중과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2000~2010)을 기준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시 군 구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유형구분은 점유율 및 성장률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1유형에서 제3유형까지는 중심지 지역으로 위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종사자수 기준 유형분류의 원칙을 보면 제1유형은 분석권역 전체 종사자수 대비 점유율이 40%이상 지역을, 제2유형은 30이상~40%미만 지역, 제3유형은 18이상~30%미만 지역으로 하였다 또한 연평균 성장률(2000~2010) 기준 유형분류는 제1유형은 60%이상, 제2유형은 50~60%, 제3유형은 40~50%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17> 산업 비중을 이용한 분석권역 중심지역

구분	중심지 위계 시 군 구
종사자수 기준	수원시(609), 성남시(552), 안산시(479), 화성시(473), 부천시(458), 용인시(423), 고양시(421)
성장률 기준	화성시(1034), 정원군(833), 광주시(824), 과주시(783), 안성시(685), 하남시(681), 아산시(656), 용인시(613), 전안시(386), 평택시(434)
중심지 선정 시 군 구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고양시, 정원군, 광주시, 과주시, 아산시, 용인시, 전안시, 평택시

3. 경기도 및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1) 분석권역 내 중심지 설정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위계 분석은 분석권역 시군구 인구규모와 종사자수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분석권역 내 경제권역 중심지역의 선정은 인구 및 종사자수 지표가 모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표가 큰 지역을, 시군구가 인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표가 큰 지역을 중심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지역은 1차적으로 분석된 인구 및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모든 시군구를 설정하였으며, 최종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역 시군구는 1차로 설정된 시군구를 기준으로 인구기준과 종사자수 기준을 모두를 충족하는 시군구와 지역적으로 2가지 충족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청주시와 양주시를 포함하여 최종 중심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인구기준, 종사자수 기준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나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지역여건상 중심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표-18>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지역선정

인구 기준			종사자수 기준			1차 선정 중심지 지역	경제권(2차) 중심지 지역
규모	성장률	선정지역(A)	규모	성장률	선정지역(B)	A+B	A=B, a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u>청주시</u>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부평구		부평구				부평구	부평구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오산시		오산시				오산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군포시		군포시				군포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양주시		양주시				양주시	<u>양주시</u>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하남시	하남시	하남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정원군	정원군	정원군	<u>춘천시</u>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u>원주시</u>

2) 중심지 주변지역 구분

중심지 주변지역 시군구를 구분하기 위해 ① 접근성 측면, ② 인구이동 측면, ③ 경쟁우위 업종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측면 등 3가지 기준을 전제로 중심지 주변지역을 구분하였다

첫째, 접근성 관련 주변 시군구는 중심지 지역에 행정구역이 접해있는 시군구를 1차 인접지역으로, 그 주변에 인접하여 있는 시군구를 2차 인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인구이동 관련 시군구는 중심지 지역과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경쟁우위 업종의 동일성은 중심지 지역의 경쟁우위 핵심 업종과 분석권역, 타 시군구의 경쟁우위 업종이 동일한 시군구를 선정하여 중심지 주변지역 시군구를 구분하였다

<표-19> 중심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변 시군구 현황

중심지 시군구	접근성 측면		인구이동 측면	경쟁우위 업종 측면	
	1차 인접	2차 인접		중심 업종	해당 시군구
수원시	화성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성남 과천, 안양	화성, 용인 안산, 안양, 성남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이천, 아산 증평, 정원, 수원, 전안 과주
고양시	김포 과주, 양주	의정부 동두전	과주, 부천, 용인, 성남 수원, 부평 서구 계양구	목재 종이제조업 가구 기타서비스업	과주, 김포 정원 서구, 광주 고양 포천 양주
용인시	광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수원	의왕 오산 여주	성남, 수원 화성, 광주 고양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이천, 아산 증평 정원, 수원 전안 과주
부천시	부평, 광명 시흥	안산 안양	시흥 고양 안산, 광명 수원	의료 정밀기기제조업 석유화학 고무제조업	정원 군포 안양, 부천, 진전, 의왕 음성, 김포, 화성 진전, 정운, 양주 포천
안산시	시흥 안양 군포 수원 화성	의왕 광명	시흥 수원 안양 화성 군포, 남동, 부평 남구	화학제조업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음성, 진전 안성 정원, 안산, 화성 시흥 양주 포천, 동두전 연천 하남, 안산 광주
청주시	정원 음성 진전 증평, 증주	전안, 안성 이천	정원 진전, 증주, 음성, 전안 수원 용인 성남 아산	의료 정밀기기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정원, 군포 안양 부천 진전, 의왕 여주 아산 음성 진전, 포천, 정원 광주
전안시	아산 평택 안성 진전 정원	당진 예산 정주, 증평	아산 당진 평택 수원 용인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음식료 담배제조업	이천 아산 증평 정원, 수원 전안 과주 음성 진전 이천 안성
부평구	계양, 동구 남구	서구, 연수	남구 남동구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동구 남동구 시흥 안산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춘천 하남	구리 의정부 성남 용인 고양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음식 숙박서비스업	양주 포천 동두전 연천, 하남 안산 광주 평장 가평, 양평 강화 화전 횡성 연수, 연천
광주시	하남, 성남 용인 이천 여주, 양평	남양주 구리	성남 용인 하남, 이천 남양주	가구 기타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여주, 아산 음성, 진전 포천 정원 광주
화성시	평택 용인, 오산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	자동차 장비제조업 석유화학 고무제조업	아산 시흥, 진전 동구 평택, 남동구
양주시	의정부 동두전, 포천, 연천 과주 고양	남양주	의정부, 동두전 고양 양주 과주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석유화학 고무제조업	포천 동두전 연천 하남
춘천시	가평, 양평 화전 홍천	남양주 포천 철원	원주 화전 남양주	농림어업 음식 숙박서비스업	화전 연천 횡성
원주시	양평 여주 증주 횡성	이천 음성	횡성 춘천, 평장	의료 정밀기기제조업 농림어업	성원 군포 안양 횡성 부천 진전 의왕

2)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역 설정

경제권역 설정은 중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 인구이동, 업종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20> 경제권역 설정 및 해당 시군구

중심지	접근성(1)	접근성(2)	인구이동	업종	1차 선정
① 수원시	화성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안양 오산 성남 과천	화성 안산 용인 안양 성남	 이천 아산 평정 원안 주과	화성(2) 의왕 군포 안산(3) 용인(2) 안양(2) 성남(2) 과천 이천
② 고양시	김포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과주 부천 성남 수원 부평 서구 계양구	김포 파주 양주 서구 광주 포천 정원	김포(2) 파주(3) 양주(2) 부평 서구 계양구
③ 용인시	성남 수원 광주 오산 이천 여주	화성	성남 수원	성남 수원	성남(2) 수원(2)
④ 부평구	계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천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동구 남동구 시흥 경택 아산 안산	계양구 동구2 남구2 남동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중심지	접근성(1)	접근성(2)	인구이동	업종	1차 선정
⑤ 부천시	부평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광명 안산 시흥 고양 수원	안양 군포 의왕 화성	부평 광명(2) 시흥 안산(2) 안양(2)
⑥ 안산시	시흥 안양 군포 수원 화성	의왕 광명	시흥 안양 군포 화성 남동 부평 남구	시흥 화성 하남 광주	시흥(3) 안양(2) 군포(2) 수원 화성(3)
⑦ 청주시	청원 음성 진천 증평 충주	천안 안성 천이	청원 음성 진천 증평 주안 수원 인남 성아 산	청원 음성 진천 아산	청원(3) 음성(3) 진천(3) 증평 충주(2) 천안(2) 아산(2)
⑧ 천안시	아산 평택 안성 진천 정원	당진 산주 경평 증평	아산 평택 당진 수원 인	아산 안성 진천 수원 이천 평원 성음	아산(3) 평택(2) 안성(2) 진천(2) 정원 당진(2) 예산 수원(2)
⑨ 남양주시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춘천 하남	구리 의정부 성남 인양 고향	양평 가평 포천 하남 동두천 연천 전천 연천	구리(2) 양평(2) 가평(2) 포천(2) 의정부(2) 하남(2)

중심지	접근성(1)	접근성(2)	인구이동	업종	1차 선정
⑩ 광주시	하남 성남 용인 이천 여주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용인 이천 남양주	여주 음성 진천 광주	하남(2) 성남(2) 용인(2) 이천(2) 여주(2) 양평 남양주(2)
⑪ 화성시	평택 용인 오산 수원 안산	군포 의왕	평택 용인 오산 수원 안산	평택 시흥 동구 남동구	평택(3) 용인(2) 오산(2) 수원(2) 안산(2)
⑫ 양주시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고양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하남	의정부(2) 동두천(3) 포천(2) 연천(2) 파주(2) 고양(2)
⑬ 춘천시	가평 양평 화천 홍천	남양주 포천 철원	화천 남양주 원주	화천 연천 횡성	가평 양평 화천(3) 홍천 남양주(2)
⑭ 원주시	양평 여주 충주 평성	이천 음성	평성 춘천 평창	평성 정원 군포 안양 부천 진천 의왕	양평 여주 평성(3)

<표-21> 분석권역 경제권역 설정

수원	고양	용인	부평	부천	안산	정주	천안	남양주	광주	화성	양주	준천	원주
화성2 의왕 군포 안산3 용인2	김포2 과주3 양주2	수원2	계양 동구2 남구2 남동	부평 광명2 시흥	화성3 군포2 시흥3 수원 안양	정원3 음성3 진전3 증평 증주2	정원 진전2 안성2 평택2 아산3 당진2 예산	구리2 양평2 가평2 포천2 의정2	용인2 양평	안산2 용인2 수원2 경택3 오산2	과주2 포전2 의정2 동두3 고양2	양평 가평 파전3 동전	중주 양평 여주 횡성3
안양2 성남2		성남2	서구 연수 계양	수원 화성3		천안		수원2	남양2			남양2	

분석권역의 55개 시군구는 13개의 소경제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9개의 대경제권역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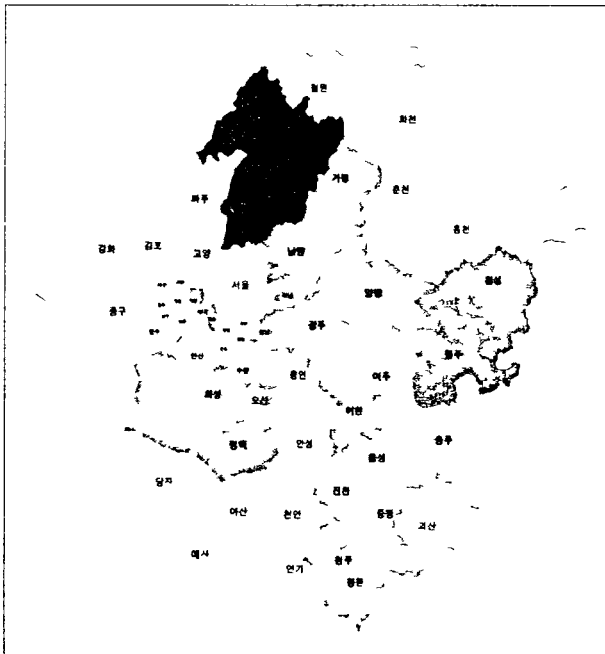
<표-22> 분석권역 1차 소권역 경제권역 설정

수원	안산	고양	부평	부천	전안	정주	남양주	광주	화성	양주	준전	원주
의왕	시흥	김포	계양	광명	안성	정원	구리	하남	평택	포전	화전	횡성
군포		파주	동구		아산	음성	양평	성남	오산	의정		평장
용인			남구		당진	진전	가평	여주		동두		
안양			남동		예산	증평		이천		연전		
과전			서구			증주						
			강화									
			중구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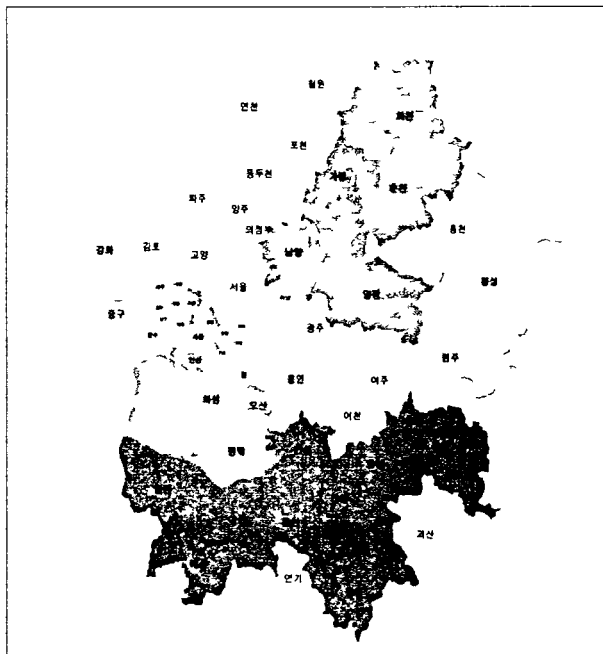
<표-23> 분석권역 2차 대권역 경제권역 설정

수원		고양 양주		부평	전안	정주권	남양주	광주	화성	부천	준전	원주
의왕	과전	김포	포전	계양	정원	안성	구리	하남	안산	광명	화전	횡성
군포	안양	파주	의정	동구	음성	아산	양평	성남	평택			평장
용인			동두	남구	진전	당진	가평	여주	오산			
			연전	남동	증평	예산		이천	시흥			
				서구	중주							
				강화								
				중구								
				연수								

<그림-1> 소경제권역도



<그림-2> 대경제권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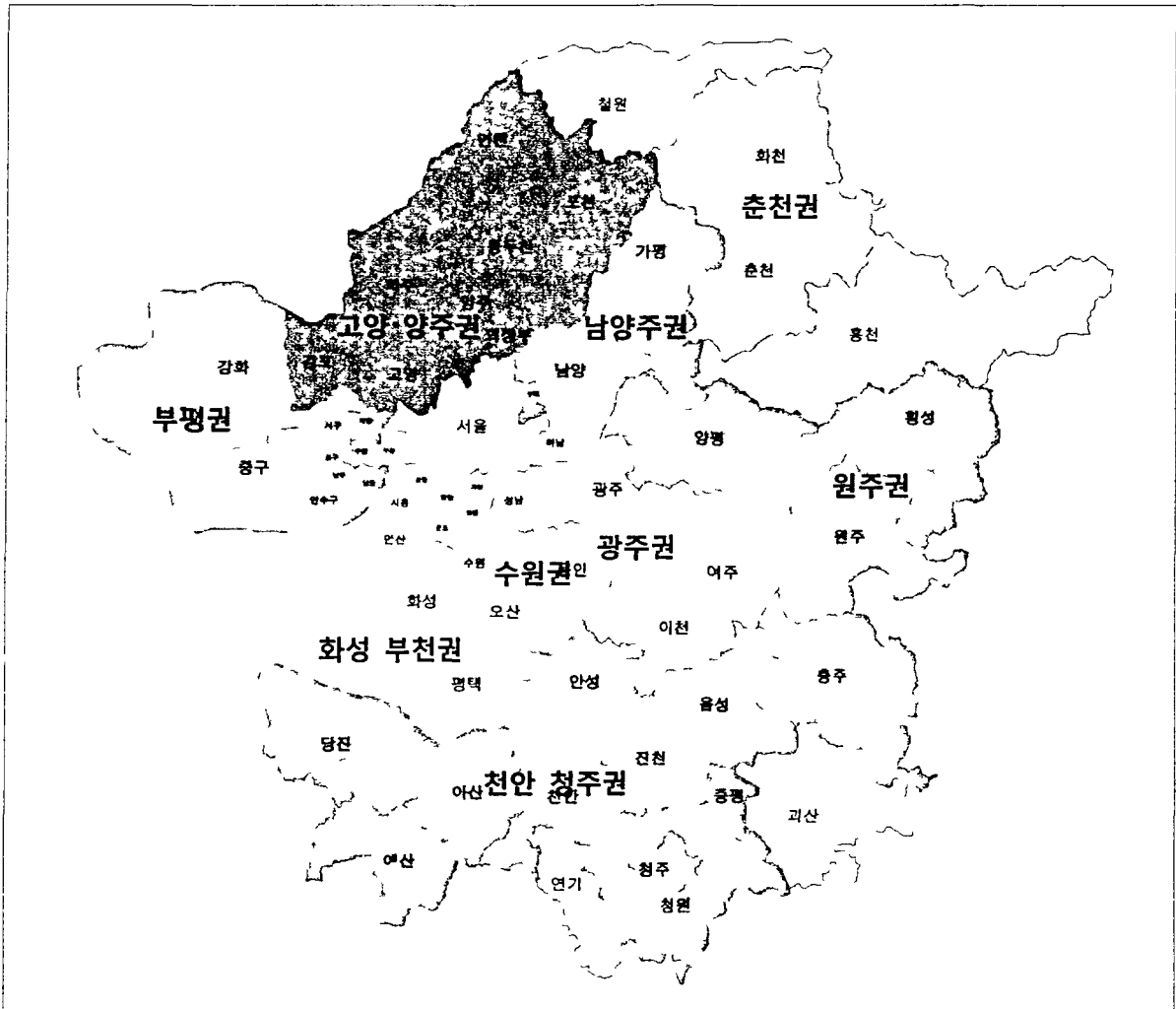


경기도 및 주변지역 최종 설정된 경제권역은 9개 권역(수원권, 고양 양주권, 부평권, 천안 정주권, 남양주권, 광주권, 화성 부천권, 춘천권, 원주권)으로 설정하였다 9개 권역에 포함된 각 시군구는 <표-24>와 같다

<표-24> 경기도 및 주변지역 경제권역별 시군구 현황

경제권역	해당 시군구
① 수원권	수원, 의왕, 군포, 안양, 과전, 용인
② 화성 부천권	부천, 화성, 광명, 안산, 평택, 오산, 시흥
③ 광주권	광주, 하남, 성남, 여주, 이천
④ 남양주권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⑤ 고양 양주권	고양, 양주, 김포, 과주, 포천, 의정부, 동두천, 연천
⑥ 부평권	부평구 계양구,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
⑦ 천안 정주권	천안, 정주, 안성, 아산, 당진, 예산, 정원, 음성, 진천, 증평, 중주
⑧ 춘천권	춘천, 화천
⑨ 원주권	원주, 횡성, 평창

<그림-3> 경기도와 인접지역 9개 경제권역도



4 설정 권역별 특성

(단위 명, %)

	점유율 ¹⁾		점유율 ²⁾ 상위 업종	특화업종 (입지계수)	자체 성장기여(명) ³⁾	
	인구	종사자			전국효과	순효과
수원권	178	170	전기 전자(96) 자동차 장비(18) 석유화학(12)	3차 산업(101) 전기 전자(280) 의료 정밀기기(217)	193,130	113,280
화성 부전권	197	219	자동차 장비(109) 전기 전자(91) 1차 금속(75)	2차 산업(208) 화학제조업(281) 전기 전자(267) 1차 금속(250)	239,904	184,768
광주권	95	102	전기 전자(60) 음식료 담배(26) 자동차 장비(20)	2차 산업(108) 가구 기타제품(231) 비금속광물(205) 의료 정밀기기(200)	100,540	135,037
남양주권	50	35	가구 기타(26) 1차 금속(23) 음식료(22)	3차 산업(107) 가구 기타(386) 음식료(136) 비금속광물(121)	37,663	35,089
고양 양주권	138	128	전기 전자(39) 섬유 의류(38) 1차 금속(39)	2차 산업(140) 가구 기타(364) 목재 종이(344) 섬유 의류(214)	135,296	130,993
부평권	157	146	자동차 장비(75) 1차 금속(59) 전기 전자(43)	2차 산업(137) 1차 금속(195) 가구 기타(178) 자동차 장비(164)	197,268	-38195
전안 정주권	144	160	전기 전자(101) 자동차 장비(67) 1차 금속(39)	2차 산업(178) 1차 산업(122) 비금속광물(297) 전기 전자(295) 화학제품(265)	176,972	128,356
준전권	18	16	음식료(16) 화학제품(08) 섬유 의류(05)	1차 산업(172) 2차 산업(117)	21,286	-104
원주권	23	23	음식료(33) 자동차 장비(33) 의료 정밀기기(13)	1차 산업(208) 2차 산업(107) 의료 정밀기기(257) 음식료(205)	29,633	1,200

주1) 인구 점유율은 2010년 기준이며, 권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주2) 2010년, 종사자수 기준

주3) 성장기여는 2000-2010년간 종사자수 기준

VI. 결론 및 연구한계

본 연구에서 경제권역 설정결과와 연구의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중심지 위계를 인구와 산업규모 등 2가지 지표로 설정하고, 2가지 지표 모두 만족하는 시군구를 중심지 위계로 선택하였다 선정된 중심지 시군구는 총 14개 시군구이며 선정된 14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인접성, 인구가동, 지역 간 물동량 이동, 특화산업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1단계 경제권역을 기초로 권역별 유사성을 파악하여 14개 소단위 경제권역을 9개로 축소하여 최종 9개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9개 경제권역은 수원권, 화성 부천권, 광주권, 남양주권, 고양 양주권, 부평권, 천안 정주권, 춘천권, 원주권이다 분석결과 천안, 아산, 청주, 청원 등이 평택, 화성, 수원과 인구 및 산업 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업종과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동일한 경제권역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뿐 아니라 충남의 천안, 충북의 정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정된 9개 경제권역의 인구규모는 춘천권, 원주권, 남양주권을 제외하면 150-300만명으로 대도시에 해당되며 국제경쟁력을 지닌 세계 대도시들의 인구와 유사하다 또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실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자체 도시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규모라 할 수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화성 부천권, 고양 양주권, 천안 청주권이 2차 산업 비중이 높아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분석되었으며, 광주권, 남양주권은 3차 산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로 분류되었다 지역특화를 나타내는 입지계수와 지역성장효과를 나타내는 변이 할당분석 역시 동일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계량적 분석에 의한 경제권역 설정이 아닌 지역통계자료를 활용한 경제권역 설정으로 통계지표 분석 상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통계 지표의 한계로 인하여 산업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이 아닌 사업체종조사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역특성과 유사성, 연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권역설정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동안 계획권역 설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본 연구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권역을 설정하여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수도권에서 벗어나 충남, 충북, 강원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 백

본 문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2 연구의 범위
- 3 선행연구 검토

여 백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0세기 말부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경제 정보화 세계화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4가지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경제 질서가 개편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으며, 국가 간 교류의 확대와 함께 국가 내부의 도시 및 지역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각 국가의 도시들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경제활동 네트워크로 인해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들과 인력 자본이 세계도시로 집적하고 있다 이러한 집적화 현상이 선진지역에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도시간의 경제적 차이를 점점 심화시키고 선진지역은 거대 도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거대화는 도시간의 공간적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각 도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생적 지역개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¹⁾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에 두고 둘러싸인 대규모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서울의 배후 지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기도는 서울이 확대되면서 배후 지원공간으로서 산업의 집중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전국의 타 시도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개발밀도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개발밀도 상승은 수도권 규제정책과 맞물려 경기도 인접지역의 개발압력을 가중시켜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의 시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및 인접지역의 개발은 수도권이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 생활권과 경제권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력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내부적 문제점으로 등장할 여지가 있다 특히 경기도내에서도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역 내 불균형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기도 인접 지역의 지역불균등으로 인한 지역 간 문제로 국가경쟁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책에 있어 지역 간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권역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단위인 경제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정책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구역 단위로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권 및 경제권과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정책으로 인하여 농촌과 도시, 도시 간 불균형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내부 지역 간 갈등으로 지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의 현실적인 계획권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 박삼욱(2009), 경제활동 공간변화와 광역경제권,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pp 31-32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권역 설정에 있어 필요한 지역 간 유사성과 독특성에 관련된 자료를 인용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권과 관계된 자료로 인구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산업관련 자료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 간 유사성과 독특성 파악을 위해 인구규모에 의한 지역위계 파악, 인구이동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산업과 관련하여 각종 지역경제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지역공간구조분석에 대한 분석기법은 첫째, 집중계수 등 각종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셋째 중심성 측정 등을 통한 공간권역 설정, 넷째 인구 및 산업패턴분석을 통한 방법 등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4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지역공간구조를 분석한 후 유효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및 인접시군을 포함하는 중규모의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산업분류는 총 23개 부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의 세분류에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조업은 중분류 위주로 서비스부문은 대분류 위주로 재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총 55개 시군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 용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체 시군구,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화천군 등 5개 시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4개 시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6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부득이 자료가 없거나 미진한 부분은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위한 분석기간은 인구관련 자료는 1990년에서 2010년으로 20년간이며, 산업관련 자료는 2000년과 2010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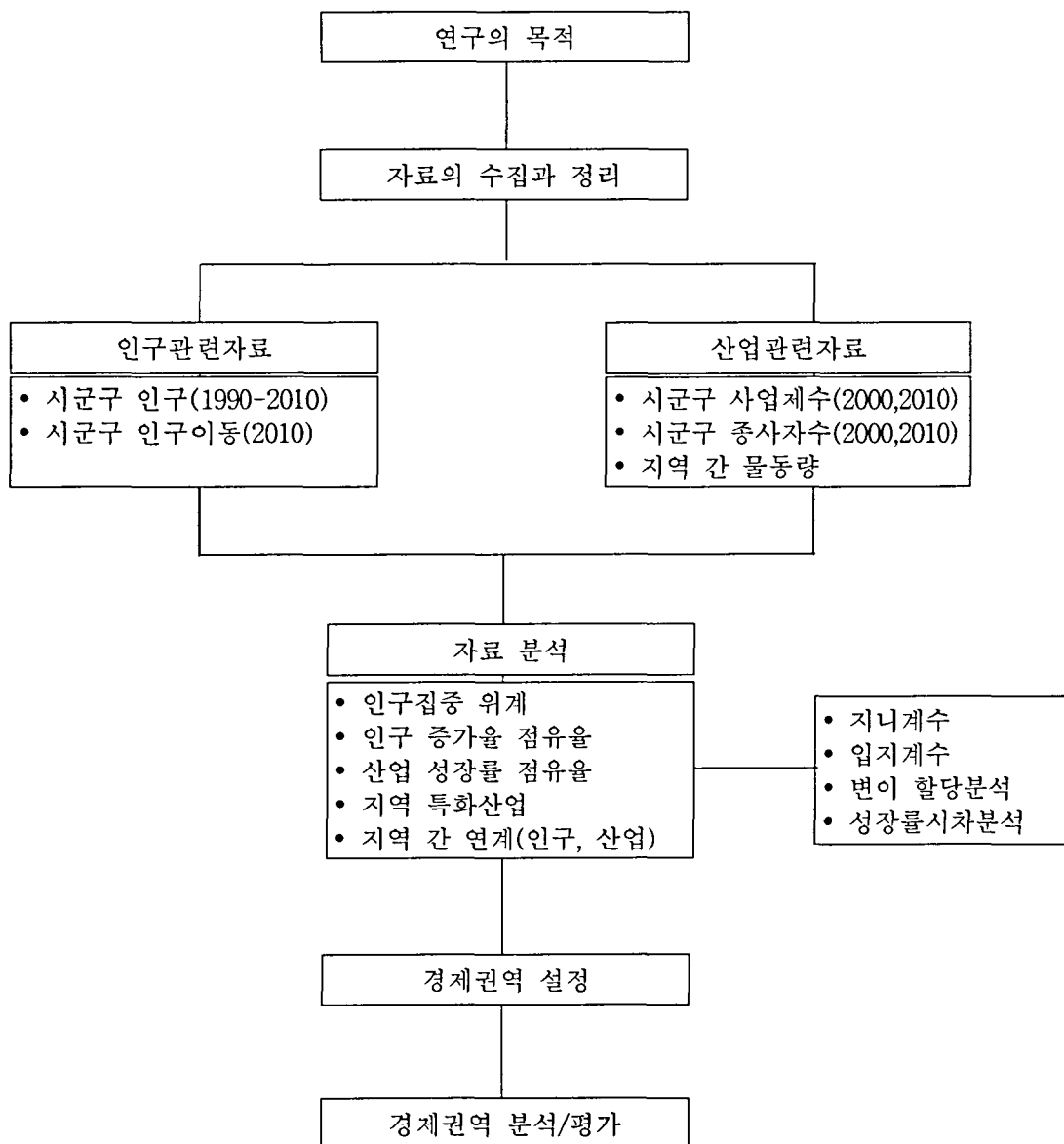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분석대상 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첫째, 지역공간구조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지역분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분포 분석을 통한 지역적 불균형이나 집중정도의 파악은 지역공간구조분석과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지역불균형 정도 분석은 인구, 소득, 산업 등에 관한 변수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지역경제 분석은 분석대상 시군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입지계수(LQ)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역의 성장률 분석은 변이 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을 통하여 각 산업이 지역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산출하였다

위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산출된 인구를 통한 지역위계와 인구이동, 지역특화산업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경제권역을 대상으로 산업점유율 분석을 통한 산업구조 파악, 입지계수(LQ) 산출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파악, 변이 할당분석을 통한 지역성장 기여도 산출 등을 통해 독자적 경제권역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즉 규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인구규모, 산업규모를 확보하고 있는가, 현재 국가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육성산업과 지역산업이 일치하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경기도와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통계를 이용하여 중심성 및 위계구분, 각종 지수의 측정, 성장기여도 산출 등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 결과와 함께 광역시도 전략산업 파악 등 정성적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지역공간구조내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시군구별 인구 및 산업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경제권역을 최종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구 및 산업지표 등의 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는 SPSS와 Arc View를 이용하여 통계분석과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 -1> 연구흐름도



3 선행연구 검토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인구이동, 인구밀도, 산업분포, 고용밀도, 통행패턴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회귀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과 같은 각종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성장요인의 분석과 지역특성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조상필(1995)은 지역발전의 주요 성장요인 연구에서 각종 지역성장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성장요인의 중요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공간구조분석에서 인구 및 산업분포패턴을 이용한 공간분석은 송철호(1997)가 한국도시성장과정과 모형의 연구에서 산업고용성장, 산업패턴을 이용하여 도시성장의 모형을 유형화하였다 이외희(2000)는 경기도내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산업 및 인구이동원인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서종국(1998), 송미경(1997, 1998)은 통행패턴 및 고용밀도 연구를 통하여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²⁾

국내에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태일(1982)은 인천, 경기지역의 16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도시적 성격의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를 만족하고 통합성의 1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 지역은 중심도시의 도시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서울 주변지역을 설정하는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최진호 이종렬(1984)은 서울 주변의 시군을 분석단위로 대상지역 중 3가지의 동질성 지표와 2가지의 도시성 지표를 합한 5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군지역을 서울의 근교지역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개별지표를 종합화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이희연 송중홍(1995)은 시읍면을 분석단위로 서울과의 기능적 연계를 나타내는 12개 지표와 10개의 도시성 지표를 이용하여 서울대도시권의 권역을 설정하였다 이때 각 영역별 종합점수는 각 지표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 후 모든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권용우(2001)는 서울시, 인천시는 각각을 하나의 단위로, 경기도는 시군을 단위로 하여 연계성, 도시성, 제도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광역수도권을 설정하였다 노경수(2001)는 광주광역시를 중심도시로 하는 1개 시와 6개 군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시 주변 교외지역의 광역도시권 포함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계성과 도시성을 결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권원용(1985), 이희연 송중홍(1995), 노경수(2001) 등으로 연계성 지표와 도시성 지표를 입력변수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제1요인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지역을 광역도시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진호 이종렬(1984), 권용우(2001) 등은 연계성과 도시성 지표 중에서 각각 일정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지표의 수에 의해서 해당지역의 광역도시권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종국(1997)은 불균등 지수 척도로써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앳킨수지수(Atkinson measure), 바키측정치(R, Bachu)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³⁾

이상의 선행연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각 개념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몇 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광역도시권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 역시 인구관련지표와 산업관련지표를 이용하여 연계성과 독특성을 일정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타 연구에 비하여 보다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관점에서 차별화하였다

2) 하장현(2007), 기능적 공간적 측면에서의 경남지역 공간계획권역의 설정, “도시행정학보 제20호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p85

3) 신윤철(2003), 지역권역 설정에 있어서 지역간 연결도와 도시화도의 측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7-29

II. 분석권역 경제권역 구분 기준설정

1. 산업분류의 조정
2. 경제권역 시군구 선정
- 3 분석이론과 분석방법

여 백

II. 분석권역 경제권역 구분 기준설정

1 산업분류의 조정

본 연구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 통계청 고시 2007-53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0년(KSIC 8차)은 9차 산업분류를 적용하였다 부문 통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연구에 필요한 2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표II-1> 산업분류 부문통합 기준

본 연구	중분류	9차 개정	8차 개정
01 농림어업(광업포함)	01 농림어업 02 광업	011-015, 03, 031-032, 051-052, 051-052, 071-072, 080	011-015, 03, 051-052, 101-102, 111-112, 121-122
02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03 식료품제조업 04 음료제조업 05 담배제조업	101-108 111-112 120	151-154 155 160
03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06 섬유제품제조업 0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08 가죽 가발 및 신발제조업	131-139 141-144 151-152	171-179 181-182 191-193
04 목재 및 종이제조업	0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0 고품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1-163 171-179 181-182	201-202 211-212 222-223
05 석유화학 고무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1-192 221-222	231-232 251-252
06 화학제조업	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4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01-205 211-213	241-243
0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239	261-269
08 1차금속 및 금속제조업	17 1차 금속제조업 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1-243 251-259	271-273 281-289
09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19 전자부품 컴퓨터 21 전기장비제조업	261-265 281-289	321-323, 300 311-319, 265
10 정밀기기제조업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1-274	331-334
11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	2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4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291-292 301-303 311-319	291-293 341-343 351-359
12 가구 및 기타제조업	25 가구 제조업 26 기타 제품제조업	320 331-339	361 339
13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	2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8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51-353, 300 370, 381-383, 300	401-403, 410 901, 902
14 건설서비스업	29 건설업	411-412, 421-425	451-452, 461-465
15 도소매서비스업	30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31 도매업 32 소매업	461-463 461-468 471-479	501-509 511-519 521-529
16 물류서비스업	33 운수업	491-495, 501-502, 511-512, 521-529	601-604, 611-612, 621-622, 632-639
17 음식 숙박서비스업	34 숙박업 35 음식점 및 주점업	551-559 561-562	551 552
18 문화서비스업	36 출판업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81-582 701-702, 711-715, 721-729 731-739 901-902, 911-912	721, 722 731-732, 741-749, 873 881-889
19 정보통신서비스업	37 영상 및 통신업 38 정보서비스업	591-592, 601-602, 611-612, 630, 631-639	871, 872, 641-642, 721, 723-729
20 금융보험서비스업	39 금융 및 보험업	641-649, 651-653, 661-662	651-659, 660, 671-672
2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81-682, 691-694 741-743, 751-759 941-949, 951-953, 961-969	701-702, 711-713, 751-759, 630, 911-919, 921-923, 931-939
22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1-845	761-765
23 교육 및 사회보장서비스업	44 교육서비스업 45 보건업 46 사회복지서비스업	851-857 861-869 871-872	801-809 851-852 861-862

2. 분석권역 시군구 선정

분석권역 내 행정구역 개편은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이후 국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3년 도농지역인 포천군과 양주군이 시로 승격되었으며, 충남은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Ⅱ-2> 권역 광역시 도 행정구역 개편 현황

연도	경기	인천	충북	충남
1990			증평출장소 설치	계룡출장소 설치
1991			제원군→제천군 변경 증주시 증원군 통합 →증주시 제천시 제천군 통합 →제천시	
1992	고양군→고양시 승격			
1993			증평출장소 →증평군 승격	
1995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평택시 미금시 남양주시 통합→남양주시	인천직할시 →인천광역시 승격 자치구설치 -북구 -남구 경기도 강화군 →인천광역시 편입		공주시 공주군 통합 →공주시 대전시 보령군 통합 →보령시 온양시 아산군 통합 →아산시 서산시 서산군 통합 →서산시 천안시 천안군 통합 →천안시
1996	용인군→용인시 승격 파주군→파주시 승격 이천군→이천시 승격			논산군→논산시 승격
1998	안성군→안성시 승격 김포군→김포시 승격			
2001	화성군→화성시 승격 광주군→광주시 승격			
2003	포천군→포천시 승격 양주군→양주시 승격			계룡출장소 →계룡시 승격
2011				당진군→당진시 승격

자료 각 광역시도 행정구역변천사, 각 광역시도 홈페이지, 2012 7

경기도 인접 시 군은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며 서울특별시는 자체 경제력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특히 경기도와 인접한 광역시 도 중 행정구역과의 인접성, 생활권,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 군을 설정하였다⁴⁾

4)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2012 7)의 행정구역으로 재정리하

설정된 55개 시군구로는 경기도 27시 4군, 인천광역시 8구 1군, 강원도 2시 4군, 충청북도 2시 4군, 충청남도 3시 1군으로 총 34시 8구, 13군이다

<표Ⅱ-3> 분석 권역 선정 시 군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2010년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1990년
수원시	수원시	중구	중구	춘천시	춘천시	청주시	청주시	천안시	천안시
성남시	성남시	동구	동구	원주시	원주시	충주시	충주시	아산시	아산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남구	남구	평성군	평성군	청원군	청원군	당진시	당진군
안양시	안양시	연수구	연수구	평장군	평장군	진천군	진천군	예산군	예산군
부천시	부천시	남동구	남동구	화천군	화천군	음성군	음성군		
광명시	광명시	부평구	부평구			증평군	증평군		
평택시	평택시	계양구	계양구						
동두천시	동두천시	서구	서구						
안산시	안산시	강화군	강화군						
고양시	고양시								
과천시	과천시								
구리시	구리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오산시	오산시								
시흥시	시흥시								
군포시	군포시								
의왕시	의왕시								
하남시	하남시								
용인시	용인시								
파주시	파주시								
이천시	이천시								
안성시	안성시								
김포시	김포시								
화성시	화성군								
광주시	광주군								
양주시	양주군								
포천시	포천군								
여주군	여주군								
연천군	연천군								
가평군	가평군								
양평군	양평군								
27시 4군		8구 1군		2시 3군		2시 4군		3시 1군	

여 이용하였다

3 분석이론과 분석방법

1) 설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공간구조란 도시의 구성요소들과 그들이 맺고 있는 기능적 관계 및 분포패턴을 지칭하며, 공간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질서를 이루면서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입지적으로 배열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⁵⁾ 국가의 행정구역 단위인 공간구조의 규모는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측면, 계획권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계획권역이란 Vanhove and Klaassen는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이라 정의하였으며 Boudeville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보이는 지리적 범위로 보는 반면, Keeble은 지역내 고용과 인구배치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를 지닌 지리적인 범위로 정의하였다 Klaassen에 의하면 계획권역은 일반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지역 내 산업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동질적인 경제구조와 성장거점을 지녀야 하며, 지역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대처방안을 가질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 하였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권역을 고용창출, 소득극대화, 지역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역개발의 보편적 또는 특수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정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기존의 행정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에서 계획권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첫째 행정구역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개발자원의 분포지역과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며, 둘째 변화하는 지역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계획에서 계획권역은 국토개발의 목표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공간단위이자,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개발을 조정 통합하는 공간단위이므로, 합리적인 권역설정은 국토계획의 전제조건이자, 중요한 물리적 조성수단이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 같은 공간계획이 수립되는 한, 계획권역은 이를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지역개발을 통합 조정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region)이란 내적으로 동질성(homogeneity)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성(uniqeness)을 가진 공간 단위이다 계획권역은 지역의 속성에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정책수단이 강구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연속된 공간으로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정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계획권역은 경제성(생활권, 경제권, 도시권)과 지역성(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과 유대감)으로 구성된다

계획권역의 설정기준은 첫째 연계성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와의 통근통합 등 통행량을 의미하며, 둘째 접근성 지표로서 공간적 거리 및 시간적 거리를, 셋째 중심성 지수로 중심도시의 중심기능 측정 및 세력권으로 설정된다 공간구조분석기법으로는 ① 집중계수 등 각종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⁷⁾ ②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③ 중심성 특정 등을 통한 공간권역 설정, ④ 인구 및 산업패턴분석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⁸⁾

5) 1)의 전제서, p18

6) 이용우(1999), 계획권역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9

7) 인구, 소득, 산업을 통한 집중지수, 지니계수, 앳킨수지수, 산업에 대한 집중계수, 특화계수

8) 2)의 전제서, p85

2) 지역경제 분석기법

(1) 지역격차 분석방법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에는 지니계수, 타일지수, 변이계수, FGT지수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불균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니계수 요인분해와 타일지수의 분해가 적용될 수 있으며, 타일지수 분해는 총량적 격차를 부문 간 요인과 부문 내 요인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산업별 불균등기여도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격차분석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와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니계수(Gini index)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통해 산출되며,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할 경우 하위 몇 %의 사람들이 갖는 소득의 합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이다. 지니계수의 값은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초승달 모양을 한 부분의 면적을 대각선을 빗면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과 일치한다. n개의 지역에 대해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지니계수 G는 다음과 같은 일반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G = \frac{\Delta}{2\mu}$$

$\mu = \text{평균}$

여기에서 μ 는 지역전체에 대한 각각의 변수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Δ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Delta = \frac{1}{N(N-1)} \sum_{i=1}^N \sum_{j=1}^N |Co_{v_i} - Co_{v_j}|$$

$Co_{v_{ij}}$ i, j번째 변수값
 $N = \text{변수 개수}$

위식은 변수 각각의 지표 값에 대해서 임의의 두 지역 간 격차의 절대 값을 모두 더한 후 개별 편차들의 총 개수(N^2)에서 편차의 값을 0이 되게 하는 $i=j$ 의 경우(n가지)를 제외한 $n(n-1)$ 로 나누어 계산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니계수는 기수적 성격을 갖지만 상대적인 평균격차로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서수적 성질도 함께 지닌다⁹⁾

(2) 특화산업(비교우위) 분석

지역별 산업의 특화정도를 파악하는 계수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입지계수(LQ)이다.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 구성비를 전국의 동일산업 구성비와 비교하여 지역 내에서의 특정산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9) 김선기, 박승규(2008), 지역간 경제성장격차 변화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26-27

$$LQ = \frac{x_n / \sum x_{ri}}{X_i / \sum X_i}$$

여기서 x_{ri} r 지역의 i 산업 생산액
 X_i 전국의 i 산업 생산액

즉 전국의 전산업 생산액에 대한 i 산업의 생산액 비율과 r 지역의 전산업 생산액에 대한 i 산업의 생산액 비율을 비교하여 당해 지역의 각 산업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높고 낮은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특정지역의 i 산업은 전국의 i 산업에 비해 특화되어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산업이 되고, 1보다 작으면 타 지역에서 이입되는 산업이 된다 입지계수(LQ)가 1이면 타 지역으로부터 이입 이출이 없고 전국 평균 수준과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해당 업종의 상대적 경쟁력 비교우위를 측정할 수 있다 즉 단위당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경쟁력 지수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해당업종에 대한 특정지역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판단한다¹⁰⁾ 입지계수 분석은 특정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의 고용정도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지역에서의 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적 기반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고용정도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¹⁾

변이 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는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전국의 산업성장효과, 지역의 산업구조효과, 그리고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성장률 사이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파급효과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역성장률을 국가경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나타난 성장격차를 편의에 따라 국가성장효과와 산업혼합효과 및 지역할당효과 등으로 구분한다 전국산업성장효과(GR)는 일정기간동안 i 지역 j 산업부문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의 변화량 중에서 국가전체의 성장으로 유발된 변화분을 의미한다 즉 i 지역 j 산업이 전국의 총생산 혹은 총고용인구의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나타나는 i 지역 j 산업성장의 전국성장효과이다 이것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 무관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성장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¹²⁾

이를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Delta E_{ij} = E_{ij}(t) - E_{ij}(0)$$

여기서, ΔE_{ij} 기준년도(0)부터 대비년도(t)사이의 i 지역 j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의 변화량

$E_{ij}(t)$ 대비년도(t)의 i 지역 j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E_{ij}(0)$ 기준년도(0)의 i 지역 j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10) 일반적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한 경쟁력 지수는 종사자 1인당 생산액 및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경쟁력지수가 1보다 큰 업종의 경우를 해당지역의 경쟁력 비교우위 업종으로 판단한다

11) 김기홍 외 3인(1996), 『도시 및 지역경제학』, 진영사, p591

12) 김상호(2006), “전북지역성장의 구조적 분석Ⅱ(1995-2004) 입지상과 변이 할당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pp5-8

이 때, 0년부터 t 년 사이에 전국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의 증가율(GR)은 다음과 같이 된다

$$GR = \frac{E(t) - E(0)}{E(0)}$$

여기서, $E(0)$ 기준년도(0)의 전국(전 지역의 전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E(t)$ 대비년도(t)의 전국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그러므로 ΔE_{ij} 중에서 차지하는 전국성장효과 NGE_{ij} 는 다음과 같게 된다

$$\begin{aligned} NGE_{ij} &= E_{ij}(0) \cdot GR \\ &= E_{ij}(0) \cdot \left\{ \frac{E(t)}{E(0)} - 1 \right\} \end{aligned}$$

산업구조효과(IME_{ij})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j 산업 성장률에서 전체산업의 성장률을 감한 j 산업부분의 순 성장이 i 지역 j 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효과를 말한다

$$IME_{ij} = E_{ij}(0) \cdot \left\{ \frac{E_j(t)}{E_j(0)} - \frac{E(t)}{E(0)} \right\}$$

여기서, $E_j(t)$ 대비년도(t)의 전국 j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E_j(0)$ 기준년도(0)의 전국 j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산업구조효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만일 i 지역이 많은 급성장 산업과 적은 저성장 산업으로 특징지어져 있다면, 그 지역은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역성장률은 전국의 그것을 초과할 것이다 반면에 지역의 산업구조가 보다 저성장의 산업구조를 가졌다면, 지역의 성장률은 전국의 그것보다 낮을 것이다 산업구조효과는 특정지역이 전국의 급성장 혹은 저성장 산업으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의 성장과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의 전문화 정도가 평균 이상일 때에는 정(+)의 값을 가지나(이 값이 크면 클수록 산업구조는 양호하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부(-)의 값을 갖는다 지역할당효과(RSE_{ij})는 전국의 여타지역에 대비한 i 지역의 경쟁적 가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예컨대 시장의 입지, 수송의 편의, 인구유입, 기타 산업입지요소 등 그 지역의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국의 j 산업에 비하여 i 지역의 j 산업이 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즉 지역할당효과는 지역간 경쟁력을 통한 지역성장에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RSE_{ij} = E_{ij}(0) \cdot \left\{ \frac{E_{ij}(t)}{E_{ij}(0)} - \frac{E_j(t)}{E_j(0)} \right\}$$

총 변화효과(total change effect)란 전국산업성장효과 식의 ΔE_{ij} 를 말하는 것으로, i 지역 j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변화효과는 상기한 세 효과들의 합으로 나타난다

$$TCE_{ij} = \Delta E_{ij} = E_{ij}(t) - E_{ij}(0)$$

$$= NGE_{ij} + IME_{ij} + RSE_{ij}$$

이 값이 정 혹은 부의 값을 가짐에 따라 i 지역 j 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의 증가 혹은 감소 여부, 즉 i 지역 j 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순 상대변화효과(net relative change effect)는 그 지역의 총 변화효과 중에서 국가의 성장으로 유발된 효과를 감한 순수하게 그 지역 자체의 성장력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13)

$$\begin{aligned} NRCE_{ij} &= TCE_{ij} - NGE_{ij} \\ &= IME_{ij} + RSE_{ij} \end{aligned}$$

지역성장률시차분석(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은 변이 할당분석으로 부터 발전된 것으로 각 산업부문별 성장률에 그 산업부문의 구성비를 가중시킴으로서 구해지는 지역의 실질변화성장률(RR)과 전국의 실질변화성장률(NR)과의 차이로 계산된다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은 지역고용성장률과 전국고용성장률의 차이를 총고용의 순 변화(net shift)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다시 순 고용시차변화(net differential shift)와 순 비례변화(net proportionality shift)로 나눌 수 있다 14)15)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은 변화할당분석이 지닌 약점을 배제하고 산업별 성장기여도를 성장률로 나타낸 분석도구가 바로 성장률시차분석으로 성장률의 가중치와 비례치로서 표현된 산업별 기여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주고 있어서 각 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Henderson(1962)은 지역의 총성장률시차는 j 지역의 1째 산업의 실질성장률과 전국의 1째 산업의 실질성장률간의 차로 설명하고 이렇게 계산된 총성장률 시차를 경쟁력요인(rate part)과 가중요인(weight part)으로 구분하였다 16)

$$TR = RR - NR = \rho + RP$$

여기서 TR = 지역총성장률 시차
 NR = 전국실질변화성장률
 RR = 지역실질변화성장률

$$RR = G_{ij} \left(\frac{B_{ij0}}{B_{ojo}} \right),$$

$$NR = G_i \left(\frac{B_{ioo}}{B_{ooo}} \right),$$

$$WP = \left(\frac{B_{ij0}}{B_{ojo}} - \frac{B_{ioo}}{B_{ooo}} \right) G_i$$

13) 12)의 상계서, pp5-8

14) 순고용시차는 어떤 산업부문에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 순시차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역은 시장과 자본자원에서의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장시차이고 순시차변화는 전국적으로 어떤 산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급속히 성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장시차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저성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산업에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부(-)의 성장시차를 그리고 성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산업에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정(+)의 성장시차를 나타낸다

15) 원구환 신원부(2004), 도시산업구조와 성장률 시차분석, 한국행정학회, p326

16) 15)의 상계서, pp 327-328

$$RP = (G_{ij} - G_i) \left(\frac{B_{ij0}}{B_{ojo}} \right)$$

- 여기서 B_{ooo} = 기준년도 전국 전산업 사업제수
 B_{ioo} = 기준년도 전국 i 산업 사업제수(부가가치)
 B_{ojo} = 기준년도 j 지역 전산업 사업제수(부가가치)
 B_{ijo} = 기준년도 j 지역 i 산업 사업제수(부가가치)

가중요인¹⁷⁾은 기준년도의 j 지역의 i 재 산업구성비와 전국의 i 재 산업 구성비간의 차를 전국의 i 재 산업의 성장률로 곱한 것으로 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구성비가 크고 저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구성비가 적을 때 나타나는 유리한 조건으로 인한 성장요인이다 경쟁력요인은 i 재 산업의 지역성장률과 전국성장률의 차를 기준년도의 지역 i 재 산업의 구성비로 가중한 것으로 산업구조의 유리성을 감안한 후 지역의 i 재 산업이 타 지역의 그것에 비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장효과이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과 성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산업의 전문화와 성장률 산업구조와 연계하여 산업구조별 지역경제성장의 구조적 분석과 장래예측 및 지역성장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성장 원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해당도시의 성장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 성장률시차분석이다 이 기법은 변화할당분석과는 달리 각 산업의 지역성장효과에 대한 기여도를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중효과와 경쟁력 효과가 양(+)이며 그 값이 큰 산업이 그 지역의 산업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중점 육성산업이라 할 수 있다¹⁸⁾

17) 가중요인과 결정요인은 변이할당분석에서 산업구조효과 및 지역할당효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성장효과는 일정기간동안 j 지역의 1재 산업부문의 고용증가를 중에서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으로 유발된 고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산업구조효과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1산업부문의 평균성장률을 감안 1산업부문의 순성장이 j 지역 1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고용량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그 지역의 산업구조 즉 산업복합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의 전문화도가 평균이상인 때는 정(+)의 값은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의 값은 가진다

18) 15) 16)의 전게서 p328

여 백

Ⅲ. 분석권역 인구구조 분석

1. 분석권역 시군구별 인구분포
2. 분석권역 인구의 집중과 지역격차분석
3. 분석권역 인구이동분석

여 백

Ⅲ. 분석권역 인구구조 분석

1 분석권역 시군구별 인구분포

경기도 인접 광역시도의 인구를 보면 경기도는 1990년 606만명에서 2010년 1,120만명으로 연평균 3.11% 증가하였다. 동 기간 인천시는 189만명에서 263만명으로 연평균 1.67% 증가하였으며, 충북도는 13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0.37% 증가하였다. 그러나 강원도는 15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연평균 0.38% 감소하였고, 충남도 역시 201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연평균 0.03% 감소하였다.

<표Ⅲ-1> 광역시도별 인구분포

(단위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 '90-'10
		%		%		%		%		%	
전 국	43,390	100.0	44,554	100.0	45,985	100.0	47,041	100.0	47,991	100.0	0.51
권 역	12,935	29.8	14,567	32.7	16,192	36.8	17,653	37.5	18,788	39.1	1.88
경기도	6,063	14.0	7,638	17.1	8,938	19.4	10,341	22.0	11,196	23.3	3.11
인천시	1,890	4.4	2,304	5.2	2,466	5.4	2,518	5.4	2,632	5.5	1.67
강원도	1,580	3.6	1,465	3.3	1,485	3.2	1,461	3.1	1,464	3.0	-0.38
충북도	1,389	3.2	1,395	3.1	1,463	3.2	1,454	3.1	1,496	3.1	0.37
충남도	2,013	4.6	1,765	4.0	1,840	4.0	1,879	4.0	2,000	4.2	-0.03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각 년도

경기도 인접 광역시도의 20년간(1990-2010)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전국 연평균 증가율 0.51%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도(3.11%), 인천시(1.67%)이며, 강원도와 충남은 0.38%와 0.03%가 감소하였다. 특히 국가경제 호황기인 1990-1995년과 2000-2005년은 인천과 경기도는 증가율이 높은 반면 강원과 충북 등 지방지역은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경제위기 기간인 1995-2000년은 강원, 충북, 충남은 인구증가율이 타 기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경제 호황기에는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며, 불황기에는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2> 광역시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990-2010)

(단위 %)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1990-2010
전 국	0.53	0.63	0.46	0.40	0.51
권 역	2.40	2.14	1.74	1.25	1.88
경기도	4.73	3.19	2.96	1.60	3.11
인천시	4.04	1.37	0.41	0.89	1.67
강원도	-1.49	0.26	-0.32	0.04	-0.38
충북도	0.09	0.94	-0.12	0.57	0.37
충남도	-2.60	0.84	0.42	1.26	-0.03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각 년도

분석권역 권역별 인구분포는 2010년 기준 전국대비 348%이며, 이중 경기권역이 233%, 인천 권역 55%, 중북권역 25%, 중남권역 22%, 강원권역 14%의 순이다

<표Ⅲ-3> 분석권역별 인구분포 (단위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 '90-10
		%		%		%		%		%	
전 국	43,390	100.0	44,554	100.0	45,985	100.0	47,041	100.0	47,991	100.0	0.51
권역전체	10,062	23.2	12,219	27.4	13,915	30.3	15,533	33.0	16,722	34.8	2.57
경기권역	6,063	14.0	7,638	17.1	8,938	19.4	10,341	22.0	11,196	23.3	3.11
인천권역	1,890	4.4	2,292	5.1	2,453	5.3	2,505	5.3	2,618	5.5	1.64
강원권역	563	1.3	585	1.3	625	1.4	643	1.4	681	1.4	0.96
중북권역	910	2.1	1,009	2.3	1,089	2.4	1,125	2.4	1,178	2.5	1.30
중남권역	637	1.5	696	1.6	811	1.8	919	2.0	1,050	2.2	2.53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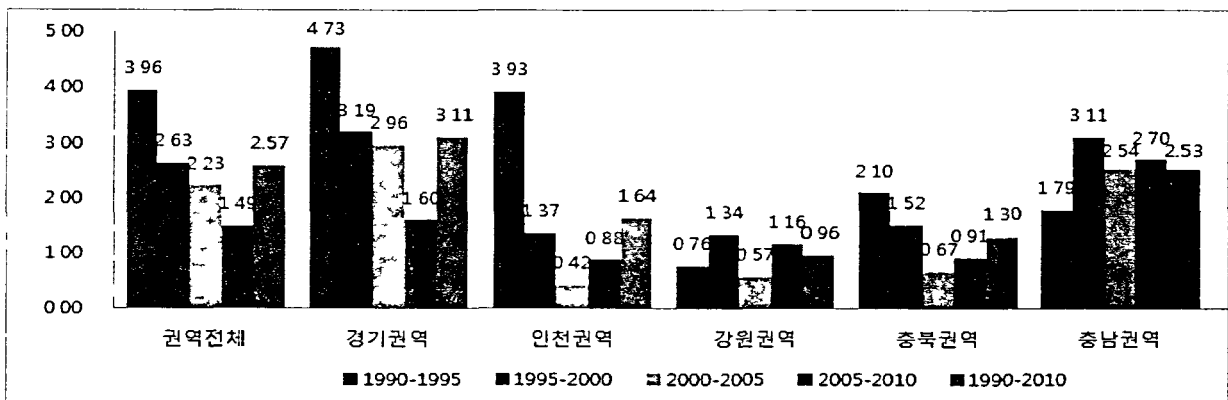
분석권역의 1990-2010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며 1990-2010년까지 5년 간격 인구증가율은 1990-1995년 3.96%에서 2005-2010년 1.49%로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충남은 1990-1995년 1.79%에서 2005-2010년은 2.70%로 증가하였다 즉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경기와 인접한 권역은 증가하여 경제권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4> 분석권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990-2010) (단위 %)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1990-2010
전 국	0.53	0.63	0.46	0.40	0.51
권역전체	3.96	2.63	2.23	1.49	2.57
경기권역	4.73	3.19	2.96	1.60	3.11
인천권역	3.93	1.37	0.42	0.88	1.64
강원권역	0.76	1.34	0.57	1.16	0.96
중북권역	2.10	1.52	0.67	0.91	1.30
중남권역	1.79	3.11	2.54	2.70	2.53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각 년도

<그림Ⅲ-1> 분석권역별 인구증가율(1990-2010) (단위 %)



권역 내 1990~2010년까지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평균 증가율은 경기(3.11%), 충남(2.53%), 인천(1.64%), 충북(1.30%), 강원(0.96%) 순으로 수도권 인접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인접지역과 대도시는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외곽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1990-2010년까지 시군구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경기도는 용인(7.43%), 시흥(6.39%), 고양(6.38%), 오산(5.44%), 광주(5.25%) 등 신도시 및 산업 중심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양평(0.30%), 여주(0.15%), 광명(-0.03%), 가평(-0.06%), 연천(-1.86%) 등 외곽 및 농촌지역은 낮게 나타나 심각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중심지가 밀집된 구 단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화 등 외곽지역은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원주(1.77%), 춘천(1.10%)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감소하였으며, 충북도는 정주를 중심으로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개발붐을 타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남은 천안(4.80%), 아산(2.42%) 등 대도시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산업지역으로 부상한 당진(0.12%)의 인구가 증가추세로 변화되었다

<표Ⅲ-5> 분석권역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가율(1990-2010)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평균증가율	권역(2.96)	권역(1.57)	권역(0.78)	권역(1.24)	권역(2.61)
50% 이상	용인(7.43) 시흥(6.39) 고양(6.38), 오산(5.44) 광주(5.25)	-	-	-	-
30~50% 미만	안산(4.97), 군포(4.92), 양주(4.71), 화성(4.52), 양주(3.76) 의정부(3.25) 김포(3.10)	-	-	-	천안(4.80)
10~30% 미만	파주(2.70), 성남(2.65), 구리(2.52) 수원(2.37), 안성(1.91), 의왕(1.88) 평택(1.63), 하남(1.47), 이천(1.25) 동두천(1.13), 부천(1.11), 안양(1.03), 포천(1.00)	서구(2.53) 남동구(1.88) 계양구(2.20) 부평구(1.41) 연수구(1.22)	원주(1.77) 춘천(1.10)	정주(1.57) 정원(1.02)	아산(2.42)
0~10% 미만	양평(0.30), 여주(0.15)	중구(0.06)		진천(0.89) 음성(0.43) 충주(0.19) 증평(0.04)	당진(0.12)
0~-10% 미만	광명(-0.03), 가평(-0.06), 과천(-0.41)	남구(-0.50)	철원(-0.94)		
-10%이하	연천(-1.86)	강화(-1.13) 동구(-2.51)	횡성(-1.21) 경장(-1.68) 화천(-1.28)		예산(-2.40)

2 분석권역 인구의 집중과 지역격차분석

지역공간분석에서 집중 및 지역불균형 정도는 지역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지역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인구 및 산업패턴의 변화는 공간구조의 효율적 활용을 왜곡시키는 물론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사회문화적 편의시설의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지표로는 인구 및 소득 지

표는 집중지수, 지니계수, 엡킨스지수, 바키측정치 등을 사용하며 산업 지표는 집중계수¹⁹, 특화계수 등을 이용하여 지역불균등을 측정한다

분석권역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인구점유율 상위 시군은 수원시(6.30%), 성남시(5.60%), 고양시(5.37%), 용인시(5.07%) 순이며,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은 2.76%이다. 1990년에서 2010년간 인구증가율 상위 시군은 용인시(7.43%), 시흥시(6.39%), 고양시(6.38%), 오산시(5.44%)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6> 분석권역 시군구별 상위 인구점유율 및 인구증가율(2010)

(단위 명, %)

	인구점유율 상위 시군구				인구증가율 상위 시군구		
	인구수	구성비	증가율 ('90-'10)		인구수	구성비	증가율 ('90-'10)
권역계	16,721,922	100.0	2.57	권역계	16,721,922	100.0	2.57
수원시	1,054,053	6.30	2.49	용인시	847,138	5.07	7.82
성남시	936,267	5.60	2.78	시흥시	393,293	2.35	6.72
고양시	897,222	5.37	6.71	고양시	897,222	5.37	6.71
용인시	847,138	5.07	7.82	오산시	180,996	1.08	5.72
부천시	842,482	5.04	1.17	광주시	224,269	1.34	5.52
안산시	699,063	4.18	5.23	안산시	699,063	4.18	5.23
정주시	662,102	3.96	1.65	군포시	274,198	1.64	5.17
안양시	596,772	3.57	1.08	천안시	565,201	3.38	5.04
천안시	565,201	3.38	5.04	남양주시	526,639	3.15	4.95
부평구	542,433	3.24	0.65	화성시	474,160	2.84	4.75
남양주시	526,639	3.15	4.95	양주시	183,673	1.10	3.95
화성시	474,160	2.84	4.75	의정부시	415,170	2.48	3.41
남동구	453,903	2.71	1.97	김포시	217,280	1.30	3.25
의정부시	415,170	2.48	3.41	과천시	323,955	1.94	2.84
남구	411,756	2.46	-0.52	성남시	936,267	5.60	2.78
시흥시	393,293	2.35	6.72	서구	389,057	2.33	2.66
서구	389,057	2.33	2.66	구리시	184,503	1.10	2.65
평택시	381,731	2.28	1.71	아산시	272,282	1.63	2.54
계양구	334,970	2.00	1.68	수원시	1,054,053	6.30	2.4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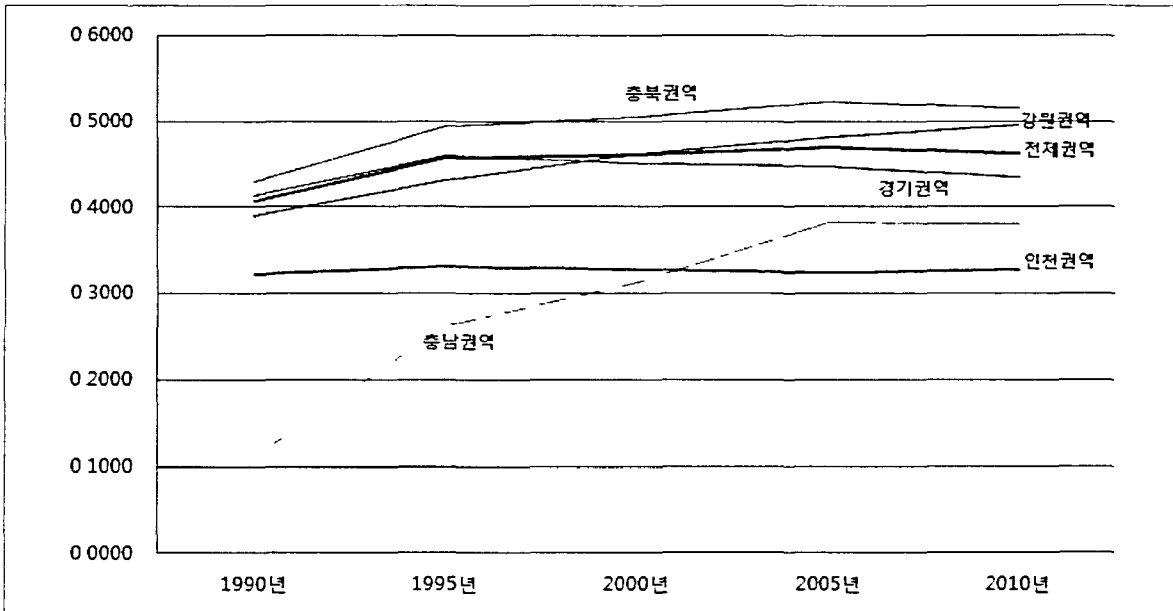
분석권역의 인구집중도를 지니계수와 허핀달지수(Berry-Herfindahl index)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지니계수를 이용한 인구집중도를 보면 권역 전체는 1990년 0.40에서 2010년 0.46으로 집중도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경기 인천의 집중도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강원 충북 충남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인구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충북 강원권역이며, 인천 충남권역은 낮게 나타났으나 충남은 1990년 0.11에서 2010년 0.38로 집중도가 타 권역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19) 집중지수의 종류로는 상위기업집중률(CR), 허핀달지수(H), 엔트로피지수(E), 로젠블루지수(RHT) 등이 있다

<표Ⅲ-7> 권역별 인구 지니계수(1990-2010)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권역전체	0.4064	0.4578	0.4613	0.4690	0.4630
경기권역	0.4124	0.4600	0.4509	0.4466	0.4347
인천권역	0.3235	0.3313	0.3281	0.3236	0.3279
강원권역	0.3908	0.4307	0.4624	0.4808	0.4961
충북권역	0.4290	0.4939	0.5046	0.5227	0.5153
충남권역	0.1103	0.2628	0.3137	0.3820	0.3813

<그림Ⅲ-2> 권역별 인구 지니계수(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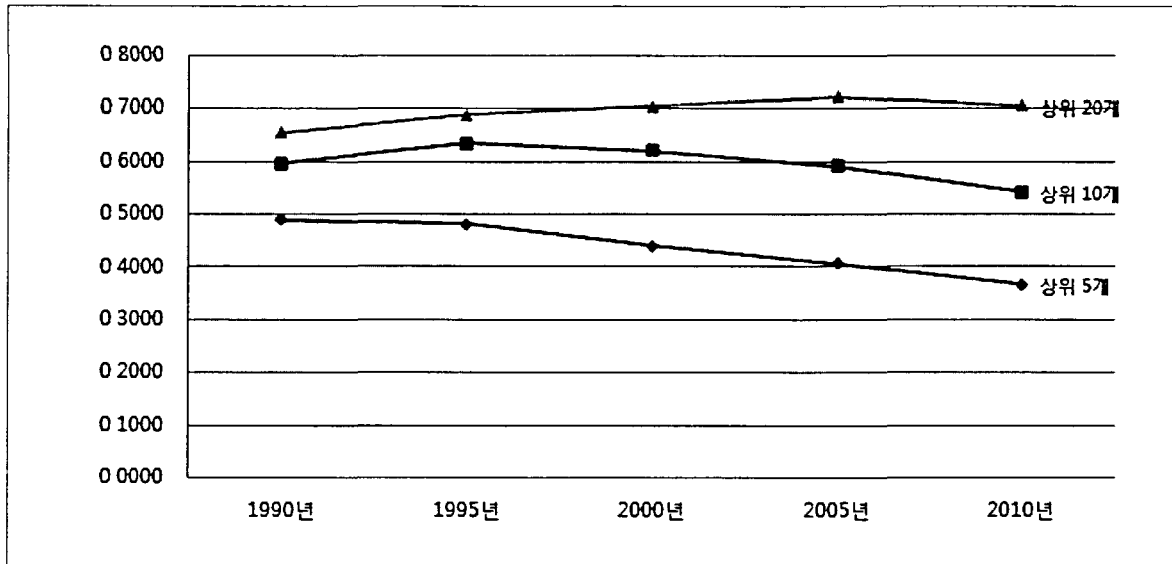
분석권역 상위 시군구의 인구집중도를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권역 내 총인구 중 상위 5개 시군구의 인구집중이 1990년 0.49에서 2000년 0.44, 2005년 0.40, 2010년 0.36으로 점차 집중이 완화되고 있으며, 상위 10개 시군구에서도 1990년 0.59에서 2010년 0.54로 다소 감소하였다. 단, 상위 20개 시군구에서는 1990년 0.65에서 2010년 0.70으로 증가하여 권역 내 중소도시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구의 노령화 지수와 경제활동가능 인구비는 도시의 산업화와 지역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니계수를 이용한 지역의 불균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도시로의 산업집중과 인구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경제활동가능 인구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도시경쟁력이 쇠퇴한다는 것이다.

<표Ⅲ-8> 분석권역 허핀달지수(1990-2010)

시군구수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상위 5개	0.4900	0.4810	0.4404	0.4063	0.3661
상위 10개	0.5964	0.6347	0.6197	0.5912	0.5425
상위 20개	0.6551	0.6889	0.7035	0.7219	0.7060

<그림Ⅲ-3> 권역별 인구 허핀달지수(1990-2010)



분석 권역별 노령화 지수를 보면 권역 전체적으로는 1990년 17.65%에서 2010년 52.92%로 전국 평균 노령화 지수와 비교하여 1990년, 2010년 모두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권역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경기권과 인천권이며, 강원, 충북, 충남권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 충남권은 도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농촌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가능 인구비는 1990년 68.82%에서 2010년 72.84%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권역별로는 경기, 인천권이 권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강원, 충북, 충남권은 권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Ⅲ-9> 분석권역 권역별 노령화지수(1990-2010)

(단위 %)

	노령화 지수 ¹⁾					경제활동가능 인구비 ²⁾				
	1990	1995	2000	2005	2010	1990	1995	2000	2005	2010
전국	19.42	25.80	35.00	48.58	69.66	69.36	71.10	71.70	71.62	72.47
권역계	17.65	20.92	26.86	37.12	52.92	68.82	69.64	70.29	71.18	72.84
경기도	16.57	18.78	24.22	33.82	49.14	68.80	69.47	70.18	71.21	72.93
경기권	16.16	18.78	24.22	33.82	49.14	68.83	69.47	70.18	71.21	72.93
인천시	12.87	17.45	23.87	35.03	53.11	69.11	69.87	71.19	72.64	74.57
인천권	13.98	17.16	23.51	34.62	52.57	69.01	69.89	71.23	72.69	74.62
강원도	25.63	36.94	49.81	70.40	98.67	68.07	70.19	70.19	68.85	68.85
강원권	28.12	35.75	45.53	62.61	84.42	69.39	70.43	70.06	69.07	69.82
충북도	27.79	36.17	46.52	62.94	84.23	67.26	69.28	69.47	68.74	69.59
충북권	23.81	29.13	36.75	49.29	65.95	68.04	69.81	70.12	70.04	71.21
충남도	31.64	47.06	60.34	76.88	94.71	67.89	68.88	67.96	67.22	68.09
충남권	26.05	36.58	41.91	50.77	60.60	68.69	69.71	69.06	69.73	71.3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0에서 재구성

주1 노령화 지수 = 65세이상 인구/15세미만 인구×100

주2 15세이상 인구/총인구×100

분석권역 내 시군구별 노령화 지수는 권역 평균 52.92%보다 높은 지역은 55개 시군구 중 32개 시군구이며 낮은 지역은 오산 시흥 화성 서구 안산 등 2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이 발달한 도시지역은 노령화지수가 낮은 반면 수도권 외곽 농촌지역은 높게 나타났다

분석권역 내 시군구별 경제활동가능 인구비는 권역 평균 72.84%보다 높은 지역은 부천 연수구 계양구 성남 안양 등 20개 시군구이며, 강화 예산 평창 횡성 가평 연천 등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활동가능 인구비가 높은 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낮고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며,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1990년~2010년간 노령화지수의 변화가 적은 시군구는 오산 시흥 화성 등이며, 고령화지수가 증가한 지역은 동두천 충주 여주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가능 인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지역은 부천 연수구 계양구 성남시 등으로 주거 중심의 도시가 타 도시에 비해 발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10> 분석권역 시군구별 노령화지수와 경제활동가능 인구비(1990-2010)

(단위 %)

노령화 지수						경제활동가능 인구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권역	17.65	20.92	26.86	37.12	52.92	권역	68.82	69.64	70.29	71.18	72.84
오산	13.02	15.33	16.35	20.95	29.32	부천	68.18	69.02	71.70	73.81	76.27
시흥	16.56	15.51	13.59	19.75	31.26	연수구	0.00	65.91	69.71	72.85	75.84
화성	31.08	41.42	46.96	40.44	33.04	계양구	68.53	66.37	68.02	71.77	75.84
서구	9.59	12.45	16.90	23.58	35.68	성남	69.24	70.88	73.24	74.33	75.60
안산	8.48	10.09	14.50	21.62	35.70	안양	68.81	70.01	72.45	73.35	75.53
계양구	10.38	11.04	14.25	22.50	37.71	부평구	68.53	70.51	71.66	73.21	75.38
수원	11.42	13.97	17.00	24.73	39.60	수원	68.67	70.82	71.04	72.72	75.16
연수구	0.00	11.96	17.29	26.75	41.11	안산	67.60	67.57	68.94	71.42	75.10
천안	12.88	23.58	25.61	30.33	42.58	남구	70.83	73.32	74.64	74.96	75.09
군포	9.65	13.25	19.14	29.20	43.43	남동구	67.62	69.97	71.79	73.48	75.00
용인	20.30	20.87	21.96	31.10	43.73	의왕	67.08	67.55	69.64	71.90	74.39
구리	13.49	15.97	21.10	29.12	45.03	하남	67.53	69.45	72.67	73.97	74.38
경주	14.27	17.60	22.28	30.61	45.36	광명	68.97	69.77	71.44	72.87	74.36
남동구	11.98	14.81	20.83	32.07	45.37	구리	68.72	69.74	70.94	71.90	74.04
부천	10.40	13.43	20.35	29.28	46.85	군포	67.83	68.35	70.16	71.99	74.00
광명	12.13	15.82	22.75	33.73	46.91	청주	68.87	70.92	71.77	72.31	73.87
남양주	19.40	22.46	24.53	35.12	47.41	서구	66.66	68.07	69.61	71.02	73.77
안양	11.76	15.32	22.34	30.96	48.69	시흥	67.77	66.15	65.69	69.90	73.75
의왕	12.42	15.52	21.95	32.50	48.70	천안	68.04	69.71	69.68	71.14	73.69
광주	23.61	26.15	28.92	35.52	49.82	오산	69.48	70.67	70.01	71.28	73.12
과천	18.58	22.71	26.01	35.65	51.42	과천	68.33	68.47	68.47	69.47	72.77
부평구	10.38	14.96	21.18	32.57	52.06	의정부	69.70	70.16	70.79	71.36	72.72
고양	18.93	17.90	22.14	32.96	52.37	고양	69.28	67.99	68.10	69.71	72.65
평택	21.71	24.32	30.32	39.64	53.86	중구	71.80	72.97	73.59	71.95	72.17
아산	31.56	44.30	47.34	58.82	54.11	광주	68.13	68.78	69.51	70.72	72.11

앞장에서 계속

노령화 지수						경제활동가능 인구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성남	11.37	15.68	23.20	34.82	54.77	아산	69.38	71.27	69.48	71.44	71.51
양주	22.41	25.29	31.41	38.52	55.50	동구	72.04	74.11	75.01	72.38	71.48
이천	20.85	25.79	30.73	42.15	56.45	춘천	72.06	72.16	71.88	71.00	71.30
김포	25.78	30.77	30.04	39.34	56.75	원주	69.76	70.34	70.20	69.72	71.10
의정부	13.37	16.66	22.63	35.95	58.32	평택	70.11	70.12	68.73	69.31	70.60
파주	25.88	36.83	45.11	52.23	58.37	김포	69.01	69.38	68.32	68.58	70.58
하남	15.16	18.80	27.66	42.24	59.88	이천	68.16	69.80	69.26	69.03	70.57
원주	24.34	28.99	36.81	48.80	64.47	남양주	68.17	68.34	68.40	69.16	70.52
안성	32.80	41.80	52.07	60.98	75.59	용인	70.47	70.20	69.88	69.86	70.52
남구	15.32	21.70	33.67	49.18	75.62	안성	69.08	70.13	69.75	69.28	70.38
증평	0.00	31.36	43.76	62.54	78.28	과주	70.14	70.02	69.14	68.03	69.60
중구	26.46	38.48	55.70	53.01	78.91	양주	69.17	69.28	69.41	69.06	69.55
춘천	27.39	34.31	42.17	58.78	81.63	포천	67.73	68.42	68.16	68.24	69.26
동두천	19.00	28.17	38.76	54.01	82.83	충주	67.97	69.56	69.84	68.77	69.26
포천	28.28	33.18	40.36	57.41	84.15	화성	71.27	70.90	69.33	68.94	69.20
동구	20.39	34.32	58.39	68.55	89.47	동두천	70.59	71.27	70.53	69.07	68.81
정원	44.99	59.59	75.12	100.85	90.38	증평	0.00	67.21	67.33	66.60	67.96
진천	40.76	49.16	58.51	74.97	95.74	여주	67.25	68.30	68.10	66.90	67.30
충주	27.83	34.58	46.36	67.83	96.94	정원	67.05	68.86	67.57	66.09	67.19
당진	35.22	52.46	68.93	96.91	100.99	당진	68.59	68.56	67.01	64.83	66.90
여주	29.53	40.37	54.24	74.84	101.86	음성	65.92	67.29	66.22	65.53	66.36
음성	39.91	49.41	58.94	80.22	103.26	진천	65.73	66.98	66.58	65.24	66.21
화천	28.77	40.64	58.44	82.82	124.11	화천	66.27	67.10	65.32	62.17	65.51
가평	37.51	52.22	75.02	107.69	148.20	양평	66.99	67.30	66.39	64.81	65.06
연천	28.51	42.64	64.87	104.54	153.16	연천	69.70	69.16	68.15	64.99	64.95
양평	42.76	60.65	80.88	113.79	155.00	가평	67.27	67.14	66.58	65.08	64.79
평장	31.93	50.92	76.30	113.88	157.78	평장	65.51	69.40	67.56	64.91	63.83
예산	36.13	59.34	92.10	140.51	190.27	횡성	65.11	67.17	65.52	63.16	62.19
횡성	42.83	64.10	91.15	137.39	193.22	예산	68.98	68.61	68.07	63.23	62.09
강화군	48.29	73.50	108.44	157.83	237.93	강화군	66.46	67.73	66.36	62.95	61.06

3 분석권역 인구이동 분석

1) 분석권역 인구이동패턴

분석권역 인구이동은 2000년 시도내 자체지역 이동이 37.96%에서 2010년 39.44%로 약간 증가한 반면 시도 간 이동은 2000년 35.82%에서 2010년 34.15%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권역의 2010년 기준 자체 시군구내 인구이동이 높은 지역은 청주 춘천 원주 충주 천안 등 지방 대도시로 나타났으며, 시도간 인구이동이 높은 지역은 철원 화천 평창 음성 횡성 등 지방 농촌도시로 나타났다.

<표Ⅲ-11> 분석권역 자체지역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전입기준)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권역	37.96	26.21	35.82	39.06	26.30	34.63	39.44	26.41	34.15
청주시	57.53	17.25	25.23	60.67	14.86	24.47	60.36	15.70	23.93
춘천시	60.06	15.01	24.93	61.10	14.43	24.47	59.05	12.99	27.96
원주시	56.62	13.64	29.74	58.01	13.64	28.35	56.79	12.97	30.24
충주시	58.33	10.84	30.84	57.50	10.09	32.40	55.78	9.05	35.17
천안시	46.72	14.06	39.22	48.41	13.91	37.68	50.78	12.98	36.24
안산시	47.60	22.61	29.80	47.14	24.01	28.86	49.35	24.21	26.44
부천시	46.85	11.72	41.43	47.43	12.42	40.15	47.95	12.18	39.87
수원시	49.22	24.27	26.50	49.77	24.12	26.11	47.88	25.37	26.7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0

<표Ⅲ-12> 분석권역 시도간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전입기준)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철원군	22.45	9.10	68.45	22.79	10.34	66.87	18.82	7.74	73.44
화천군	19.28	25.63	55.09	15.52	25.65	58.83	15.95	21.26	62.79
평창군	14.68	31.48	53.84	15.58	30.62	53.80	14.49	25.97	59.53
음성군	16.14	24.60	59.25	20.32	25.11	54.57	18.08	22.46	59.46
횡성군	16.16	38.55	45.29	15.06	37.31	47.63	15.19	31.93	52.8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0

2007년 전출입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는 화성시↔수원시, 경기 인천은 부천시↔부평구, 경기 중남은 평택시↔천안시, 경기 중북은 수원시↔청주시 인천 내는 남구↔남동구, 중남 중북은 천안↔청주 간에 이동이 많았다.

<표Ⅲ-13> 권역내 시군구별 인구가동(2000-2010)

	2000			2005			2010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국	190	190	00	181	181	00	165	165	00
경기도	225	205	20	208	192	16	187	175	12
수원시	244	217	27	212	208	04	172	184	-12
성남시	213	219	-06	193	192	00	189	188	01
의정부시	247	212	35	200	193	06	154	172	-18
안양시	222	234	-12	192	192	00	161	168	-07
부천시	205	215	-11	180	187	-07	157	168	-11
광명시	196	213	-17	178	196	-18	266	195	71
평택시	179	178	01	208	179	30	165	163	02
동두천시	194	191	03	278	239	39	219	218	01
안산시	268	249	19	212	203	10	171	175	-03
고양시	244	223	21	221	205	16	185	186	-01
과천시	210	220	-10	197	314	-117	168	179	-11
구리시	232	224	08	197	208	-11	168	182	-14
남양주시	235	176	58	229	161	69	217	159	57
오산시	423	218	205	257	201	56	306	190	116
시흥시	263	197	66	216	201	15	168	170	-02
군포시	205	218	-13	195	196	-01	204	177	27
의왕시	231	200	31	195	197	-03	193	161	32
하남시	205	215	-10	203	186	18	163	167	-04
용인시	269	188	80	257	185	72	209	178	31
파주시	199	150	49	249	193	56	242	162	81
이천시	178	173	05	177	176	01	180	168	12
안성시	174	148	26	180	172	08	188	160	28
김포시	250	165	85	166	175	-09	202	158	43
화성시	191	155	36	259	179	80	204	192	12
광주시	283	174	109	218	182	36	194	161	32
양주시	242	171	70	238	191	46	239	177	63
포천시	162	162	00	212	181	31	159	174	-15
여주군	142	126	16	134	134	00	140	139	01
연천군	123	146	-24	133	166	-33	126	141	-15
가평군	125	129	-05	127	126	01	131	119	12
양평군	134	125	10	151	140	11	182	142	39
인천광역시	210	205	05	194	190	04	170	169	01
중구	189	205	-16	226	204	21	200	186	14
동구	153	204	-50	148	188	-41	155	146	09
남구	202	204	-02	183	210	-27	175	184	-09
연수구	207	212	-05	216	183	33	176	161	15
남동구	236	221	15	179	196	-17	172	166	06
부평구	227	204	24	196	183	13	156	167	-11
계양구	215	213	02	182	192	-10	163	168	-05
서구	205	200	05	229	184	45	186	171	15
강화군	86	97	-10	123	114	08	121	122	00
강원도	164	171	-07	162	169	-08	160	159	00
춘천시	200	196	05	193	193	00	186	178	08
원주시	210	200	10	203	195	08	187	177	10
횡성군	98	116	-18	109	121	-12	117	118	-01
평창군	98	118	-20	112	117	-05	105	112	-07
화천군	167	186	-19	175	201	-26	186	190	-04
충청북도	157	160	-03	158	162	-03	154	150	04
청주시	202	193	09	197	193	04	176	169	07
충주시	154	167	-13	153	162	-09	155	154	01
정원군	156	150	06	148	150	-02	160	151	09
충평군	0	0	0	119	134	-14	121	122	-01
진천군	131	118	13	123	129	-06	125	125	00
음성군	118	121	-03	127	125	02	127	124	03
충청남도	138	142	-04	166	164	03	155	147	08
천안시	213	180	33	224	213	11	196	180	17
아산시	170	164	06	213	201	12	183	167	16
서산시	137	151	-13	149	152	-02	149	148	01
예산군	81	103	-22	101	110	-09	96	101	-05
당진군	95	116	-21	158	134	23	178	14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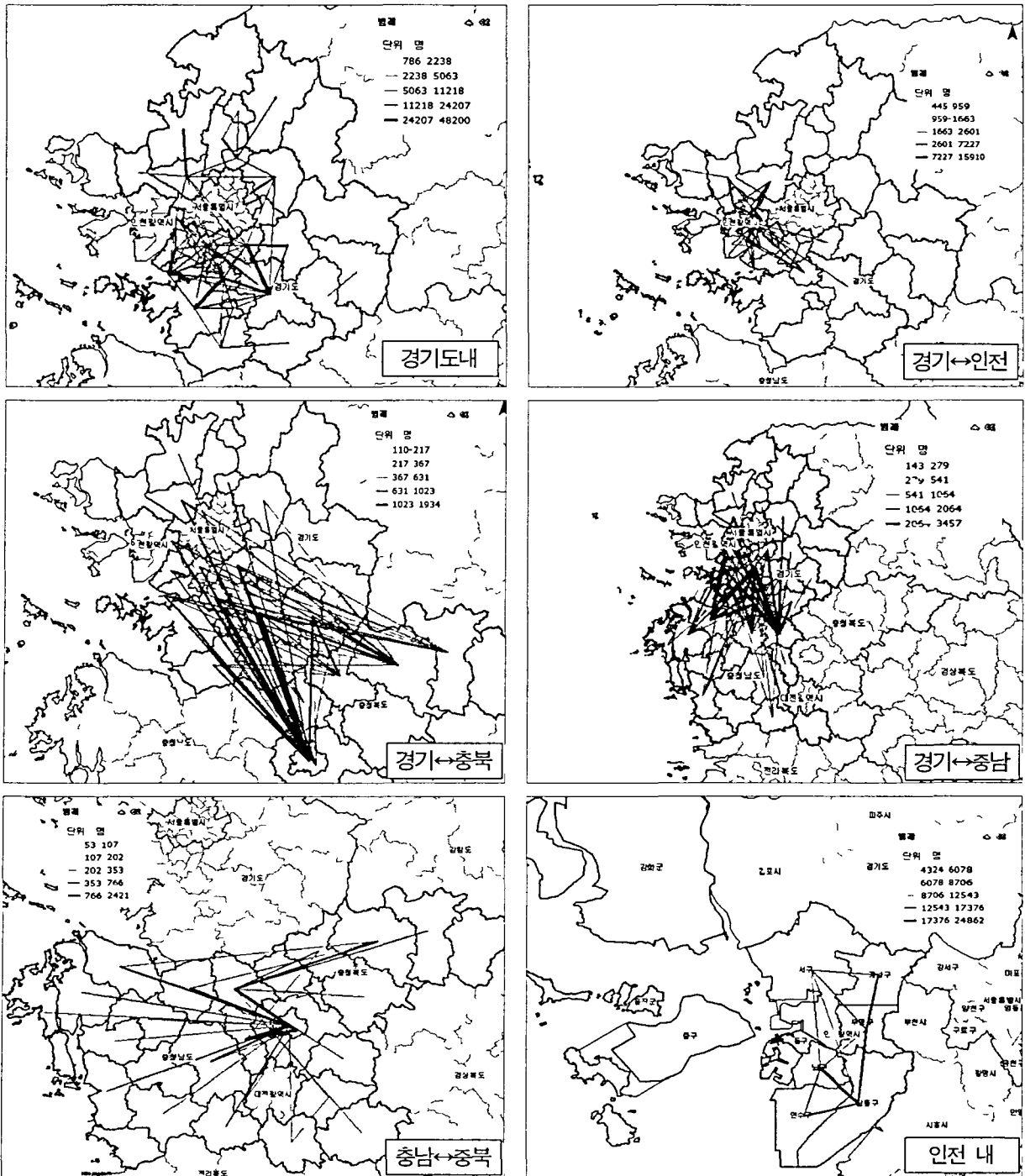
<표Ⅲ-14> 시군구별 지역간 인구이동(전입지 비율, 2000-2010)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이동	타시군구	
권역	37 96	26 21	35 82	39 06	26 30	34 63	39 44	26 41	34 15
수원시	49 22	24 27	26 50	49 77	24 12	26 11	47 88	25 37	26 75
성남시	47 00	15 63	37 37	48 72	18 40	32 88	45 29	21 07	33 64
의정부시	36 49	20 57	42 94	38 01	22 56	39 43	39 65	23 77	36 58
안양시	42 51	26 60	30 90	40 28	29 72	30 00	40 24	28 81	30 95
부천시	46 85	11 72	41 43	47 43	12 42	40 15	47 95	12 18	39 87
광명시	37 33	14 37	48 30	41 21	15 41	43 38	39 06	16 77	44 18
평택시	48 54	20 69	30 77	44 56	24 17	31 27	46 11	23 25	30 64
동두천시	44 19	33 78	22 03	36 18	40 60	23 23	46 02	31 42	22 55
안산시	47 60	22 61	29 80	47 14	24 01	28 86	49 35	24 21	26 44
고양시	42 10	12 96	44 94	44 91	15 64	39 45	44 60	17 04	38 37
과천시	21 89	28 41	49 70	40 80	24 29	34 91	26 37	30 75	42 87
구리시	30 90	25 66	43 44	33 06	26 39	40 55	33 83	27 80	38 37
남양주시	22 14	25 59	52 28	25 63	27 38	46 99	29 50	25 84	44 65
오산시	25 83	51 50	22 67	27 69	41 51	30 80	22 81	54 51	22 69
시흥시	21 27	42 19	36 55	29 99	31 96	38 05	34 39	31 27	34 35
군포시	32 26	35 54	32 21	36 65	34 61	28 75	37 11	38 50	24 39
의왕시	13 67	59 52	26 80	19 97	53 23	26 81	15 14	56 94	27 93
하남시	36 30	15 40	48 30	37 89	15 84	46 26	36 01	16 92	47 07
용인시	20 53	40 42	39 05	26 76	35 53	37 71	35 23	32 12	32 65
과주시	28 75	35 89	35 35	29 90	34 73	35 37	26 02	40 56	33 42
이천시	41 76	25 95	32 29	46 49	23 37	30 15	46 85	25 25	27 90
안성시	35 19	34 55	30 26	35 62	32 05	32 33	36 21	33 41	30 38
김포시	20 41	19 84	59 75	30 52	16 22	53 26	29 65	18 22	52 13
화성시	12 03	59 99	27 98	13 49	58 92	27 59	30 30	43 70	26 00
광주시	14 62	48 61	36 77	25 12	40 67	34 22	26 34	42 86	30 79
양주시	16 94	46 20	36 86	19 87	42 03	38 10	25 23	42 31	32 46
포천시	29 24	29 95	40 80	34 32	30 77	34 91	38 35	27 86	33 80
여주군	24 73	39 39	35 88	28 52	34 84	36 64	31 43	33 50	35 07
연천군	26 56	35 67	37 77	24 36	40 09	35 55	24 15	40 21	35 64
가평군	12 26	34 33	53 42	13 30	33 17	53 52	12 21	35 77	52 03
양평군	20 21	29 17	50 61	23 23	28 73	48 04	23 23	30 67	46 09
충구	17 11	54 75	28 14	17 96	44 45	37 59	19 70	41 77	38 53
동구	28 42	50 37	21 20	29 89	48 92	21 20	24 93	54 20	20 87
남구	33 55	41 63	24 82	38 28	35 32	26 40	38 37	35 44	26 19
연수구	29 48	41 42	29 10	31 23	40 86	27 91	29 79	33 47	36 74
남동구	34 17	37 93	27 90	35 55	35 12	29 34	34 95	34 09	30 96
부평구	33 09	30 66	36 25	33 90	27 78	38 32	38 35	24 54	37 10
계양구	33 94	25 98	40 08	37 00	26 45	36 55	37 65	23 44	38 91
서구	30 35	31 55	38 09	30 41	32 38	37 21	35 74	28 33	35 93
강화군	25 53	27 67	46 80	26 59	26 62	46 79	28 87	26 58	44 55
춘천시	60 06	15 01	24 93	61 10	14 43	24 47	59 05	12 99	27 96
원주시	56 62	13 64	29 74	58 01	13 64	28 35	56 79	12 97	30 24
횡성군	16 16	38 55	45 29	15 06	37 31	47 63	15 19	31 93	52 88
평강군	14 68	31 48	53 84	15 58	30 62	53 80	14 49	25 97	59 53
화천군	19 28	25 63	55 09	15 52	25 65	58 83	15 95	21 26	62 79
정주시	57 53	17 25	25 23	60 67	14 86	24 47	60 36	15 70	23 93
충주시	58 33	10 84	30 84	57 50	10 09	32 40	55 78	9 05	35 17
정원군	8 51	54 72	36 78	8 64	48 93	42 43	10 94	41 68	47 37
증평군	0 00	0 00	0 00	4 25	50 95	44 79	4 86	50 68	44 46
진천군	20 82	30 63	48 55	21 22	30 02	48 76	22 26	30 14	47 60
음성군	16 14	24 60	59 25	20 32	25 11	54 57	18 08	22 46	59 46
진안시	46 72	14 06	39 22	48 41	13 91	37 68	50 78	12 98	36 24
아산시	39 90	21 94	38 16	36 68	25 15	38 18	37 23	22 68	40 10
예산군	27 86	24 82	47 32	23 37	29 26	47 36	32 34	23 49	44 17
당진군	37 07	15 59	47 33	32 53	14 70	52 76	34 70	12 44	52 86

<표Ⅲ-15> 분석권역 지역 간 상위 인구이동(2007)

순위	경기도 내	경기-인천	경기-강원	경기-충남	경기-충북	인천시 내	충북-충남
1	화성↔수원	부전↔부평	수원↔원주	평택↔천안	수원↔정주	남구↔남동	천안↔청주
2	용인↔성남	부전↔남동	남양주↔춘천	수원↔전안	용인↔정주	남동↔부평	연기↔청주
3	고양↔파주	김포↔서구	용인↔원주	평택↔아산	성남↔정주	부평↔계양	연기↔청원
4	-	부전↔계양	성남↔원주	용인↔천안	안산↔정주	-	천안↔청원
5	-	시흥↔남동	포천↔절원	성남↔천안	이전↔음성	-	아산↔청주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정보서비스, 2012



<표Ⅲ-16> 시군구별 지역간 인구이동(전입지 비율, 2000-2010)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시도내		시도간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지역	타시군구		자체이동	타시군구	
권역	40 82	27 89	31 30	41 51	27 77	30 72	41 77	27 80	30 43
수원시	55 33	24 65	20 01	50 67	29 17	20 16	44 79	32 80	22 41
성남시	45 67	26 15	28 18	48 79	25 45	25 75	45 49	27 00	27 51
의정부시	42 45	23 98	33 58	39 29	27 73	32 98	35 41	32 27	32 33
안양시	40 28	34 67	25 05	40 36	33 49	26 16	38 53	36 30	25 17
부천시	44 54	16 18	39 28	45 67	15 46	38 87	44 69	16 84	38 47
광명시	34 31	23 17	42 52	37 47	22 86	39 67	53 17	16 79	30 04
평택시	48 92	25 97	25 11	51 93	22 90	25 17	46 54	25 10	28 36
동두천시	44 82	34 59	20 60	42 06	35 39	22 55	46 18	31 68	22 14
안산시	51 17	25 16	23 67	49 44	25 63	24 93	48 37	27 24	24 40
고양시	46 09	17 20	36 70	48 36	19 30	32 33	44 38	24 38	31 25
과천시	20 91	39 18	39 90	25 55	41 80	32 65	24 71	37 44	37 85
구리시	32 00	33 08	34 92	31 38	38 68	29 94	31 20	37 67	31 13
남양주시	29 45	27 46	43 09	36 59	26 10	37 31	40 11	23 86	36 03
오산시	50 10	32 25	17 65	35 36	41 15	23 49	36 80	38 45	24 75
시흥시	28 33	37 71	33 96	32 23	35 87	31 90	33 99	34 28	31 73
군포시	30 33	43 48	26 19	36 54	38 12	25 34	42 73	34 91	22 36
의왕시	15 80	58 60	25 60	19 70	55 60	24 70	18 11	56 56	25 33
하남시	34 61	23 46	41 93	41 55	21 01	37 44	35 13	24 86	40 01
용인시	29 31	40 33	30 36	37 23	32 10	30 67	41 41	30 19	28 39
과주시	38 03	32 48	29 49	38 65	34 64	26 71	39 02	31 62	29 35
이천시	42 92	27 87	29 21	46 78	26 94	26 28	50 19	23 00	26 81
안성시	41 42	28 10	30 48	37 31	32 13	30 56	42 54	29 06	28 40
김포시	30 93	17 71	51 36	28 95	17 69	53 36	37 70	18 26	44 04
화성시	14 80	61 75	23 46	19 50	54 55	25 95	32 14	44 80	23 06
광주시	23 82	42 49	33 68	30 08	40 26	29 67	31 65	39 58	28 77
양주시	23 88	44 99	31 13	24 67	45 12	30 20	34 18	36 39	29 44
포천시	29 19	34 60	36 20	40 13	29 95	29 92	35 04	34 19	30 76
여주군	27 82	36 78	35 39	28 56	37 95	33 49	31 67	35 53	32 80
연천군	22 28	44 26	33 47	19 52	47 14	33 35	21 61	45 55	32 84
가평군	11 79	35 64	52 57	13 36	39 58	47 05	13 43	36 33	50 24
양평군	21 76	31 79	46 44	25 15	30 93	43 92	29 62	28 49	41 89
충구	15 79	58 19	26 02	19 84	46 79	33 37	21 23	43 46	35 31
동구	21 38	60 10	18 52	23 43	54 75	21 82	26 48	50 51	23 01
남구	33 28	42 16	24 56	33 30	40 23	26 47	36 42	36 58	27 00
연수구	28 82	43 84	27 34	36 83	35 04	28 14	32 62	35 91	31 47
남동구	36 41	36 01	27 59	32 40	37 23	30 36	36 13	32 26	31 61
부평구	36 96	28 30	34 74	36 28	27 19	36 53	35 83	27 13	37 04
계양구	34 28	28 63	37 09	35 12	30 15	34 73	36 63	26 39	36 98
서구	31 05	34 03	34 92	37 80	28 58	33 61	38 92	24 79	36 29
강화군	22 86	27 64	49 50	28 51	24 13	47 35	28 75	23 00	48 25
준천시	61 49	11 34	27 16	61 01	11 15	27 84	61 62	10 83	27 55
원주시	59 51	10 04	30 45	60 40	9 80	29 80	59 99	9 61	30 40
평성군	13 70	44 45	41 85	13 53	44 17	42 31	15 08	40 00	44 93
평장군	12 16	36 92	50 92	14 94	34 47	50 59	13 57	31 95	54 48
화천군	17 31	31 24	51 45	13 48	32 33	54 18	15 61	27 56	56 83
정주시	60 17	14 72	25 11	61 87	12 11	26 01	62 81	13 43	23 76
충주시	53 93	11 82	34 25	54 17	11 03	34 80	56 22	10 24	33 54
정원군	8 83	53 30	37 87	8 54	50 56	40 90	11 60	48 26	40 13
증평군	0 00	0 00	0 00	3 80	52 14	44 06	4 84	52 32	42 84
진천군	23 21	33 76	43 03	20 28	36 38	43 33	22 31	34 82	42 87
음성군	15 80	29 96	54 25	20 61	27 95	51 44	18 53	28 92	52 55
진안시	55 33	10 25	34 42	50 86	13 17	35 97	55 50	12 26	32 23
아산시	41 29	24 40	34 31	38 82	26 93	34 24	40 85	25 48	33 67
예산군	21 94	27 25	50 81	21 46	30 68	47 86	30 75	26 47	42 78
당진군	30 40	18 06	51 54	38 14	16 10	45 76	42 56	12 65	44 79

2) 분석권역 통근통학패턴

분석권역 2005년 기준 통근 통학율은 62.5%이며 이중 통근율은 46.6%, 통학율은 15.9%이다 2010년은 통근 통학율은 69.5%이며 이중 통근율은 52.5%, 통학율은 17.1%로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시군구별로는 광주 파주 당진 화성 등 최근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청주 춘천 의정부 등은 낮게 나타났다

분석권역 지역 간 인구이동을 보면 권역 내에서는 자체 시군구이동 63.7%, 광역시도내 타 시군구 21.2%, 서울시 11.0%, 타 광역시 2.8%, 수도권 외곽 1.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권은 자체 시군구 68.3%, 도내 타 시군구 16.0%, 서울시 12.5%, 인천시 1.8%, 수도권외곽 1.5%로 권역 전체와 비슷한 이동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권은 자체 시군구 47.0%, 인천시 내 타 시군구 40.2%, 서울시 5.5%, 경기도 6.5%, 수도권 외곽 0.9%로 권역 전체나 경기권에 비하여 인천권 타 시군구나 서울시, 경기도 이동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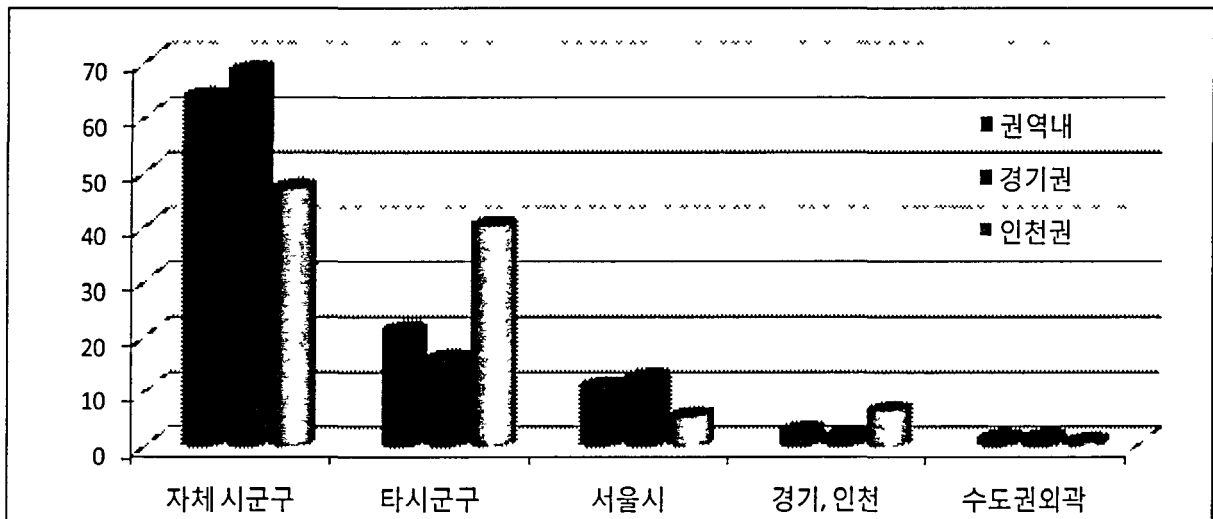
<표Ⅲ-17> 분석권역 지역 간 인구이동(2007)

(단위 %)

	전체	자체 시군구	타시군구	서울시	경기, 인천	수도권외곽
권역내	100.0	63.7	21.2	11.0	2.8	1.4
경기권	100.0	68.3	16.0	12.5	1.8	1.5
인천권	100.0	47.0	40.2	5.5	6.5	0.9

자료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수도권교통본부, 2007

<그림Ⅲ-6> 분석권역 지역 간 인구이동(2007)



<표Ⅲ-18> 분석권역 시군구별 통근 통학율(2005-2010)

	2005				2010			
	계	통근	통학	안합	계	통근	통학	안합
권역	625	466	159	375	695	525	171	305
수원시	652	471	181	348	712	525	188	288
성남시	632	470	162	368	700	530	170	300
의정부시	605	453	152	395	661	497	163	339
안양시	635	461	174	365	704	521	184	296
부천시	636	464	172	364	705	527	178	295
광명시	607	453	155	393	692	528	164	308
평택시	633	489	144	367	701	538	162	299
동두천시	576	460	116	424	637	500	137	363
안산시	652	485	167	348	722	529	193	278
고양시	617	450	167	383	690	505	185	310
과천시	628	433	195	372	701	503	198	299
구리시	625	464	161	375	697	522	175	303
남양주시	596	454	142	404	670	508	162	330
오산시	656	521	134	344	710	559	151	290
시흥시	659	507	152	341	727	548	179	273
군포시	633	465	168	367	694	516	178	306
의왕시	618	455	163	382	685	509	176	315
하남시	604	455	149	396	682	531	151	318
용인시	601	457	145	399	668	500	168	332
과주시	583	461	122	417	691	548	143	309
이천시	661	529	132	339	698	550	148	302
안성시	612	458	154	388	700	544	156	300
김포시	602	462	140	398	686	523	163	314
화성시	659	540	119	341	723	575	149	277
광주시	609	480	129	391	689	541	148	311
양주시	600	469	131	400	679	534	146	321
포천시	575	442	133	425	684	533	151	316
여주군	606	488	118	394	681	548	133	319
연천군	556	444	112	444	665	551	114	335
가평군	503	402	101	497	606	501	105	394
양평군	641	534	107	359	659	543	116	341
중구	575	459	116	00	677	546	131	323
동구	553	426	127	00	636	502	134	364
남구	598	438	160	00	668	505	163	332
연수구	633	438	195	00	709	507	202	291
남동구	625	460	165	00	694	523	171	306
부평구	616	451	165	00	682	509	173	318
계양구	635	448	187	00	712	522	191	288
서구	625	464	160	00	701	523	177	299
강화군	626	528	98	00	676	565	111	324
춘천시	614	395	219	386	667	474	193	333
원주시	587	425	162	413	676	500	176	324
횡성군	589	492	96	411	665	561	104	335
평장군	595	507	87	405	703	611	91	297
화천군	493	397	96	507	677	577	100	323
정주시	625	430	195	375	698	493	205	302
충주시	598	438	160	402	672	505	167	328
정원군	621	470	151	379	681	550	132	319
진천군	622	523	99	378	718	606	112	282
음성군	609	501	108	391	688	569	119	312
증평군	601	466	135	399	682	529	153	318
천안시	653	492	161	347	725	531	194	275
아산시	694	546	149	306	716	569	147	284
예산군	635	522	113	365	730	611	119	270
당진시	706	592	114	294	754	644	111	246

<표Ⅲ-19> 시군구별 지역 간 통행(O-D)율(2006)

(단위 %)

	자제지역	타시군구	서울시	경기, 인천	수도권외곽
수원시	738	183	64	06	09
성남시	674	140	173	05	08
의정부시	665	135	191	03	06
안양시	631	211	139	12	06
부천시	697	69	143	85	05
광명시	573	124	274	18	10
평택시	820	118	35	04	23
동두천시	720	217	60	02	01
안산시	770	153	57	16	05
고양시	717	75	191	13	04
과천시	490	230	264	10	07
구리시	562	205	222	04	07
남양주시	652	141	198	03	05
오산시	646	298	39	07	11
시흥시	613	243	86	53	05
군포시	597	273	113	10	07
의왕시	500	343	141	10	05
하남시	551	119	317	06	08
용인시	651	209	124	06	09
과주시	732	153	102	10	03
이천시	837	103	39	03	18
양주시	660	225	109	03	04
여주군	821	115	43	01	19
화성시	604	313	63	15	06
광주시	665	218	105	04	08
연천군	783	178	33	02	05
포천시	800	118	68	02	12
가평군	748	75	62	01	114
양평군	714	63	75	02	146
안성시	645	132	54	07	161
김포시	598	53	125	92	131
서울시	-	110	862	15	12
인천시	-	76	64	848	12
수도권외곽	-	487	420	93	00
중구	391	394	119	92	04
동구	377	519	53	45	06
남구	498	372	62	60	08
연수구	569	337	38	48	08
남동구	531	312	61	91	06
부평구	317	595	40	44	04
계양구	615	234	67	79	06
서구	590	243	57	80	30
강화군	763	69	42	99	28
옹진군	601	120	12	42	226
서울시	-	15	862	110	12
경기도	-	18	125	843	15
수도권외곽	-	93	420	487	00
권역계	637	212	110	28	14

자료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수도권교통본부, 2007

여 백

IV. 분석권역 산업구조 분석

1. 분석권역 지역내총생산(GRDP)
- 2 분석권역 산업분포
- 3 분석권역 시군구별 지역경제 분석

여 백

IV. 분석권역 산업구조 분석

1 분석권역 지역내총생산(GRDP)

2008년 기준 권역 내 GRDP는 316조원으로 전국 1,02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이며, 인구 구성비(34.8%)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이는 분석권역에 거주하는 인구 중 다수가 서울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별 GRDP를 보면 2005-2008년간 권역전체 증가율은 연평균 5.67%이며 충남권, 인천권, 강원권은 권역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반면 충북권, 경기권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충남권이 7.14%로 높게 증가한 반면 충북권은 4.69%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대비 2008년 기준 권역별 점유율은 경기권, 충북권이 다소 낮아진 반면 충남권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천권, 강원권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IV-1> 권역별 GRDP(2005-2008)

(단위 10억원, %)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05-08)
권역	268,121	100.0	287,019	100.0	309,250	100.0	316,382	100.0	5.67
경기권	169,315	63.1	180,859	63.0	193,658	62.6	198,948	62.9	5.52
인천권	40,184	15.0	43,083	15.0	47,519	15.4	47,565	15.0	5.78
강원권	9,616	3.6	10,220	3.6	11,116	3.6	11,374	3.6	5.76
충북권	21,518	8.0	23,054	8.0	24,629	8.0	24,690	7.8	4.69
충남권	27,488	10.3	29,804	10.4	32,328	10.5	33,805	10.7	7.14

자료 KOSIS

분석권역의 지역내총생산 기준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1.9%, 제조업 34.6%, 서비스업 6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업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차 산업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충남권(56.1%), 충북권(41.0%)은 높은 반면, 강원권(13.7%), 인천권(29.9%)은 낮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강원권(80.9%), 인천권(69.4%)의 비중이 높은 반면, 충남권(40.8%), 충북권(55.2%)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충북 경기지역은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강원·인천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IV-2> 권역별 GRDP(2008)

(단위 10억원, %)

	권역전체		경기권역		인천권역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	
전체	316,382	100.0	198,948	100.0	47,565	100.0	11,374	100.0	24,690	100.0	33,805	100.0
1차산업	5,981	1.9	3,030	1.5	314	0.7	612	5.4	947	3.8	1,077	3.2
2차산업	109,605	34.6	64,744	32.5	14,229	29.9	1,559	13.7	10,125	41.0	18,948	56.1
3차산업	200,796	63.5	131,174	65.9	33,023	69.4	9,203	80.9	13,618	55.2	13,779	40.8

자료 KOSIS

<표IV-3> 시군구별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백만원,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권역전체	268 120 981	100 00	287 012 685	100 00	309 250 496	100 00	316 381 724	100 00
수원시	13 979 635	5 21	15,143,515	5 28	16,238 814	5 25	16,665,087	5 27
성남시	10 864 554	4 05	11 881 037	4 14	12 296 138	3 98	14 468 780	4 57
부천시	11 495 734	4 29	10 140 877	3 53	10 357 517	3 35	10 750 691	3 40
안양시	8 926 071	3 33	8 317 601	2 90	8 764 537	2 83	10 282 486	3 25
안산시	13 183 651	4 92	13 643 910	4 75	14 709 859	4 76	14 800 917	4 68
용인시	20 088 414	7 49	12 906 999	4 50	15 575 060	5 04	18 020 780	5 70
평택시	7 789 186	2 91	12 338 552	4 30	13 603 261	4 40	14 240 505	4 50
광명시	3 778 306	1 41	3 707 787	1 29	3 654 566	1 18	3 644 645	1 15
시흥시	6 656 589	2 48	7 785 287	2 71	7 947 479	2 57	7 367 799	2 33
군포시	3 771 013	1 41	3 837 384	1 34	4 025 224	1 30	4 066 435	1 29
화성시	8 571 137	3 20	15 104 078	5 26	17 500 741	5 66	17 258 744	5 46
이천시	9 613 663	3 59	5 735 620	2 00	6 280 820	2 03	5 420 405	1 71
김포시	3 694 128	1 38	4 805 087	1 67	4 900 444	1 58	4 305 516	1 36
광주시	3 110 397	1 16	3 853 487	1 34	4 099 338	1 33	3 896 662	1 23
안성시	3 253 759	1 21	4 207 488	1 47	4 408 780	1 43	4 058 518	1 28
하남시	1 657 718	0 62	2 129 904	0 74	2 074 297	0 67	2 124 911	0 67
의왕시	2 070 468	0 77	1 979 678	0 69	1 969 687	0 64	1 724 294	0 55
오산시	2 268 600	0 85	2 081 060	0 73	2 040 706	0 66	1 839 349	0 58
여주군	1 755 943	0 65	1 794 431	0 63	1 930 409	0 62	2 018 250	0 64
양평군	1 110 355	0 41	1 176 843	0 41	1 204 006	0 39	1 247 444	0 39
과천시	1 654 609	0 62	1 928 912	0 67	2 010 587	0 65	2 031 721	0 64
고양시	8 870 823	3 31	9 911 632	3 45	10 238 384	3 31	11 174 156	3 53
의정부시	3 873 223	1 44	4 456 726	1 55	4 378 678	1 42	4 810 637	1 52
남양주시	3 726 630	1 39	4 838 745	1 69	5 245 549	1 70	4 513 219	1 43
과천시	3 765 081	1 40	6 224 580	2 17	7 086 405	2 29	6 896 417	2 18
구리시	2 019 029	0 75	2 096 632	0 73	2 134 539	0 69	2 318 719	0 73
포천시	2 599 932	0 97	3 138 705	1 09	3 145 661	1 02	3 060 975	0 97
양주시	2 321 836	0 87	2 700 693	0 94	2 875 820	0 93	2 940 514	0 93
동두천시	1 200 536	0 45	1 314 469	0 46	1 263 446	0 41	1 095 169	0 35
가평군	912 926	0 34	907 859	0 32	981 499	0 32	1 259 325	0 40
연천군	731 138	0 27	762 389	0 27	715 483	0 23	645 342	0 20
중구	7 150 442	2 67	7 682 140	2 68	8 564 190	2 77	7 809 991	2 47
동구	1 812 979	0 68	1 994 248	0 69	2 167 312	0 70	2 221 876	0 70
남구	3 773 018	1 41	4 236 320	1 48	4 213 824	1 36	4 251 412	1 34
연수구	1 698 518	0 63	1 826 296	0 64	2 082 245	0 67	2 470 576	0 78
남동구	9 221 573	3 44	9 466 398	3 30	10 600 074	3 43	10 833 773	3 42
부평구	5 834 178	2 18	6 417 732	2 24	7 625 390	2 47	7 529 607	2 38
계양구	2 589 506	0 97	2 953 356	1 03	3 082 488	1 00	2 776 653	0 88
서구	6 993 294	2 61	7 295 988	2 54	7 895 617	2 55	8 227 509	2 60
강화군	1 110 726	0 41	1 210 250	0 42	1 288 297	0 42	1 443 322	0 46
춘천시	3 279 621	1 22	3 458 209	1 20	3 699 949	1 20	3 702 798	1 17
원주시	4 258 044	1 59	4 460 790	1 55	4 896 025	1 58	5 131 168	1 62
평성군	873 145	0 33	877 954	0 31	1 003 861	0 32	1 008 896	0 32
평창군	676 423	0 25	865 779	0 30	932 531	0 30	933 790	0 30
화천군	529 002	0 20	556 785	0 19	583 728	0 19	597 554	0 19
정주시	8 354 894	3 12	9 456 352	3 29	10 285 112	3 33	9 634 563	3 05
충주시	3 015 999	1 12	3 144 293	1 10	3 540 463	1 14	3 502 294	1 11
정원군	4 298 240	1 60	4 495 941	1 57	4 758 043	1 54	5 399 467	1 71
충평군	575 989	0 21	547 163	0 19	570 514	0 18	571 195	0 18
진천군	2 442 102	0 91	2 301 528	0 80	2 354 566	0 76	2 782 358	0 88
음성군	2 830 362	1 06	3 109 036	1 08	3 120 775	1 01	2 799 857	0 88
전안시	11 437 826	4 27	12 948 208	4 51	13 636 340	4 41	13 847 061	4 38
아산시	10 895 991	4 06	11 525 499	4 02	12 542 639	4 06	12 632 478	3 99
예산군	1 344 069	0 50	1 376 577	0 48	1 361 414	0 44	1 538 600	0 49
당진시	3 809,955	1 42	3 953 877	1 38	4 787 365	1 55	5 786 514	1 83

<표Ⅳ-4> 시군구별 연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원, %)

	2005		2006		2007		2008	
		권역대비		권역대비		권역대비		권역대비
권역전체	16 757 425	100 0	17 641 482	100 0	18 673 705	100 0	18 804 741	100 0
수원시	13 370 131	79 8	14 167 304	80 3	15 209 126	81 4	15 612 419	83 0
성남시	11 051 603	66 0	12 314 111	69 8	12 889 573	69 0	15 352 354	81 6
의정부시	9 625 064	80 2	10 845 249	66 8	10 379 628	64 2	11 165 480	65 9
안양시	14 273 722	85 2	13 323 509	75 5	14 041 298	75 2	16 577 192	88 2
부천시	13 439 662	115 9	11 791 441	110 7	11 987 351	111 7	12 390 184	111 1
광명시	11 525 263	172 8	11 831 903	95 4	11 675 221	104 2	11 737 953	117 3
평택시	20 285 606	121 1	31 097 884	176 3	33 800 444	181 0	35 012 965	186 2
동두천시	14 530 300	68 8	15 396 851	67 1	14 231 201	62 5	12 056 685	62 4
안산시	19 415 958	102 6	19 524 239	113 0	20 863 863	109 0	20 897 663	99 8
고양시	9 812 019	81 0	10 889 438	79 2	11 070 449	78 3	11 902 202	77 9
과천시	27 144 334	172 5	31 892 332	276 0	32 277 327	252 0	29 243 059	204 2
구리시	10 485 842	298 4	10 815 906	167 3	10 846 235	171 9	11 837 809	146 6
남양주시	8 280 406	106 4	10 281 705	131 1	10 654 175	127 4	8 921 756	103 9
오산시	17 471 862	86 5	15 267 000	98 4	13 994 219	95 7	12 242 983	88 3
시흥시	17 189 867	123 6	19 937 881	149 4	20 348 724	144 2	18 759 222	127 3
군포시	13 575 489	74 5	13 976 028	89 5	14 618 516	81 0	14 649 065	78 7
의왕시	14 185 952	84 7	14 319 234	81 2	14 589 309	78 1	12 821 166	68 2
하남시	12 478 103	104 3	15 797 670	86 5	15 126 397	74 9	14 793 509	65 1
용인시	28 960 027	100 5	16 837 362	96 9	19 461 672	96 7	22 063 660	100 0
과주시	14 383 168	77 5	21 262 297	77 3	23 323 506	73 4	22 163 290	73 9
이천시	50 000 577	162 0	29 508 924	180 8	32 095 605	172 8	27 566 105	155 5
안성시	20 707 440	58 6	26 353 612	61 7	26 926 637	59 3	23 937 692	63 3
김포시	17 826 308	57 4	23 120 939	61 5	23 788 914	55 6	19 533 418	59 4
화성시	28 904 785	49 4	48 695 971	58 3	47 048 541	57 1	38 407 906	47 4
광주시	14 500 825	85 8	17 354 288	120 5	17 876 142	124 9	16 597 290	117 9
양주시	14 458 257	62 6	15 904 568	61 3	15 984 415	58 1	16 343 998	63 0
포천시	16 747 594	99 9	19 957 538	113 1	19 889 615	106 5	19 110 079	101 6
여주군	16 841 953	86 3	17 086 249	90 2	18 053 682	85 6	18 799 776	86 9
연천군	15 515 544	86 7	16 546 717	86 8	15 689 363	76 2	14 184 877	64 1
가평군	16 640 728	99 3	16 550 160	93 8	17 621 764	94 4	22 051 657	117 3
양평군	12 981 586	92 6	13 636 979	93 8	13 701 482	84 0	13 889 514	75 4
충구	77 469 577	462 3	83 577 832	473 8	95 403 585	510 9	88 036 601	468 2
동구	23 205 240	138 5	26 344 443	149 3	29 253 607	156 7	29 678 038	157 8
남구	8 974 765	53 6	10 167 040	57 6	10 218 328	54 7	10 104 582	53 7
연수구	6 393 623	38 2	6 738 851	38 2	7 747 024	41 5	9 195 647	48 9
남동구	24 311 439	145 1	24 270 077	137 6	24 928 620	133 5	24 072 162	128 0
부평구	10 283 261	61 4	11 253 592	63 8	13 403 625	71 8	13 227 334	70 3
계양구	7 719 844	46 1	8 627 093	48 9	8 998 284	48 2	8 111 777	43 1
서구	18 359 147	109 6	18 978 667	107 6	19 767 211	105 9	20 916 722	111 2
강화군	16 986 435	101 4	18 474 279	104 7	19 382 797	103 8	21 418 404	113 9
준천시	12 861 309	76 7	13 496 037	76 5	14 333 051	76 8	14 134 165	75 2
원주시	14 761 608	88 1	15 164 760	86 0	16 387 710	87 8	16 880 234	89 8
횡성군	19 990 567	119 3	20 426 109	115 8	23 250 440	124 5	23 239 514	123 6
평창군	15 020 607	89 6	19 529 460	110 7	21 192 464	113 5	21 365 282	113 6
화천군	22 290 620	133 0	23 878 930	135 4	25 441 466	136 2	24 784 488	131 8
정주시	13 242 000	79 0	15 089 628	85 5	16 240 864	87 0	15 085 519	80 2
충주시	14 647 384	87 4	15 367 250	87 1	17 265 161	92 5	16 970 776	90 2
청원군	35 883 248	214 1	32 928 130	186 7	33 268 142	178 2	36 467 362	193 9
증평군	18 818 865	112 3	17 949 742	101 7	18 317 996	98 1	17 750 396	94 4
진천군	40 596 841	242 3	38 287 951	217 0	39 142 301	209 6	45 826 484	243 7
음성군	32 923 042	196 5	35 822 938	203 1	35 320 876	189 1	31 268 623	166 3
전주시	22 318 487	133 2	24 742 287	140 3	25 634 342	137 3	25 752 487	136 9
아산시	53 299 113	318 1	54 478 630	308 8	56 628 462	303 3	52 429 543	278 8
예산군	14 812 321	88 4	15 366 155	87 1	15 353 750	82 2	17 455 539	92 8
당진시	31 622 362	188 7	31 649 998	179 4	35 135 585	188 2	42 413 173	225 5

2 분석권역 산업분포

1) 분석권역 산업분포

전국의 사업체수는 2000년 301만개에서 2010년 336만개로 34만2천개가 증가하여 2000년 대비 11.4%가 증가하였다 권역내에서는 79만6천개에서 105만개로 24만9천개(31.4%)가 증가하여 전국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경기권은 48만8천개에서 68만7천개로 40.7%가 증가하였으나 강원권은 7.2% 증가하여 권역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종사자수는 전국적으로 2000년 1,360만명에서 2010년 1,765만명으로 29.7%가 증가하였으나 권역 내에는 2000년 381만명에서 2010년 563만명으로 47.8%가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중남권과 경기권은 2000년 24만명과 242만명에서 2010년 40만명과 376만명으로 증가하여 67.9%와 55.5%가 증가하여 전국평균은 물론 권역 내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천권과 강원권은 24.0%와 30.4%의 증가율을 보여 권역 내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IV-5> 분석권역 산업현황(2000,2010)

(단위 업체,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0년	%	2010년	%	증가율	2000년	%	2010년	%	증가율
전국	3,013,417	100.0	3,355,470	100.0	11.4	13,604,274	100.0	17,647,028	100.0	29.7
권역내	796,056	26.4	1,045,902	31.2	31.4	3,808,251	28.0	5,630,367	31.9	47.8
경기권	488,147	16.2	687,020	20.5	40.7	2,416,082	17.8	3,758,001	21.3	55.5
인천권	141,261	4.7	162,126	4.8	14.8	663,826	4.9	822,899	4.7	24.0
강원권	47,377	1.6	50,807	1.5	7.2	171,345	1.3	223,360	1.3	30.4
충북권	69,040	2.3	80,572	2.4	16.7	317,901	2.3	424,675	2.4	33.6
중남권	50,231	1.7	65,377	1.9	30.2	239,097	1.8	401,432	2.3	67.9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00-2010), 2012.6

권역내 시군구별 사업체수는 2010년 기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청주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0~2010년간 증가율은 화성 광주 고양 천안 아산 등이 높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는 2010년 기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등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0~2010년간 증가율은 화성 파주 광주 청원 천안 아산 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해안고속도로 축으로는 충남의 아산 당진이 중부고속도로 축으로는 충북의 청원 진천지역이 부각되고 있다

2000~2010년간 사업체수 기준으로 증가율 상위 시군구는 화성시(180.9%), 광주시(120.5%), 용인시(94.1%), 시흥시(75.2%), 청원군(71.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화성시(167.4%), 청원군(122.6%), 광주시(120.8%), 용인시(112.4%), 아산시(88.7%)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여 권역평균 증가율 31.4%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IV-6> 분석권역 시군구별 사업제수(2000, 2010)

	2000년(A)		2010년(B)		2010-2000(B-A)	
	업체수	%	업체수	%	업체수	증감율
권역계	796 056	1000	1 045 902	1000	249 846	31.4
수원시	51 711	65	57 844	55	6 133	11.9
성남시	38 749	49	50 923	49	12 174	31.4
의정부시	17 970	23	23 286	22	5 316	29.6
안양시	32 976	41	40,740	39	7,764	23.5
부천시	49 033	62	54 767	52	5 734	11.7
광명시	13 742	17	16 435	16	2 693	19.6
평택시	21 182	27	27 703	26	6 521	30.8
동두천시	5 370	07	5 886	06	516	9.6
안산시	31 517	40	45 278	43	13 761	43.7
고양시	31 520	40	49 606	47	18 086	57.4
과천시	3 071	04	3 409	03	338	11.0
구리시	9 520	12	11 605	11	2 085	21.9
남양주시	15 829	20	25 587	24	9 758	61.6
오산시	6 164	08	9 183	09	3 019	49.0
시흥시	18 149	23	31 799	30	13 650	75.2
군포시	11 344	14	14 566	14	3 222	28.4
의왕시	4 951	06	6 705	06	1 754	35.4
하남시	6 224	08	10 164	10	3 940	63.3
용인시	18 444	23	35 802	34	17 358	94.1
과주시	11 547	15	19 367	19	7 820	67.7
이천시	9 834	12	12 727	12	2 893	29.4
안성시	7 783	10	11 549	11	3 766	48.4
김포시	11 445	14	18 584	18	7 139	62.4
화성시	12 447	16	34 962	33	22 515	180.9
광주시	8 365	11	18 445	18	10 080	120.5
양주시	8 793	11	13 358	13	4 565	51.9
포천시	11 316	14	14 402	14	3 086	27.3
여주군	6 126	08	7 309	07	1 183	19.3
연천군	3 577	04	3 290	03	-287	-8.0
가평군	4 502	06	5 495	05	993	22.1
양평군	4 946	06	6 244	06	1 298	26.2
충주	8 715	11	9 514	09	799	9.2
동구	8 162	10	7 411	07	-751	-9.2
남구	26 523	33	25 174	24	-1 349	-5.1
연수구	9 618	12	12 355	12	2 737	28.5
남동구	24 176	30	31 382	30	7 206	29.8
부평구	26 534	33	30 733	29	4 199	15.8
계양구	13 344	17	16 123	15	2 779	20.8
서구	19 309	24	24 344	23	5 035	26.1
강화군	4 880	06	5 090	05	210	4.3
준천시	17 128	22	19 192	18	2 064	12.1
원주시	18 604	23	22 759	22	4 155	22.3
횡성군	3 016	04	3 149	03	133	4.4
평강군	3 542	04	4 027	04	485	13.7
화진군	1 935	02	1 680	02	-255	-13.2
정주시	37 225	47	42 959	41	5 734	15.4
충주시	14 596	18	15 640	15	1 044	7.2
정원군	5 160	06	8 830	08	3 670	71.1
진천군	3 966	05	4 491	04	525	13.2
음성군	5 900	07	6 358	06	458	7.8
증평군	2 193	03	2 294	02	101	4.6
진안시	26 743	34	36 095	35	9 352	35.0
아산시	9 956	13	14 406	14	4 450	44.7
예산군	6 190	08	5 898	06	-292	-4.7
당진군	7 342	09	8 978	09	1 636	22.3

<표IV-7> 분석권역 시군구별 종사자수(2000, 2010)

	2000년(A)		2010(B)		2010-2000(B-A)	
	종사자수(명)	구성비(%)	종사자수(명)	구성비(%)	종사자수(명)	증감율(%)
권역계	3 808 251	100 0	5 630 367	100 0	1 822 116	47 8
수원시	239 695	6 3	342 752	6 1	103 057	43 0
성남시	179 490	4 7	310 658	5 5	131 168	73 1
의정부시	67 363	1 8	97 125	1 7	29 762	44 2
안양시	157 493	4 1	214 264	3 8	56 771	36 0
부천시	206 969	5 4	257 932	4 6	50 963	24 6
광명시	57 555	1 5	73 147	1 3	15 592	27 1
평택시	107 501	2 8	164 436	2 9	56 935	53 0
동두천시	19 796	0 5	23 518	0 4	3 722	18 8
안산시	200 125	5 3	269 822	4 8	69 697	34 8
고양시	138 351	3 6	237 053	4 2	98 702	71 3
과천시	29 930	0 8	34 675	0 6	4 745	15 9
구리시	36 232	1 0	51 255	0 9	15 023	41 5
남양주시	60 120	1 6	105 580	1 9	45 460	75 6
오산시	29 140	0 8	43 106	0 8	13 966	47 9
시흥시	106 457	2 8	157 339	2 8	50 882	47 8
군포시	64 768	1 7	88 494	1 6	23 726	36 6
의왕시	26 626	0 7	37 826	0 7	11 200	42 1
하남시	25 906	0 7	50 063	0 9	24 157	93 2
용인시	131 389	3 5	238 300	4 2	106 911	81 4
과주시	54 880	1 4	116 587	2 1	61 707	112 4
이천시	61 546	1 6	82 648	1 5	21 102	34 3
안성시	38 532	1 0	74 751	1 3	36 219	94 0
김포시	59 791	1 6	100 406	1 8	40 615	67 9
화성시	99 553	2 6	266 190	4 7	166 637	167 4
광주시	43 558	1 1	96 176	1 7	52 618	120 8
양주시	49,864	1 3	64 564	1 1	14 700	29 5
포천시	53 680	1 4	69 734	1 2	16 054	29 9
여주군	27 827	0 7	34 359	0 6	6 532	23 5
연천군	11 558	0 3	12 585	0 2	1 027	8 9
가평군	16 725	0 4	20 173	0 4	3 448	20 6
양평군	13 662	0 4	22 483	0 4	8 821	64 6
충구	44 938	1 2	66 693	1 2	21 755	48 4
동구	33 269	0 9	32 578	0 6	-691	-2 1
남구	101 345	2 7	105 916	1 9	4 571	4 5
연수구	34 661	0 9	59 105	1 0	24 444	70 5
남동구	153 022	4 0	189 301	3 4	36 279	23 7
부평구	118 830	3 1	147 531	2 6	28 701	24 2
계양구	55 151	1 4	71 371	1 3	16 220	29 4
서구	106 504	2 8	133 244	2 4	26 740	25 1
강화군	16 106	0 4	17 160	0 3	1 054	6 5
준천시	65 705	1 7	86 600	1 5	20 895	31 8
원주시	76 116	2 0	100 386	1 8	24 270	31 9
횡성군	12 091	0 3	14 156	0 3	2 065	17 1
평장군	11 510	0 3	16 008	0 3	4 498	39 1
화천군	5 923	0 2	6 210	0 1	287	4 8
정주시	165 531	4 3	203 175	3 6	37 644	22 7
증주시	55 003	1 4	65 030	1 2	10 027	18 2
정원군	30 612	0 8	68 143	1 2	37 531	122 6
진천군	24 293	0 6	33 818	0 6	9 525	39 2
음성군	34 330	0 9	44 237	0 8	9 907	28 9
증평군	8 132	0 2	10 272	0 2	2 140	26 3
전안시	129 944	3 4	217 611	3 9	87 667	67 5
아산시	59 076	1 6	111 482	2 0	52 406	88 7
예산군	21 040	0 6	24 707	0 4	3 667	17 4
당진군	29 037	0 8	47 632	0 8	18 595	64 0

2) 분석권역 산업구조

권역 내 사업체수의 전국 대비 비중은 2000년 26.4%에서 2010년 31.2%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2.0%에서 39.0%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사업체수 기준 분석권역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0.1%, 제조업 12.4%, 서비스업 87.5%로 전국 산업구조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제조업이 12.4%로 전국 10.2%보다 다소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87.5%로 전국 89.6%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0년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12.2%로 전국 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87.8%로 전국 90.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권역 내 산업구조는 2차 산업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3차 산업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분석권역은 2차 산업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표Ⅳ-8> 분석권역 사업체수(2000,2010)

(단위 개, %)

	2000년					2010년				
	전국		권역내		전국비	전국		권역내		전국비
전산업	3,013,417	100.0	796,056	100.0	26.4	3,355,470	100.0	1,045,902	100.0	31.2
1차산업	5,127	0.2	693	0.1	13.5	4,124	0.1	635	0.1	15.4
2차산업	308,652	10.2	98,640	12.4	32.0	326,813	9.7	127,400	12.2	39.0
3차산업	2,699,638	89.6	696,723	87.5	25.8	3,024,533	90.1	917,867	87.8	30.3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00-2010), 2012.6

2000년 종사자수 기준 분석권역 산업구조는 1차 산업 0.2%, 2차 산업 33.5%, 3차 산업 66.2%로 분석권역의 2차 산업(33.5%)이 전국(24.0%)보다 높은 반면 3차 산업(66.2%)은 전국(75.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2차 산업 중심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27.8%로 전국(19.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72.0%로 전국(80.4%)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국 대비 권역내 점유율은 2000년 기준 28.0%에서 2010년 31.9%로 높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39.1%에서 45.8%로 크게 상승하여 제조업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

<표Ⅳ-9> 분석권역 종사자수(2000,2010)

(단위 명, %)

	2000년					2010년				
	전국		권역내		전국비	전국		권역내		전국비
전산업	13,604,274	100.0	3,808,251	100.0	28.0	17,647,028	100.0	5,630,367	100.0	31.9
1차산업	77,514	0.6	8,809	0.2	11.4	46,795	0.3	9,283	0.2	19.8
2차산업	3,267,465	24.0	1,276,845	33.5	39.1	3,417,698	19.4	1,565,732	27.8	45.8
3차산업	10,259,295	75.4	2,522,597	66.2	24.6	14,182,535	80.4	4,055,352	72.0	28.6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00-2010), 2012.6

2000년 사업체수 기준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권역내 79만6천개 중 경기권역이 48만8천개로 전체의 6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천권역 14만1천개(17.7%), 충북권역 6만9천개(8.7%), 충남권역 5

만개(6.3%), 강원권역 4만7천개(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산업은 총 9만9천개 중 경기권역이 6만7천개(67.8%)로 집중도가 높았다

<표IV-10> 분석권역 내 시도별 사업체수 및 점유율(2000)

(단위 개, %)

구 분		권역계	경기권역	인천권역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
권역계	업체수	796,056	488,147	141,261	47,377	69,040	50,231
	점유율	100.0	61.3	17.7	6.0	8.7	6.3
1차산업	업체수	693	329	66	75	87	136
	점유율	100.0	47.5	9.5	10.8	12.6	19.6
2차산업	업체수	98,640	66,890	18,818	2,626	5,740	4,566
	점유율	100.0	67.8	19.1	2.7	5.8	4.6
3차산업	업체수	696,723	420,928	122,377	44,676	63,213	45,529
	점유율	100.0	60.4	17.6	6.4	9.1	6.5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00-2010), 2012.6

2010년 사업체수 기준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권역 내 104만6천개 중 경기권역이 68만7천개로 전체의 6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천권역 16만2천개(15.5%), 충북권역 8만1개(7.7%), 충남권역 6만5천개(6.3%), 강원권역 5만1천개(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총 12만7천개 업체 중 경기권역이 9만1천개로 71.7%를 점유하고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권역별 사업체수 변화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기권역이 61.3%에서 65.7%로 증가한 반면 인천권역은 17.7%에서 15.5%로, 강원권역은 6.0%에서 4.9%로 다소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경기권역이 2차 산업은 2000년 67.8%에서 71.7%로, 3차 산업은 60.4%에서 64.9%로 증가하였다

<표IV-11> 분석권역 내 시도별 사업체수 및 점유율(2010)

(단위 개, %)

구 분		권역계	경기권역	인천권역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
권역계	업체수	1,045,902	687,020	162,126	50,807	80,572	65,377
	점유율	100.0	65.7	15.5	4.9	7.7	6.3
1차산업	업체수	635	312	43	78	103	99
	점유율	100.0	49.1	6.8	12.3	16.2	15.6
2차산업	업체수	127,400	91,405	20,217	2,603	6,944	6,231
	점유율	100.0	71.7	15.9	2.0	5.5	4.9
3차산업	업체수	917,867	595,303	141,866	48,126	73,525	59,047
	점유율	100.0	64.9	15.5	5.2	8.0	6.4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00-2010), 2012.6

2000년 종사자수 기준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권역 내 381만명 중 경기권역이 242만명으로 전체의 6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천권역 66만명 17.4%, 충북권역 32만명 8.3%, 충남권역 24만명 6.3%, 강원권역 17만명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총 128만명 중 경기권역이 84만명

으로 6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천권역은 24만명으로 18.5%를 점유하고 있어 경기권과 인천권이 권역 전체의 84.3%를 점유하고 있다

<표IV-12> 분석권역 내 시도별 종사자수 및 점유율(2000)

(단위 명, %)

구 분		권역계	경기권역	인천권역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
권역계	종사자수	3,808,251	2,416,082	663,826	171,345	317,901	239,097
	점유율	100.0	63.4	17.4	4.5	8.3	6.3
1차산업	종사자수	8,809	4,791	792	810	931	1,485
	점유율	100.0	54.4	9.0	9.2	10.6	16.9
2차산업	종사자수	1,276,845	839,584	235,747	19,661	94,804	87,049
	점유율	100.0	65.8	18.5	1.5	7.4	6.8
3차산업	종사자수	2,522,597	1,571,707	427,287	150,874	222,166	150,563
	점유율	100.0	62.3	16.9	6.0	8.8	6.0

자료 통계청, 사업제조사(2000-2010), 2012.6

2010년 종사자수 기준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권역 내 563만명 중 경기권역이 376만명으로 전체의 6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천권역 82만명(14.6%), 충북권역 42만명(7.5%), 충남권역 40만명(7.1%), 강원권역 22만명(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총 157만명 중 경기권역이 105만명으로 66.8%를 점유하고 있어 인천권을 포함할 경우 80.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권역별 종사자수 점유율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기권역이 63.4%에서 66.8%로 상승한 반면 인천권은 17.4%에서 14.6%로, 강원권은 4.5%에서 4.0%로 다소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경기권역이 2차 산업은 2000년 65.8%에서 66.8%로, 3차 산업은 62.3%에서 66.8%로 상승하였다 충남권역은 3차 산업이 6.0%에서 정제되었으나 2차 산업은 2000년 6.8%에서 2010년 9.9%로 증가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IV-13> 분석권역 내 시도별 종사자수 및 점유율(2010)

(단위 명, %)

구 분		권역계	경기권역	인천권역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
권역계	종사자수	5,630,367	3,758,001	822,899	223,360	424,675	401,432
	점유율	100.0	66.8	14.6	4.0	7.5	7.1
1차산업	종사자수	9,283	4,968	756	1,144	1,336	1,079
	점유율	100.0	53.5	8.1	12.3	14.4	11.6
2차산업	종사자수	1,565,732	1,045,746	218,628	22,508	123,458	155,392
	점유율	100.0	66.8	14.0	1.4	7.9	9.9
3차산업	종사자수	4,055,345	2,707,287	603,515	199,708	299,881	244,961
	점유율	100.0	66.8	14.9	4.9	7.4	6.0

자료 통계청, 사업제조사(2000-2010), 2012.6

3 분석권역 시군구별 지역경제 분석

1) 입지계수(LQ)에 의한 분석

2000년 종사자수 기준 분석권역 시군구의 입지계수를 보면 「농림어업」은 당진 화성 청원 평창 등이 높게 나타났고,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제조업」은 양주 포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은 김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여주 이천,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은 시흥,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은 광주,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은 횡성에서 입지계수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은 진천 예산 강화 음성 등이 높게 나타났고, 2차 산업은 김포 양주 시흥 화성 광주 등이 20이상으로 높았으며, 3차 산업은 과천 연수구 춘천 평창 화천 가평 청주 등이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종사자수 기준 분석권역 시군구의 입지계수를 보면 「농림어업」은 당진 평창 연천 예산 여주 횡성,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은 음성 진천 횡성,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제조업」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은 파주, 「화학제조업」은 음성 진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여주 아산 음성,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은 광주 포천 김포, 「물류서비스업」은 중구, 「정보통신서비스업」은 과천 성남,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은 과천 화천에서 입지계수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은 강화 안성 가평 증주 등이 높게 나타났고, 2차 산업은 진천 화성 아산 음성 등이 20이상으로 높았으며, 3차 산업은 과천 연수구 춘천 평창 화천 중구 의정부 등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및 담배」는 이천 안성,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은 양주 포천,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은 파주 김포,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은 음성 김포, 「화학제품제조업」은 음성 진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여주 아산, 「1차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은 당진 시흥, 「전기 전자 통신제품제조업」은 이천 아산, 「정밀기기제조업」은 청원 군포,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은 횡성 아산,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은 광주 포천 등이 경쟁우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의 업종별 특화산업은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은 서구 당진, 「건설업」은 화천, 「도소매업」은 하남, 「물류서비스업」은 중구 의왕, 「음식 및 숙박업」은 평창 가평, 「문화서비스업」은 과천 용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수원,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은 과천 화천, 「교육 및 사회보장서비스업」은 의정부 연수구 등으로 나타났다

<표Ⅳ-14> 분석권역 내 업종별 입지계수 상위 시군구(2000)

구 분	10-20	20-40	40이상
1차 산업 01 농림어업	중주 과주, 과천 이천 준천 김포 양평 양주 원주 광주, 안산 용인	진천 예산 강화 음성 아산 포천 안성 횡성, 중구 연천 가평 여주 파천 증평	당진 화성 정원 평장
2차 산업(제조업)	서구 포천 남동구 부천 남양주 정원 군포 진천 음성 과주 동구 안산 여주 하남 용인	김포 양주 시흥 화성 광주	-
02 음식료 및 담배	정원 진천 양평 예산 횡성 음성 당진 강화 증평	안성 아산 연천 여주 파천 과주 포천 화성 중주 평장 이천 양주 김포 가평 평택 광주 진안 원주	
03 섬유 의류 가죽	하남 연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구 강화 부천 광명	동두천 광주 성남	양주 포천
04 목재 및 종이	화성 정원 과주 고양 양주 남양주 포천 용인 동구 안산 남동구 시흥 군포 부천	광주 김포 서구	
05 석유화학 고무	음성 진천 남양주 서구 과주 용인 계양구 의왕 남동구	화성 양주 광주 시흥 부천 포천 군포 정원	김포
06 화학제조업	남동구 서구 안산 과주 안성 용인 정원 횡성	진천 음성 화성 김포 양주 시흥 포천 광주	
07 비금속광물제품	김포 남양주 과주 하남 서구 횡성 양평 용인 예산 아산 증평	광주 정원 포천 화성 양주 안성 음성 진천	여주 이천
08 1차금속 및 금속	부천 양주 광주 동구 남양주 진천 부평	시흥 김포 서구 남동구 화성 안산	
09 전기 전자 통신	광주 안양 김포 동구 양주 의왕 부평 계양 안산	화성 시흥 부천 서구 군포 남동구	
10 정밀기기제조업	안양 광주 김포 남동구 하남 계양구 양주 서구 용인 부평	화성 부천 동구 군포 의왕 시흥	
11 자동차 및 장비	동구 의왕 양주 광주 부평 안산	하성 김포 남동 군포 서구 부천	시흥
12 가구 및 기타	과주 용인, 남동구 고양, 화성, 시흥, 계양구	남양주 포천 김포 하남 서구 양주	광주
3차 산업(서비스업)	과천 연수구 준천 평장 파천 가평 정주 중구 의정부 원주 수원 중주 양평 남구 구리 강화 성남 평택 증평 오산	-	-
13 전력 가스 수도	가평 증평 평장 하남 군포 원주 안산 동구 중구 안성 진천 준천 오산 당진 남양주 광주 용인 평택 음성 화성 구리 시흥 강화 양평	과천 연천 동두천 정원 횡성 파천 양주 서구 의왕	
14 건설	당진 동구 음성 전안 양평 진천 여주 횡성 오산 가평 연천 용인 원주 예산 과천 안성 경주 파천 평장 수원		
15 도소매	동구 과천 중구 강화 중주 동두천 당진 평택 증평 예산 구리 정주 안양 이천		
16 물류	계양구 남양주 전안 광명 의왕 남구 오산 남동 서구 의정부 수원 정주 군포	연수구	
17 음식 숙박	파천 가평 양평 평장 연천 준천 횡성 중구 원주 아산 강화 진천 여주 포천 중주 안성 연수구 과주		
18 문화	가평 의정부 남구 수원 성남 연수구 계양 안양 경주 고양		
19 정보통신	연천 과천 평장 횡성 동구 원주 정원 준천 여주 강화 음성 안양 양평 안성 남구 아산 고양 중구 당진	파천군	
20 금융보험	과천 당진 예산 남구 평장 음성 이천 파천 구리 원주 경주 준천 증평 진천 양평		
2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성남, 고양 연수구 용인 광명 아산 의왕 수원 군포 남구		
22 공공행정 및 국방	음성 정원 가평 준천 아산 여주 중주 증평 안성 원주 이천 포천 동두천 화성 하남	파천 과천 평장 예산 강화, 양평, 연천, 당진 진천 중구	횡성군
23 교육 및 사회보장	고양 과천 군포 연수구 의왕 계양구 성남 광명 수원 남양주, 가평 의정부 연천		

<표Ⅳ-15> 분석권역 내 업종별 입지계수 상위 시군구(2010)

구 분	10-20	20-40	40 이상
01 농림어업	원주 평택, 아산 증평, 과주	강화, 안성 가평 중주 중구 당진 양평 음성 포진 진진 준천 화진 이천 정원	의왕 평택 연천 예산 여주 횡성
2차 산업(제조업)	김포 시흥 정원 양주 포진 서구 과주 안성 안산, 남동구 평택 광주 이천 동구 전안 당진	진천 화성 아산 음성	
02 음식료 및 담배	가평 동두전 예산 중주 강화 파주 광주 양주 화진 원주 구리 평택 중구 전안 여주 평택 당진 아산 양평 군포	이천 안성, 증평 연천 포진 정원	음성 진천 횡성
03 섬유 의류 가죽	광주 의정부 계양구 남양주 부평 음성 시흥	하남 안산	양주 포진 동두전 연천
04 목재 및 종이	고양 포진 양주 음성 화성 안산 오산 평택, 남동구 안성	김포 정원 서구 광주	과주
05 석유화학 고무	군포 아산 파주 부천 서구 시흥 남동구 안성 평택 증평	음성 김포 화성, 진천 정원 양주 포진 광주	
06 화학제조업	평택 횡성 김포 아산 중주 남동구 당진 전안	안성 정원 안산 화성 시흥	음성, 진천
07 비금속광물제품	당진 과주 양주 평택 김포 횡성 서구 원주 양평 연천 예산 중주 하남	진천 포진 정원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아산 음성
08 1차금속 및 금속	안산 음성 광주 양주 안성 부천 포진	당진 시흥 동구 김포 서구 남동구, 화성 진천	
09 전기 전자 통신	수원 전안 파주 화성 평택 안산 진천 의왕 용인 군포	이천 아산 증평 정원	
10 정밀기기제조업	횡성 부천 진천 의왕 원주 성남 평택 화성 시흥 광주	정원 군포 안양	
11 자동차 및 장비	안성 서구 김포 광명 안산 전안 당진 음성	횡성 아산 시흥 진천 동구 평택 남동구 부평구	
12 가구 및 기타	하남 음성 남동구 횡성 아산 안성 고양	남양주 파주 서구 양주	광주 포진 김포
3차 산업(서비스업)	과천, 연수구, 준천, 화진, 중구, 의정부, 양평, 구리 평택 가평 강화 고양 성남 남구 원주 정주 안양 계양구 하남 수원 광명 동두전 오산 중주		
13 전력 가스 수도	가평 정원 연수구, 증평 중주 횡성 준천 양주 예산 과주 의정부, 포진 여주 진천 원주 평택 평택 이천 안성	서구 당진 화진 연천 동두전 양평	
14 건설	강화 과천 양평 당진 원주 하남 연수구 구리 광명 정주 중주 연천 군포 안양 횡성 예산	화진	
15 도소매	구리 동구 광명 고양 의정부 남양주 원주 안양 남구 계양구 광주 동두전 부평 정주 증평 양평 성남 부천	하남	
16 물류	군포 동구 광주 광명 남구 남양주 서구 오산 계양구 예산 하남 이천 연수구 춘천 과주	의왕	중주
17 음식 숙박	화진 횡성 연수구, 연천 동두전 춘천 오산 구리 의정부 원주 중주 남양주 여주 예산 고양 계양구 남구 증평 중구 광명	평택 가평 양평 강화	
18 문화	연수구 수원 가평 여주 춘천 평택 의왕	과천 용인 안양 성남	
19 정보통신	화진 안양 고양 구리 수원 의정부 원주 횡성, 연수구	춘천	과천 성남
20 금융보험	의정부 부평 부천 춘천 원주 예산 정주 수원 안양 고양 중주 평택 강화 전안 남동구	남구 구리	
2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수원 계양구 군포 고양 오산 정주 남구 성남 부천 의정부 중구 부평구 원주 동두전 연수구 춘천 구리		
22 공공행정 및 국방	강화 당진 여주 양평 의정부 의왕 정주 남구 동두전 증평 연수구 정원 중주 수원	연천 횡성 예산 중주 가평 춘천 평택	과천 화진
23 교육 및 사회보장	의정부, 연수구 고양 양평 오산 계양구 강화 남양주 춘천 동두전 용인 구리 원주 중주 정주 남구 광명 수원 여주		

<표IV-16> 분석권역 내 시도별 입지계수(종사자수, 2000)

구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	안산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	오산시	시흥시	구천시	의정부	하남시	용인시	파주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1차 산업	0.10	0.12	0.14	0.19	0.03	0.00	1.44	0.79	2.14	0.52	2.21	0.49	0.25	0.27	0.03	0.19	0.00	0.84	1.79	0.57	3.94	1.88	0.95	3.50	1.75	1.49
01 농림어업	0.10	0.12	0.14	0.19	0.03	0.00	1.44	0.79	2.14	0.52	2.21	0.49	0.25	0.27	0.03	0.19	0.00	0.84	1.79	0.57	3.94	1.88	0.95	3.50	1.75	1.49
2차 산업	0.64	0.57	0.26	0.74	1.17	0.72	1.11	0.77	1.50	0.47	0.09	0.34	0.92	1.02	1.76	1.26	0.99	1.23	1.25	1.46	1.14	1.65	1.82	0.78	1.94	1.50
02 음식료 및 담배	0.41	0.96	0.32	0.75	0.42	0.35	1.40	1.25	0.75	0.37	0.06	0.81	1.04	0.78	0.56	1.71	1.12	0.80	2.26	2.28	3.26	1.07	1.51	1.36	1.30	1.00
03 섬유 의류 가죽	0.19	1.56	1.40	0.99	0.84	0.74	0.42	4.40	2.19	0.59	0.42	1.04	1.56	1.11	0.43	2.12	1.35	0.72	1.19	0.30	0.48	0.56	7.92	0.55	0.51	1.72
04 목재 및 종이	0.28	0.26	0.20	0.59	0.75	0.17	1.21	0.18	1.59	1.61	0.23	0.25	1.39	2.04	1.36	1.50	1.14	1.40	2.29	0.36	0.99	2.92	1.37	0.60	1.41	3.07
05 석유화학 고무	0.61	0.14	0.06	0.47	2.12	0.20	0.88	0.15	1.42	0.46	0.00	0.25	0.88	1.07	2.01	1.60	1.32	1.25	1.46	0.17	1.16	3.03	2.06	0.32	2.13	1.69
06 화학제조업	0.45	0.32	0.00	0.61	0.83	0.06	1.22	1.27	2.37	0.34	0.19	0.03	0.41	1.48	2.28	1.48	0.73	1.35	0.78	0.94	2.57	1.40	1.21	0.27	3.86	0.77
07 비금속광·석	0.73	0.14	0.20	0.26	0.62	0.18	0.72	0.12	0.54	0.48	0.02	0.50	1.32	0.08	0.48	0.13	0.68	0.88	1.39	2.52	1.79	1.73	2.21	11.73	1.89	2.87
08 1차금속 및 잡	0.21	0.15	0.15	0.40	1.46	0.37	0.64	0.50	2.53	0.30	0.02	0.43	1.06	0.86	3.15	0.66	0.23	0.53	0.95	0.31	0.67	2.56	1.41	0.50	1.44	1.39
09 전기 전자 소	1.57	0.80	0.09	1.21	1.35	0.36	1.24	0.22	1.21	0.23	0.01	0.10	0.40	1.58	1.12	1.30	0.73	2.30	1.00	3.66	0.78	0.79	0.65	0.19	1.81	0.89
10 정밀기계제조업	0.76	1.69	0.62	1.58	2.46	0.78	0.92	0.16	0.72	0.54	0.72	0.80	0.77	3.00	1.15	1.43	0.99	1.15	1.68	0.27	0.09	1.61	1.27	0.06	1.66	1.74
11 자동차 및 장비	0.23	0.13	0.05	0.45	1.18	2.31	1.82	0.03	1.43	0.21	0.00	0.07	0.42	0.45	3.05	2.14	1.42	0.56	0.58	0.65	1.31	1.84	0.70	0.22	3.47	0.75
12 가구 및 기타	0.20	0.51	0.25	0.38	0.67	0.49	0.52	0.48	0.70	1.33	0.03	0.40	3.37	0.68	0.89	0.30	0.26	1.98	2.72	0.58	0.65	2.84	1.81	0.78	0.89	3.79
3차 산업	1.19	1.22	1.38	1.13	0.92	1.15	0.94	1.12	0.74	1.27	1.46	1.34	1.04	0.99	0.62	0.87	1.01	1.19	0.87	0.77	0.92	0.67	0.59	1.10	0.52	0.75
13 전력 가스 수도	0.67	2.09	0.79	0.74	0.97	0.67	1.76	2.20	0.88	0.94	0.99	0.90	1.72	0.87	0.72	0.73	0.81	2.47	0.66	0.37	0.81	0.50	0.97	0.96	0.39	0.88
14 건설	1.00	0.85	1.24	1.09	0.69	0.92	0.90	0.81	1.04	1.08	1.08	1.20	0.95	1.03	0.60	0.69	1.68	1.53	1.20	1.20	0.98	0.70	0.68	2.22	0.44	0.30
15 도소매	1.10	1.11	1.30	1.34	1.04	1.20	0.96	1.30	0.78	1.29	1.45	1.66	0.99	1.00	0.68	0.84	0.86	1.41	0.86	0.78	0.88	0.69	0.58	0.94	0.42	0.78
16 관광	1.18	1.28	1.53	1.00	0.76	1.44	0.83	1.16	0.68	1.28	0.38	1.13	1.40	1.02	0.42	1.30	2.03	1.37	0.71	0.71	0.57	0.62	0.70	0.74	0.40	0.85
17 음식 숙박	1.07	1.13	1.35	0.98	0.93	1.07	0.96	1.49	0.71	1.13	0.71	1.18	1.17	1.02	0.68	0.71	0.81	1.23	0.99	0.82	1.10	0.74	0.77	1.20	0.57	1.00
18 문화	1.36	1.54	1.26	1.36	0.84	0.82	0.78	0.65	0.77	1.12	2.96	1.03	0.82	0.72	0.71	1.00	0.83	0.67	0.80	0.63	0.90	0.51	0.49	1.56	0.90	0.69
19 정보통신	1.14	1.05	1.22	1.62	0.66	0.57	0.64	0.89	0.60	1.64	4.32	1.54	0.66	0.69	0.51	0.60	0.26	1.13	0.82	0.48	0.62	0.52	0.43	0.95	0.35	0.38
20 금융보험	1.35	1.06	1.48	1.22	1.19	1.55	1.05	1.09	0.80	1.15	1.00	1.77	0.74	0.75	0.42	0.53	0.44	0.80	0.96	0.96	1.00	0.54	0.29	0.94	0.28	0.49
21 부동산 및 사업	1.25	1.42	1.41	1.07	0.97	1.28	0.92	0.99	0.76	1.57	1.02	1.26	1.11	0.94	0.66	1.06	0.99	1.12	0.88	0.66	0.80	0.67	0.64	0.89	0.54	0.60
22 공공행정 및 사	1.57	0.88	1.73	0.89	0.59	0.73	1.09	1.19	0.35	0.75	7.04	0.75	0.87	1.33	0.32	0.72	1.56	1.26	0.91	0.73	0.83	0.70	0.57	1.51	0.47	0.92
23 교육 및 사회복지	1.28	1.29	1.43	1.04	0.91	1.23	0.96	0.82	0.73	1.49	0.63	1.42	1.10	1.10	0.66	0.94	0.98	0.83	0.74	0.73	1.05	0.72	0.43	0.96	0.62	0.72

앞장에서 계속

구분	원진군	포진군	가평군	양평군	중구	동구	남구	원주군	남양주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근접시	인주시	횡성군	영양군	화천군	정주시	충주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공평군	진안시	예산군	당진군	
1차 산업	5.42	3.91	2.22	1.09	3.68	0.00	0.17	0.00	0.06	0.01	0.34	0.54	4.51	2.32	1.05	2.57	7.06	0.95	0.03	1.92	3.26	3.68	2.71	1.28	1.12	2.72	5.57	7.52
2차 산업	5.42	3.91	2.22	1.09	3.68	0.00	0.17	0.00	0.06	0.01	0.34	0.54	4.51	2.32	1.05	2.57	7.06	0.95	0.03	1.92	3.26	3.68	2.71	1.28	1.12	2.72	5.57	7.52
3차 산업	0.54	1.38	0.28	0.22	0.32	1.05	0.55	0.08	1.61	1.11	0.83	1.58	0.34	0.18	0.44	0.80	0.21	0.18	0.64	0.56	1.53	1.66	1.51	0.92	1.09	1.45	0.58	0.69
12 음식료 및 담배	2.17	2.20	1.66	1.45	1.74	0.58	0.40	0.29	0.52	0.52	0.61	0.49	1.28	0.59	1.53	4.61	0.99	1.21	0.93	1.12	2.63	3.84	2.98	2.63	1.43	1.77	1.51	1.30
13 섬유 의류 가죽	2.60	4.42	0.09	0.19	0.11	0.63	0.55	0.12	0.58	1.15	1.11	0.53	1.28	0.23	0.16	0.05	0.03	0.07	0.90	0.46	1.10	0.59	1.76	0.29	0.87	0.61	0.82	0.20
14 도재 및 종이	0.15	1.35	0.84	0.27	1.86	0.66	0.76	0.09	1.32	0.37	0.60	2.94	0.22	0.19	0.42	0.65	0.29	0.12	0.50	0.30	4.44	0.55	0.92	0.38	0.93	0.84	0.54	0.25
15 석유화학 고무	0.23	1.52	0.04	0.01	0.06	0.14	0.23	0.01	1.26	0.51	0.75	1.23	0.22	0.25	0.48	0.77	0.54	0.13	0.94	0.48	2.76	2.42	2.27	1.96	1.26	1.43	1.08	0.58
16 화학제품	0.10	0.83	0.09	0.20	0.21	0.22	0.71	0.03	1.39	0.57	0.53	1.30	0.18	0.20	0.25	1.26	0.05	0.06	0.48	1.34	0.84	4.23	4.38	0.06	1.04	1.13	0.59	0.77
17 비금속광물제품	1.80	3.26	1.14	1.09	0.14	0.79	0.58	0.04	0.88	0.21	0.45	2.03	0.87	0.32	0.63	2.62	2.14	0.42	0.63	1.15	3.14	3.10	3.60	1.08	1.14	1.63	1.24	1.77
18 1차 금속 및 금속	0.19	0.78	0.06	0.12	0.18	3.39	0.63	0.05	2.74	0.84	0.93	2.86	0.23	0.16	0.29	0.31	0.07	0.08	0.21	0.42	0.91	2.09	1.59	1.04	0.88	0.84	0.89	1.85
19 전기 전자 용선	0.05	0.39	0.09	0.04	0.02	0.25	0.49	0.03	1.25	0.77	1.05	1.03	0.01	0.10	0.34	0.09	0.00	0.02	1.11	0.72	1.30	1.27	0.52	1.08	1.32	1.63	0.11	0.23
20 정밀기계제품	0.00	0.51	0.00	0.00	0.13	0.62	0.88	0.06	1.37	1.63	0.99	0.72	0.32	0.06	0.18	1.33	0.00	0.00	0.19	0.15	3.45	0.82	1.11	0.11	1.01	0.35	0.03	0.00
21 자동차 및 장비	0.01	0.46	0.02	0.02	0.17	1.97	0.55	0.05	2.54	2.24	0.47	1.57	0.03	0.03	0.53	0.30	0.00	0.00	0.18	0.09	0.84	1.21	0.83	0.10	1.12	2.50	0.37	0.84
22 가구 및 기타	0.23	3.19	0.59	0.13	0.16	0.58	0.65	0.18	2.32	2.41	1.21	3.72	0.25	0.32	0.22	1.39	0.19	0.08	0.21	0.56	0.37	0.48	1.74	0.10	0.42	0.92	0.35	0.15
23차 산업	1.22	0.80	1.36	1.40	1.33	0.98	1.23	1.47	0.70	0.95	1.09	0.71	1.32	1.41	1.28	1.10	1.38	1.41	1.19	1.22	0.72	0.66	0.73	1.09	0.95	0.77	1.20	1.13
23 친터 가스, 수도	2.62	0.59	2.10	1.37	1.60	0.69	0.88	2.10	0.49	0.51	0.55	3.08	1.09	1.88	0.96	0.80	1.07	2.40	0.76	1.20	1.68	0.59	0.65	1.43	0.70	0.77	0.55	1.13
24 건설	1.39	1.01	1.38	1.98	0.74	1.33	0.94	0.92	0.95	0.43	0.48	0.58	1.12	1.67	1.66	1.56	1.34	1.38	1.49	1.68	0.57	0.93	1.42	0.76	1.17	0.62	1.36	2.68
25 도소매	1.14	0.81	1.13	1.08	1.17	1.59	1.19	1.20	0.70	1.13	1.09	0.73	1.17	1.23	1.25	0.88	1.15	1.23	1.21	1.28	0.60	0.58	0.67	1.17	0.98	0.67	1.20	1.16
26 관광	0.87	0.45	0.46	0.66	3.53	1.27	1.48	1.46	0.71	0.72	1.44	1.32	0.92	1.22	1.21	0.62	0.85	0.53	1.16	0.88	0.76	0.61	0.50	0.87	1.00	0.59	1.01	0.64
27 음식 숙박	1.63	1.11	2.14	2.36	1.13	0.61	1.26	1.90	0.62	0.98	1.09	0.61	1.55	1.49	1.40	1.47	2.39	2.12	1.07	1.37	0.91	0.84	0.83	1.21	0.94	0.99	1.43	1.28
28 문화	0.65	0.68	1.76	0.79	1.08	0.64	1.31	1.06	0.73	0.76	0.94	0.54	0.45	1.38	1.03	0.53	1.23	0.62	1.13	0.75	0.39	0.45	0.41	0.52	0.84	0.55	0.52	0.57
29 정보통신	1.83	0.61	1.46	1.21	0.81	0.67	1.04	1.53	0.91	0.78	0.69	0.49	1.27	1.74	2.37	1.47	1.73	1.94	1.56	1.31	0.32	0.60	0.59	0.94	0.63	0.53	1.27	1.23
30 금융보험	1.41	0.76	1.11	1.31	0.92	0.32	2.11	0.79	0.58	1.12	0.96	0.34	1.30	1.62	1.57	1.10	1.23	1.56	1.45	1.36	0.45	0.69	0.78	1.49	0.95	0.82	1.32	1.30
31 부동산 및 사업	0.91	0.68	1.05	1.25	0.96	0.91	1.28	1.63	0.78	1.03	1.22	0.77	1.15	1.23	1.12	0.90	1.04	1.04	1.05	1.04	0.60	0.61	0.68	0.90	0.89	0.76	1.01	0.92
32 공공행정 및 국방	1.94	0.68	2.25	2.12	3.62	1.27	0.77	1.64	0.83	0.66	0.95	0.54	1.75	2.41	1.16	2.59	2.56	4.02	1.19	1.26	0.61	1.01	1.00	1.40	0.66	0.78	2.32	1.48
33 교육 및 사회보장	1.06	0.75	1.07	1.20	0.91	0.66	1.06	1.79	0.61	1.03	1.26	0.65	1.99	1.28	1.23	1.02	0.89	1.02	1.22	1.26	1.09	0.53	0.72	1.15	1.09	0.91	1.11	0.92

<표IV-17> 분석권역 내 시도별 입지계수 추이(사업체수, 2010)

구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	안양시	부천시	강남시	평택시	송도권	안산시	고양시	아산시	구미시	남포시	우산시	시흥시	1도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상주시	영주시	포천시
1차 산업	0.36	0.10	0.07	0.08	0.03	0.00	1.43	0.28	0.29	0.23	1.93	0.00	0.12	0.36	0.05	0.00	0.74	0.49	0.92	1.53	2.59	4.14	0.97	1.65	1.34	1.11	3.32
2차 산업	0.26	0.10	0.07	0.08	0.03	0.00	1.43	0.28	0.29	0.23	1.93	0.00	0.12	0.46	0.05	0.00	0.74	0.49	0.92	1.53	2.59	4.14	0.97	1.65	1.34	1.11	3.32
3차 산업	0.44	0.53	0.41	0.73	1.39	0.63	0.77	0.51	1.19	0.64	0.17	0.41	1.19	0.51	2.34	1.37	0.93	0.96	0.58	1.38	0.81	1.16	2.55	2.36	2.06	1.92	2.30
12 문예·노년·장애인	0.77	0.91	0.80	0.70	0.78	0.85	1.09	1.06	0.66	0.62	0.39	0.73	0.93	0.81	0.52	0.90	0.93	0.76	0.65	1.23	1.59	1.83	0.99	0.80	1.16	1.17	1.76
13 섬유·화학·가공	0.40	1.42	2.08	0.89	0.99	1.17	0.63	2.79	0.83	0.59	0.28	1.03	1.14	0.27	0.59	0.67	0.58	2.46	0.46	0.89	0.41	0.64	0.81	0.53	2.23	7.92	8.36
14 인쇄·정보·서비스	0.59	0.34	0.19	0.65	1.13	0.47	0.72	0.24	0.97	2.00	0.38	0.34	1.11	0.53	1.03	0.99	0.55	0.80	0.96	3.47	0.80	0.91	3.32	1.58	2.75	1.43	2.26
15 석유·화학·광산	0.15	0.10	0.12	0.35	1.72	0.40	0.91	0.23	0.72	0.53	0.06	0.22	1.43	0.52	2.04	1.82	1.03	0.92	0.74	1.84	0.55	1.25	4.10	4.06	3.22	2.48	2.97
16 화학·제조업	0.29	0.42	0.12	0.37	0.64	0.30	1.58	0.21	1.55	0.47	0.00	0.15	0.67	0.43	1.89	0.65	0.80	0.46	0.70	1.92	0.94	3.03	4.10	3.40	1.56	2.20	2.19
17 비제조업·서비스	0.18	0.22	0.24	0.28	0.31	0.35	0.82	0.28	0.44	0.53	0.24	0.33	1.31	0.40	0.65	0.34	0.53	1.51	0.85	2.01	5.56	2.47	2.07	1.59	4.11	1.93	3.79
18 제조업·서비스	0.21	0.11	0.13	0.40	1.68	0.51	0.57	0.17	1.59	0.29	0.05	0.32	1.11	0.47	3.88	1.60	0.52	0.58	0.33	0.86	0.46	0.90	3.27	3.76	1.64	1.33	1.35
19 전기·전자·통신	0.82	0.94	0.26	1.66	2.18	0.78	0.63	0.23	1.97	0.53	0.20	0.18	0.65	0.69	2.23	2.59	1.88	0.62	0.47	0.85	0.41	0.65	1.27	1.62	1.42	0.94	0.84
20 정밀·기계·제조업	1.09	1.83	0.88	2.05	2.33	1.15	0.57	0.05	1.09	0.64	0.09	0.38	0.51	0.48	1.77	3.65	2.51	0.84	0.58	0.61	0.46	0.79	1.15	1.72	1.43	0.69	0.33
21 자동차·및·장비	0.27	0.21	0.09	0.67	1.55	0.84	0.92	0.11	1.37	0.34	0.02	0.16	0.70	0.48	4.60	1.17	1.22	0.58	0.37	0.78	0.51	1.33	3.04	3.38	1.32	1.15	0.90
22 가구·및·기타	0.41	0.50	0.47	0.59	0.76	0.58	0.53	0.50	0.64	1.23	0.29	0.77	3.34	0.32	1.04	0.57	0.36	2.23	0.87	2.64	0.73	0.90	3.26	1.03	4.41	1.78	3.98
23 인쇄	1.08	1.07	1.08	1.04	0.95	1.04	1.03	1.07	0.97	1.05	1.11	1.08	0.97	1.07	0.81	0.95	1.01	1.01	1.06	0.95	1.03	0.98	0.78	0.81	0.85	0.87	0.82
23 전기·전자·수도	0.40	0.45	0.56	0.52	0.39	0.71	1.16	1.69	0.97	0.58	1.65	0.67	0.96	1.18	0.73	1.07	1.10	0.89	0.74	1.68	1.50	1.61	1.72	2.19	0.87	1.62	2.28
24 건설	1.02	1.05	0.92	1.23	0.80	0.93	1.19	1.03	1.01	0.96	1.05	0.90	0.77	0.83	0.67	1.16	1.00	1.14	0.93	0.89	1.18	1.04	0.79	0.91	0.90	0.84	0.76
25 도소매	1.01	1.02	1.04	1.15	0.94	1.11	1.04	1.10	0.95	1.04	1.58	1.19	0.90	1.00	0.94	0.82	0.92	1.46	0.93	0.91	0.97	0.86	0.84	0.83	0.93	0.87	0.87
26 서비스·유통	0.92	0.97	0.99	0.94	1.01	1.36	1.03	0.91	1.11	0.95	0.90	1.09	1.22	1.39	0.88	0.90	1.26	0.95	1.01	0.91	0.96	1.03	0.87	0.80	1.09	1.03	0.66
27 음식·서비스	1.06	0.98	1.07	0.89	0.87	0.84	1.08	1.19	0.93	0.89	0.81	1.02	0.98	1.13	0.78	0.88	0.91	0.75	1.00	1.01	1.08	1.14	0.74	0.79	0.80	0.68	1.06
28 문화	1.32	1.34	1.17	1.32	1.04	0.80	0.87	0.65	1.09	1.15	0.89	0.98	0.76	0.97	0.77	1.06	0.89	0.69	1.05	0.98	0.92	0.92	0.69	0.76	0.72	0.65	0.72
29 정보·통신	1.25	2.18	0.97	1.98	0.99	0.70	0.68	0.74	0.78	1.48	2.96	0.96	0.50	0.62	0.51	1.18	0.85	0.66	0.62	0.66	0.82	0.73	0.60	0.38	0.31	0.90	0.63
30 금융·보험	1.26	1.26	1.23	1.18	1.03	0.88	1.13	0.92	0.93	1.10	1.17	1.44	0.58	0.81	0.48	0.64	0.61	0.64	0.91	0.90	1.05	0.73	0.72	0.68	0.49	0.46	0.68
31 부동산·및·서비스업	1.16	1.13	1.13	0.98	1.02	1.04	1.05	1.16	0.94	1.13	0.91	1.04	0.98	0.98	0.75	1.04	1.08	0.90	1.17	0.94	1.07	0.93	0.76	0.79	0.81	0.88	0.73
32 의료·행정·및·서비스업	0.74	0.74	0.90	0.69	0.52	0.84	1.04	1.51	0.71	0.62	3.75	0.83	0.69	0.41	0.56	0.68	1.22	0.84	0.88	1.08	1.87	1.88	0.73	0.85	0.67	0.96	1.28
33 교육·및·서비스업	1.23	1.19	1.25	1.04	0.92	1.17	0.90	0.98	0.94	1.38	1.14	1.11	1.14	1.12	0.73	1.25	1.16	0.81	1.49	0.95	1.03	0.96	0.72	0.85	0.68	0.83	0.55

앞장에서 계속

구분	여주구	이진군	자평군	양평군	송구	흥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개양구	서구	가좌구	스진시	닌주시	형성군	평양군	화진군	창주시	흥주시	청인군	진관군	음성군	증평군	권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1차산업	473	701	180	290	260	022	000	000	016	000	020	054	453	197	159	471	859	294	046	400	392	403	440	287	123	286	698	404
2차산업	473	701	180	290	260	022	000	000	016	000	020	054	453	197	159	471	859	294	046	400	392	403	440	287	123	286	698	404
3차산업	090	061	037	038	030	144	059	020	153	085	079	189	050	037	045	062	034	039	043	054	151	140	143	062	076	098	067	062
12 음식료 및 담배	154	228	147	192	065	085	097	054	070	082	088	082	2 88	119	122	266	173	219	102	179	217	254	286	234	111	150	269	174
13 섬유 의류 가죽	032	192	023	020	052	165	066	020	053	117	105	067	072	038	053	020	013	013	052	049	060	066	086	055	055	044	048	043
14 기계 및 장비	053	030	073	040	063	136	073	012	107	046	068	237	025	041	049	065	038	026	059	054	178	089	100	042	067	079	060	029
15 석유화학 고무	054	023	008	020	003	034	041	009	127	071	090	162	023	010	021	020	011	006	010	027	213	215	204	028	065	115	031	028
16 화학제품업	070	067	036	012	015	043	020	022	162	029	036	139	020	059	054	163	018	029	024	086	288	528	473	064	084	126	083	060
17 비금속광업제품	1265	133	075	084	020	059	019	013	062	031	049	159	086	051	101	131	123	082	025	102	348	299	384	108	075	154	149	131
18 1차금속 및 금속	043	024	008	009	023	184	051	006	234	104	072	258	021	021	024	016	009	009	031	037	109	115	110	039	062	073	041	068
19 전기 전자 통신	011	006	009	019	007	212	054	030	167	106	103	207	008	017	021	009	003	016	041	019	150	068	072	048	076	068	019	021
20 정밀기기제조업	024	000	005	005	009	148	049	022	090	112	072	115	012	018	091	009	015	000	046	013	104	066	047	000	079	027	010	007
21 자동차 및 장비	027	010	003	004	016	212	053	012	236	071	066	251	006	005	021	019	004	006	023	019	138	115	087	012	098	152	029	045
22 가구 및 가나	081	038	065	036	043	063	075	025	094	084	085	177	038	065	050	080	034	035	055	057	085	063	084	064	062	081	043	063
23 산업업	101	105	109	108	110	094	106	111	093	102	103	088	107	109	108	105	109	106	108	106	093	094	094	105	103	100	104	105
23 전류 가스 수도	148	289	126	187	118	088	045	091	108	039	067	220	094	104	118	192	193	335	060	127	353	308	204	170	094	093	161	154
24 건설	106	150	144	175	062	138	102	092	093	093	099	077	098	104	127	145	117	146	114	128	130	122	109	091	110	089	127	132
25 도소매	100	100	076	086	121	153	106	086	099	109	097	087	110	098	108	091	085	098	113	106	094	088	094	111	105	093	111	105
26 도공	082	057	039	062	176	093	118	164	109	110	121	117	059	097	093	063	066	042	103	088	081	080	092	095	092	092	096	087
27 음식 숙박	115	134	227	159	129	062	103	110	085	093	099	080	159	137	123	158	203	173	104	118	109	119	108	115	105	121	117	124
28 문화	095	075	110	093	075	053	114	123	096	101	112	079	058	110	095	080	080	084	115	089	073	079	083	080	104	082	078	089
29 정보통신	072	174	123	140	078	086	095	090	076	084	061	036	159	161	107	139	151	301	132	095	118	082	095	088	098	093	097	090
30 구공보합	068	106	071	083	099	088	141	077	104	112	074	047	114	132	131	088	122	128	128	110	082	116	125	102	124	107	135	113
31 부동산사업서비스	103	116	083	115	080	077	111	110	090	106	107	090	102	102	099	100	088	088	101	111	094	089	085	109	102	097	096	103
32 공공행정 및 국방	248	378	194	273	273	096	082	075	065	058	064	063	349	161	128	429	344	529	076	207	185	206	224	217	094	123	277	222
33 교육 및 사회보장	092	079	066	084	049	048	080	127	075	095	099	078	074	100	104	079	062	089	116	091	075	074	071	088	105	104	081	079

<표IV-18> 분석권역 내 시도별 입지계수 추이(중사자수, 2010)

구분	수인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성태	농두진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아남	용이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파성	상주	양주	포천
1차 산업	0.45	0.05	0.03	0.04	0.01	0.00	0.59	0.10	0.21	0.19	0.16	0.00	0.37	0.63	0.02	0.00	14.24	0.41	0.57	1.15	2.52	4.05	1.04	0.63	0.96	0.73	2.92
01 농림어업	0.45	0.05	0.03	0.04	0.01	0.00	0.59	0.10	0.21	0.19	0.16	0.00	0.37	0.63	0.02	0.00	14.24	0.41	0.57	1.15	2.52	4.05	1.04	0.63	0.96	0.73	2.92
2차 산업	0.62	0.41	0.22	0.55	0.95	0.63	1.46	0.63	1.48	0.37	0.05	0.25	0.73	0.64	1.79	1.02	0.90	0.55	0.75	1.49	1.39	1.48	1.84	2.03	1.41	1.59	1.58
02 음식료 및 담배	0.27	1.01	0.34	0.46	0.52	0.32	1.42	1.73	0.52	0.36	0.05	1.43	0.89	0.54	0.56	1.13	0.63	0.61	0.72	1.62	3.08	3.05	0.93	0.69	1.59	1.59	2.60
03 섬유 의류 가죽	0.13	1.09	1.83	0.91	0.77	1.03	0.53	6.77	2.08	0.53	0.04	0.92	1.43	0.09	1.09	0.91	0.37	0.21	0.39	0.84	0.50	0.72	0.69	0.38	1.92	0.94	8.47
04 기계 및 장비	0.20	0.27	0.07	0.45	0.65	0.27	1.21	0.10	1.27	1.99	0.27	0.18	0.91	1.24	1.08	1.01	0.61	0.92	0.96	4.88	0.66	1.13	3.41	1.35	2.63	1.49	1.77
05 석유화학 고무	0.25	0.08	0.15	0.30	1.68	0.19	1.32	0.19	1.00	0.30	0.06	0.16	0.89	0.53	1.56	1.88	0.89	0.66	0.57	1.79	0.43	1.49	2.88	2.83	2.09	2.30	2.26
06 화학제품업	0.37	0.21	0.05	0.40	0.59	0.14	1.88	0.39	2.55	0.22	0.00	0.04	0.30	0.40	2.26	0.46	0.90	0.12	0.80	0.81	0.65	2.88	1.75	2.53	0.79	1.08	1.03
07 비금속광산·세사	0.09	0.17	0.16	0.27	0.25	0.37	0.96	0.25	0.48	0.33	0.07	0.74	0.84	0.17	0.68	0.25	0.35	1.23	0.59	1.78	2.34	2.04	1.51	1.16	2.70	1.77	3.28
08 1차 금속 및 금속	0.13	0.07	0.08	0.25	1.10	0.34	0.98	0.35	1.99	0.22	0.01	0.16	0.97	0.85	3.62	0.75	0.28	0.43	0.30	0.85	0.45	1.21	3.10	2.52	1.47	1.44	1.10
09 전기 전자 통신	1.82	0.56	0.11	0.84	1.03	0.28	1.62	0.13	1.59	0.17	0.06	0.03	0.25	0.64	0.93	1.10	1.49	0.22	1.43	1.80	2.94	0.82	0.65	1.63	0.61	0.71	0.86
10 정밀기기제조업	0.86	1.68	0.38	2.07	1.95	0.80	1.24	0.25	1.00	0.75	0.03	0.30	0.38	0.46	1.14	3.03	1.83	0.38	0.99	0.58	0.59	1.05	1.01	1.21	1.12	0.90	0.28
11 자동차 및 장비	0.16	0.17	0.05	0.39	0.84	1.75	2.13	0.65	1.46	0.15	0.00	0.06	0.29	0.54	2.75	0.83	0.99	0.24	0.28	0.59	0.65	1.98	1.88	3.29	0.88	0.52	0.44
12 가구 및 기타	0.16	0.40	0.41	0.39	0.73	0.37	0.70	0.31	0.75	1.11	0.06	0.44	3.95	0.25	0.94	0.40	0.25	1.92	0.78	2.97	0.68	1.20	4.20	0.92	4.90	2.14	4.77
3차 산업	1.15	1.23	1.30	1.17	1.02	1.15	0.82	1.15	0.82	1.24	1.37	1.29	1.10	1.14	0.70	1.00	1.01	1.17	1.10	0.81	0.85	0.81	0.68	0.60	0.84	0.77	0.77
13 전자 가스 수단	0.47	1.00	1.31	0.65	0.82	0.67	1.21	2.45	0.88	0.96	1.06	1.05	0.93	1.02	0.58	0.79	0.60	0.86	0.64	1.39	1.20	1.10	0.83	0.80	0.54	1.41	1.25
14 건설	0.91	1.33	1.15	1.37	0.78	1.46	0.88	0.60	0.68	1.05	1.63	1.47	0.86	0.91	0.49	1.39	0.75	1.50	0.95	0.62	0.86	0.75	0.66	0.76	0.82	0.74	0.57
15 도소매	0.98	1.11	1.27	1.21	1.10	1.36	0.84	1.13	0.83	1.36	0.88	1.56	1.27	1.07	1.00	0.82	0.91	2.41	0.87	0.83	0.75	0.68	0.80	0.60	1.18	0.93	0.90
16 교육	0.96	0.91	1.00	0.87	0.75	1.29	1.08	0.95	0.85	1.07	0.37	0.93	1.27	1.22	0.73	1.71	2.02	1.19	1.06	1.13	1.19	1.06	0.77	0.57	1.49	0.87	0.64
17 음식 숙박	1.03	1.02	1.34	0.96	1.02	1.11	0.93	1.48	0.80	1.21	0.71	1.36	1.29	1.38	0.79	0.75	1.01	0.90	0.91	0.87	0.90	0.86	0.72	0.61	0.84	0.94	1.09
18 문화	1.63	2.04	0.92	2.22	0.70	0.75	0.42	0.59	0.74	1.02	3.36	0.93	0.65	0.56	0.43	0.94	1.11	0.65	2.31	0.91	0.83	0.65	0.40	1.00	0.60	0.41	0.63
19 정보통신	1.11	4.41	1.38	1.57	0.91	0.60	0.41	0.88	0.48	1.54	7.00	1.53	0.59	0.42	0.40	0.62	0.63	1.07	0.77	0.44	0.36	0.27	0.37	0.24	0.31	0.12	0.53
20 금융보험	1.40	1.08	1.69	1.37	1.52	1.09	0.94	1.09	0.92	1.29	0.70	2.12	0.63	0.91	0.40	0.48	0.40	0.68	0.63	0.66	0.84	0.60	0.57	0.35	0.45	0.41	0.70
21 부동산 및 사업	1.37	1.27	1.24	1.08	1.27	1.09	0.89	1.16	0.92	1.31	0.79	1.11	1.02	1.29	0.60	1.34	0.76	0.82	1.03	0.68	0.87	0.68	0.60	0.56	0.61	0.69	0.52
22 공공행정 및 국방	1.23	0.92	1.62	0.77	0.80	0.84	0.73	1.48	0.59	0.83	6.89	0.95	0.83	1.07	0.60	0.46	1.58	0.92	0.63	0.21	0.85	1.02	0.68	0.32	0.85	0.76	0.73
23 교육 및 사회보장	1.15	1.09	1.53	1.02	1.06	1.17	0.74	1.30	0.86	1.42	0.62	1.25	1.31	1.34	0.70	0.95	0.99	0.74	1.23	0.79	0.78	0.98	0.70	0.55	0.68	0.78	0.80

앞장에서 계속

구분	여주	연진	가평	양평	종구	농구	남구	연수	남농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선	원주	횡성	평장	파진	신주	종주	정원	진권	임성	중평	진안	아산	예산	당진
1차산업	501	733	403	370	384	052	000	000	020	000	025	038	463	278	168	501	1231	264	064	388	247	285	339	130	079	149	552	379
01 농업어업	501	733	403	370	384	052	000	000	020	000	025	038	463	278	168	501	1231	264	064	388	247	285	339	130	079	149	552	379
2차산업	072	063	026	021	018	122	048	020	146	094	056	158	033	019	049	079	020	019	052	064	178	220	203	109	119	203	076	114
02 음식료 및 판매	132	272	194	115	142	051	042	020	054	059	030	082	168	081	148	420	130	154	078	170	256	543	640	304	134	122	172	126
03 섬유 의류 가죽	057	501	010	015	008	076	044	004	038	125	157	068	075	036	028	011	032	013	059	076	080	047	122	055	058	056	030	046
04 목재 및 종이	050	006	048	035	085	066	054	011	120	046	050	267	021	022	032	081	033	021	031	045	290	043	143	014	064	090	045	015
05 석유화학 고무	058	041	009	015	001	018	047	005	154	077	070	165	045	013	032	037	013	018	014	060	233	256	329	122	103	181	107	077
06 화학제품업	063	052	011	004	010	018	035	089	146	078	019	097	022	038	040	176	006	068	076	130	278	478	478	041	115	143	100	123
07 비금속광물제품	885	137	105	139	016	067	037	005	081	024	021	148	076	045	140	150	156	088	090	128	302	375	430	094	088	645	132	191
08 1차구축 및 금속	073	031	013	006	005	346	066	008	258	081	062	258	014	011	021	067	003	003	019	076	066	208	178	056	071	109	080	388
09 전기 전자 통신	015	005	002	005	000	035	035	027	101	058	054	092	005	005	015	006	002	004	107	034	239	158	105	239	182	254	061	014
10 장비기기제조업	092	000	006	038	002	037	075	023	083	090	051	097	020	017	182	195	008	000	042	009	314	187	048	000	103	018	009	001
11 자동차 및 장비	014	008	003	005	009	227	051	020	207	201	036	193	015	003	072	035	002	002	012	042	094	229	110	005	132	305	074	114
12 가구 및 기타	108	021	053	022	010	028	055	012	146	070	086	248	079	027	028	146	017	019	032	060	049	057	166	019	042	131	027	042
3차산업	110	113	128	130	131	092	120	131	082	103	117	078	125	131	120	107	128	131	119	113	070	053	060	096	093	060	108	094
13 전력 가스 수도	124	254	190	201	086	077	054	168	083	070	048	349	076	145	122	150	121	336	085	153	180	123	082	158	081	073	130	349
14 건설	092	130	129	155	046	122	106	149	112	121	133	061	182	129	153	135	131	238	144	143	099	070	069	100	093	045	134	155
15 도소매	106	101	084	111	087	148	118	101	090	113	118	088	107	109	125	082	083	093	112	110	062	047	055	111	089	056	099	086
16 문화	089	068	041	063	594	151	127	118	065	082	122	124	083	116	091	048	065	043	098	081	062	052	050	068	082	056	120	075
17 음식 숙박	123	150	277	220	114	057	116	150	081	097	118	073	208	147	132	161	316	185	106	130	076	065	066	115	093	078	122	106
18 문화	142	030	157	090	059	031	085	165	058	062	059	054	041	125	076	067	120	054	098	071	069	046	040	030	067	033	036	043
19 정보통신	051	092	104	085	047	017	066	123	059	052	080	030	095	200	134	129	090	167	107	092	025	032	037	059	077	032	066	059
20 금융보험	099	093	071	102	061	045	227	064	110	158	087	041	113	152	152	099	119	100	142	127	033	045	058	075	113	055	149	091
21 부동산서비스	090	088	078	105	122	087	128	113	093	121	136	064	089	112	117	094	088	068	129	105	050	041	047	090	103	053	089	090
22 공공행정 및 국방	164	308	233	163	260	092	149	144	095	055	108	076	199	233	099	270	221	504	158	134	136	081	097	144	061	049	264	176
23 교육 및 사회복지	113	094	109	135	070	073	118	152	068	107	133	076	132	130	122	093	082	109	120	122	069	050	071	100	108	081	096	072

2) 변이 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변이 할당분석은 어떤 지역 특정산업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전국 산업성장효과, 지역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변이 할당분석은 성장률 사이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장효과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지역성장률을 국가경제와 비교하여 나타난 성장격차를 권의에 따라 국가성장효과(NGE national growth effect)와 산업혼합효과(IMG industrial mix effect), 지역할당효과(RSE regional share effect)로 구분한다

변이 할당 분석의 기본전제는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구성비가 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전국산업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는 전국적으로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인가 아니면 사양산업인가를 파악한다 이 효과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지역 특정산업의 고용증가분 중에서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으로 유발된 고용증가분을 의미한다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는 특정지역이 전국 산업에 특화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 평균 이상일 경우에 양(+)의 값을 가지고, 저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높을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진다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J지역 I산업의 성장률이 전국 I산업 성장률보다 크면 양(+)이 되고 작으면 음(-)이 된다 따라서 지역성장효과는 지역 간 경쟁력을 통해 지역성장의 기여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²⁰⁾

변이 할당 분석에서는 지역의 성장요인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양(+)의 요인과 음(-)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역 성장유망산업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양(+)인 산업이 최선이며, 두 효과 중 하나만 양(+)이라도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두 효과가 모두 음(-)인 열위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업종전환을 해야 할 산업이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분석권역 총종사자수는 182만명이 증가했으며, 이중 국가성장효과에 의해 113만명, 지역할당효과에 의해 69만명이 증가한 반면 산업구조효과는 4만명이 감소하였다 2차 산업 중 산업구조효과는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차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이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타 제조업은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차 산업은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 건설서비스업, 물류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및 사회보장서비스업은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소매서비스업, 음식 숙박서비스업, 금융보험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은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권역 내 순상대변화효과 양(+)인 특화업종은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1차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 의료 및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이며, 서비스업은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 물류서비스업, 도소매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교육 및 사회보장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권역 내 특화업종으로 성장을 유도할 업종은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전기, 전자,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도소매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서비스업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IV-20 참조>

20) 이준근, 지역경제분석기법에 의한 경북지역의 산업구조분석, 응용경제 2003 p 75

<표IV-19> 분석권역 내 종사자수 성장효과(2000-2010)

(단위 명)

구 분	총변화효과	국가성장효과	순상대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합계	1,822,116	1,131,690	690,426	-45,065	735,491
1차 산업	474	2,618	-2,144	-6,109	3,965
01 농림어업	474	2,618	-2,144	-6,109	3,965
2차산업	288,887	379,437	-90,550	-284,230	193,679
02 음식료 및 담배	15,441	26,642	-11,201	-29,076	17,874
03 섬유, 의류, 가죽	-44,456	37,392	-81,848	-89,742	7,894
04 목재 및 종이	13,254	20,735	-7,481	-24,723	17,241
05 석유화학, 고무	44,068	24,737	19,331	4,098	15,233
06 화학제조업	12,973	19,522	-6,549	-21,501	14,952
07 비금속광물제품	4,808	11,769	-6,961	-14,947	7,986
08 1차금속 및 금속	76,064	45,397	30,667	6,784	23,884
09 전기, 전자, 통신	73,937	95,805	-21,868	-79,548	57,681
10 정밀기기제조업	17,887	7,750	10,137	2,170	7,967
11 자동차 및 장비	86,573	66,825	19,748	-1,196	20,944
12 가구 및 기타	-11,662	22,863	-34,525	-36,549	2,024
3차산업	1,532,755	749,635	783,120	245,272	537,848
13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	19,673	7,473	12,200	7,452	4,749
14 건설서비스업	157,987	37,818	120,169	69,413	50,756
15 도소매서비스업	176,102	169,628	6,474	-141,084	147,558
16 물류서비스업	125,463	51,227	74,236	10,169	64,066
17 음식, 숙박서비스업	129,041	124,056	4,985	-67,633	72,617
18 문화서비스업	151,102	56,159	94,943	35,718	59,225
19 정보통신서비스업	16,323	11,593	4,730	95	4,635
20 금융보험서비스업	12,071	41,721	-29,650	-20,377	-9,272
21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77,706	93,736	183,970	161,392	22,578
22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61,159	36,998	24,161	-2,883	27,044
23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06,128	119,226	286,902	193,011	93,891

<표IV-20> 분석권역 변이 할당분석 결과(2000-2010)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석유화학 및 고무 1차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 정밀기기제조업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 건설서비스업, 물류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전기, 전자,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도소매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서비스업

변이 할당 분석은 부가가치나 종사자수 등 지표를 절대치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으로는 Henderson의 지역성장률시차분석(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이 있다 지역성장률시차분석(TR)은 각 산업부문별 성장률에 그 산업부문의 구성비를 가중시켜 분석한 지역의 실질변화성장률(RR)과 전국 성장률(NR)과의 차이로 계산되어 비율로 표현된다 지역 총성장률 시차(TR)는 가중요인(WP weight part)과 경쟁력 요인(RP rate part)으로 분해되며, 가중요인은 변화할당분석에서의 산업구조효과를 경쟁력 요인은 지역할당효과를 나타낸다

가중요인은 기준년도 어떤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와 전국의 산업별 구성비간의 차를 전국의 산업별 성장률로 곱해준 값이다 따라서 가중요인은 전국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산업으로 지역에서는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쟁력 요인은 지역의 산업별 성장률과 전국의 산업별 성장률간의 차를 기준년도 지역의 산업 구성비로 가중된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요인은 산업의 구조적 이점을 감안한 후 지역의 산업이 타 지역의 산업에 비하여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성장효과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분석권역 산업의 종사자수 기준 지역총성장률시차는 지역의 실질변화성장률(0.47847)이 전국의 실질변화성장률(0.28533)보다 높아 0.18130이 되었다 이를 가중요인과 경쟁력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가중요인은 -0.01183이지만 경쟁력 요인은 0.19313으로 자체 경쟁력에 의한 성장효과가 많았다

<표IV-21> 분석권역 산업의 성장률 시차분석(2000-2010)

구 분	지역의 실질변화성장률	전국의 실질변화성장률	지역총 성장률시차	지역총	
				가중요인	경쟁력요인
01 농림어업	0.00012	-0.00092	0.00238	0.00134	0.00104
02 음식료 및 담배	0.00405	-0.00064	0.06482	-0.00006	0.00469
03 섬유, 의류, 가죽	-0.01167	-0.01375	0.00463	0.00277	0.00207
04 목재 및 종이	0.00348	-0.00105	0.00484	-0.00029	0.00453
05 석유화학, 고무	0.01157	0.00757	0.00423	0.00299	0.00400
06 화학제조업	0.00341	-0.00052	0.00699	-0.00016	0.00393
07 비금속광물제품	0.00126	-0.00083	0.00377	-0.00017	0.00210
08 1차금속 및 금속	0.01997	0.01370	0.00192	0.00376	0.00627
09 전기, 전자, 통신	0.01941	0.00427	0.01004	0.00214	0.01515
10 정밀기기제조업	0.00470	0.00260	0.01729	0.00084	0.00209
11 자동차 및 장비	0.02273	0.01723	0.00293	0.00381	0.00550
12 가구 및 기타	-0.00306	-0.00359	0.00931	-0.00167	0.00053
13 전력 가스, 수도서비스업	0.00517	0.00392	0.11410	0.00021	0.00125
14 건설서비스업	0.04149	0.02816	0.00146	-0.01153	0.01333
15 도소매서비스업	0.04624	0.00750	0.00180	-0.00167	0.03875
16 물류서비스업	0.03295	0.01612	0.03708	-0.00304	0.01682
17 음식, 숙박서비스업	0.03388	0.01482	0.01378	-0.00064	0.01907
18 문화서비스업	0.03968	0.02413	0.01843	-0.00645	0.01555
19 정보통신서비스업	0.00429	0.00307	0.00910	-0.00151	0.00122
20 금융보험서비스업	0.00317	0.00560	-0.00029	-0.00125	-0.00243
21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0.07292	0.06699	-0.00369	-0.00110	0.00593
22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0.01606	0.00896	0.00483	-0.00153	0.00710
23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10664	0.08199	0.00557	0.00138	0.02465
합계	0.47847	0.28533	0.18130	-0.01183	0.19313

분석권역 시군구별 시차분석에 있어 총 시차가 양(+)의 수치를 지닌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동두천 고양 구리 군포 여주 연천 가평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횡성·평창 증평 예산 당진 등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의 시군구는 종사자수 성장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표Ⅳ-22> 분석권역 시군구별 총종사자수 기준 경쟁우위 산업분석 결과(2000-2010)

	총 시차	가중 요인	경쟁력 요인		총 시차	가중 요인	경쟁력 요인
권역계	0 1813	-0 0118	0 1931	여주군	0 0004	-0 0075	-0 0549
수원시	0 0036	0 0374	0 0954	연천군	0 0075	-0 0466	-0 1617
성남시	0 0110	0 0272	0 4064	가평군	0 0035	0 0221	0 1565
의정부시	0 0047	0 0495	0 0952	양평군	-0 0001	0 0453	-0 0022
안양시	-0 0003	-0 0040	0 0673	중구	0 0026	0 0149	0 1721
부천시	0 0005	-0 0137	-0 0373	동구	-0 0006	0 0019	-0 3207
광명시	-0 0026	0 0400	-0 0662	남구	-0 0061	0 0221	-0 2742
평택시	-0 0028	-0 0113	0 2438	연수구	0 0313	0 1024	0 3056
동두천시	0 0008	-0 1011	-0 0080	남동구	0 0009	-0 0297	-0 0304
안산시	-0 0066	-0 0597	0 1108	부평구	0 0008	-0 0264	-0 0293
고양시	0 0198	0 0548	0 3614	계양구	0 0000	0 0020	-0 0050
과천시	-0 0055	0 0318	-0 1720	서구	-0 0003	-0 0517	0 0056
구리시	0 0026	0 0292	0 0883	강화군	-0 0125	0 0452	-0 2769
남양주시	-0 0120	-0 0248	0 4838	춘천시	-0 0026	0 0629	-0 0420
오산시	-0 0008	-0 0041	0 1862	원주시	-0 0009	0 0426	-0 0209
시흥시	-0 0079	-0 0365	0 2173	횡성군	0 0017	-0 0155	-0 1109
군포시	0 0002	0 0029	0 0663	평창군	0 0004	0 0048	0 0864
의왕시	-0 0001	-0 0015	0 0917	화천군	-0 0047	0 0176	-0 2673
하남시	-0 0092	-0 0142	0 6495	정주시	-0 0013	0 0157	-0 0854
용인시	-0 0129	-0 0238	0 5404	충주시	-0 0018	0 0141	-0 1290
파주시	-0 0567	-0 0636	0 8909	정원군	-0 0622	-0 0627	0 9916
이천시	-0 0096	-0 0778	0 1235	진천군	-0 0135	-0 0780	0 1730
안성시	-0 0216	-0 0320	0 6748	음성군	-0 0060	-0 0821	0 0735
김포시	-0 0216	-0 0500	0 4321	증평군	0 0001	-0 0052	-0 0289
화성시	-0 0857	-0 0597	1 4364	천안시	-0 0041	-0 0105	0 3880
광주시	-0 1167	-0 1138	1 0247	아산시	-0 0253	-0 0401	0 6300
양주시	-0 0467	-0 2173	0 2149	예산군	0 0001	-0 0007	-0 1222
포천시	-0 0226	-0 1493	0 1512	당진군	0 0088	0 0280	0 3152

V. 경기도 및 인접지역 전략산업분석

1.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 2 분석권역 광역시도 전략산업 현황
- 3 분석권역 광역시도 전략산업분석
4. 분석권역 기반시설 분석

여 백

V. 경기도 및 인접지역 전략산업분석

1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1)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세계화 속에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접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토를 5개의 광역권역(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2개의 특별자치권역(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경제권을 광역화하였다

광역경제권의 설정과 함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추진은 2008년 9월 5+2 광역경제권역별로 선도산업 후보가 제시되었고, 2008년 10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착수하였다 이후 중앙-지방간 협력, 시도간 협의를 통해 선도산업이 선정되었으며, 선도산업의 수요조사 실시,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9년 3월 광역중심형 선도산업 지원체계가 확정되었다²¹⁾

<표 V-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

구분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수도권	지식정보산업(금융, 문화콘텐츠 등)
서울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 지원
경기	정보통신 생명, 자동차, 부품소재,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강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문화관광
충청권	의약바이오, 뉴 IT(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충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자세대전지
충남	정보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대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대경권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경북	전자정보기기, 생물, 한방, 신소재부품, 문화관광
대구	메카트로닉스, 섬유, 전자정보기기, 생물 등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부품, 소재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부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경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첨단)부품소재
전북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전남	생물, 신소재 조선, 물류, 문화관광
제주권	물 산업, 관광레저
제주도	문화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 콘텐츠

자료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김동주, 2009 p87

21) 김동주(2009)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87

2) 광역시도 전략산업

지역전략산업의 선정과 진흥 목적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수도권에 비하여 낙후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진흥사업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침체와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단계(1999~2003)로 대구(섬유), 부산(신발), 경남(기계), 광주(광산업)를 시작으로 2단계(2004~2008)로 9개 시도(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를 선정하여 전략산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과 함께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 육성, 시도별 4개 전략산업 중심으로 자립성장 기반 구축,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이후 각 광역시도 전략산업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광역시도 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다

<표 V-2> 광역시도별 4대 전략산업 및 세부계획

지역	4대 전략산업	세부계획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멀티미디어) 바이오 금융 및 기업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 육성 금융산업, 비즈니스 특화지구, 정보통신산업 특화지구 등 지역별 특화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전략산업이 적극 육성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자동차산업 기계금속산업 정보통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고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국제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육성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수준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IT-LCD클러스터 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경기 동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내 지역균형발전 도모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관광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과 연계한 농산어촌의 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생명 건강산업의 메카로 성장 기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간 생명 지역혁신체계' 구축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정보통신) 차세대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토피아'를 추구하는 오송 생명공학단지-오장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BT와 IT의 결합 추진 바이오산업 중심의 전략 및 지역산업 특화발전과 이를 연결하는 4B-8C(4개 벨트-8개 클러스터)의 광역클러스터 조성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첨단문화 농 축산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제조업에서 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서해안 생산기지화 기흥-전안-경주지역을 연계하는 IT밸리, 전안 아산-서산-당진을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구축

앞장에서 계속

지역	4대 전략산업	세부계획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과학기술의 허브도시'로 육성될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기반의 혁신주도형으로 육성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선도 대덕R&D특구 조성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R&D 핵심 거점 구축과 연구 성과의 산업화에 주력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가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권의 R&D 거점 구축' '선도 우수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으로 역동적 지속가능한 신 성장동력 창출 섬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메카트로닉스, 모바일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동남권 거대 산업클러스터의 중추도시로 발전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주력산업의 첨단형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정보기기 신소재 부품 생물 한방 문화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동(생물 한방), 구미(전자 정보), 경산(학원단지), 경주 포항(문화 소재) 등 권역별 특성화와 구미-질곡-대구를 연계한 IT산업 벨리 조성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기반 기계 로봇 지능형 품 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메카노(Mecha-know) 벨트(김해-장원-사천), 생명공학바이오벨트(김해-진주-통영 고성 거제) 중심의 산업집적을 추진하고 울산-부산-경남'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광역클러스터 조성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 컨벤션 영상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 동북아의 해양문화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IT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구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디자인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남권 첨단과학 산업 문화 중심'으로 발돋움할 광산업과 첨단 부품소재, 문화산업이 융합된 첨단 클러스터 구축으로 권역 내 첨단산업 선도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부품 및 기계 생물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 에너지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익산-군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산업벨트의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과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발전 모형 구축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 신소재 조선 물류 문화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산업의 집적완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물류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 전통산업과 지식기반 신산업간 유기적 연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산업화 전략 추진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건강 뷰티 생물 진환경 농업생명 디지털컨텐츠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 관광 휴양 중심지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건설 연구기반 과학 및 우수 첨단기업의 지역유치로 기존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자료 www.mke.go.kr

2 분석권역 광역시도 전략산업 현황

광역시도에 따라 세부 전략산업은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5+2로 대변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참여정부의 제1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4대 지역전략산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광역시도별로 세부전략산업을 보면 경기도의 전략산업은 신성장동력과 잠재력이 높은 성장산업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경기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과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등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제1차 국토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된 4대 전략산업은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IT산업이다 인천의 전략산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물류산업의 경우 동북아 종합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 수송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자동차산업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기계 금속산업은 기계 금속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신소재(철강 나노) 관련 기술개발, IT산업은 디지털 콘텐츠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이다

강원도는 지역여건과 자원 잠재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 방재산업, 관광문화산업을 세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강원 권역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표 V-3> 강원도 세부 전략산업 현황

전략산업	선정배경과 추진계획
바이오산업	강원도의 생태, 자원성과 가장 적합하며, 삼각테크노밸리사업을 통하여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음 정정 실버바이오, 해양바이오 분야 포함
의료기기산업	삼각테크노밸리사업에 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2002년부터 도내 수출부문 1위를 점유 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
신소재 방재산업	강원도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자원에서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료기기, 실비용품, 방재소재 등과 연계
관광문화산업	강원도 입장에서 관광은 경쟁력 요소평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연계하여 지식산업과 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이 되어 있음

자료 www.mke.go.kr

충청북도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 및 육성하고 있으며, 4대 전략산업은 바이오 및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이다

충청남도는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대중국교역의 교두보로서 서해안 생산기지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축으로 기흥-천안-정주 지역을 연계하는 IT밸리, 천안 아산-서산-당진을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의 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첨단문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표 V-4> 충청남도 세부 전략산업 현황

전략산업	특화산업	연관산업군
전자 정보기기산업	디스플레이부품소재 차세대 소자 제조장비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전자정보 소재,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부품 및 소재
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 전장 자동차 의장 및 편의부품	• 내외장 부품소재, 공기조화 및 압축기, 차량용 전기장치
농 축산바이오산업	농산자원가공 육유가공 친환경바이오	• 농축산 융합소재, 축산가공 소재, 농산가공 소재, 바이오 연료, 미생물 제제
첨단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전자출판 • 전자정보기기(셋탑박스, PDA)

자료 황정현 외, 충남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지 조성계획, 2010

분석권역 해당 광역시도의 세부 전략산업을 보면 정보통신, 물류, 자동차, 바이오산업은 중복되고 있으며 인접지역에 유사업종이 분포되어 있어 지역 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V-5> 광역시도별 세부 전략산업 현황

전략산업	경기도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정보통신	●	●			
생명	●				
문화콘텐츠	●				
물류	●	●			
자동차	●	●			●
부품소재	●				
기계금속		●			
바이오			●	●	
의료기기			●		
신소재 방재			●		
관광문화			●		
반도체				●	
이동통신				●	
차세대전지				●	
전자 정보기기					●
첨단문화					●
농 축산 바이오					●

3 분석권역 광역시도 전략산업분석

1) 광역시도별 전략산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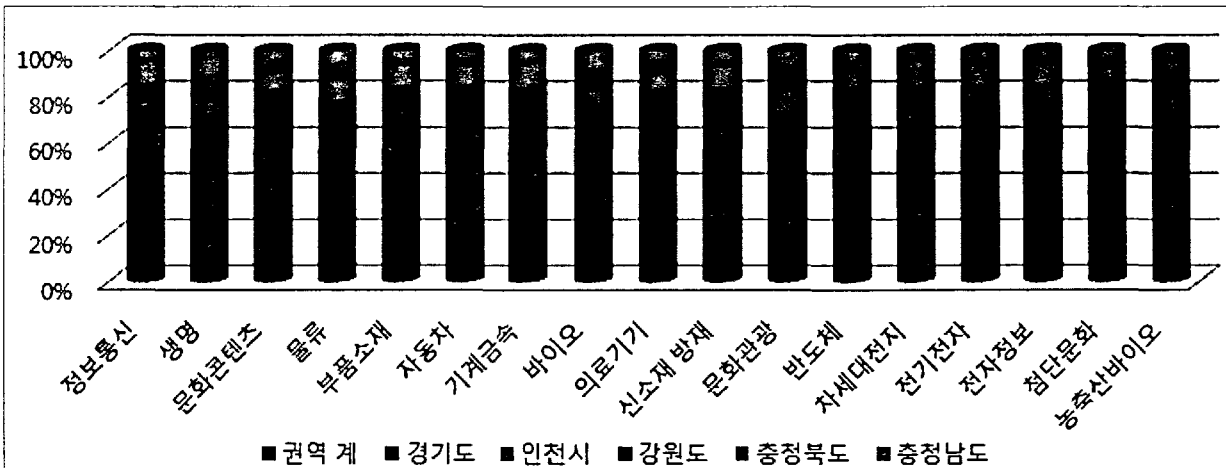
사업제수 기준 광역시도별 전략산업을 보면 전국 대비 분석권역 광역시도가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26.1%), 인천(6.5%), 충남(3.4%), 충북(2.8%), 강원(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6>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사업제수 기준, 2010년)

(단위 %)

	전국	소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01 정보통신	100.0	54.0	39.2	9.3	0.7	2.1	2.7
02 생명	100.0	38.8	17.7	3.8	4.6	5.2	7.5
03 문화콘텐츠	100.0	32.0	21.7	4.0	2.1	2.2	2.0
04 물류	100.0	34.7	20.1	5.7	2.7	2.9	3.2
05 부품소재	100.0	49.1	34.5	8.2	0.9	2.3	3.1
06 자동차	100.0	49.3	34.9	8.4	0.9	2.2	3.0
07 기계금속	100.0	47.1	32.9	8.7	0.7	2.0	2.8
08 바이오	100.0	40.5	22.2	4.2	4.1	4.2	5.8
09 의료기기	100.0	38.9	26.8	3.9	3.7	2.1	2.4
10 신소재 방재	100.0	50.4	35.0	8.2	1.1	2.7	3.5
11 문화관광	100.0	31.2	15.2	5.0	4.9	2.8	3.3
12 반도체	100.0	39.1	26.3	5.2	2.1	2.6	2.8
13 차세대전지	100.0	50.8	35.8	10.4	0.5	1.9	2.1
14 전기전자 융합부품	100.0	49.8	35.0	9.0	1.0	2.2	2.7
15 전자정보	100.0	55.3	40.1	8.9	0.7	2.5	3.1
16 첨단문화	100.0	32.2	21.6	5.3	1.6	2.0	1.7
17 농축산바이오	100.0	39.8	19.7	4.3	4.2	5.0	6.7
합계	100.0	41.2	26.1	6.5	2.4	2.8	3.4

<그림 V-1>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사업제수 기준,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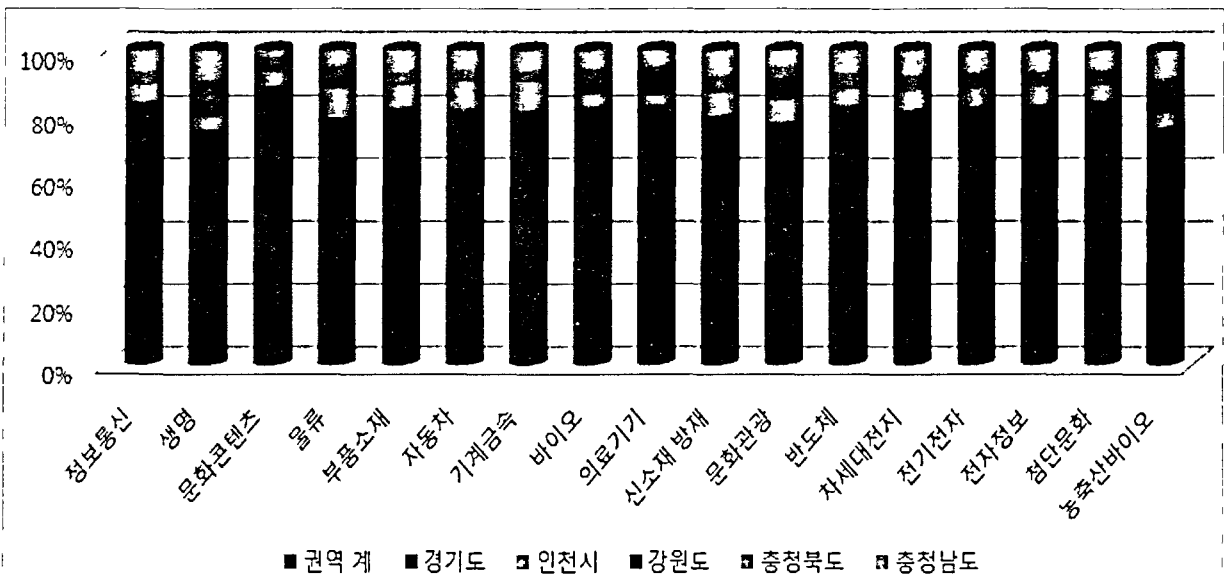
종사자수 기준 광역시도별 전략산업을 보면 전국 대비 분석권역 광역시도가 482%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기(307%), 인천(61%), 충남(60%), 충북(40%), 강원(14%) 순이다 분석권역 내는 전자 정보 정보통신 차세대전지 등이 높은 반면, 문화관광 문화콘텐츠 물류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7>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종사자수 기준, 2010년)

(단위 %)

	전국	소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01 정보통신	1000	620	421	66	06	50	77
02 생명	1000	540	272	41	44	86	96
03 문화콘텐츠	1000	327	256	29	13	17	13
04 물류	1000	325	188	60	24	24	29
05 부품소재	1000	518	334	72	09	36	66
06 자동차	1000	468	296	82	07	28	55
07 기계금속	1000	441	277	81	06	25	53
08 바이오	1000	520	338	42	30	53	57
09 의료기기	1000	532	351	31	80	20	49
10 신소재 방재	1000	510	303	72	13	46	76
11 문화관광	1000	278	153	38	39	21	26
12 반도체	1000	462	303	48	11	38	61
13 차세대전지	1000	600	378	75	03	54	89
14 전기전자 융합부품	1000	554	361	64	09	47	73
15 전자정보	1000	627	413	76	05	53	80
16 첨단문화	1000	400	275	39	09	31	46
17 농축산바이오	1000	571	299	48	33	94	97
합계	1000	482	307	61	14	40	60

<그림 V-2> 분석권역 전략산업 현황(종사자수 기준,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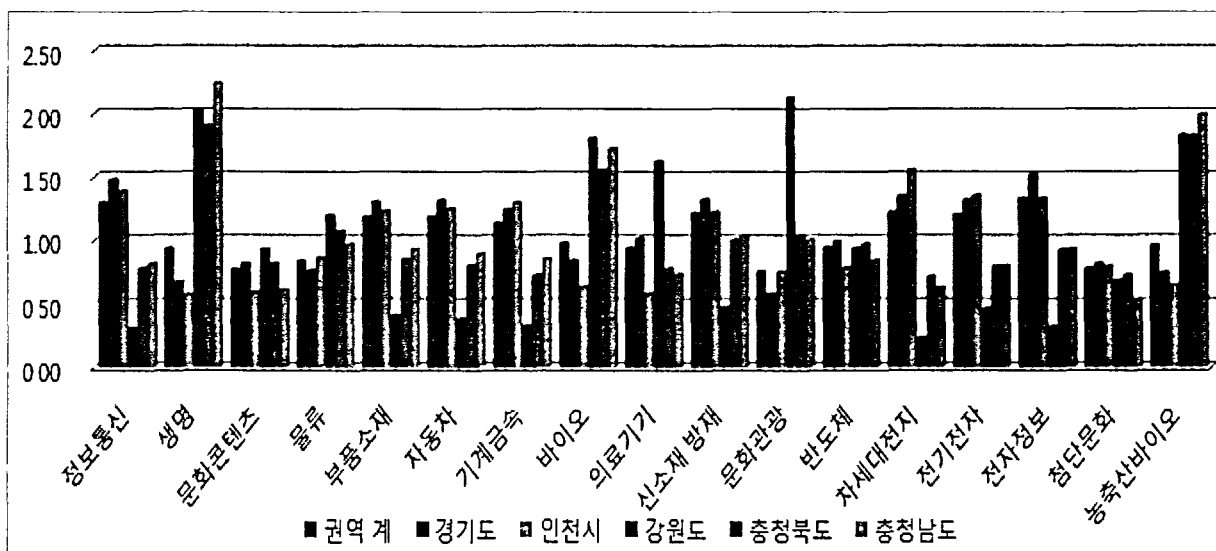


사업체수 기준 분석권역 및 해당 광역시도별 LQ를 보면 권역전체로는 전자정보(134), 정보통신(131), 차세대전지(123), 신소재 방재(122), 전기전자 융합부품(121), 자동차(120), 부품소재(119)는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나타났으나 문화관광(076), 문화콘텐츠(078), 첨단문화(078), 물류(084), 생명(094), 의료기기(094), 반도체(095), 농축산바이오(096), 바이오(098)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는 전자정보(153), 정보통신(150)이 인천시는 차세대전지(159), 정보통신(141)이 강원도는 문화관광(203), 생명(193)이 충북은 농축산바이오(179), 생명(187)이 충남은 생명(221), 농축산바이오(197)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LQ)(사업체수 기준, 2010년)

	권역 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01 정보통신	131	150	141	029	076	080
02 생명	094	068	058	193	187	221
03 문화콘텐츠	078	083	060	088	080	060
04 물류	084	077	088	114	105	096
05 부품소재	119	132	125	038	083	092
06 자동차	120	134	128	036	078	088
07 기계금속	113	124	130	032	072	085
08 바이오	098	085	064	172	152	170
09 의료기기	094	102	059	155	076	072
10 신소재 방재	122	134	125	045	098	102
11 문화관광	076	058	076	203	102	099
12 반도체	095	100	080	089	095	083
13 차세대전지	123	137	159	022	070	062
14 전기전자 융합부품	121	134	138	043	078	079
15 전자정보	134	153	136	030	091	092
16 첨단문화	078	083	081	065	071	052
17 농축산바이오	096	075	066	175	179	197

<그림 V-3>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사업체수 기준,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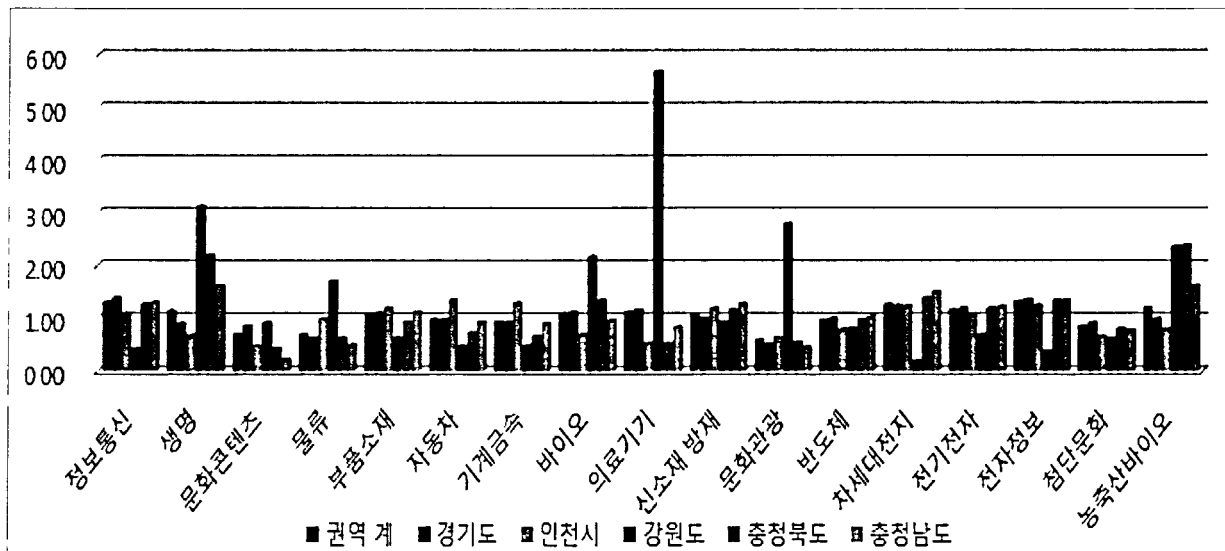


종사자수 기준 분석권역 및 해당 광역시도별 LQ를 보면 해당권역은 전자정보(130), 정보통신(129), 차세대전지(124), 농축산바이오(119), 전기전자 융합부품(115), 생명(112), 의료기기(110), 바이오(108), 부품소재(107), 신소재 방재(106)는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나타났으나 문화관광(058), 물류(067), 문화콘텐츠(068), 첨단문화(083), 반도체(096), 자동차(097)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는 전자정보(134), 정보통신(137)이, 인천시는 자동차(134), 전자정보(124)가, 강원도는 의료기기(567), 생명(311)이, 충북은 농축산바이오(238), 생명(218)이, 충남은 생명(161), 농축산바이오(161)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LQ)(종사자수 기준, 2010년)

	권역 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01 정보통신	129	137	108	040	125	128
02 생명	112	089	067	311	218	161
03 문화콘텐츠	068	083	047	090	042	022
04 물류	067	061	098	168	062	048
05 부품소재	107	109	118	062	091	111
06 자동차	097	096	134	046	071	092
07 기계금속	092	091	128	047	065	089
08 바이오	108	110	068	215	133	095
09 의료기기	110	114	051	567	051	082
10 신소재 방재	106	099	117	092	115	127
11 문화관광	058	050	063	277	054	044
12 반도체	096	099	078	079	097	102
13 차세대전지	124	123	122	019	137	149
14 전기전자 융합부품	115	118	105	067	118	121
15 전자정보	130	134	124	038	133	133
16 첨단문화	083	090	064	060	079	077
17 농축산바이오	119	097	079	235	238	161

<그림 V-4> 분석권역 전략산업 입지계수(종사자수 기준, 2010년)



<표 V-10> 분석권역 광역시도별 진남산업 경쟁력 평가

(단위 %)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산업	LQ	산업	LQ	산업	LQ	산업	LQ	산업	LQ						
01 정보통신	○	421	○	137	○	66	○	108	○	50	○	125	○	77	○	128
02 생명	○						44	311		86		218		96		161
03 문화콘텐츠	○															
04 물류	○		○			60		068								
05 부품소재	○	334		109		72		118								111
06 자동차			○			82		134							○	
07 기계금속			○			81		128								
08 바이오		338		110				215		○	53		133			
09 의료기기		351		114				80		○	567					
10 신소재 방세		303				72		117		○			115			127
11 문화관광										○	39		277			
12 반도체		303														102
13 자세대신지		378		123		75		122		○	54		137			89
14 신기신자 융합부품		361		118		64		105					118		○	73
15 신자정보		413		134		76		124					133		○	80
16 심난문화																
17 농축산바이오								235		○	94		238		○	97

주1)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반표안 광역시도 전략산업

주2) LQ개수는 1.0이상인 산업은 표시

분석결과 지역전략산업과 점유율 및 경쟁우위(LQ) 산업이 일치하는 시도는 경기도 정보통신, 인천시 정보통신 자동차 기계금속, 강원도 의료기기 문화관광, 충북 바이오 사세대신지 농축산바이오, 충남 전기전자 융합부품 전자정보 농축산바이오이며, 지역산업과 전략산업 간 차이점이 있는 산업으로는 경기도는 생명 문화콘텐츠 물류, 강원도 신소재 방제, 충북 반도체, 충남 자동차 등으로 분석되었다

2) 분석권역 시군구별 전략산업분석

종사자수 기준 2010년 분석권역 시군구별 전략산업 전국대비 점유율을 보면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를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강원도는 원주시, 충남은 천안시, 아산시로 분석되었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첨단문화 등 문화산업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전기 전자산업 위주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 경기도 전략산업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산업의 점유율이 높았다 인천시는 기계금속, 자동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은 반도체, 전자정보 등에서 높게 나타나 선정된 지역전략산업과 동일한 업종의 점유율이 높았다 다만 충북은 점유율이 낮아 해당되는 업종이 없다

<표 VI-11> 분석권역 대비 시군구별 점유율 5% 이상 시군구(2010년 종사자수 기준)

	점유율 5% 이상
수원시	첨단문화(155) 문화콘텐츠(131), 정보통신(93) 바이오(90) 문화관광(75), 전기전자 융합부품(73) 전자정보(64), 물류(56)
성남시	문화콘텐츠(164), 문화관광(110), 첨단문화(94), 의료기기(92), 바이오(72), 반도체(63), 물류(52)
안양시	문화콘텐츠(80) 의료기기(62) 바이오(55)
부천시	의료기기(77) 문화관광(54) 자동차(52), 전자정보(52), 신소재 방재(51), 기계금속(51), 부품소재(51)
평택시	첨단문화(57)
안산시	자세대전지(95) 전기전자 융합부품(83), 신소재 방재(80), 첨단문화(78), 기계금속(75), 전자정보(74), 자동차(73) 생명(72), 반도체(78), 부품소재(68), 농축산바이오(67), 바이오(62) 의료기기(54)
고양시	의료기기(56)
시흥시	기계금속(84), 반도체(73), 신소재 방재(72), 부품소재(66), 자세대전지(58), 전기전자 융합부품(50)
용인시	문화콘텐츠(66), 바이오(66), 반도체(62), 자세대전지(56), 정보통신(54)
화성시	기계금속(137), 부품소재(128), 자동차(127), 신소재 방재(119), 전자정보(103), 자세대전지(103), 정보통신(90), 전기전자 융합부품(90), 바이오(88) 반도체(84) 농축산바이오(71), 생명(68), 문화콘텐츠(64)
남동구	기계금속(73), 자동차(69), 신소재 방재(68) 부품소재(58), 자세대전지(53), 전자정보(51), 전기전자융합부품(50)
원주시	의료기기(90)
천안시	자세대전지(67), 정보통신(64), 첨단문화(58), 반도체(58), 전기전자 융합부품(57), 전자정보(55), 농축산바이오(51), 의료기기(51), 생명(50)
아산시	자세대전지(62), 반도체(55), 전자정보(52) 신소재 방재(51)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산업은 수원 화성 안산 천안 용인, 생명산업은 안산 화성 천안 평택 음성군, 문화콘텐츠는 성남 수원 안양 용인 화성, 물류는 중구 수원 성남 용인 고양으로 나타나 경기 지역 전략산업은 주로 수원 화성 안산 용인 고양에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충남의 천안과 충북의

음성군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의 전략산업인 정보통신,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은 중구 남동구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중심이 되어 있어 인천시는 중구와 남동구가 나머지는 경기도의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전략산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문화관광은 수원 성남 화성 시흥 원주 등이 중심이 되어 강원 원주가 의료기기 점유율이 높고 나머지는 경기도 시군구의 점유율이 높았다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농축산바이오는 화성 안산 천안 평택 음성으로 나타나 충북 음성을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높은 시군구가 없으며, 경기도의 화성 안산 시흥과 충남의 천안 아산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충남의 전략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융합부품, 농축산바이어로 화성 시흥 안산 천안 아산 등이 중심이 되어 충남의 천안 아산과 경기도의 화성 안산 시흥이 높게 나타났다

<표VI-12> 전략산업별 상위 점유율 시군구 현황(2010년 종사자수 기준)

(단위 %)

	점유율 상위 5개 시군구
01 정보통신	수원시(931), 화성시(903), 안산시(729), 전안시(641), 용인시(537)
02 생명	안산시(685), 화성시(677) 전안시(503), 평택시(484), 음성군(551)
03 문화콘텐츠	성남시(1643), 수원시(1307), 안양시(798) 용인시(664) 화성시(639)
04 물류	중구(609), 수원시(561), 성남시(518), 용인시(449), 고양시(448)
05 부품소재	화성시(1279) 안산시(673), 시흥시(664) 남동구(578), 부천시(509)
06 자동차	화성시(1268), 시흥시(727), 안산시(721), 남동구(691), 부천시(522)
07 기계금속	화성시(1370), 시흥시(837), 안산시(754), 남동구(727) 부천시(510)
08 바이오	수원시(890), 화성시(880), 성남시(716), 용인시(659), 안산시(624)
09 의료기기	성남시(924), 원주시(897), 부천시(771), 안양시(625), 고양시(562)
10 신소재 방재	화성시(1194), 안산시(803) 시흥시(717), 남동구(683), 부천시(511)
11 문화관광	성남시(1097), 수원시(748), 부천시(538), 정주시(467) 고양시(435)
12 반도체	화성시(839), 안산시(677), 성남시(629) 용인시(622), 전안시(575)
13 차세대전지	화성시(1027), 안산시(953), 전안시(672) 아산시(615), 시흥시(578)
14 전기전자융합	화성시(897), 안산시(828), 수원시(726), 전안시(572), 시흥시(503)
15 전자정보	화성시(1031), 안산시(735), 수원시(641), 전안시(555), 아산시(520)
16 첨단문화	수원시(1553), 성남시(940), 안산시(779), 전안시(581), 평택시(569)
17 농축산바이오	화성시(706), 안산시(672), 전안시(507), 평택시(461), 음성군(432)

분석권역 지역전략산업의 시군구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경기도 화성 시흥 안산 수원 성남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인천은 중구와 남동구가 인천 지역전략산업에서 점유율이 높았고 강원은 의료기기산업이 원주에서 높았으며, 충북은 점유율이 높은 지역이 거의 없었으며, 충남은 천안과 아산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이 아직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인천, 충남, 강원에서 점유율이 높은 지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충북은 아직 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없었다

종사자수 기준 2010년 분석권역 시군구별 전략산업 입지계수(LQ)를 보면 분석권역 전체적으로는 전자정보(134), 정보통신(133), 차세대전지(129), 전기전자 융합부품(118), 의료기기(110), 부품소재(109), 농축산바이오(107), 신소재 방재(103), 바이오(103)가 10보다 높아 지역경쟁력을 지니며 자동차(099), 생명(098), 기계금속(094) 첨단문화(086), 문화콘텐츠(070), 물류(065), 문화관광(053)이 10보다 낮아 지역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정보통신산업이, 화성 안산 시흥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기계금속, 차세대전지산업이, 포천 여주 연천 가평을 중심으로 농축산바이오, 생명산업이 중심이 되어있다 인천시는 중구 남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물류산업이, 남동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차세대전지, 기계금속, 전자정보산업의 비중이 높았고, 강원은 원주 평창에서 의료기기산업이, 충북은 충주 진천 음성은 농축산바이오산업이, 정주 청원은 차세대전지, 전자정보, 반도체산업이, 충남은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차세대전지, 전자정보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전략산업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표VI-13> 시군구별 경쟁우위 산업(2010년 종사자수 기준)

	LQ 상위 3개 업종		LQ 상위 3개 업종
수원시	첨단문화(262) 정보통신(244) 바이오(181)	가평군	문화관광(554) 생명(426) 농축산(418)
성남시	문화콘텐츠(322) 의료기기(277) 첨단문화(220)	양평군	의료기기(485) 문화관광(392) 농축산(387)
의정부	의료기기(358) 물류(260) 문화관광(253)	중구	물류(809) 문화관광(194) 생명(183)
안양시	의료기기(253) 바이오(207) 문화콘텐츠(205)	동구	자동차(177) 부품소재(169) 정보통신(158)
부천시	의료기기(181) 전자정보(141) 의료기기(137)	남구	물류(140) 문화관광(135) 차세대전지(112)
광명시	기계금속(200) 자동차(162) 물류(143)	연수구	바이오(298) 문화콘텐츠(243) 물류(237)
평택시	정보통신(154) 전기전자(136) 농축산(128)	남동구	신소재(144) 차세대전지(140) 자동차(140)
동두천	농축산바이오(652) 의료기기(336) 생명(263)	부평구	기계금속(181) 자동차(159) 차세대전지(102)
안산시	차세대전지(176) 전자정보(141) 전기전자(136)	계양구	물류(147) 차세대전지(128) 정보통신(118)
고양시	의료기기(404) 물류(190) 반도체(159)	서구	차세대전지(141) 자동차(139) 전자정보(138)
과천시	문화콘텐츠(525) 반도체(325) 물류(232)	강화군	생명(392) 문화관광(356) 농축산(317)
구리시	농축산바이오(419) 생명(306) 물류(255)	준천시	문화관광(307) 농축산(269) 물류(221)
남양주	자동차(148) 물류(140) 신소재(134)	원주시	의료기기(1122) 농축산(201) 생명(198)
오산시	차세대전지(178) 정보통신(158) 전자정보(134)	홍천군	의료기기(3462) 문화관광(421) 생명(311)
시흥시	기계금속(156) 차세대전지(148) 신소재(147)	횡성군	생명(811) 농축산(501) 바이오(248)
군포시	의료기기(214) 정보통신(139) 전자정보(137)	평장군	문화관광(655) 바이오(275) 생명(235)
의왕시	정보통신(190) 의료기기(149) 전자정보(146)	철원군	생명(657) 농축산(627) 바이오(356)
하남시	물류(180), 신소재(126), 전자정보(122)	화천군	농축산(602) 문화관광(421), 생명(336)
용인시	차세대전지(185) 정보통신(182), 바이오(173)	정주시	차세대전지(183) 정보통신(181) 반도체(148)
과주시	차세대전지(202) 전자정보(183) 정보통신(167)	충주시	농축산(315) 생명(257) 신소재(151)
이천시	차세대전지(248) 정보통신(212) 전자정보(178)	정원군	차세대전지(193) 전자정보(175) 정보통신(175)
안성시	농축산(225) 생명(208) 전자정보(145)	진천군	농축산(206) 생명(234) 신소재(162)
김포시	자동차(174) 부품소재(156) 전자정보(154)	음성군	농축산(404) 생명(384) 신소재(191)
화성시	부품소재(144) 전자정보(144) 차세대전지(138)	증평군	차세대전지(268) 정보통신(228) 첨단문화(201)
광주시	자동차(157) 의료기기(154) 전자정보(149)	전안시	차세대전지(179) 정보통신(176) 전자정보(154)
양주시	신소재(182), 전자정보(152) 농축산(141)	아산시	차세대전지(199) 전자정보(175) 정보통신(147)
포천시	농축산(241) 신소재(419) 생명(412)	예산군	농축산(246) 생명(226) 신소재(146)
여주군	신소재(223) 생명(209) 농축산(173)	당진시	부품소재(214) 자동차(192) 신소재(151)
연천군	생명(209) 농축산(174) 바이오(157)		

4 분석권역 기반시설 분석

1) 산업클러스터 현황

경기도의 산업클러스터는 크게 섬유산업클러스터, 지능형 메가트로닉스 산업클러스터, 제약산업클러스터, IT-SoC 및 모바일 산업클러스터로 구분된다

경기북부에는 5인 이상 규모의 섬유기업이 1,728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체 제조업 중 19.2%, 전체 고용인원의 18.2%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매우 높다 특히 국내 섬유 디자이너 및 의류회사의 84%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섬유소재 생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지역의 혁신거점(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따라 산업용 및 첨단기능성 의류의 생산기지화 기능이 경기북부지역에 필요하다

<표 V-14>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현황

	섬유산업클러스터				지능형 메가트로닉스 산업클러스터			
		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제조업 위상	전국 ¹⁾	147	94	48	경기 ²⁾	364	351	326
	경기	82	61	30	시흥 ³⁾	163	121	128
	경기북부	192	182	129	부천	127	73	61
지리적 분석	남부지역 시화/반월 중심 북부지역 동대문(서울)의 주문형 생산				국내 중사업체 중 36.4%가 경기도에 입지 핵심집적지역 시흥, 화성, 부천 등 경기 서남부지역			
기술적 측면	임가공 형태로 운영 한국 편직물의 70% 생산				경기 서남부지역에는 지능형 메카트로닉스(IMT)산업과 관련된 센서, 계측기기, 소형모터 등 부품소재산업과 로봇산업, 금형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클러스터 목적	섬유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2015년 세계 IMT R&BD클러스터 허브 구축 - 수출 75억불(2015년) 목표 - 세계시장 점유율 4.2%(2015년)			
클러스터 기능	경기북부 섬유산업발전 축 역할수행 섬유산업 공정 간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지역 섬유산업 구조개선				기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교육센터 설립 부천 남북중심(김포, 시흥, 안산)의 생산기반체계구축과 동서중심(서울DMC, 송도 IT벨리)의 R&D 및 국제물류 지원체계 운용으로 중심 네트워크 완성			

자료 문미성 외,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발전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2007.8

주1) 제조업 중 섬유산업 점유율(%)

주2) 전국 대비 경기 점유율

주3) 경기 대비 시흥 점유율

2004년 경기지역 의약품 생산액은 54조원으로 전국 총생산액의 6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내 총생산(GRDP, 162조원)의 35%를 점유한다 경기지역 생산액 500억원 이상 기업은 34개(업체수 비중 14.5%)로 경기지역 전체 생산액의 64.5%, 50억원 이상 생산기업은 127개(업체수 비중 54.5%)로 전체 생산액의 96.9%를 차지하여 생산의 편중화가 심하다

수도권 규제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으로 우수기업이 지방(오송, 제천 등)으로 이전하여 경기지역 제약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미 FTA이후 공동화 현상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약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약개발이 필요하다

IT-SoC산업은 컴퓨터 부품에 사용되는 CPU를 제외하고 IP를 통해 독자적인 프로세싱이 가능한 MPU, DSP, MCU 등의 부품과 로직 IC를 포함하는 산업이다 국내 IT-SoC시장은 다양한 칩을 개발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SoC를 설계하기 위해 파운드리업체, 패키지&테스트업체, 시스템업체 등과 연계한다 따라서 IT-SoC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이들 업체들과 연계시스템을 확보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V-15>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현황(계속)

제조업 위상 ¹⁾	제약산업 클러스터				모바일 산업클러스터	
		허가기업	생산액	종사자수	대기업 4개사	중소기업 300개
	전국	714개	87천억	27천명	삼성, 매그나칩, LG, 동아남	
	경기	261개	54천억	16천명		
	점유율	36.5%	62.8%	59.5%	소수기업 1,600개	
지리적 분석	수도권 규제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으로 우수기업의 지방이전 및 외자기업의 생산중단을 통해 경기 제약산업 공동화 현상 - 타 지역(오송, 제천 등)으로 이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성남을 비롯하여 경기 남부에 분산되어 있음	
기술적 측면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 부재 신약개발을 위한 장기 지원 미흡				세계적 수준의 모바일 / IT-SoC산업 생태계 조성 무선방송통신 분야의 세계적 기업과 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세계적 클러스터로 발전	
클러스터 목적	한미 FTA 이후 제약산업 위축, 신약개발 위축을 해소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 신약 100개 창출 지원 - 글로벌 신약개발로 2조원 매출 달성				2020년 매출액 33조, 종업원 수 83천명	
클러스터 기능	제약산업 혁신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신안 Seed 창출, 공급센터 운영 사업 및 기업주도 신약개발 지원 사업 제약산업 특화기술정보센터 사업				모바일 산업생태계 조성 IT-SoC분야 세계적 수준의 테스트베드 구축 IT-SoC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지원체계 구축	

자료 문미성 외,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발전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2007.8

2) 산업단지 현황

2012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960개이며 지정면적은 1,361백만 m^2 이며 유형별로는 국가단지가 40개로 4.2%, 일반단지 479개로 49.9%, 도시첨단이 9개로 0.9%, 농공단지가 432개로 4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면적기준으로는 국가단지가 59.1%, 일반단지가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16> 전국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개, 천 m^2 , %)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제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40	804,345	556,074	264,203	237,271	232,786	4,485	98.1
일 반	479	485,474	480,176	289,713	159,375	148,964	10,411	93.5
도시첨단	9	2,005	1,927	982	191	117	74	61.3
농 공	432	68,872	68,666	53,241	47,749	46,037	1,712	96.4
합 계	960	1,360,696	1,106,843	608,139	444,586	427,904	16,682	96.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

분석권역 내 산업단지를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반월특수지역(반월, 시화)을 비롯하여 총 13개소(전국 총 47개소)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경기 가평군 가평목동 외 총 254개소(전국 490개소), 농공단지는 강원 주문진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총 173개소(전국 430개소)가 있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총 431개소(전국 967개소)가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은 경기북부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등에 밀집되어 있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은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등에 집중화되어 있다 또한 충북은 청원군과 청주시에 충남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밀집되어 있다

<표 V-17> 분석권역 시군구별 산업단지현황

(단위 개소)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계	농공단지	계	단지수
경기	시흥(시화), 안산(반월) 파주탄현, 파주출판	3	가평목동 외	106		1	110
인천	남동	1	인천기계 외	8			9
강원	북평, 동해자유무역지역	2	강릉과학 외	23	주문진 외	39	64
충북	보은, 오송생명과학	2	감물가구 외	56	괴산 외	43	101
충남	석문, 아산, 고정, 대죽자원비축, 장항	5	계룡제1	52	검상	90	147
소계		13		254		173	431
기타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	34	용암해수	236	구좌	257	536
총계		47		490		430	967

3) 경제자유구역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생활공간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으로서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하여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역내역을 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개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개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개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등이다

<표 V-18>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구분	인천 (2003 8 6 지정)	부산진해 (2003 7 27 지정)	광양만권 (2003 7 27 지정)
위치	송도, 영종, 정라 일원 총 3개 지구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일원 중 5대 지구	여수 순천 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원 총 5대 지구
면적	6,336만평	3,154만평	2,691만평
기간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 1단계 2008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 1단계 2006년까지 2단계 2010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 1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15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구분	황해 (2008 5 6 지정)	대구 경북 (2008 5 6 지정)	새만금 군산 (2008 5 6 지정)
위치	경기 평택시, 화성시 및 충남 아산 서산시, 당진군 일원 총 5 개 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영 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중 11개 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새만 금 간척지 및 고금산군도 일원 총 4개 지구
면적	55,050km ²	39,546km ²	66,986km ²
기간	2025년까지 단계별 추진 1단계 2013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 2025년까지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 1단계 2013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 2030년까지

<그림 V-5> 전국 산업단지 분포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

여 백

VI. 경기도와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 1 경제권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 2 생활권 기준에 의한 경제권역 설정
- 3 산업경제 기준에 의한 경제권역 설정
- 4 경기도 및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 5 설정 권역별 특성

여 백

VI. 경기도와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1. 경제권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지역(region)이란 내적 동질성(homogeneity)과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성(uniqueness)을 지닌 공간 단위로서 내부적으로는 공통적이고 보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밀접한 상호작용의 흐름으로 묶여 있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 단위이다. 계획권역은 지역의 속성에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일한 정책수단이 강구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연속된 공간이다²²⁾ 따라서 계획권역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반영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정된 공간이다.

계획권역은 계획의 목적 및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정기준으로는 도시권, 생활권, 경제권, 자연환경권, 행정권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권, 생활권, 경제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연계가 크고 중심지와 주변지간의 기능적 연계가 존재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여건이 동질적인 지역을 묶어 계획권역으로 설정한다²³⁾ 계획권역의 설정 기준은 주로 연계성 지표, 접근성 지표, 중심성 지수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연계성 지표는 중심도시와의 통근통학 등 통행량과 지리적 연결성을 의미하며, 접근성 지표는 공간적 거리 및 시간적 거리로서, 중심성 지수는 중심도시의 중심기능 측정 및 세력권으로 각각 설정한다. 일반적인 설정기준은 중심지와 주변 지역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조하여 도시권, 생활권, 경제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유대권 및 자연환경권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계획권역 설정기준은 크게 경제성과 지역성에 의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고, 경제성은 생활권, 경제권, 도시권 등의 개념으로 경제권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역성은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과 유대감 등으로 권역설정이 이루어진다²⁴⁾ 일반적인 계획권역의 설정은 지역 간 통행량 지표²⁵⁾를 활용하여 분급분석을 통해 권역을 설정하는 방법과 산업 및 인구통계를 활용한 중심지지수²⁶⁾를 이용하여 권역을 설정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권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역설정 기준은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성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분석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경제성 지표는 크게 세가지로 지역의 인구, 소득, 산업으로 구분된다. 인구통계는 인구의 규모에 따라 중심지 위계를 선정하고 통근통학율과 지역간 OD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살펴보았다. 소득통계는 권역 내 각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유사지역을 파악하였다. 산업통계는 업종별 산업 비중을 산출하여 중심지 위계를 산출하고, 입지계수(LQ) 분석을 통하여 시군구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파악하여 유사관련업종을 파악하고,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산업과 열위산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3가지의 통계분석을 통해 권역 내 시군구의 경제적 동질성을 파악하고 인구가동 및 통근통학, 통행OD 자료 분석을 통해 접근성 지표로 활용하여 지역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을 설정하였다.

22) 2)의 전제서, p83

23) 6)의 전제서, p11

24) 2), 23)의 전제서, pp83-84

25) 김동주(1981), 군집분석을 이용한 권역설정 -워드방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16권, 제2호, pp61-67

26) 이일병(1987), 중심지지수에 의한 계획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2권, 제1호, pp25-40

2 생활권 기준에 의한 경제권역 구분

1) 인구 통계를 이용한 중심지 위계 산정

계획권역은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성되며 권역에서 중심지역은 중심지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 계획권역의 크기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시군구간 중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인구 및 산업지표를 이용하여 중심성지수²⁷⁾를 산출한다

중심지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시군구별 인구규모 비중과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1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시군구를 파악하였다<표 VI-1> 참조 여기서 유형구분은 점유율 및 성장률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제1 유형에서 제3유형까지는 중심지 지역으로 위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성장률에 따른 중심지 위계는 제1, 2유형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인구를 기준으로 한 중심지 위계로 선정된 시군구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청주시 안양시 천안시 부평구 남양주시 화성시 남동구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이다

<표VI-1> 분석권역 시군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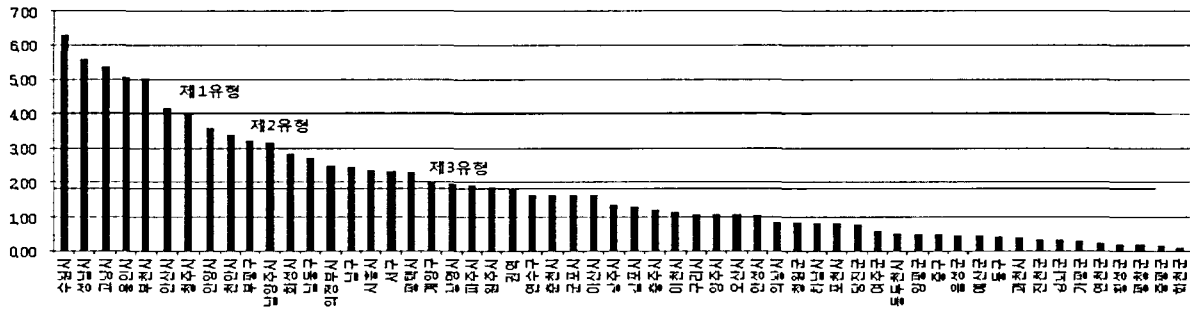
인구규모에 따른 중심지 위계			인구 성장률에 따른 중심지 위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수원시(630)	정주시(396)	의정부시(248)	용인시(743)	안산시(497)	의정부시(325)
성남시(560)	안양시(357)	남구(246)	시흥시(639)	군포시(492)	김포시(310)
고양시(537)	천안시(338)	시흥시(235)	고양시(638)	천안시(480)	파주시(270)
용인시(507)	부평구(324)	서구(233)	오산시(544)	남양주시(471)	성남시(265)
부천시(504)	남양주시(315)	평택시(228)	광주시(525)	화성시(552)	서구(253)
안산시(418)	화성시(284)	계양구(200)		양주시(376)	구리시(252)
	남동구(271)	광명시(195)			아산시(242)
		과주시(194)			
		원주시(185)			

<표VI-2>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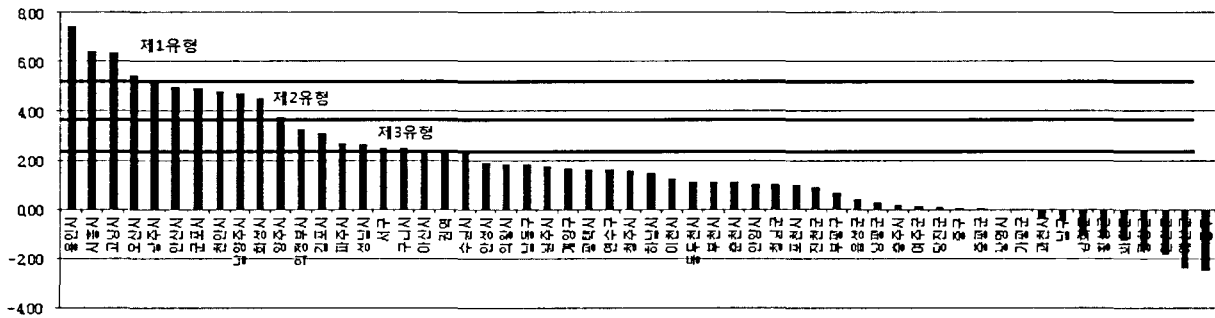
	중심지 위계 시 군 구
인구규모 기준	수원시(630), 성남시(560), 고양시(537) 용인시(507), 부천시(504), 안산시(418), 정주시(396), 안양시(357) 천안시(338), 부평구(324), 남양주시(315), 화성시(284), 남동구(271)
인구 성장률 기준	용인시(743), 시흥시(639), 고양시(638), 오산시(544), 광주시(525), 안산시(497), 군포시(492), 천안시(480), 남양주시(471), 화성시(552), 양주시(376)
중심지 선정 시 군 구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정주시, 안양시, 천안시, 부평구, 남양주시 화성시, 남동구,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27) 중심성 측정은 W.K.Davis의 기능지수법을 이용하였으며, 입지계수 구조식은 $Ct=t/Tt \times 100$ 임 여기서 Ct 시군구간 t의 입지계수, t 시군구 산업 및 인구, Tt 권역 전체의 산업 및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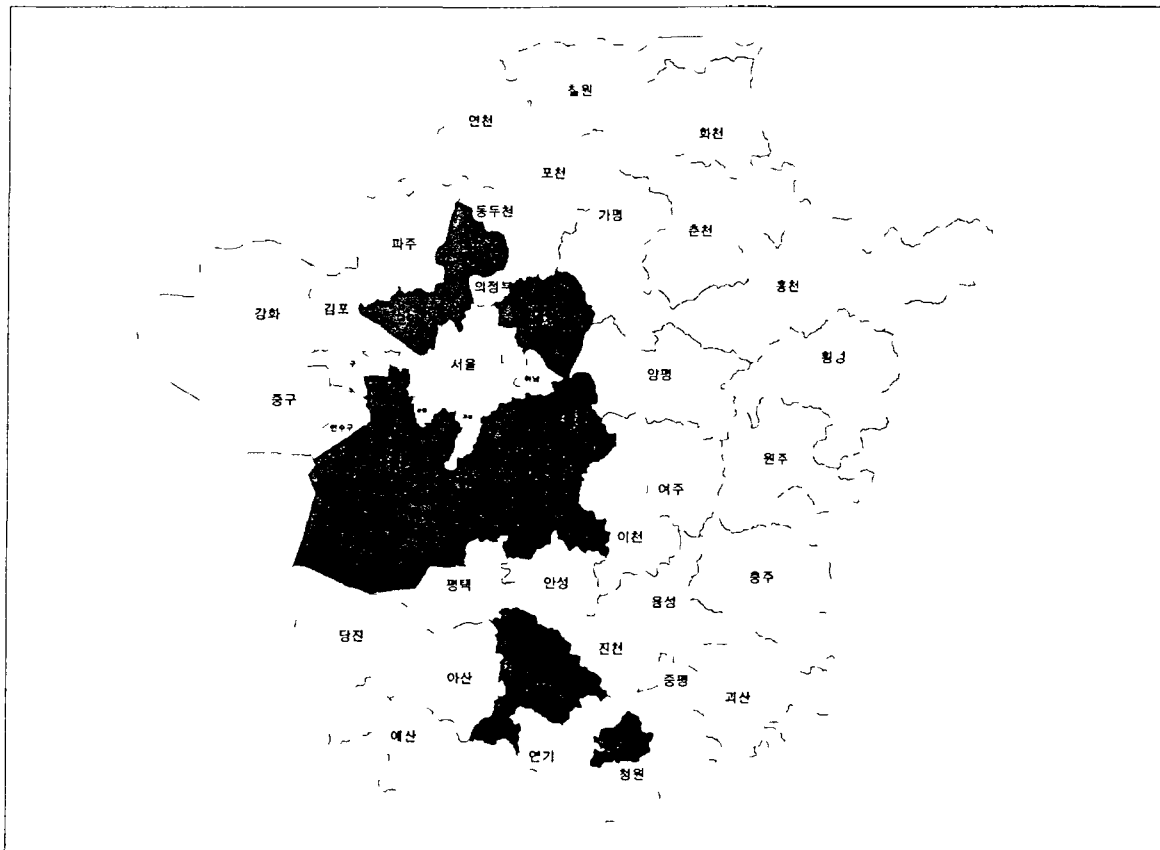
<그림 VI-1> 인구규모에 따른 중심지 위계 시군구 현황



<그림 VI-2> 인구증가율에 따른 중심지 위계 시군구 현황



<그림 VI-3> 인구에 의한 중심지 지역 현황도



2) 인구이동을 통한 지역적 접근성

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적은 지역은 이천 여주 평택 등이며, 타 지역의 이동이 많은 지역은 부평구 동구 중구 남구 의왕시 등으로 나타났다

<표VI-3> 시군구별 인구이동 현황 (2010)

(단위 %)

	자체지역		타시군구	서울시	경기 인천	수도권외곽	자체지역
이천시	837	부평구	595	40	44	04	317
여주군	821	동구	519	53	45	06	377
평택시	820	중구	394	119	92	04	391
포천시	800	남구	372	62	60	08	498
연천군	783	의왕시	343	141	10	05	500
안산시	770	연수구	337	38	48	08	569
강화군	763	화성시	313	63	15	06	604
가평군	748	남동구	312	61	91	06	531
수원시	738	오산시	298	39	07	11	646
과천시	732	군포시	273	113	10	07	597
동두천시	720	서구	243	57	80	30	590
고양시	717	시흥시	243	86	53	05	613
양평군	714	계양구	234	67	79	06	615
부천시	697	과천시	230	264	10	07	490
성남시	674	양주시	225	109	03	04	660
의정부시	665	광주시	218	105	04	08	665
광주시	665	동두천시	217	60	02	01	720
양주시	660	평균	212	110	28	14	637
남양주시	652	안양시	211	139	12	06	631
용인시	651	용인시	209	124	06	09	651
오산시	646	구리시	205	222	04	07	562
안성시	645	수원시	183	64	06	09	738
평균	637	연천군	178	33	02	05	783
안양시	631	과천시	153	102	10	03	732
계양구	615	안산시	153	57	16	05	770
시흥시	613	남양주시	141	198	03	05	652
화성시	604	성남시	140	173	05	08	674
용진군	601	의정부시	135	191	03	06	665
김포시	598	안성시	132	54	07	161	645
군포시	597	광명시	124	274	18	10	573
서구	590	용진군	120	12	42	226	601
광명시	573	하남시	119	317	06	08	551
연수구	569	평택시	118	35	04	23	820
구리시	562	포천시	118	68	02	12	800
하남시	551	여주군	115	43	01	19	821
남동구	531	이천시	103	39	03	18	837
의왕시	500	가평군	75	62	01	114	748
남구	498	고양시	75	191	13	04	717
과천시	490	부천시	69	143	85	05	697
중구	391	강화군	69	42	99	28	763
동구	377	양평군	63	75	02	146	714
부평구	317	김포시	53	125	92	131	598

<표VI-4> 상위 10위 지역 간 통행 시군구(2006)

	자체 상위 통행 시군구	타 시도 상위 통행 시군구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과천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전안시 아산시 당진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고양시 과주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군포시	남동구 부평구 남구
고양시	과주시 부천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부평구 서구 계양구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군포시 수원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수원시	남동구 부평구 남구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의왕시 화성시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용인시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광주시 고양시	
과주시	고양시 부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수원시	
이천시	여주군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오산시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수원시 과주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 동두천시 고양시 양주시 과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고양시	
여주군	이천시 성남시 수원시 광주시 용인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구리시	
양평군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여주군 수원시	
중구	남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서구	
동구	남구 중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중구	
남동구	남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안산시 시흥시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남구 연수구	고양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남구 연수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김포시
강화군	서구 부평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남양주시
원주시	황성군 춘천시 평장군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평장군	원주시 춘천시	
화천군	춘천시 원주시	
정주시	정원권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전안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아산시
충주시	정주시 음성군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정원군	정주시 증평군 진천군	전안시 수원시
진천군	정주시 정원군	전안시
음성군	정주시 음성군 정원군	전안시
증평군	정주시 충주시 진천군	수원시 안산시
전안시	아산시 당진시	평택시 수원시 용인시
아산시	전안시 당진시	평택시 수원시 용인시
예산군	전안시 아산시	수원시 안산시
당진군	아산시 당진시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3. 산업경제기준에 의한 경제권역 구분

1) 업종별 산업 비중을 통한 중심지 위계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 권역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분석권역내 시 군 구별 종사자수 비중과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2000~2010)을 기준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시 군 구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유형구분은 점유율 및 성장률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제1유형에서 제3유형까지는 중심지 지역으로 위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종사자수 기준 유형분류의 원칙을 보면 제1유형은 분석권역 전체 종사자수 대비 점유율이 40%이상 지역을, 제2유형은 30이상~40%미만 지역, 제3유형은 18이상~30%미만 지역으로 하였다 또한 연평균 성장률(2000~2010) 기준 유형분류는 제1유형은 60%이상, 제2유형은 50~60%, 제3유형은 40~50%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VI-5>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2010, 종사자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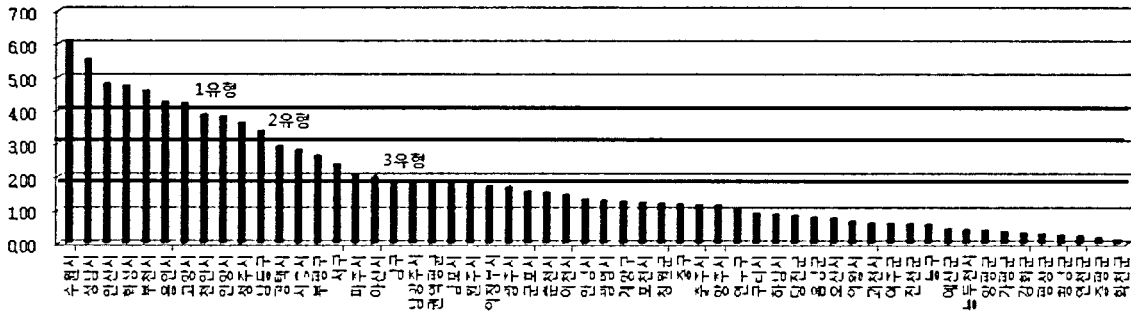
종사자수 규모에 따른 중심지 위계			종사자수 증가율에 따른 중심지 위계		
제1유형 (40%이상)	제2유형 (30~40%)	제3유형 (18~30%)	제1유형 (60%이상)	제2유형 (50~60%)	제3유형 (40~50%)
수원시(6 09) 성남시(5 52) 안산시(4 79) 화성시(4 73) 부천시(4 58) 용인시(4 23) 고양시(4 21)	천안시(3 86) 안양시(3 81) 정주시(3 61) 남동구(3 36)	평택시(2 92) 시흥시(2 79) 부평구(2 62) 서구(2 37) 과주시(2 07) 아산시(1 98) 남구(1 88) 남양주시(1 88)	화성시(10 34) 정원군(8 33) 광주시(8 24) 과주시(7 83) 안성시(6 85) 하남시(6 81) 아산시(6 56) 용인시(6 13)	남양주시(5 79) 성남시(5 64) 고양시(5 53) 연수구(5 48) 김포시(5 32) 천안시(5 29) 당진군(5 07)	평택시(4 34) 중구(4 03) 오산시(3 99)

분석권역 내 종사자수 및 증가율을 기준으로 선정된 중심지역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고양시 정원군 광주시 파주시 안성시 하남시 아산시 용인시 천안시 평택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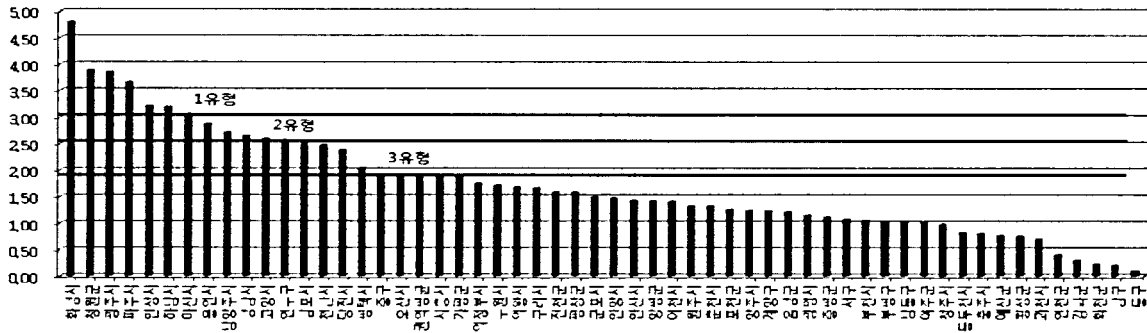
<표VI-6> 산업 비중을 이용한 분석권역 중심지역

구분	중심지 위계 시 군 구
종사자수 기준	수원시(6 09), 성남시(5 52), 안산시(4 79), 화성시(4 73), 부천시(4 58), 용인시(4 23), 고양시(4 21)
성장률 기준	화성시(10 34), 정원군(8 33), 광주시(8 24), 파주시(7 83), 안성시(6 85), 하남시(6 81), 아산시(6 56), 용인시(6 13), 천안시(3 86), 평택시(4 34)
중심지 선정 시 군 구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고양시, 정원군, 광주시, 파주시, 아산시, 용인시, 천안시 평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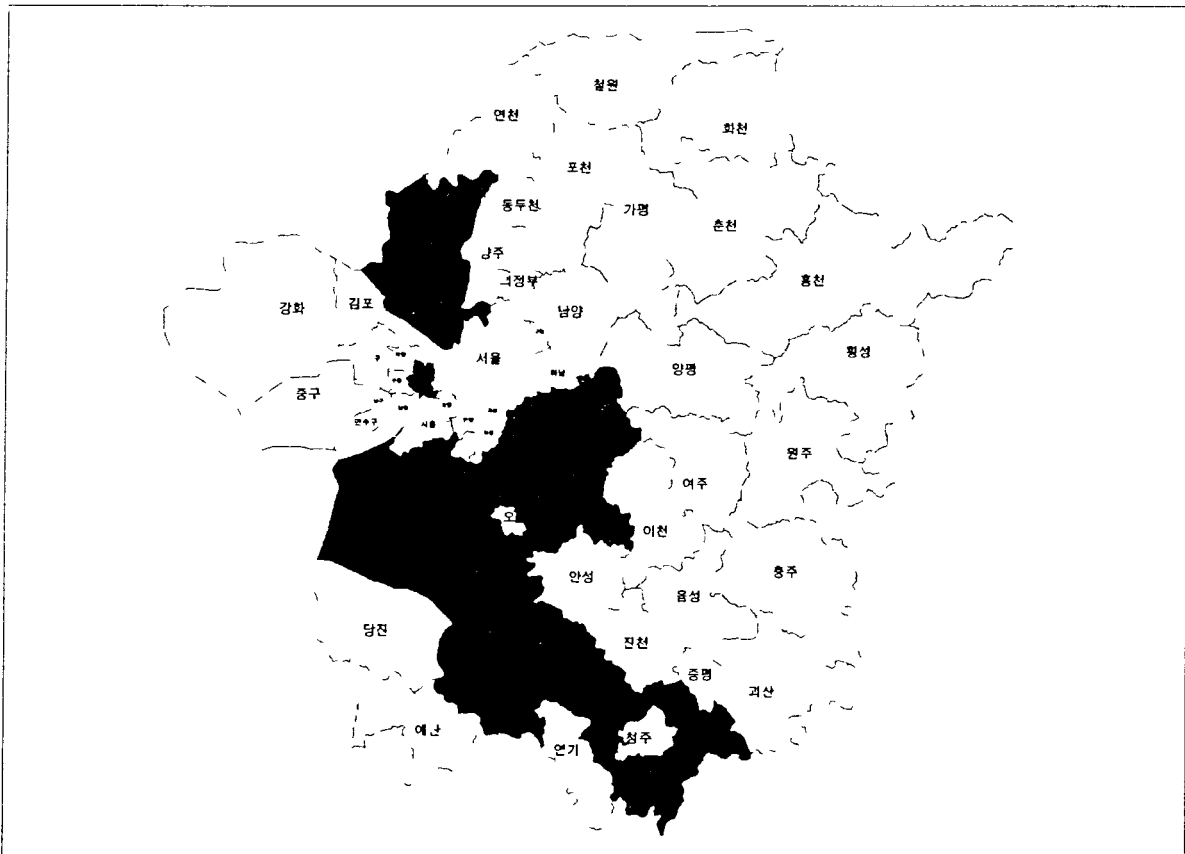
<그림 VI-4>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종사자수 점유율 기준, 2010)



<그림 VI-5> 분석권역 시 군 구별 중심성 측정과 유형분류(종사자수 증가율 기준, 2000-2010)



<그림 VI-6> 산업비중을 이용한 분석권역 중심지 시 군 구 현황도



2) 업종 경쟁력(LQ)분석을 통한 시 군 구별 유사·관련업종 산출

유사 및 관련업종의 입지계수(LQ)가 15이상인 시 군 구를 보면 농림어업은 의왕 평창 연천 예산 여주 횡성 등 수도권 외곽 농촌지역이,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은 이천 아산 증평 청원 수원 천안 파주 화성 등이,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은 화성 아산 시흥 진천 동구 평택 남동구 부평구 안성 서구 김포 광명 안산 천안 당진 음성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으로는 음식 숙박업은 평창 가평 양평 강화 화천 횡성 연수구 연천 등이, 물류서비스업은 중구 의왕 김포 동구 광주 광명 남구 남양주 서구 오산 계양구 예산 하남 이천 등이, 음식 및 숙박서비스업은 평창 가평 양평 강화 화천 횡성 연수구 연천 동두천 춘천 오산 구리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지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VI-7> 분석권역 업종별 경쟁우위 시 군 구(2010년 기준)

구 분	경쟁력 우위 시 군 구
01 농림어업	의왕(1424), 평창(1231), 연천(733), 예산(552), 여주(501), 횡성(463), 강화(405)
02 음식료 담배	음성(640), 진천(543), 횡성(420), 이천(308), 안성(305), 증평(304), 연천(272)
03 섬유 의류 가죽	양주(974), 포천(847), 동두천(677), 연천(501), 하남(221), 안산(208), 광주(192)
04 목재 종이	파주(488), 김포(341), 정원(290), 서구(267), 광주(263), 고양(199), 포천(177), 양주(149)
05 석유화학 고무	음성(329), 김포(288), 화성(283) 진천(256), 정원(233) 양주(230), 포천(226)
06 화학제조업	음성(478), 진천(478), 안성(238), 정원(278), 안산(255), 화성(253), 시흥(226)
07 비금속광물제품	여주(885), 아산(645), 음성(430), 진천(375), 포천(328), 정원(302), 광주(270)
08 1차 금속 금속제품	당진(388), 시흥(362), 동구(346), 김포(310), 서구(258), 남동구(258), 화성(252)
09 전기 전자 통신	이천(294), 아산(254), 증평(239), 정원(239), 수원(182), 전안(182), 과주(180)
10 정밀기기제조업	정원(314), 군포(303), 안양(207), 횡성(195), 부천(195), 진천(187), 의왕(183)
11 자동차 장비	횡성(329), 아산(305), 시흥(275), 진천(229), 동구(227) 평택(213), 남동구(207)
12 가구 기타제조업	광주(490), 포천(477), 김포(420) 남양주(395), 과주(297), 서구(248), 양주(214)
13 전력 가스 수도	서구(349), 당진(349), 화천(336), 연천(254), 동두천(245), 양평(201) 가평(190)
14 건설서비스	화천(238), 강화(182), 과천(163), 양평91550, 당진(155), 원주(153), 하남(150)
15 도 소매	하남(241), 구리(156), 동구(148), 광명(136), 고양(136), 의정부(127), 남양주(127), 원주(125), 안양(121)
16 물류서비스	중구(594), 의왕(202), 군포(171), 동구(151), 광주(149), 광명(129), 남구(127), 남양주(127)
17 음식 숙박서비스	평창(316), 가평(277), 양평(220), 강화(208), 화천(185), 횡성(161), 연수구(150), 연천(150)
18 문화서비스	과천(336), 용인(231), 안양(222), 성남(204), 연수구(165), 수원(163), 가평(157)
19 정보통신서비스	과천(700), 성남(444), 춘천(200), 화천(167), 안양(157), 고양(154), 구리(153)
20 금융 보험서비스	남구(227), 구리(212), 의정부(169), 부평(158), 부천(152), 춘천(152), 원주(152)
21 부동산 사업서비스	수원(137), 계양구(136) 군포(134), 고양(131), 오산(129), 정주(129), 남구(128)
22 공공행정 국방	과천9689, 화천(504), 연천(368), 횡성(270), 예산(264), 중구(260), 가평(233), 춘천(233)
23 교육 사회보장	의정부(153), 연수구(152), 고양(142), 양평(135), 오산(134), 계양구(133), 강화(132)

분석권역 중심지역별 경쟁우위 업종을 보면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제조업,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화학제조업, 자동차 장비제조업, 목재 종이제조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의 고양 파주시는 목재 종이제조업, 가구 기타제조업, 성남 하남시는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안산 부천시는 화학관련제조업, 화성 평택 아산시는 자동차 장비제조업, 청원군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제조업에 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안성시 평택시 등 수도권 외부 시 군 구는 물류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은 반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화성시 등 대도시는 정보통신서비스와 문화서비스, 금융 보험서비스가 비교우위를 가지며, 천안시는 교육서비스가 경쟁우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8> 분석권역 지역별 경쟁우위 업종현황(2010년 기준)

	경쟁우위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고양시	목재 종이제조업(199) 가구 기타서비스업(111)	정보통신서비스(154) 교육 사회보장서비스(142)
파주시	목재 종이제조업(488) 가구 기타제조업(297)	전기 가스 수도서비스(139) 물류서비스(113)
남양주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143)	음식 숙박서비스업(129) 도소매서비스업(127) 물류서비스업(127)
용인시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143)	문화서비스업(231) 교육 사회보장서비스업(129)
광주시	가구 기타제조업(49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70)	물류서비스(149) 도소매서비스(118)
하남시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221) 가구 기타제조업(192)	도소매서비스(241) 물류서비스(119)
안성시	음식료 담배제조업(305) 화학제조업(288)	전기 가스 수도서비스(110) 물류서비스(106)
안산시	화학제조업(255)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208)	-
부천시	의료 정밀 광학기기제조업(195) 석유화학 고무제조업(168)	금융 보험서비스(152) 부동산 사업서비스(127)
화성시	자동차 장비제조업(329) 석유화학 고무제조업(283)	문화서비스(10)
수원시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182)	문화서비스업(163), 금융 보험서비스(140)
평택시	자동차 장비제조업(213) 화학제조업(188)	전기 가스 수도서비스(121) 물류서비스(108)
아산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645) 자동차 장비제조업(305)	-
청원군	의료 정밀 광학기기제조업(31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302)	전기 가스 수도서비스(180) 공공행정서비스업(136)
천안시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182) 음식료 담배제조업(134)	금융 보험서비스업(113) 교육 사회보장서비스업(108)

3) 지역 간 물동량 이동분석

지역 간 물동량은 인근 지역 및 유사 업종이 특화된 지역 간에 이동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I-9> 지역 간 물동량 이동량 (2003)

(단위 1,000톤)

	이동지역 순위		이동지역 순위
수원시	성남(186), 안산(98), 남동구(64), 부천시(57), 남구(55)	이천시	안산(42), 시흥(29), 성남(25), 이천(11), 수원(10)
성남시	성남(773), 안산(162), 시흥(38), 수원(37), 용인(31)	안성시	안산(48), 안성(34), 성남(23), 안양(19), 수원(10)
의정부	성남(72), 안산(4) 의정부(14), 서구(13), 부천(12)	김포시	안산(41), 성남(24), 시흥(19), 서구(19), 부천(8)
안양시	서구(74), 성남(47), 수원(41), 안성(37), 남구(23)	화성시	수원(45), 성남(19), 서구(9), 안산(9), 화성(6)
부천시	부천(201), 성남(160), 수원(90), 서구(83), 안산(44)	광주시	성남(18), 안산(15), 안양(3), 수원(3) 안성(1)
광명시	성남(187), 광명(175), 수원(129) 서구(56), 안산(50)	양주시	성남(16), 서구(7), 양주(6), 시흥(6), 동두천(5)
평택시	수원(84), 성남(43), 평택(27), 안성(12), 서구(9)	포천시	성남(8), 의정부(4), 포천(3), 남양주(3), 서구(2)
동두천	성남(40), 동두천(34), 서구(13), 안양(12), 양주(11)	여주군	성남(14), 수원(4), 안성(4), 양평(3), 안산(3)
안산시	성남(110), 수원(78), 안산(56), 안성(44), 서구(28)	연천군	연천(16), 양주(11), 성남(5), 동두천(4), 수원(3)
고양시	고양(59), 남동구(22), 성남(21), 서구(20), 연수구(18)	가평군	성남(11), 양평(5), 가평(3), 수원(2), 서구(1)
과천시	평택(17), 과천(7), 성남(7), 수원(2), 부천(2)	양평군	양평(34), 성남(11), 수원(8), 평택(97), 안성(2)
구리시	성남(34), 구리(15), 동두천(4), 수원(4), 남양주(4)	중구	수원(61), 안양(33), 성남(12), 고양(10), 의왕(3)
남양주	성남(25), 남양주(7), 구리(5), 수원(4), 서구(3)	동구	서구(18) 동구(12), 수원(7), 성남(7), 군포(5)
오산시	수원(23), 성남(21), 오산(15), 안산(14), 화성(7)	남구	수원(102), 서구(46), 성남(26), 남구(24), 부천(16)
시흥시	성남(41), 이천(39), 부천(15), 수원(27) 안산(31)	연수구	수원(55), 연구(33), 서구(46), 고양(15), 안성(13)
군포시	서구(77), 성남(62), 군포(37), 안산(31) 수원(27)	남동구	수원(69), 남동(58), 서구(46), 성남(40), 고양(35)
의왕시	서구(13), 안산(10), 수원(7), 성남(5), 남구(3)	부평구	서구(48), 수원(45), 성남(43), 부평(32), 부천(18)
하남시	수원(29), 평택(11), 안성(8), 서구(5), 오산(5)	계양구	서구(49), 수원(13), 성남(13), 계양구(13), 부평(9)
용인시	성남(104), 수원(34), 용인(12), 남구(8) 안산(8)	서구	서구(410), 성남(112), 수원(64), 안산(63), 과주(56)
과주시	서구(44), 파주(911), 부천(5), 성남(5), 고양(2)	강화군	서구, 성남, 수원, 안산, 파주

자료 국가물류DB, 한국교통연구원, 2012

4 경기도 및 인접지역 경제권역 설정

1) 분석권역 내 중심지 설정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위계 분석은 분석권역 시군구 인구규모와 종사자수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분석권역 내 경제권역 중심지역의 선정은 인구 및 종사자수 지표가 모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표가 큰 지역을, 시군구가 인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표가 큰 지역을 중심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지역은 1차적으로 분석된 인구 및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모든 시군구를 설정하였으며, 최종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역 시군구는 1차로 설정된 시군구를 기준으로 인구기준과 종사자수 기준을 모두를 충족하는 시군구와 지역적으로 2가지 충족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정주시와 양주시를 포함하여 최종 중심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인구기준, 종사자수 기준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나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지역여건 상 중심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표 VI-10>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중심지 지역선정

인구 기준			종사자수 기준			1차 선정 중심지 지역	경제권(2차) 중심지 지역
규모	성장률	선정지역(A)	규모	성장률	선정지역(B)	A+B	A=B, a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청주시		정주시				청주시	<u>정주시</u>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부평구		부평구				부평구	부평구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	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오산시				오산시	
	오산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군포시				군포시	
	군포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양주시				양주시	<u>양주시</u>
	양주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하남시	하남시	하남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정원군	정원군	정원군	<u>춘천시</u>
				과주시	과주시	과주시	<u>원주시</u>

2) 중심지 주변지역 구분

중심지 주변지역 시군구를 구분하기 위해 ① 접근성 측면, ② 인구이동 측면, ③ 경쟁우위 업종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측면 등 3가지 기준을 전제로 중심지 주변지역을 구분하였다

첫째, 접근성 관련 주변 시군구는 중심지 지역에 행정구역이 접해있는 시군구를 1차 인접지역으로, 그 주변에 인접하여 있는 시군구를 2차 인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인구이동 관련 시군구는 중심지 지역과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경쟁우위 업종의 동일성은 중심지 지역의 경쟁우위 핵심 업종과 분석권역, 타 시군구의 경쟁우위 업종이 동일한 시군구를 선정하여 중심지 주변지역 시군구를 구분하였다

<표VI-11> 중심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변 시군구 현황

중심지 시군구	접근성 측면		인구이동 측면	경쟁우위 업종 측면	
	1차 인접	2차 인접		중심 업종	해당 시군구
수원시	화성,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성남, 파전, 안양	파성, 용인 안산, 안양, 성남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이천, 아산, 증평, 정원, 수원, 전안, 과주
고양시	김포 과주, 양주	의정부 동두전	파주, 부천, 용인, 성남, 수원 부평, 서구, 계양구	목재 종이제조업 가구 기타서비스업	파주, 김포, 정원, 서구, 광주, 고양, 포전, 양주
용인시	광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수원	의왕, 오산, 여주	성남, 수원 화성, 광주, 고양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이천, 아산, 증평, 정원, 수원, 전안, 과주
부천시	부평 광명, 시흥	안산 안양	시흥, 고양, 안산, 광명, 수원	의료 정밀기기제조업 석유화학 고무제조업	정원, 군포, 안양, 부천, 진전, 의왕, 음성, 김포, 화성, 진전, 정운, 양주, 포전
안산시	시흥, 안양, 군포, 수원, 화성	의왕, 광명	시흥, 수원, 안양, 화성, 군포, 남동, 부평, 남구	화학제조업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음성, 진전, 안성, 정원, 안산, 화성, 시흥, 양주, 포전, 동두전, 연천, 하남, 안산, 광주
정주시	정원, 음성, 진전, 증평, 증주	전안, 안성, 이천	정원, 진전, 증주, 음성, 전안, 수원, 용인, 성남, 아산	의료 정밀기기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정원, 군포, 안양, 부천, 진전, 의왕, 여주, 아산, 음성, 진전, 포전, 정원, 광주
전안시	아산, 평택, 안성, 진전, 정원	당진, 예산, 정주, 증평	아산, 당진, 평택, 수원, 용인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음식료 담배제조업	이천, 아산, 증평, 정원, 수원, 전안, 파주, 음성, 진전, 이천, 안성
부평구	계양, 동구, 남구	서구, 연수	남구, 남동구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동구, 남동구, 시흥, 안산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전, 의정부	춘천, 하남	구리, 의정부, 성남, 용인, 고양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음식 숙박서비스업	양주, 포전, 동두전, 연천, 하남, 안산, 광주, 평장, 가평, 양평, 강파, 화전, 횡성, 연수, 연천
광주시	하남, 성남, 용인, 이천, 여주, 양평	남양주, 구리	성남, 용인, 하남, 이천, 남양주	가구 기타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여주, 아산, 음성, 진전, 포전, 정원, 광주
화성시	평택, 용인, 오산,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	자동차 장비제조업 석유화학 고무제조업	아산, 시흥, 진전, 동구, 평택, 남동구
양주시	의정부, 동두전, 포전, 연천, 파주, 고양	남양주	의정부, 동두전, 고양, 양주, 파주	섬유 의류 가죽제조업 석유화학 고무제조업	포전, 동두전, 연천, 하남
춘천시	가평, 양평, 화천, 풍천	남양주, 포전, 철원	원주, 화천, 남양주	농림어업 음식 숙박서비스업	화천, 연천, 횡성
원주시	양평, 여주, 증주, 횡성	이천, 음성	평성, 춘천, 평장	의료 정밀기기제조업 농림어업	정원, 군포, 안양, 횡성, 부천, 진전, 의왕

2)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역 설정

경제권역 설정은 중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 인구이동, 업종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VI-12> 경제권역 설정 및 해당 시군구

중심지	접근성(1)	접근성(2)	인구이동	업종	1차 선정
① 수원시	화성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안양 오산 성남 과천	화성 안산 용인 안양 성남	 이천 아산 증평 원주 천안 과주	화성(2) 의왕 군포 안산(3) 용인(2) 안양(2) 성남(2) 과천 이천
② 고양시	김포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과주 부천 용인 성남 수원 부평 서구 계양구	김포 과주 양주 서구 광주 포천 정원	김포(2) 과주(3) 양주(2) 부평 서구 계양구
③ 용인시	성남 수원 광주 오산 이천 여주	화성	성남 수원	성남 수원	성남(2) 수원(2)
④ 부평구	계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천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동구 남동구 시흥 평택 아산 안산	계양구 동구2 남구2 남동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중심지	접근성(1)	접근성(2)	인구이동	업종	1차 선정
⑤ 부천시	부평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광명 안산 시흥 고양 수원	안양 군포 의왕 화성	부평 광명(2) 시흥 안산(2) 안양(2)
⑥ 안산시	시흥 안양 군포 수원 화성	의왕 광명	시흥 안양 군포 화성 남동 부평 남구	시흥 화성 하남 광주	시흥(3) 안양(2) 군포(2) 수원 화성(3)
⑦ 청주시	원성 진천 증평 충주	안성 천안	원성 진천 충주 안성 수원 인남 성안	원성 진천 아산	원성(3) 진천(3) 증평 충주(2) 천안(2)
⑧ 천안시	아산 평택 진천 천원	당진 예산 주평	아산 평택 당진 수원 인남	아산 안성 진천 수원 이천 증평 원성	아산(3) 평택(2) 안성(2) 진천(2) 정원 당진(2) 예산 수원(2)
⑨ 남양주시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춘천 하남	구리 의정부 성남 인양 고양	양평 가평 포천 하남 동두천 연천 화천	구리(2) 양평(2) 가평(2) 포천(2) 의정부(2) 하남(2)

중심지	접근성(1)	접근성(2)	인구이동	업종	1차 선정
⑩ 광주시	하남 성남 용인 이천 여주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용인 이천 남양주	여주 음성 진천 광주	하남(2) 성남(2) 용인(2) 이천(2) 여주(2) 양평 남양주(2)
⑪ 화성시	경택 용인 오산 수원 안산	군포 의왕	평택 용인 오산 수원 안산	평택 시흥 동구 남동구	경택(3) 용인(2) 오산(2) 수원(2) 안산(2)
⑫ 양주시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고양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하남	의정부(2) 동두천(3) 포천(2) 연천(2) 파주(2) 고양(2)
⑬ 춘천시	가평 양평 화천 홍천	남양주 포천 철원	화천 남양주 원주	화천 연천 횡성	가평 양평 화천(3) 홍천 남양주(2)
⑭ 원주시	양평 여주 충주 횡성	이천 음성	횡성 춘천 평강	횡성 정원 군포 안부 천진 천의 왕	양평 여주 횡성(3)

<표VI-13> 분석권역 경제권역 설정

수원	고양	용인	부평	부천	안산	정주	전안	남양주	광주	화성	양주	준전	원주
화성2 의왕 군포 안산3 용인2	김포2 파주3 양주2	수원2	계양 동구2 남구2 남동	부평 광명2 시흥	화성3 군포2 시흥3 수원 안양	정원3 음성3 진천3 증평 충주2	정원 진천2 안성2 평택2 아산3 당진2 예산	구리2 양평2 가평2 포천2 의정2	용인2 양평 이천2 하남2 성남2 여주2	안산2 용인2 수원2 평택3	과주2 / 포천2 의정2 오산2 동두3 고양2	양평 가평 파전3 홍전	중주 양평 여주 횡성3
안양2 성남2			서구 연수 계양	수원 화성3		전안		수원2	남양2			남양2	

분석권역의 55개 시군구는 13개의 소경제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9개의 대경제권역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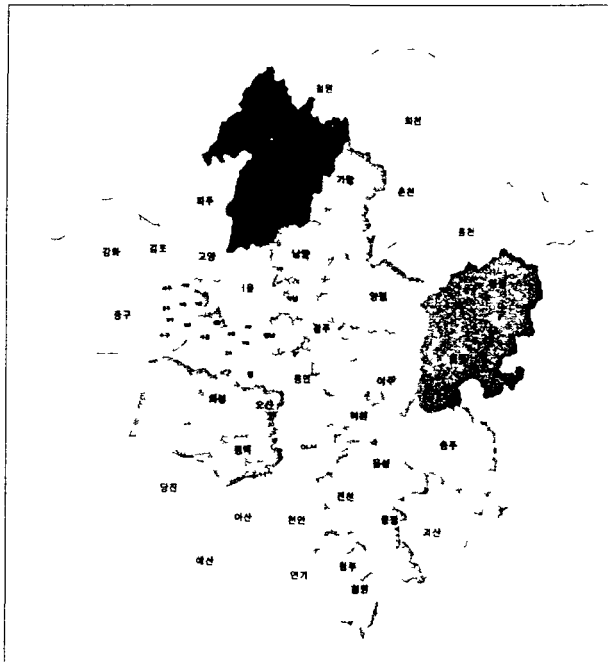
<표VI-14> 분석권역 1차 소권역 경제권역 설정

수원	안산	고양	부평	부천	전안	정주	남양주	광주	화성	양주	준전	원주
의왕	시흥	김포	계양	광명	안성	정원	구리	하남	평택	포전	화전	횡성
군포		과주	동구		아산	음성	양평	성남	오산	의정		평장
용인			남구		당진	진전	가평	여주		동두		
안양			남동		예산	증평		이천		연전		
과천			서구			증주						
			강화									
			중구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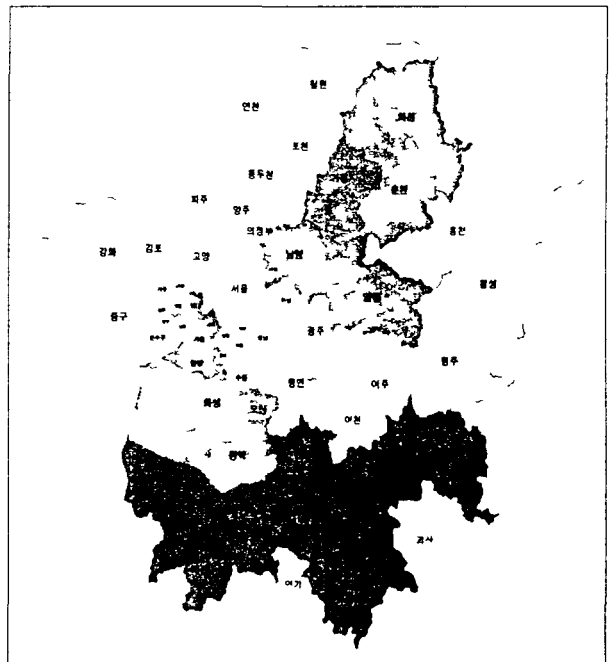
<표VI-15> 분석권역 2차 대권역 경제권역 설정

수원		고양 양주		부평	전안	정주권	남양주	광주	화성	부천	준전	원주
의왕	과전	김포	포전	계양	정원	안성	구리	하남	광명	안산	화전	횡성
군포	안양	과주	의정	동구	음성	아산	양평	성남		평택		평장
용인			동두	남구	진전	당진	가평	여주		오산		
			연전	남동	증평	예산		이천		시흥		
				서구	중주							
				강화								
				중구								
				연수								

<그림VI-7> 소경제권역도



<그림VI-8> 대경제권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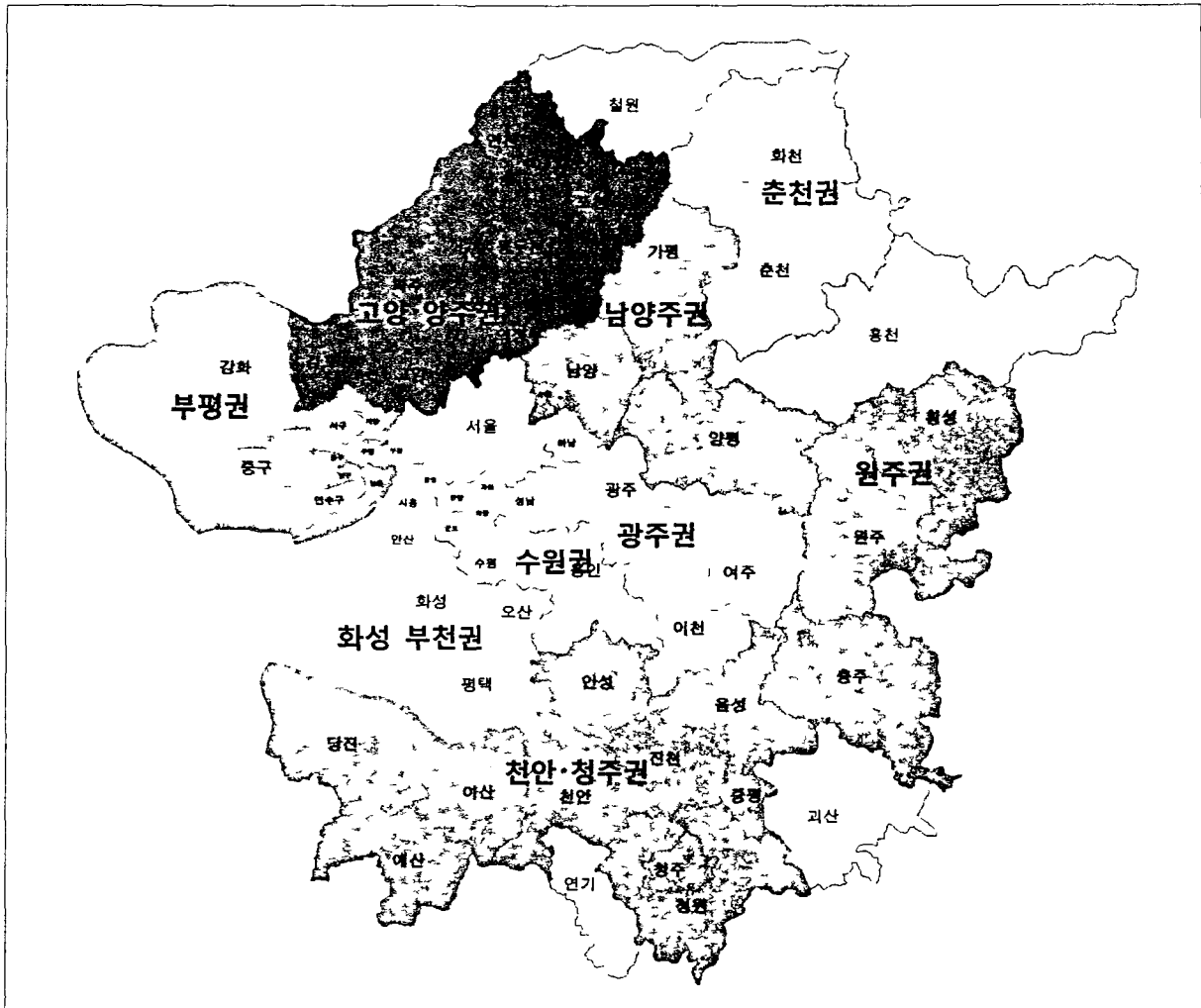


경기도 및 주변지역 최종 설정된 경제권역은 9개 권역(수원권, 고양 양주권, 부평권, 천안 청주권, 남양주권, 광주권, 화성 부천권, 춘천권, 원주권)으로 설정하였다 9개 권역에 포함된 각 시군구는 <표VI-16>과 같다

<표VI-16> 경기도 및 주변지역 경제권역별 시군구 현황

경제권역	해당 시군구
① 수원권	수원,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용인
② 화성 부천권	부천, 화성, 광명, 안산, 평택, 오산, 시흥
③ 광주권	광주, 하남, 성남, 여주, 이천
④ 남양주권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⑤ 고양 양주권	고양, 양주, 김포, 과주, 포천, 의정부, 동두천, 연천
⑥ 부평권	부평구, 계양구,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
⑦ 천안 청주권	천안, 정주, 안성, 아산, 당진, 예산, 정원, 음성, 진천, 증평, 충주
⑧ 춘천권	춘천, 화천
⑨ 원주권	원주, 횡성, 평강

<그림VI-9> 경기도와 인접지역 9개 경제권역도



5 설정 권역별 특성

1) 수원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이중 수원권은 298만명으로 17.8%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15.7%에서 2005년 18.1%로 높아졌으나 2010년에는 17.8%로 다소 낮아졌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나 수원권 인구증가율은 3.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39%로 권역 내 증가율 1.85% 보다는 높으나 1990-2000년간 인구증가율(3.22%)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VI-17> 경제권역별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수원권	1,583	15.7	1,999	16.4	2,355	16.9	2,805	18.1	2,982	17.8	3.22	2.39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수 563만명 중 수원권은 95만명으로 1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18만명으로 권역 내 157만명의 11.3%, 3차 산업은 78만명으로 권역 내 406만명의 19.2%를 점유하고 있어 3차 산업의 점유율이 타 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2000-2010년간 종사자수는 3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은 5천명이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은 31만명이 증가하여 6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원권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2차 산업이 28.0%, 3차 산업이 72.0%로 권역전체 대비 2차 산업 비중이 낮고, 3차 산업 비중이 높았으며, 2010년에는 2차 산업이 18.4%, 3차 산업이 81.4%로 권역 내 2차 산업비중은 더 낮아졌고, 3차 산업비중은 더 높아졌다. 따라서 수원권은 2차 산업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 3차 산업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3차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표VI-18> 수원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수원권					
	2010		2000		증감		2010		2000		증감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956.3	100.0	649.9	100.0	306.4	47.1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1.4	0.1	0.6	0.1	0.8	133.3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176.3	18.4	181.7	28.0	-5.4	-3.0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778.6	81.4	467.7	72.0	310.9	66.5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수원권 사업체 15만9천개 중 3차 산업비중이 14만6천개로 92.1%이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만7천개(23.9%), 음식 숙박업이 2만8천개(18.1%)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1만3천개(7.9%)로 권역내(12.2%)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업종이 2,641개(1.7%), 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이 1,722개(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10년 95만6천명 중 2차 산업이 17만6천명으로 18.4%, 3차 산업이 77만8천명으로 81.4%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전기 전자업종(9.6%)이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13.1%), 부동산 사업서비스(12.3%)가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 정밀기기(7.68%), 전기 전자제품제조업(1.04%), 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0.80%) 등이 증가하였으며,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7.17%), 자동차 장비제조업(-2.33%) 등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문화서비스업(8.19%), 물류서비스업(5.08%)이 높게 나타났다

<표VI-19> 수원권 종사자수 기준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감률	2010		2000		증감률
전산업	159,066	100.0	122,497	100.0	2.65	956,311	100.0	649,901	100.0	3.94
1차산업	38	0.0	32	0.0	1.73	1,386	0.1	562	0.1	9.45
농림어업	38	0.0	32	0.0	1.73	1,386	0.1	562	0.1	9.45
2차산업	12,504	7.9	11,704	9.6	0.66	176,289	18.4	181,676	28.0	-0.30
음식료 담배	1,691	1.1	1,501	1.2	1.20	9,083	0.9	11,199	1.7	-2.07
섬유 의류	858	0.5	1,119	0.9	-2.62	6,183	0.6	13,012	2.0	-7.17
목재 종이	1,058	0.7	1,084	0.9	-0.24	7,581	0.8	8,736	1.3	-1.41
석유화학 고무	781	0.5	703	0.6	1.06	11,029	1.2	11,470	1.8	-0.39
화학제조업	293	0.2	229	0.2	2.50	6,688	0.7	8,654	1.3	-2.54
비금속광물	223	0.1	228	0.2	-0.22	2,088	0.2	3,734	0.6	-5.65
1차금속 금속	1,722	1.1	1,431	1.2	1.87	10,105	1.1	9,328	1.4	0.80
전기 전자	2,641	1.7	2,025	1.7	2.69	91,414	9.6	82,410	12.7	1.04
의료 정밀기기	803	0.5	400	0.3	7.22	10,259	1.1	4,893	0.8	7.68
자동차 장비	1,502	0.9	1,899	1.6	-2.32	17,584	1.8	22,253	3.4	-2.33
가구 기타	932	0.6	1,085	0.9	-1.51	4,275	0.4	5,987	0.9	-3.31
3차산업	146,524	92.1	110,761	90.4	2.84	778,636	81.4	467,663	72.0	5.23
전기 가스 수도	229	0.1	176	0.1	2.67	4,639	0.5	3,082	0.5	4.17
건설서비스업	4,979	3.1	2,902	2.4	5.55	52,621	5.5	21,973	3.4	9.13
도소매	37,986	23.9	34,088	27.8	1.09	124,875	13.1	103,787	16.0	1.87
물류서비스업	15,812	9.9	9,957	8.1	4.73	53,384	5.6	32,535	5.0	5.08
음식 숙박	28,784	18.1	24,952	20.4	1.44	87,636	9.2	65,660	10.1	2.93
문화서비스업	10,120	6.4	7,980	6.5	2.40	110,424	11.5	50,249	7.7	8.19
정보통신	618	0.4	483	0.4	2.50	12,000	1.3	8,003	1.2	4.13
금융 보험업	1,672	1.1	1,288	1.1	2.64	27,203	2.8	24,235	3.7	1.16
부동산 사업	29,239	18.4	20,217	16.5	3.76	117,948	12.3	58,999	9.1	7.17
공공행정 국방	375	0.2	319	0.3	1.63	35,539	3.7	26,915	4.1	2.82
교육 사회복지	16,710	10.5	8,399	6.9	7.12	152,367	15.9	72,225	11.1	7.75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수원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0.55, 2차 산업 0.95, 3차 산업 1.01로 1이상인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전기 전자(280), 의료 정밀기기(217)가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문화서비스(160), 부동산 사업서비스(105), 교육 사회보장서비스(112)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2000년과 비교하면 의료 정밀기기(0.55)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입지계수가 감소하였으며, 3차 산업은 금융 보험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증가하였다.

2000-2010년간 수원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경쟁력에 의한 지역할당효과는 10만6천명이며, 산업구조효과는 6천명으로 순효과는 11만3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경제성장이 수도권에 미친 효과는 19만3천명으로 총효과는 30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순효과가 대부분 음으로 나타난 반면 3차 산업은 양으로 나타나 3차 산업에 의한 성장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0> 수원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입지계수			총 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산업구조	지역할당
	2010	2000	증감					
1차산업	0.55	0.15	0.39	824	167	657	-390	1,047
2차산업	0.95	1.16	-0.21	-5,387	53,988	-59,375	-45,635	-13,740
3차산업	1.01	0.95	0.06	310,973	138,974	171,999	39,864	132,135
농림어업	0.55	0.15	0.39	824	167	657	-390	1,047
음식료 담배	0.60	0.81	-0.22	-2,116	3,328	-5,444	-3,632	-1,812
섬유 의류	0.36	0.50	-0.14	-6,829	3,867	-10,696	-9,280	-1,415
목재 종이	0.83	1.02	-0.19	-1,155	2,596	-3,751	-3,095	-656
석유화학 고무	0.84	1.33	-0.49	-441	3,409	-3,850	565	-4,414
화학제조업	0.79	1.12	-0.33	-1,966	2,572	-4,538	-2,832	-1,705
비금속광물	0.37	0.70	-0.32	-1,646	1,110	-2,756	-1,409	-1,346
1차금속 금속	0.35	0.49	-0.14	777	2,772	-1,995	414	-2,409
전기 전자	2.80	3.00	-0.21	9,004	24,490	-15,486	-20,334	4,849
의료 정밀기기	2.17	1.62	0.55	5,366	1,454	3,912	407	3,505
자동차 장비	0.40	0.74	-0.34	-4,669	6,613	-11,282	-118	-11,163
가구 기타	0.65	0.85	-0.20	-1,712	1,779	-3,491	-2,844	-647
전기 가스 수도	0.63	0.76	-0.13	1,557	916	641	913	-272
건설서비스업	0.82	0.72	0.10	30,648	6,530	24,118	11,985	12,133
도소매	0.88	0.87	0.01	21,088	30,842	-9,754	-25,652	15,898
물류서비스업	0.99	0.93	0.06	20,849	9,668	11,181	1,919	9,261
음식 숙박	0.92	0.88	0.03	21,976	19,512	2,464	-10,638	13,101
문화서비스업	1.60	1.23	0.37	60,175	14,932	45,243	9,497	35,745
정보통신	0.82	0.81	0.01	3,997	2,378	1,619	19	1,599
금융 보험업	0.71	0.83	-0.12	2,968	7,202	-4,234	-3,518	-716
부동산 사업	1.05	1.08	-0.03	58,949	17,533	41,416	30,187	11,229
공공행정 국방	0.99	1.08	-0.09	8,624	7,998	626	-623	1,249
교육 사회보장	1.12	1.07	0.05	80,142	21,463	58,679	34,746	23,933
합계				306,410	193,130	113,280	6,287	106,994

2) 화성 부천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이중 화성 부천권은 329만명으로 19.7%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18.7%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05년(19.3%)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19.7%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87%로 권역 내 증가율(2.57%)보다 높았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역시 2.48%로 권역 내 증가율 1.85% 보다 높았다.

<표VI-21> 화성 부천권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		%		%		%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화성 부천권	1,874	18.6	2,312	18.9	2,582	18.6	2,996	19.3	3,298	19.7	2.87	2.48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 563만명 중 화성 부천권은 123만명 21.9%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49만명(31.6%), 3차 산업이 73만명(18.1%)으로 3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2000-2010년)간 종사자는 42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대비 52.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은 12만2천명이 증가하여 3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3차 산업은 30만3천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70.2%가 증가하였다.

화성 부천권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 0.2%, 2차 산업이 46.2%, 3차 산업 53.6%로 권역 내와 비교하면 2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차 산업 0.1%, 2차 산업 40.2%, 3차 산업 59.7%로 권역 내 2010년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2차 산업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3차 산업비중은 낮아졌다. 특히 동 기간(2000-2010년) 산업별 증가율을 보면 2차 산업이 32.8%로 권역 내 22.6%보다 높으며, 3차 산업은 70.2%로 권역 내 60.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화성 부천권은 2차 산업비중은 감소한 반면 3차 산업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표VI-22> 화성 부천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화성 부천권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1,232.0	100.0	807.3	100.0	424.7	52.6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0.9	0.1	1.8	0.2	-0.9	-50.0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495.3	40.2	373.1	46.2	122.2	32.8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735.8	59.7	432.4	53.6	303.4	70.2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화성 부천권 사업체는 총 22만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3만9천개(17.9%), 3차 산업이 18만개(82.0%)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제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이 1만1천개(5.2%), 자동차 장비제조업 8천개(3.8%), 전기 전자제품제조업 5천개(2.4%)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4만9천개(22.4%), 음식 숙박업이 3만6천개(16.6%),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3만4천개(15.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10년 123만1천명 중 2차 산업이 49만5천명(40.2%), 3차 산업이 73만5천명(59.7%)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장비제조업이 13만3천명(10.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14만6천명(11.9%)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제1차 금속제품제조업(5.13%), 정밀 의료기기(4.24%) 등이 증가하였으며,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5.01%), 가구 기타제품제조업(-0.49%)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7.42%), 부동산 사업서비스업(7.58%), 교육 사회보장서비스업(7.58%)이 높게 증가하였다

<표VI-23> 화성 부천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220,127	100.0	152,234	100.0	3.76	1,231,972	100.0	807,300	100.0	4.32
1차산업	71	0.0	109	0.1	-4.20	866	0.1	1,793	0.2	-7.02
농림어업	71	0.0	109	0.1	-4.20	866	0.1	1,793	0.2	-7.02
2차산업	39,501	17.9	26,057	17.1	4.25	495,316	40.2	373,132	46.2	2.87
음식료 담배	2,304	1.0	2,172	1.4	0.59	15,424	1.3	14,610	1.8	0.54
섬유 의류	1,596	0.7	2,066	1.4	-2.55	17,332	1.4	28,984	3.6	-5.01
목재 종이	2,093	1.0	1,769	1.2	1.70	19,387	1.6	17,355	2.1	1.11
석유화학 고무	3,479	1.6	1,886	1.2	6.31	44,205	3.6	28,083	3.5	4.64
화학제조업	1,378	0.6	811	0.5	5.44	30,818	2.5	25,050	3.1	2.09
비금속광물	526	0.2	447	0.3	1.64	6,319	0.5	5,876	0.7	0.73
1차금속 금속	11,471	5.2	5,549	3.6	7.53	92,780	7.5	56,268	7.0	5.13
전기 전자	5,392	2.4	3,771	2.5	3.64	112,266	9.1	86,422	10.7	2.65
의료 정밀기기	1,124	0.5	623	0.4	6.08	12,159	1.0	8,027	1.0	4.24
자동차 장비	8,421	3.8	5,372	3.5	4.60	133,742	10.9	91,020	11.3	3.92
가구 기타	1,717	0.8	1,591	1.0	0.77	10,884	0.9	11,437	1.4	-0.49
3차산업	180,555	82.0	126,068	82.8	3.66	735,790	59.7	432,375	53.6	5.46
전기 가스 수도	507	0.2	221	0.1	8.66	8,322	0.7	5,055	0.6	5.11
건설서비스업	5,827	2.6	3,145	2.1	6.36	48,358	3.9	21,360	2.6	8.51
도소매	49,202	22.4	40,097	26.3	2.07	146,965	11.9	102,769	12.7	3.64
물류서비스업	23,413	10.6	11,175	7.3	7.68	53,678	4.4	26,235	3.2	7.42
음식 숙박	36,649	16.6	28,706	18.9	2.47	102,637	8.3	72,031	8.9	3.60
문화서비스업	10,726	4.9	8,641	5.7	2.19	51,952	4.2	32,034	4.0	4.95
정보통신	460	0.2	473	0.3	-0.28	6,100	0.5	4,799	0.6	2.43
금융 보험업	1,869	0.8	1,492	1.0	2.28	29,027	2.4	25,917	3.2	1.14
부동산 사업	34,457	15.7	22,959	15.1	4.14	116,037	9.4	55,871	6.9	7.58
공공행정 국방	445	0.2	363	0.2	2.06	25,453	2.1	15,392	1.9	5.16
교육 사회보장	17,000	7.7	8,796	5.8	6.81	147,261	12.0	70,912	8.8	7.58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화성 부천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0.27, 2차 산업 2.08, 3차 산업 0.74로 1이상인 2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업(2.81), 전기 전자(2.67), 전기 전자제품제조업(2.67) 등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1이상 업종이 없어 특화 업종이 없다. 또한 2000년과 비교하면 화학제품제조업(0.20), 전기 전자제품제조업(0.13) 등은 증가하였으며, 의료 정밀기기제조업(-0.14) 등은 입지계수가 감소하였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0.11), 물류서비스업(0.17)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화성 부천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경쟁력에 의한 지역할당효과는 20만8천명 증가한 반면, 산업구조효과는 2만3천명이 감소하여 순효과는 18만4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경제성장이 화성 부천권에 미친 효과는 23만9천명으로 총효과는 42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자동차 장비제조업(4만2천명)이 3차 산업은 교육 사회보장서비스업(7만6천명)이 높게 나타났다.

<표VI-24> 화성 부천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

	입지계수			종 효과	전국효과	순 효과	산업구조	지역할당
	2010	2000	증감					
1차산업	0.27	0.39	-0.12	-927	533	-1,460	-1,243	-216
2차산업	2.08	1.92	0.15	122,184	110,883	11,301	-93,727	105,028
3차산업	0.74	0.71	0.03	303,415	128,488	174,927	36,856	138,071
농림어업	0.27	0.39	-0.12	-927	533	-1,460	-1,243	-216
음식료 담배	0.79	0.85	-0.07	814	4,342	-3,528	-4,738	1,211
섬유 의류	0.79	0.90	-0.12	-11,652	8,613	-20,265	-20,672	407
목재 종이	1.64	1.63	0.01	2,032	5,157	-3,125	-6,149	3,024
석유화학 고무	2.61	2.63	-0.02	16,122	8,345	7,777	1,383	6,394
화학제조업	2.81	2.61	0.20	5,768	7,444	-1,676	-8,199	6,523
비금속광물	0.88	0.88	-0.01	443	1,746	-1,303	-2,218	915
1차금속 금속	2.50	2.40	0.11	36,512	16,721	19,791	2,499	17,292
전기 전자	2.67	2.54	0.13	25,844	25,682	162	-21,324	21,486
의료 정밀기기	2.00	2.14	-0.14	4,132	2,385	1,747	668	1,079
자동차 장비	2.37	2.45	-0.08	42,722	27,048	15,674	-484	16,158
가구 기타	1.29	1.31	-0.02	-553	3,399	-3,952	-5,433	1,481
전기 가스 수도	0.88	1.00	-0.12	3,267	1,502	1,765	1,498	267
건설서비스업	0.59	0.56	0.02	26,998	6,348	20,650	11,651	9,000
도소매	0.80	0.69	0.11	44,196	30,540	13,656	-25,401	39,057
물류서비스업	0.77	0.60	0.17	27,443	7,796	19,647	1,548	18,099
음식 숙박	0.83	0.78	0.05	30,606	21,405	9,201	-11,670	20,870
문화서비스업	0.59	0.63	-0.05	19,918	9,519	10,399	6,055	4,344
정보통신	0.32	0.39	-0.07	1,301	1,426	-125	12	-137
금융 보험업	0.59	0.71	-0.12	3,110	7,702	-4,592	-3,762	-830
부동산 사업	0.80	0.82	-0.02	60,166	16,603	43,563	28,587	14,976
공공행정 국방	0.55	0.50	0.05	10,061	4,574	5,487	-356	5,843
교육 사회보장	0.84	0.85	-0.01	76,349	21,073	55,276	34,114	21,162
합계				424,672	239,904	184,768	-23,637	208,405

3) 광주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이중 광주권은 159만명으로 95%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96%에서 2005년 99%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0년 95%로 약간 감소하였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나 광주권 인구증가율은 254%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5%로 권역 내 인구증가율 168%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 3증가율이 정체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VI-25> 광주권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		%		%		%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광주권	964	9.6	1,317	10.8	1,434	10.3	1,543	9.9	1,591	9.5	254	105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 563만명 중 광주권은 57만명으로 10.2%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11만명(7.6%), 3차 산업이 45만명(11.2%)으로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2000-2010년)간 종사자수는 23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69.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은 2만명이, 3차 산업은 21만4천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각각 20.8%와 89.9%가 증가하여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높게 증가하였다

광주권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 0.1%, 2차 산업이 29.3%, 3차 산업 70.6%로 권역 내와 비교하면 3차 산업 비중이 약간 높고, 2차 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차 산업 0.1%, 2차 산업 20.9%, 3차 산업 79.0%로 권역 내 2010년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2차 산업비중은 낮아졌고, 3차 산업 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동 기간(2000-2010년) 산업별 증가율을 보면 3차 산업은 89.9%로 권역 내 60.8%보다 높았다 따라서 광주권은 2차 산업비중은 감소한 반면 3차 산업비중은 증가하여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광주권 역시 공동주택의 증가와 함께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로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 VI-26> 광주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광주권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573.9	100.0	338.3	100.0	235.6	69.6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0.8	0.1	0.5	0.1	0.3	60.0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119.7	20.9	99.1	29.3	20.6	20.8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453.4	79.0	238.7	70.6	214.7	89.9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광주권 사업제수는 총 9만9천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1만1천개(11.2%), 3차 산업이 8만8천개(88.7%)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식음료 담배제품제조업 1,452개(15%), 제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이 1,307개(13%), 전기 전자제품제조업 1,254개(13%)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2만4천개(24.4%), 음식 숙박업이 1만7천개(17.7%),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1만7천개(1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10년 57만3천명 중 2차 산업이 11만9천명(20.9%), 3차 산업이 45만3천명(79.0%)을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에서는 전기 전자제품제조업이 3만4천명(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8만9천명(15.6%)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9.15%), 정밀 의료기기제조업(7.67%) 등이 증가하였으며,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3.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0.36%)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업(12.13%), 건설서비스업(11.36%)이 높게 증가하였다

<표VI-27> 광주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제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99,568	100.0	69,298	100.0	3.69	573,904	100.0	338,327	100.0	5.43
1차산업	62	0.1	38	0.1	5.02	839	0.1	515	0.2	5.00
농림어업	62	0.1	38	0.1	5.02	839	0.1	515	0.2	5.00
2차산업	11,149	11.2	7,982	11.5	3.40	119,661	20.9	99,108	29.3	1.90
음식료 담배	1,452	1.5	1,228	1.8	1.69	14,853	2.6	10,395	3.1	3.63
섬유 의류	1,386	1.4	1,598	2.3	-1.41	10,042	1.7	13,977	4.1	-3.25
목재 종이	834	0.8	611	0.9	3.16	6,699	1.2	4,478	1.3	4.11
석유화학 고무	799	0.8	303	0.4	10.18	7,171	1.2	2,988	0.9	9.15
화학제조업	291	0.3	157	0.2	6.37	3,105	0.5	2,779	0.8	1.12
비금속광물	967	1.0	838	1.2	1.44	6,866	1.2	7,116	2.1	-0.36
1차금속 금속	1,307	1.3	765	1.1	5.50	9,979	1.7	5,306	1.6	6.52
전기 전자	1,254	1.3	793	1.1	4.69	34,694	6.0	35,688	10.5	-0.28
의료 정밀기기	459	0.5	157	0.2	11.32	5,681	1.0	2,713	0.8	7.67
자동차 장비	914	0.9	465	0.7	6.99	11,483	2.0	6,281	1.9	6.22
가구 기타	1,486	1.5	1,067	1.5	3.37	9,088	1.6	7,387	2.2	2.09
3차산업	88,357	88.7	61,278	88.4	3.73	453,404	79.0	238,704	70.6	6.63
전기 가스 수도	180	0.2	95	0.1	6.60	4,367	0.8	3,339	1.0	2.72
건설서비스업	3,066	3.1	1,437	2.1	7.87	33,835	5.9	11,534	3.4	11.36
도소매	24,269	24.4	18,483	26.7	2.76	89,745	15.6	51,598	15.3	5.69
물류서비스업	10,091	10.1	4,932	7.1	7.42	32,404	5.6	16,595	4.9	6.92
음식 숙박	17,616	17.7	15,154	21.9	1.52	54,476	9.5	39,572	11.7	3.25
문화서비스업	5,647	5.7	4,224	6.1	2.95	50,877	8.9	20,156	6.0	9.70
정보통신	414	0.4	245	0.4	5.39	14,835	2.6	4,722	1.4	12.13
금융 보험업	975	1.0	722	1.0	3.05	13,961	2.4	11,689	3.5	1.79
부동산 사업	17,234	17.3	11,307	16.3	4.30	63,094	11.0	31,113	9.2	7.33
공공행정 국방	283	0.3	238	0.3	1.75	17,770	3.1	10,395	3.1	5.51
교육 사회보장	8,582	8.6	4,441	6.4	6.81	78,040	13.6	37,991	11.2	7.46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광주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0.55, 2차 산업 1.08, 3차 산업 0.98로 1이상인 2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가구 기타제품제조업(231), 비금속광물제조업(205), 의료 정밀기기제품제조업(200) 등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업(169), 문화서비스업(123)이 특화되어 있다. 또한 2000년과 비교하면 의료 정밀기기제조업(0.28) 등은 증가한 반면, 전기 전자제조업(-0.73) 등은 입지계수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정보통신업(0.77) 등은 증가하였으나 음식 숙박업(0.07) 등은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광주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할당효과는 14만명이 증가한 반면, 산업구조효과는 5천명이 감소하여 순효과는 13만5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경제성장이 광주권에 10만명의 효과를 유발시켜 총효과는 23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자동차 장비제조업(5,202명)이 3차 산업은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4만명)이 높은 권역 성장효과를 발생시켰다.

<표VI-28> 광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

	입지계수			총 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2010	2000	증감				산업구조	지역할당
1차산업	0.55	0.27	0.28	324	153	171	-357	528
2차산업	1.08	1.22	-0.14	20,553	29,452	-8,899	-24,895	15,996
3차산업	0.98	0.94	0.05	214,700	70,935	143,765	20,347	123,418
농림어업	0.55	0.27	0.28	324	153	171	-357	528
음식료 담배	1.63	1.45	0.18	4,458	3,089	1,369	-3,371	4,740
섬유 의류	0.98	1.04	-0.06	-3,935	4,154	-8,089	-9,969	1,880
목재 종이	1.22	1.01	0.21	2,221	1,331	890	-1,587	2,477
석유화학 고무	0.91	0.67	0.24	4,183	888	3,295	147	3,148
화학제조업	0.61	0.69	-0.08	326	826	-500	-910	410
비금속광물	2.05	2.55	-0.50	-250	2,115	-2,365	-2,686	321
1차금속 금속	0.58	0.54	0.04	4,673	1,577	3,096	236	2,861
전기 전자	1.77	2.50	-0.73	-994	10,605	-11,599	-8,806	-2,794
의료 정밀기기	2.00	1.73	0.28	2,968	806	2,162	226	1,936
자동차 장비	0.44	0.40	0.03	5,202	1,867	3,335	-33	3,369
가구 기타	2.31	2.02	0.29	1,701	2,195	-494	-3,509	3,015
전기 가스 수도	0.99	1.58	-0.59	1,028	992	36	989	-954
건설서비스업	0.88	0.72	0.16	22,301	3,428	18,873	6,291	12,582
도소매	1.05	0.83	0.22	38,147	15,333	22,814	-12,753	35,567
물류서비스업	1.00	0.91	0.09	15,809	4,932	10,877	979	9,899
음식 숙박	0.95	1.02	-0.07	14,904	11,760	3,144	-6,411	9,555
문화서비스업	1.23	0.95	0.28	30,721	5,990	24,731	3,810	20,922
정보통신	1.69	0.91	0.77	10,113	1,403	8,710	11	8,698
금융 보험업	0.61	0.77	-0.16	2,272	3,474	-1,202	-1,697	495
부동산 사업	0.94	1.09	-0.16	31,981	9,246	22,735	15,919	6,816
공공행정 국방	0.82	0.80	0.02	7,375	3,089	4,286	-241	4,527
교육 사회복지	0.96	1.08	-0.13	40,049	11,290	28,759	18,276	10,483
합계				235,577	100,540	135,037	-5,444	140,481

4) 남양주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이중 남양주권 인구는 84만명으로 50%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4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5년 47%, 2010년 5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나 남양주권 인구증가율은 3.33%로 권역 내 인구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00%로 권역 내 증가율 1.85%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VI-29> 남양주권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남양주권	438	4.4	491	4.0	628	4.5	736	4.7	844	5.0	3.33	3.00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 563만명 중 남양주권은 19만명으로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2만8천명(18%), 3차 산업이 17만1천명(42%)으로 2, 3차 산업의 점유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최근 10년(2000-2010년)간 종사자수는 7만2천명이 증가하여 2000년대비 57.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 2천명, 3차 산업 6만9천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11.6%, 68.7%가 증가하여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의 증가가 많았다

남양주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 0.2%, 2차 산업이 19.8%, 3차 산업 80.1%로 권역내와 비교하면 2차 산업 비중이 낮고, 3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역시 1차 산업 0.2%, 2차 산업 14.0%, 3차 산업 85.8%로 권역 내 2000년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2차 산업비중은 낮아 졌고, 3차 산업비중은 높아 졌다 따라서 남양주권은 2차 산업비중은 감소한 반면 3차 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남양주권이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VI-30> 남양주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남양주권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감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199.5	100.0	126.7	100.0	72.8	57.5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0.3	0.2	0.2	0.2	0.1	50.0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28.0	14.0	25.1	19.8	2.9	11.6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171.2	85.8	101.5	80.1	69.7	68.7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남양주권 사업체는 총 4만8천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4,811개(9.8%), 3차 산업이 44,098개(90.1%)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가구 기타제품제조업이 1,030개(21%)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차 산업은 음식 숙박업이 11,050개(22.6%), 도소매업이 10,893개(22.3%),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8,192개(16.7%)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2010년 19만명 중 2차 산업이 27,959명(14.0%), 3차 산업이 171,196명(85.8%)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가구 기타제품제조업이 5,281명(2.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33,901명(17.0%), 음식 숙박업이 30,191명(15.1%)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화학제품제조업(5.94%), 1차금속제품제조업(3.56%)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섬유 의류제품제조업(-4.13%), 의료 정밀기기제조업(-0.89)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부동산 사업서비스업(5.77%), 물류서비스업(5.28%)이 증가하였다

<표VI-31> 남양주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48,931	100.0	34,797	100.0	3.47	199,491	100.0	126,739	100.0	4.64
1차산업	22	0.0	26	0.1	-1.66	336	0.2	188	0.1	5.98
농림어업	22	0.0	26	0.1	-1.66	336	0.2	188	0.1	5.98
2차산업	4,811	9.8	4,204	12.1	1.36	27,959	14.0	25,069	19.8	1.10
음식료 담배	713	1.5	625	1.8	1.33	4,325	2.2	3,289	2.6	2.78
섬유 의류	487	1.0	529	1.5	-0.82	2,939	1.5	4,479	3.5	-4.13
목재 종이	358	0.7	386	1.1	-0.75	1,819	0.9	1,995	1.6	-0.92
석유화학 고무	385	0.8	228	0.7	5.38	2,430	1.2	1,364	1.1	5.94
화학제조업	88	0.2	68	0.2	2.61	510	0.3	526	0.4	-0.31
비금속광물	170	0.3	191	0.5	-1.16	1,414	0.7	1,366	1.1	0.35
1차금속 금속	849	1.7	683	2.0	2.20	4,663	2.3	3,285	2.6	3.56
전기 전자	296	0.6	242	0.7	2.03	2,167	1.1	1,979	1.6	0.91
의료 정밀기기	61	0.1	48	0.1	2.43	472	0.2	516	0.4	-0.89
자동차 장비	374	0.8	288	0.8	2.65	1,939	1.0	1,673	1.3	1.49
가구 기타	1,030	2.1	916	2.6	1.18	5,281	2.6	4,597	3.6	1.40
3차산업	44,098	90.1	30,567	87.8	3.73	171,196	85.8	101,482	80.1	5.37
전기 가스 수도	118	0.2	66	0.2	5.98	1,877	0.9	1,080	0.9	5.68
건설서비스업	1,435	2.9	716	2.1	7.20	11,503	5.8	5,105	4.0	8.46
도소매	10,893	22.3	8,937	25.7	2.00	33,901	17.0	23,000	18.1	3.96
물류서비스업	5,175	10.6	2,704	7.8	6.71	10,781	5.4	6,442	5.1	5.28
음식 숙박	11,050	22.6	8,147	23.4	3.09	30,191	15.1	19,907	15.7	4.25
문화서비스업	2,246	4.6	1,921	5.5	1.58	10,140	5.1	6,146	4.8	5.13
정보통신	117	0.2	107	0.3	0.90	1,773	0.9	1,387	1.1	2.49
금융 보험업	397	0.8	349	1.0	1.30	5,758	2.9	5,369	4.2	0.70
부동산 사업	8,192	16.7	5,266	15.1	4.52	21,457	10.8	12,239	9.7	5.77
공공행정 국방	155	0.3	139	0.4	1.10	7,270	3.6	4,754	3.8	4.34
교육 사회보장	4,320	8.8	2,215	6.4	6.91	36,545	18.3	16,053	12.7	8.57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남양주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0.64, 2차 산업 0.72, 3차 산업 1.07로 1이상인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가구 기타제품제조업(386), 음식료 담배제조업(136), 비금속광물제조업(121) 등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음식 숙박업(151), 도소매업(115)이 특화되어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입지계수 변화는 가구 기타제품제조업(0.51)은 증가한 반면, 의료 정밀기기제조업(-0.40) 등은 입지계수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음식 숙박업(0.14) 등은 증가하였으나 금융 보험업(-0.22) 등은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광주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할당효과는 3만4천명이, 산업구조효과는 624명이 증가하여 순효과는 3만5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경제성장이 남양주권에 3만7천명의 효과를 유발시켜 총효과는 7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제1차금속제품제조업(1,378명)이 3차 산업은 도소매업(10,901명)이 권역 성장에 기여하였다.

<표VI-32> 남양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

	입지계수			종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지역할당	
	2010	2000	증감				산업구조	지역할당
1차산업	0.64	0.26	0.37	148	56	92	-130	223
2차산업	0.72	0.82	-0.10	2,890	7,450	-4,560	-6,297	1,737
3차산업	1.07	1.06	0.01	69,714	30,157	39,557	8,650	30,906
농림어업	0.64	0.26	0.37	148	56	92	-130	223
음식료 담배	1.36	1.22	0.14	1,036	977	59	-1,067	1,125
섬유 의류	0.82	0.89	-0.07	-1,540	1,331	-2,871	-3,194	323
목재 종이	0.95	1.20	-0.24	-176	593	-769	-707	-62
석유화학 고무	0.89	0.81	0.07	1,066	405	661	67	594
화학제조업	0.29	0.35	-0.06	-16	156	-172	-172	0
비금속광물	1.21	1.31	-0.09	48	406	-358	-516	158
1차금속 금속	0.78	0.89	-0.11	1,378	976	402	146	256
전기 전자	0.32	0.37	-0.05	188	588	-400	-488	88
의료 정밀기기	0.48	0.88	-0.40	-44	153	-197	43	-240
자동차 장비	0.21	0.29	-0.07	266	497	-231	-9	-222
가구 기타	3.86	3.36	0.51	684	1,366	-682	-2,184	1,502
전기 가스 수도	1.23	1.36	-0.14	797	321	476	320	156
건설서비스업	0.86	0.86	0.01	6,398	1,517	4,881	2,784	2,096
도소매	1.15	0.99	0.16	10,901	6,835	4,066	-5,685	9,751
물류서비스업	0.96	0.94	0.02	4,339	1,914	2,425	380	2,045
음식 숙박	1.51	1.37	0.14	10,284	5,916	4,368	-3,225	7,593
문화서비스업	0.71	0.77	-0.07	3,994	1,826	2,168	1,162	1,006
정보통신	0.58	0.72	-0.14	386	412	-26	3	-30
금융 보험업	0.72	0.94	-0.22	389	1,595	-1,206	-779	-427
부동산 사업	0.92	1.15	-0.23	9,218	3,637	5,581	6,262	-681
공공행정 국방	0.97	0.98	-0.01	2,516	1,413	1,103	-110	1,213
교육 사회보장	1.29	1.22	0.07	20,492	4,770	15,722	7,723	7,999
합계				72,752	37,663	35,089	624	34,465

5) 고양 양주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이중 고양 양주권은 231만명으로 13.8%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10.8%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5년 13.5%, 2010년에는 13.8%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나 고양 양주권 인구증가율은 3.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47%로 권역 내 증가율 1.85% 보다 높으나 1990-2000년간 인구증가율(3.84%) 보다는 낮다.

<표 VI-33> 고양 양주권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		%		%		%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고양 양주권	1,085	10.8	1,400	11.5	1,807	13.0	2,104	13.5	2,306	13.8	3.84	2.47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 563만명 중 고양 양주권 인구는 72만명으로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19만명으로 권역 내 157만명의 12.5%, 3차 산업이 52만명으로 권역 내 406만명의 12.9%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10년(2000-2010)간 26만명의 종사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이 4만9천명, 3차 산업이 21만6천명 증가하여 동 기간 동안 전산업은 58.5%, 2차 산업은 34.1%, 3차 산업은 70.4% 증가하여 권역 내 증가율(2차 산업 22.6%, 3차 산업 60.8%)보다 2, 3차 산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1차 산업은 감소하였다.

고양 양주권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이 0.3%, 2차 산업이 32.0%, 3차 산업이 67.6%로 권역전체 산업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지고 있었으며, 2010년 역시 1차 산업 0.1%, 2차 산업 27.1%, 3차 산업이 72.7%로 2010년 권역 내 산업구조와 유사하다. 고양 양주권의 산업구조는 권역 내 산업구조와 유사하나 2000-2010년간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2차 산업의 성장률이 권역 내와 비교할 경우 3차 산업 성장률보다 약간 높아 2차 산업의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표 VI-34> 고양 양주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고양 양주권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감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721.6	100.0	455.3	100.0	266.3	58.5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1.0	0.1	1.4	0.3	-0.4	-28.6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195.7	27.1	145.9	32.0	49.8	34.1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524.9	72.7	308.0	67.6	216.9	70.4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고양 양주권 사업체는 총 14만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2만1천개(14.8%), 3차 산업 비중이 12만5천개(85.2%)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제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이 3,536개(2.3%), 섬유 의류제품제조업 3,415개(2.3%), 목재 종이제품제조업 2,652개(1.8%)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3만3천개(22.7%), 음식 숙박업이 2만6천개(17.8%), 부동산 사업 서비스업 2만4천개(1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10년 72만1천명 중 2차 산업이 19만5천명(27.1%), 3차 산업이 52만4천명(72.7%)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전기 전자제품제조업이 2만8천명(3.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10만4천명(14.4%)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목재 종이제품제조업(6.63%),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6.03%) 등이 증가하였으며,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2.00%)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문화서비스업(6.74%), 물류서비스업(6.04%), 부동산 사업서비스업(5.80%),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8.59%)이 높게 증가하였다

<표VI-35> 고양 양주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147,779	100 0	101,538	100 0	3 82	721,572	100 0	455,283	100 0	4 71
1차산업	90	0 1	103	0 1	-1 34	1,042	0 1	1,382	0 3	-2 78
농림어업	90	0 1	103	0 1	-1 34	1,042	0 1	1,382	0 3	-2 78
2차산업	21 804	14 8	16 013	15 8	3 14	195,655	27 1	145 859	32 0	2 98
음식료 담배	1,994	1 3	1,793	1 8	1 07	14,174	2 0	11,849	2 6	1 81
섬유 의류	3 415	2 3	3 010	3 0	1 27	27,650	3 8	33 851	7 4	-2 00
목재 종이	2 652	1 8	1 601	1 6	5 18	23,775	3 3	12 507	2 7	6 63
석유화학 고무	2,060	1 4	1,175	1 2	5 77	20,338	2 8	11,329	2 5	6 03
화학제조업	833	0 6	584	0 6	3 62	6,796	0 9	5,256	1 2	2 60
비금속광물	712	0 5	620	0 6	1 39	6 463	0 9	5 942	1 3	0 84
1차금속 금속	3,436	2 3	2,147	2 1	4 81	26 531	3 7	15 793	3 5	5 32
전기 전자	1,427	1 0	1,135	1 1	2 32	28 134	3 9	16,732	3 7	5 33
의료 정밀기기	297	0 2	208	0 2	3 63	3 637	0 5	2,729	0 6	2 91
자동차 장비	2,213	1 5	1,480	1 5	4 11	20,159	2 8	13,823	3 0	3 85
가구 기타	2,765	1 9	2,260	2 2	2 04	17,998	2 5	16 048	3 5	1 15
3차산업	125,885	85 2	85,422	84 1	3 95	524,875	72 7	308 042	67 7	5 47
전기 가스 수도	416	0 3	155	0 2	10 38	6,903	1 0	2,663	0 6	9 99
건설서비스업	3 930	2 7	2 081	2 0	6 56	31,359	4 3	15,430	3 4	7 35
도소매	33 594	22 7	25 884	25 5	2 64	104,035	14 4	69,774	15 3	4 08
물류서비스업	14,009	9 5	6 909	6 8	7 32	36,479	5 1	20 291	4 5	6 04
음식 숙박	26,273	17 8	21,147	20 8	2 19	75 914	10 5	53 998	11 9	3 47
문화서비스업	7,435	5 0	5,872	5 8	2 39	34,291	4 8	19,629	4 3	5 74
정보통신	425	0 3	368	0 4	1 45	6,548	0 9	4 907	1 1	2 93
금융 보험업	1,373	0 9	963	0 9	3 61	19 409	2 7	16,086	3 5	1 90
부동산 사업	24,767	16 8	15 580	15 3	4 74	72,619	10 1	41,312	9 1	5 80
공공행정 국방	391	0 3	338	0 3	1 47	23 040	3 2	13,830	3 0	5 24
교육 사회복지	13 272	9 0	6 125	6 0	8 04	114,278	15 8	50,122	11 0	8 59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고양 양주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0.54, 2차 산업 1.40, 3차 산업 0.91로 1이상인 2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가구 기타제품제조업(364), 목재 종이제품제조업(344),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205) 등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음식 숙박업(105)에 특화되어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입지계수 변화는 가구 기타제품제조업(0.38)은 증가한 반면, 의료 정밀기기제조업(-0.27) 등은 입지계수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0.07)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0.22) 등은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고양 양주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할당효과는 14만7천명이 증가하였고, 산업구조효과는 1만6천명이 감소하여 순효과는 13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경제성장기 고양 양주권에 13만5천명의 효과를 유발시켜 총효과는 26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전기 전자제품제조업(1만1천명)이 3차 산업은 도소매업(3만4천명)이 권역 성장에 기여하였다.

<표VI-36> 고양 양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입지계수			총 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산업구조	
	2010	2000	증감				산업구조	지역할당
1차산업	0.54	0.53	0.01	-340	411	-751	-958	208
2차산업	1.40	1.33	0.07	49,796	43,345	6,451	-36,638	43,090
3차산업	0.91	0.90	0.01	216,833	91,540	125,293	26,258	99,035
농림어업	0.54	0.53	0.01	-340	411	-751	-958	208
음식료 담배	1.23	1.23	0.01	2,325	3,521	-1,196	-3,843	2,647
섬유 의류	2.14	1.87	0.27	-6,201	10,059	-16,260	-24,143	7,883
목재 종이	3.44	2.09	1.36	11,268	3,717	7,551	-4,431	11,983
석유화학 고무	2.05	1.88	0.17	9,009	3,367	5,642	558	5,085
화학제조업	1.06	0.97	0.09	1,540	1,562	-22	-1,720	1,698
비금속광물	1.53	1.58	-0.05	521	1,766	-1,245	-2,243	998
1차금속 금속	1.22	1.19	0.03	10,738	4,693	6,045	701	5,344
전기 전자	1.14	0.87	0.27	11,402	4,972	6,430	-4,129	10,558
의료 정밀기기	1.02	1.29	-0.27	908	811	97	227	-130
자동차 장비	0.61	0.66	-0.05	6,336	4,108	2,228	-74	2,302
가구 기타	3.64	3.26	0.38	1,950	4,769	-2,819	-7,624	4,805
전기 가스 수도	1.25	0.94	0.31	4,240	791	3,449	789	2,659
건설서비스업	0.65	0.72	-0.07	15,929	4,585	11,344	8,416	2,928
도소매	0.97	0.84	0.14	34,261	20,735	13,526	-17,246	30,772
물류서비스업	0.90	0.83	0.07	16,188	6,030	10,158	1,197	8,961
음식 숙박	1.05	1.04	0.01	21,916	16,046	5,870	-8,748	14,618
문화서비스업	0.66	0.69	-0.03	14,662	5,833	8,829	3,710	5,119
정보통신	0.59	0.70	-0.11	1,641	1,458	183	12	171
금융 보험업	0.67	0.78	-0.11	3,323	4,780	-1,457	-2,335	878
부동산 사업	0.86	1.08	-0.22	31,307	12,277	19,030	21,137	-2,107
공공행정 국방	0.85	0.79	0.06	9,210	4,110	5,100	-320	5,420
교육 사회보장	1.12	1.06	0.05	64,156	14,895	49,261	24,112	25,149
합계				266,289	135,296	130,993	-16,953	147,946

6) 부평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 1,672만명 중 부평권은 262만명으로 15.7%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18.8%에서 2000년 17.6%, 2005년 16.1%로 감소하여 2010년 15.7%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며 부평권 인구증가율은 1.64%로 권역 내 인구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65%로 권역 내 증가율 1.85% 보다는 낮았다. 따라서 부평권은 최근 10년(2000-20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정체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VI-37> 부평권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부평권	1,890	18.8	2,292	18.8	2,453	17.6	2,505	16.1	2,618	15.7	1.64	0.65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수 563만명 중 부평권은 82만명으로 1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21만명(13.9%), 3차 산업이 60만명(14.9%)으로 2, 3차 산업의 점유율이 타 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2000-2010년)간 종사자수는 15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24.0%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은 1만7천명(-7.3%)이 감소하였으나, 3차 산업은 17만6천명(41.2%)이 증가하였다.

부평권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 0.1%, 2차 산업이 35.5%, 3차 산업 64.4%로 권역 내와 비교하면 2차 산업 비중이 약간 높고, 3차 산업 비중이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1차 산업 0.1%, 2차 산업 26.6%, 3차 산업 73.3%로 권역 내 2010년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2차 산업 비중은 낮아졌고, 3차 산업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동 기간(2000-2010년) 산업별 증가율을 보면 2차 산업이 7.3% 감소한 반면(권역 내 22.6% 증가), 3차 산업은 41.2%(권역 내 60.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평권은 2차 산업비중은 감소한 반면 3차 산업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표VI-38> 부평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부평권					
	2010		2000		증감		2010		2000		증감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822.9	100.0	663.8	100.0	159.1	24.0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0.8	0.1	0.8	0.1	0.0	0.0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218.6	26.6	235.7	35.5	-17.1	-7.3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603.5	73.3	427.3	64.4	176.2	41.2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부평권 사업체수는 총 16만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2만개(12.5%), 3차 산업이 14만개(87.5%)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제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이 5,394(3.3%), 자동차 장비제조업 3,698개(2.3%), 전기 전자제품제조업 2,687개(1.7%)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3만9천개(24.2%), 음식 숙박업이 2만8천개(17.8%), 부동산 사업서비스업이 2만6천개(16.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10년 82만2천명 중 2차 산업이 21만8천명(26.6%), 3차 산업이 60만3천명(73.3%)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장비제조업이 6만1천명(7.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11만2천명(13.7%)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5.26%), 제1차금속제품제조업(1.23%) 등이 증가하였으며, 가구 기타제품제조업(-8.48%), 섬유 의류제품제조업(-6.03%)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5.03%), 부동산 사업서비스업(5.09%), 교육 사회보장서비스업(5.71%)이 높게 증가하였다

<표VI-39> 부평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162,126	100.0	141,261	100.0	1.39	822,899	100.0	663,826	100.0	2.17
1차산업	43	0.0	66	0.0	-4.19	756	0.1	792	0.1	-0.46
농림어업	43	0.0	66	0.0	-4.19	756	0.1	792	0.1	-0.46
2차산업	20,217	12.5	18,818	13.3	0.72	218,628	26.6	235,747	35.5	-0.75
음식료 담배	1,860	1.1	1,787	1.3	0.40	9,743	1.2	9,318	1.4	0.45
섬유 의류	1,196	0.7	1,582	1.1	-2.76	7,971	1.0	14,851	2.2	-6.03
목재 종이	1,421	0.9	1,565	1.1	-0.96	12,273	1.5	14,317	2.2	-1.53
석유화학 고무	1,233	0.8	791	0.6	4.54	16,788	2.0	10,055	1.5	5.26
화학제조업	463	0.3	445	0.3	0.40	7,880	1.0	9,339	1.4	-1.68
비금속광물	341	0.2	377	0.3	-1.00	3,860	0.5	5,276	0.8	-3.08
1차금속 금속	5,394	3.3	3,876	2.7	3.36	48,262	5.9	42,707	6.4	1.23
전기 전자	2,687	1.7	2,432	1.7	1.00	35,509	4.3	43,176	6.5	-1.94
의료 정밀기기	439	0.3	369	0.3	1.75	4,407	0.5	4,505	0.7	-0.22
자동차 장비	3,698	2.3	3,584	2.5	0.31	61,885	7.5	57,830	8.7	0.68
가구 기타	1,485	0.9	2,010	1.4	-2.98	10,050	1.2	24,373	3.7	-8.48
3차산업	141,866	87.5	122,377	86.6	1.49	603,515	73.3	427,287	64.4	3.51
전기 가스 수도	359	0.2	206	0.1	5.71	8,058	1.0	5,070	0.8	4.74
건설서비스업	4,423	2.7	2,584	1.8	5.52	44,038	5.4	16,938	2.6	10.03
도소매	39,238	24.2	39,182	27.7	0.01	112,572	13.7	99,700	15.0	1.22
물류서비스업	20,016	12.3	12,450	8.8	4.86	61,482	7.5	37,630	5.7	5.03
음식 숙박	28,937	17.8	28,382	20.1	0.19	79,500	9.7	68,596	10.3	1.49
문화서비스업	8,215	5.1	8,377	5.9	-0.20	33,679	4.1	27,695	4.2	1.98
정보통신	372	0.2	459	0.3	-2.08	4,792	0.6	5,713	0.9	-1.74
금융 보험업	1,536	0.9	1,329	0.9	1.46	24,665	3.0	23,077	3.5	0.67
부동산 사업	26,870	16.6	21,544	15.3	2.23	91,048	11.1	55,430	8.4	5.09
공공행정 국방	406	0.3	386	0.3	0.51	30,355	3.7	22,383	3.4	3.09
교육 사회보장	11,494	7.1	7,478	5.3	4.39	113,326	13.8	65,055	9.8	5.71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부평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0.35, 2차 산업 1.37, 3차 산업 0.91로 1이상인 2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1차 금속제품제조업(1.95), 자동차 장비제조업(1.64), 가구 기타제품제조업(1.78) 등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1.33)에 특화되어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입지계수 변화는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0.34)은 증가한 반면, 가구 기타제품제조업(-1.61) 등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0.27) 등은 증가하였으나 문화서비스업(-0.10) 등은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부평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할당효과는 3만2천명이 산업구조효과는 5천명이 감소하여 순효과는 3만8명이 감소하여 자체 경쟁력은 떨어졌으나, 전국경제성장이 부평권에 19만7천명의 효과를 발생시켜 총효과는 15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1차 금속제품제조업(5,555명)이 3차 산업은 교육 사회서비스업(4만8천명)이 권역 성장에 기여하였다.

<표VI-40> 부평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입지계수			총 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산업구조	지역할당
	2010	2000	증감					
1차산업	0.35	0.21	0.14	-36	235	-271	-549	278
2차산업	1.37	1.48	-0.11	-17,119	70,056	-87,175	-59,217	-27,958
3차산업	0.91	0.85	0.06	176,228	126,976	49,252	36,422	12,830
농림어업	0.35	0.21	0.14	-36	235	-271	-549	278
음식료 담배	0.74	0.66	0.08	425	2,769	-2,344	-3,022	678
섬유 의류	0.54	0.56	-0.02	-6,880	4,413	-11,293	-10,592	-701
목재 종이	1.56	1.64	-0.08	-2,044	4,255	-6,299	-5,073	-1,226
석유화학 고무	1.49	1.15	0.34	6,733	2,988	3,745	495	3,250
화학제조업	1.08	1.18	-0.11	-1,459	2,775	-4,234	-3,057	-1,178
비금속광물	0.80	0.96	-0.16	-1,416	1,568	-2,984	-1,991	-993
1차금속 금속	1.95	2.21	-0.26	5,555	12,691	-7,136	1,896	-9,033
전기 전자	1.26	1.54	-0.28	-7,667	12,831	-20,498	-10,653	-9,844
의료 정밀기기	1.08	1.46	-0.38	-98	1,339	-1,437	375	-1,812
자동차 장비	1.64	1.89	-0.25	4,055	17,185	-13,130	-308	-12,823
가구 기타	1.78	3.40	-1.61	-14,323	7,243	-21,566	-11,578	-9,987
전기 가스 수도	1.28	1.22	0.05	2,988	1,507	1,481	1,502	-21
건설서비스업	0.80	0.54	0.26	27,100	5,033	22,067	9,239	12,828
도소매	0.92	0.82	0.10	12,872	29,628	-16,756	-24,642	7,886
물류서비스업	1.33	1.05	0.27	23,852	11,182	12,670	2,220	10,450
음식 숙박	0.97	0.90	0.06	10,904	20,385	-9,481	-11,113	1,633
문화서비스업	0.57	0.66	-0.10	5,984	8,230	-2,246	5,234	-7,481
정보통신	0.38	0.56	-0.18	-921	1,698	-2,619	14	-2,633
금융 보험업	0.75	0.77	-0.02	1,588	6,858	-5,270	-3,349	-1,920
부동산 사업	0.94	0.99	-0.05	35,618	16,472	19,146	28,361	-9,215
공공행정 국방	0.98	0.88	0.10	7,972	6,652	1,320	-518	1,839
교육 사회보장	0.97	0.95	0.02	48,271	19,332	28,939	31,296	-2,358
합계				159,073	197,268	-38,195	-5,813	-32,381

7) 천안 청주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이중 천안 청주권은 240만명으로 14.4%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16.5%에서 2000년 14.6%, 2005년 14.2%, 2010년 14.4%로 나타났다. 최근 20년(1990-2010)간 천안 청주권 인구증가율은 1.8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도 1.69%로 권역 내 증가율 1.85% 보다는 낮게 나타나 인구가 정체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VI-41> 경제권역별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천안 청주권	1,665	16.5	1,825	14.9	2,032	14.6	2,202	14.2	2,403	14.4	1.85	1.69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수 563만명 중 천안 청주권은 90만명으로 1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권역 내 156만명의 19.7%인 39만명을, 3차 산업은 권역 내 405만명의 14.5%인 58만명을 점유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하여 2차 산업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3차 산업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2000-2010년)간 종사자수는 30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51.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은 11만3천명이, 3차 산업은 19만2천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각각 57.5%와 48.5%가 증가하였다.

천안 청주권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 0.5%, 2차 산업이 33.0%, 3차 산업 66.5%로 권역 내와 비교하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1차 산업 0.3%, 2차 산업 34.4%, 3차 산업 65.3%로 권역 내 2010년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2, 3차 산업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동 기간(2000-2010년) 산업별 증가율을 보면 2차 산업의 증가율이 57.5%로 권역 내 22.6%보다 높았고, 3차 산업 역시 48.5%로 권역 내 60.8%보다 낮았다. 천안 청주권은 3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2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표 VI-42> 천안 청주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천안 청주권					
	2010		2000		증감		2010		2000		증감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900.9	100.0	595.5	100.0	305.4	51.3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2.9	0.3	2.8	0.5	0.1	3.6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309.7	34.4	196.6	33.0	113.1	57.5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588.2	65.3	396.2	66.5	192.0	48.5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천안 청주권 사업제수는 총 15만7천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1만4천개(9.4%), 3차 산업이 14만2천개(90.4%)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제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이 2,398개(1.5%), 자동차 장비제조업 2,117개(1.3%), 식음료 담배제품제조업 3,266개(2.1%)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3만8천개(24.3%), 음식 숙박업이 3만2천개(20.6%),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2만6천개(1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10년 90만명 중 2차 산업이 30만9천명(34.4%), 3차 산업이 58만8천명(65.3%)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에서는 전기 전자제품제조업이 9만명(10.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10만1천명(11.3%)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정밀 의료기기(8.50%) 등이 증가하였으며, 섬유 의류 가죽제품제조업(-6.19%) 등이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4.86%), 부동산 사업서비스업(6.72%) 등이 높게 증가하였다

<표VI-43> 천안 청주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제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157,498	100.0	127,054	100.0	2.17	900,858	100.0	595,530	100.0	4.23
1차산업	231	0.1	244	0.2	-0.55	2,914	0.3	2,767	0.5	0.52
농림어업	231	0.1	244	0.2	-0.55	2,914	0.3	2,767	0.5	0.52
2차산업	14,811	9.4	11,236	8.8	2.80	309,716	34.4	196,593	33.0	4.65
음식료 담배	3,266	2.1	3,204	2.5	0.19	31,732	3.5	23,508	3.9	3.05
섬유 의류	807	0.5	1,005	0.8	-2.17	8,292	0.9	15,716	2.6	-6.19
목재 종이	1,045	0.7	1,031	0.8	0.13	10,475	1.2	9,360	1.6	1.13
석유화학 고무	1,027	0.7	510	0.4	7.25	24,188	2.7	16,435	2.8	3.94
화학제조업	811	0.5	404	0.3	7.22	21,236	2.4	13,264	2.2	4.82
비금속광물	714	0.5	613	0.5	1.54	15,653	1.7	8,958	1.5	5.74
1차금속 금속	2,398	1.5	1,531	1.2	4.59	34,864	3.9	18,567	3.1	6.50
전기 전자	1,304	0.8	899	0.7	3.79	90,677	10.1	53,144	8.9	5.49
의료 정밀기기	269	0.2	120	0.1	8.41	5,581	0.6	2,469	0.4	8.50
자동차 장비	2,117	1.3	1,059	0.8	7.17	60,201	6.7	29,216	4.9	7.50
가구 기타	1,053	0.7	860	0.7	2.05	6,817	0.8	5,956	1.0	1.36
3차산업	142,456	90.4	115,574	91.0	2.11	588,228	65.3	396,170	66.5	4.03
전기 가스 수도	455	0.3	180	0.1	9.72	8,192	0.9	3,321	0.6	9.45
건설서비스업	5,237	3.3	3,451	2.7	4.26	47,300	5.3	25,630	4.3	6.32
도소매	38,347	24.3	37,210	29.3	0.30	101,532	11.3	89,110	15.0	1.31
물류서비스업	15,455	9.8	10,095	7.9	4.35	38,458	4.3	23,938	4.0	4.86
음식 숙박	32,450	20.6	28,568	22.5	1.28	82,728	9.2	68,991	11.6	1.83
문화서비스업	8,047	5.1	7,064	5.6	1.31	35,684	4.0	23,463	3.9	4.28
정보통신	490	0.3	495	0.4	-0.10	5,846	0.6	5,959	1.0	-0.19
금융 보험업	1,774	1.1	1,573	1.2	1.21	23,688	2.6	24,353	4.1	-0.28
부동산 사업	26,320	16.7	19,067	15.0	3.28	84,958	9.4	44,315	7.4	6.72
공공행정 국방	618	0.4	633	0.5	-0.24	32,866	3.6	19,998	3.4	5.09
교육 사회보장	13,263	8.4	7,238	5.7	6.24	126,976	14.1	67,092	11.3	6.59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천안 청주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122, 2차 산업 178, 3차 산업 081로 1이상인 1, 2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97), 전기 전자제품제조업(295) 등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전기 가스(119)를 제외하고는 특화 업종이 없다 2000년 대비 2010년 입지계수 변화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15)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제품제조업(-013) 등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001)은 증가하였으나, 물류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천안 청주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할당효과는 13만5천명이 증가하였고, 산업구조효과는 7천명이 감소하여 순효과는 12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경제성장이 천안 청주권에 17만6천명의 효과를 유발시켜 총효과는 30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전기 전자제품제조업(1만5천명)이 3차 산업은 교육서비스업(5만9천명)이 권역 성장에 기여하였다

<표VI-44> 천안 청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

	입지계수			총 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산업구조	
	2010	2000	증감율				산업구조	지역할당
1차산업	122	082	040	147	822	-675	-1,919	1,244
2차산업	178	137	040	113,123	58,421	54,702	-49,382	104,084
3차산업	081	088	-007	192,058	117,729	74,329	33,770	40,559
농림어업	122	082	040	147	822	-675	-1,919	1,244
음식료 담배	221	186	035	8,224	6,986	1,238	-7,624	8,862
섬유 의류	052	066	-015	-7,424	4,670	-12,094	-11,209	-885
목재 종이	122	119	002	1,115	2,781	-1,666	-3,316	1,650
석유화학 고무	196	209	-013	7,753	4,884	2,869	809	2,060
화학제조업	265	187	078	7,972	3,942	4,030	-4,341	8,372
비금속광물	297	183	115	6,695	2,662	4,033	-3,381	7,414
1차금속 금속	129	107	021	16,297	5,518	10,779	824	9,955
전기 전자	295	211	083	37,533	15,793	21,740	-13,113	34,853
의료 정밀기기	125	089	036	3,112	734	2,378	205	2,173
자동차 장비	146	107	039	30,985	8,682	22,303	-155	22,458
가구 기타	110	093	018	861	1,770	-909	-2,829	1,920
전기 가스 수도	119	089	029	4,871	987	3,884	984	2,900
건설서비스업	078	091	-013	21,670	7,616	14,054	13,980	74
도소매	076	082	-006	12,422	26,481	-14,059	-22,025	7,966
물류서비스업	076	075	001	14,520	7,114	7,406	1,412	5,994
음식 숙박	092	101	-010	13,737	20,502	-6,765	-11,177	4,412
문화서비스업	055	063	-008	12,221	6,972	5,249	4,435	814
정보통신	042	065	-023	-113	1,771	-1,884	14	-1,898
금융 보험업	066	091	-025	-665	7,237	-7,902	-3,535	-4,367
부동산 사업	080	088	-008	40,643	13,169	27,474	22,674	4,800
공공행정 국방	097	088	009	12,868	5,943	6,925	-463	7,388
교육 사회보장	099	109	-010	59,884	19,938	39,946	32,276	7,670
합계				305,328	176,972	128,356	-7,473	135,829

8) 춘천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는 1,672만명이며 이중 춘천권은 29만명으로 18%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25%에서 2000년 20%, 2005년 18%, 2010년 1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이나 춘천권 인구증가율은 09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75%로 권역 내 증가율 185% 보다는 낮다 따라서 춘천권은 주변 시군인구 유입으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증가율이 낮아 성장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VI-45> 춘천권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		%		%		%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춘천권	247	25	260	21	275	20	282	18	296	18	092	075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수 563만명 중 춘천권은 9만2천명으로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권역 내 156만명의 03%인 4천명을, 3차 산업은 권역 내 405만명의 22%인 8만7천명을 점유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하여 2, 3차 산업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2000-2010년)간 종사자수는 2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29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은 4백명이, 3차 산업은 2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각각 91%와 309%가 증가하였다

춘천권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이 06%, 2차 산업이 61%, 3차 산업이 934%로 권역 내와 비교하면 2차 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차 산업 04%, 2차 산업 52%, 3차 산업 944%로 2000년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2000-2010년) 산업별 증가율을 보면 2차 산업 증가율이 91%로 권역 내 226%보다 낮았고, 3차 산업 역시 309%로 권역 내 608%보다 낮았다 따라서 춘천권은 산업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2차 산업 보다는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VI-46> 춘천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춘천권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92.8	100.0	71.6	100.0	21.2	29.6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0.4	0.4	0.4	0.6	0.0	0.0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4.8	5.2	4.4	6.1	0.4	9.1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87.6	94.4	66.9	93.4	20.7	30.9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춘천권 사업제수는 총 2만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941개(45%), 3차 산업비중이 1만9천개(95.4%)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음식료 담배제조업이 361개(18%)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차 산업은 음식 숙박업이 5,443개(26.1%), 도소매업이 4,800개(23.0%),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3,521개(16.9%)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2010년 92만명 중 2차 산업이 4,811명(5.2%), 3차 산업이 8만7천명(94.4%)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에서는 음료 담배제조업이 1,490명(1.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1만3,302명(14.3%), 음식 숙박업이 1만3,472명(14.5%)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정밀 의리기(16.79%), 화학제품제조업(11.85%)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기 전자제품제조업(-4.96%),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3.10)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부동산 사업서비스업(3.99%), 물류서비스업(3.74%)이 증가하였다

<표VI-47> 춘천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제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20872	100.0	19063	100.0	0.91	92,810	100.0	71,628	100.0	2.62
1차산업	26	0.1	27	0.1	-0.38	424	0.5	366	0.5	1.48
농림어업	26	0.1	27	0.1	-0.38	424	0.5	366	0.5	1.48
2차산업	941	4.5	962	5.0	-0.22	4811	5.2	4392	6.1	0.92
음식료 담배	361	1.7	334	1.8	0.78	1,490	1.6	1,173	1.6	2.42
섬유 의류	71	0.3	128	0.7	-5.72	459	0.5	520	0.7	-1.24
목재 종이	77	0.4	103	0.5	-2.87	306	0.3	244	0.3	2.29
석유화학 고무	19	0.1	19	0.1	0.00	276	0.3	378	0.5	-3.10
화학제조업	48	0.2	21	0.1	8.62	705	0.8	230	0.3	11.85
비금속광물	41	0.2	43	0.2	-0.48	278	0.3	248	0.3	1.15
1차금속 금속	109	0.5	124	0.7	-1.28	391	0.4	440	0.6	-1.17
전기 전자	51	0.2	52	0.3	-0.19	351	0.4	584	0.8	-4.96
의료 정밀기기	12	0.1	4	0.0	11.61	118	0.1	25	0.0	16.79
자동차 장비	18	0.1	14	0.1	2.54	150	0.2	114	0.2	2.78
가구 기타	134	0.6	120	0.6	1.11	287	0.3	436	0.6	-4.10
3차산업	19905	95.4	18074	94.8	0.97	87575	94.4	66870	93.4	2.73
전기 가스 수도	59	0.3	41	0.2	3.71	1,165	1.3	911	1.3	2.49
건설서비스업	655	3.1	449	2.4	3.85	6,428	6.9	3,932	5.5	5.04
도소매	4,800	23.0	5,350	28.1	-1.08	13,302	14.3	13,253	18.5	0.04
물류서비스업	2,000	9.6	1,441	7.6	3.33	5,438	5.9	3,767	5.3	3.74
음식 숙박	5,443	26.1	5,235	27.5	0.39	13,472	14.5	12,074	16.9	1.10
문화서비스업	1,183	5.7	1,139	6.0	0.38	6,724	7.2	4,696	6.6	3.65
정보통신	107	0.5	101	0.5	0.58	1,802	1.9	1,291	1.8	3.39
금융 보험업	269	1.3	251	1.3	0.69	3,737	4.0	4,264	6.0	-1.31
부동산 사업	3,521	16.9	2,819	14.8	2.25	10,677	11.5	7,222	10.1	3.99
공공행정 국방	112	0.5	135	0.7	-1.85	7,673	8.3	5,952	8.3	2.57
교육 사회복지	1,756	8.4	1,113	5.8	4.67	17,157	18.5	9,508	13.3	6.08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춘천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172, 2차 산업 027, 3차 산업 117로 1이상인 1,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음식료 담배제품제조업(101)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음식 숙박업(145) 등에 특화되어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입지계수 변화는 화학제품제조업(058)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018) 등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물류서비스업(006)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022) 등은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춘천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할당효과는 4천명이 감소하였고, 산업구조효과는 4천명이 증가하여 순효과는 104명이 감소하였으나, 전국경제성장이 춘천권에 2만1천명의 효과를 유발시켜 총효과는 2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화학제품제조업(475명)이 3차 산업은 교육서비스업(7,649명)이 권역 성장에 기여하였다

<표VI-48> 춘천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

	입지계수			총 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산업구조	지역할당
	2010	2000	증감율					
1차산업	172	090	083	58	109	-51	-254	203
2차산업	027	026	001	419	1,305	-886	-1,103	217
3차산업	117	124	-006	20,705	19,872	833	5700	-4,867
농림어업	172	090	083	58	109	-51	-254	203
음식료 담배	101	077	024	317	349	-32	-380	349
섬유 의류	028	018	009	-61	155	-216	-371	155
목재 종이	034	026	009	62	73	-11	-86	76
석유화학 고무	022	040	-018	-102	112	-214	19	-233
화학제조업	085	027	058	475	68	407	-75	482
비금속광물	051	042	009	30	74	-44	-94	50
1차금속 금속	014	021	-007	-49	131	-180	20	-199
전기 전자	011	019	-008	-233	174	-407	-144	-262
의료 정밀기기	026	008	018	93	7	86	2	83
자동차 장비	004	003	000	36	34	2	-1	3
가구 기타	045	056	-011	-149	130	-279	-207	-71
전기 가스 수도	164	204	-040	254	271	-17	270	-287
건설서비스업	104	117	-013	2,496	1,168	1,328	2,145	-817
도소매	097	101	-004	49	3,938	-3,889	-3,276	-614
물류서비스업	104	098	006	1,671	1,119	552	222	329
음식 숙박	145	147	-002	1,398	3,588	-2,190	-1,956	-234
문화서비스업	101	104	-004	2,028	1,396	632	888	-255
정보통신	127	118	009	511	384	127	3	124
금융 보험업	101	132	-031	-527	1,267	-1,794	-619	-1,175
부동산 사업	098	120	-022	3,455	2,146	1,309	3,695	-2,386
공공행정 국방	220	217	003	1,721	1,769	-48	-138	90
교육 사회보장	130	128	002	7,649	2,825	4,824	4,574	249
합계				21,182	21,286	-104	4,236	-4,340

9) 원주권

(1) 인구현황

권역 내 2010년 기준 총인구 1,672만명 중 원주권은 38만명으로 23%를 점유하고 있다 연차별 인구점유율은 1990년 권역대비 3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0년 25%, 2005년 23%, 2010년 23%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20년(1990-2010)간 권역 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76%이나 원주권 인구증가율은 0.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2000-2010)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86%로 권역 내 증가율 1.68% 보다 낮다 따라서 원주권은 주변 시군인구 유입으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증가율이 낮아 성장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VI-49> 원주권 인구현황

(단위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증가율	
		%		%		%		%		%	'90-'10	00-10
권역계	10,062	100.0	12,219	100.0	13,915	100.0	15,533	100.0	16,722	100.0	2.57	1.85
원주권	316	3.1	325	2.7	350	2.5	361	2.3	385	2.3	0.99	0.95

(2) 산업현황

2010년 기준 권역 내 종사자수 563만명 중 원주권은 13만명으로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권역 내 156만명의 11%인 1만7천명을, 3차 산업은 권역 내 405만명의 28%인 11만2천명을 점유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하여 2차 산업의 점유율이 낮고 3차 산업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2000-2010년)간 종사자수는 3만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31.0%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2차 산업은 2천명이, 3차 산업은 2만8천명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각각 15.7%와 33.5%가 증가하였다

원주권의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 1차 산업이 0.4%, 2차 산업이 15.3%, 3차 산업이 84.3%로 권역 내와 비교하면 2차 산업의 비중은 낮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차 산업 0.5%, 2차 산업 13.6%, 3차 산업 85.8%로 권역 내 2010년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2차 산업 비중은 낮아졌고, 3차 산업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동 기간(2000-2010년) 산업별 증가율을 보면 2차 산업의 증가율이 15.7%로 권역 내 22.6%보다 낮았고, 3차 산업 역시 33.5%로 권역 내 60.8%보다 낮았다 따라서 원주권은 2차 산업 보다는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VI-50> 원주권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명, %)

	권역계						원주권					
	2010		2000		증감		2010		2000		증감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5,630.4	100.0	3,808.3	100.0	1,822.1	47.8	130.6	100.0	99.7	100.0	30.9	31.0
1차산업	9.3	0.2	8.8	0.2	0.5	5.7	0.7	0.5	0.4	0.4	0.3	75.0
2차산업	1,565.7	27.8	1,276.8	33.5	288.9	22.6	17.7	13.6	15.3	15.3	2.4	15.7
3차산업	4,055.4	72.0	2,522.6	66.2	1,532.8	60.8	112.1	85.8	84.0	84.3	28.1	33.5

(3) 업종별 현황

2010년 기준 원주권 사업제수는 총 2만9천개이며 이중 2차 산업이 1,662개(5.6%), 3차 산업이 2만8,221개(94.3%)이며,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음식료 담배제조업이 588개(2.0%)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이 7,241개(24.2%), 음식 숙박업이 7,687개(25.7%),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4,904개(16.4%)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2010년 13만명 중 2차 산업이 1만8천명(13.6%), 3차 산업이 11만2천명(85.9%)를 점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장비제조업이 4,304명(3.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이 각각 1만9천명(15.3%)으로 높았다 2000-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정밀 의료기기(20.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6.19%), 석유화학 고무제품제조업(-2.28)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부동산 사업서비스업(5.02%), 건설서비스업(5.65%)이 증가하였다

<표 VI-51> 원주권 업종별 현황

(단위 업체, 명, %)

	사업제수					종사자수				
	2010		2000		증가율	2010		2000		증가율
전산업	29,935	100.0	25,162	100.0	1.75	130,550	100.0	99,717	100.0	2.73
1차산업	52	0.2	44	0.2	1.68	720	0.6	444	0.4	4.95
농림어업	52	0.2	44	0.2	1.68	720	0.6	444	0.4	4.95
2차산업	1,662	5.6	1,509	6.0	0.97	17,697	13.6	15,269	15.3	1.49
음식료 담배	588	2.0	552	2.2	0.63	4,271	3.3	4,313	4.3	-0.10
섬유 의류	125	0.4	145	0.6	-1.47	504	0.4	438	0.4	1.41
목재 종이	136	0.5	157	0.6	-1.43	716	0.5	785	0.8	-0.92
석유화학 고무	55	0.2	48	0.2	1.37	885	0.7	1,140	1.1	-2.50
화학제조업	74	0.2	34	0.1	8.09	929	0.7	596	0.6	4.54
비금속광물	117	0.4	91	0.4	2.54	1,470	1.1	1,087	1.1	3.06
1차금속 금속	160	0.5	193	0.8	-1.86	1,253	1.0	1,070	1.1	1.59
전기 전자	76	0.3	96	0.4	-2.31	1,117	0.9	2,257	2.3	-6.79
의료 정밀기기	73	0.2	15	0.1	17.14	1,654	1.3	204	0.2	23.28
자동차 장비	102	0.3	54	0.2	6.57	4,304	3.3	2,664	2.7	4.91
가구 기타	156	0.5	124	0.5	2.32	594	0.5	715	0.7	-1.84
3차산업	28,221	94.3	23,609	93.8	1.80	112,133	85.9	84,004	84.2	2.93
전기 가스 수도	94	0.3	62	0.2	4.25	1,296	1.0	625	0.6	7.57
건설서비스업	1,123	3.8	688	2.7	5.02	9,806	7.5	5,359	5.4	6.23
도소매	7,241	24.2	7,008	27.9	0.33	19,989	15.3	17,823	17.9	1.15
물류서비스업	2,681	9.0	1,998	7.9	2.98	5,744	4.4	4,952	5.0	1.49
음식 숙박	7,687	25.7	6,631	26.4	1.49	19,948	15.3	16,632	16.7	1.83
문화서비스업	1,434	4.8	1,431	5.7	0.02	6,311	4.8	4,912	4.9	2.54
정보통신	103	0.3	145	0.6	-3.36	1,639	1.3	2,231	2.2	-3.04
금융 보험업	366	1.2	333	1.3	0.95	5,018	3.8	5,405	5.4	-0.74
부동산 사업	4,904	16.4	3,794	15.1	2.60	15,300	11.7	8,931	9.0	5.53
공공행정 국방	159	0.5	167	0.7	-0.49	5,696	4.4	4,884	4.9	1.55
교육 사회복지	2,429	8.1	1,352	5.4	6.03	21,386	16.4	12,250	12.3	5.73

(4) 특화산업분석

입지계수를 통한 원주권 특화산업을 보면 1차 산업 2.08, 2차 산업 0.70, 3차 산업 1.07로 1이상인 1,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 기준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음식료·담배제품제조업(2.05)이 1보다 높아 특화되어 있으며, 3차 산업은 음식·숙박업(1.53) 등에 특화되어 있다. 2000년 대비 2010년 입지계수 변화는 의료·정밀기기제품제조업(2.12)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고무제품제조업(-0.37) 등은 감소하였다. 3차 산업은 음식·숙박업(0.07) 등은 증가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업(-0.64) 등은 감소하였다.

2000-2010년간 원주권의 성장효과를 분해하면 지역할당효과는 1,907명이 감소하였고, 산업구조효과는 3,107명이 증가하여 순효과는 1,200명이 증가하였으며, 전국경제성장이 원주권에 2만9천명의 효과를 유발시켜 총효과는 3만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차 산업은 자동차·장비제조업(1,640명)이, 3차 산업은 교육서비스업(9,136명)이 권역 성장에 기여하였다.

<표 VI-52> 원주권 업종별 특화산업 분석(2000-2010)

(단위 명, %)

	입지계수			총 효과	전국효과	순효과	산업구조	지역할당
	2010	2000	증감					
1차산업	2.08	0.78	1.30	276	132	144	-308	452
2차산업	0.70	0.64	0.06	2,428	4,537	-2,109	-3,835	1,726
3차산업	1.07	1.12	-0.05	28,129	24,963	3,166	7,161	-3,995
농림어업	2.08	0.78	1.30	276	132	144	-308	452
음식료·담배	2.05	2.04	0.02	-42	1,282	-1,324	-1,399	75
섬유·의류	0.22	0.11	0.11	66	130	-64	-312	248
목재·종이	0.57	0.60	-0.02	-69	233	-302	-278	-24
석유화학·고무	0.49	0.86	-0.37	-255	339	-594	56	-650
화학제조업	0.80	0.50	0.30	333	177	156	-195	351
비금속광물	1.93	1.32	0.60	383	323	60	-410	470
1차금속·금속	0.32	0.37	-0.05	183	318	-135	48	-182
전기·전자	0.25	0.54	-0.29	-1,140	671	-1,811	-557	-1,254
의료·정밀기기	2.57	0.44	2.12	1,450	61	1,389	17	1,372
자동차·장비	0.72	0.58	0.14	1,640	792	848	-14	863
가구·기타	0.66	0.66	0.00	-121	212	-333	-340	6
전기·가스·수도	1.29	1.00	0.29	671	186	485	185	300
건설서비스업	1.12	1.14	-0.02	4,447	1,593	2,854	2,923	-69
도소매	1.03	0.98	0.06	2,166	5,296	-3,130	-4,405	1,275
물류서비스업	0.78	0.92	-0.14	792	1,472	-680	292	-972
음식·숙박	1.53	1.46	0.07	3,316	4,942	-1,626	-2,695	1,068
문화서비스업	0.67	0.78	-0.11	1,399	1,460	-61	928	-989
정보통신	0.82	1.46	-0.64	-592	663	-1,255	5	-1,260
금융·보험업	0.96	1.20	-0.24	-387	1,606	-1,993	-785	-1,209
부동산·사업	1.00	1.06	-0.07	6,369	2,654	3,715	4,570	-855
공공행정·국방	1.16	1.28	-0.12	812	1,451	-639	-113	-526
교육·사회보장	1.15	1.19	-0.03	9,136	3,640	5,496	5,893	-397
합계				30,833	29,633	1,200	3,107	-1,907

이상의 권역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VI-53> 분석권역별 종합특성

(단위 명, %)

	점유율 ¹⁾		점유율 ²⁾ 상위 업종	특화업종 (입지계수)	자세 성장기여(명) ³⁾	
	인구	종사자			전국효과	순효과
수원권	178	170	전기 전자(96) 자동차 장비(18) 석유화학(12)	3차 산업(101) 전기 전자(280) 의료 정밀기기(217)	193,130	113,280
화성 부전권	197	219	자동차 장비(109) 전기 전자(91) 1차 금속(75)	2차 산업(208) 화학제품업(281) 전기 전자(267) 1차 금속(250)	239,904	184,768
광주권	95	102	전기 전자(60) 음식료 담배(26) 자동차 장비(20)	2차 산업(108) 가구 기타제품(231) 비금속광물(205) 의료 정밀기기(200)	100,540	135,037
남양주권	50	35	가구 기타(26) 1차 금속(23) 음식료(22)	3차 산업(107) 가구 기타(386) 음식료(136) 비금속광물(121)	37,663	35,089
고양 양주권	138	128	전기 전자(39) 섬유 의류(38) 1차 금속(39)	2차 산업(140) 가구 기타(364) 목재 종이(344) 섬유 의류(214)	135,296	130,993
부평권	157	146	자동차 장비(75) 1차 금속(59) 전기 전자(43)	2차 산업(137) 1차 금속(195) 가구 기타(178) 자동차 장비(164)	197,268	-38195
전안 정주권	144	160	전기 전자(101) 자동차 장비(67) 1차 금속(39)	2차 산업(178) 1차 산업(122) 비금속광물(297) 전기 전자(295) 화학제품(265)	176,972	128,356
준전권	18	16	음식료(16) 화학제품(08) 섬유 의류(05)	1차 산업(172) 2차 산업(117)	21,286	-104
원주권	23	23	음식료(33) 자동차 장비(33) 의료 정밀기기(13)	1차 산업(208) 2차 산업(107) 의료 정밀기기(257) 음식료(205)	29,633	1,200

주1) 인구 점유율은 2010년 기준이며, 권역 내에서 차지하는 인구점유율 임

주2) 2010년, 종사자수 기준

주3) 성장기여는 2000-2010년간 종사자수 기준

VI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여 백

Ⅶ. 결론 및 연구한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오늘날에 지역이나 도시는 중요한 국가발전의 경제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권화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 정보화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간에 국가적 차원을 넘어 직접 교류하는 사회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의 행정구역틀을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광역적 개발권으로서 남해안 관광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이며, 현행 광역시도를 묶어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권역으로 구분한 5+2권역권이다

현재까지 지역개발은 행정구역단위로 추진되면서 비효율적 추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의 경우 인접 지역의 사업과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중복되어 지역별 과당경쟁으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광역경제권 전략은 이 같은 지역별 과당 경쟁을 차단하면서 광역권역별로 대규모 지원과 공급에 의한 경제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규모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설정된 권역별 산업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권역설정을 위한 공간기준은 경기도와 인접 시군구(55개)를 대상으로 인구 및 산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지역특성을 통한 유사성과 독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경제권역설정의 기본지표로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권역설정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지역특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정적 요소로는 인구 및 산업규모를 사용하였으며, 지역 간 연계를 나타내는 동적요소로는 인구 및 지역 간 물동량 이동을 이용하였다

분석권역 내 총인구는 2010년 기준 1,672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3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1990-2010)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7%로서 전국 인구증가율 0.5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분석권역 내로 인구 집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기권역(31.1%)과 충남권역(25.3%)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집중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충남권역은 1990년 0.11에서 2010년 0.38로 증가하였으며, 충북권역 역시 0.42에서 0.51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증가율이 높았다 인구이동은 경기권역 내는 화성 수원 간, 경기 인천은 부천 부평 간, 경기 충남은 천안 평택 간, 경기 충북은 수원 청주 간, 충북 충남은 천안 청주 간, 인천 내는 남구 남동구 간에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통학율은 1990년에 비해 2010년에는 광역 지역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아 광역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분석권역 내 2008년 지역생산액(GRDP)은 316조원으로 전국 대비 30.7%로 우리나라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2008년까지 연평균 5.67%가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 종사자수는 557만명으로 전국 1,764만명의 31.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전국 대비 28.1%에서 2010년에는 31.6%로 분석권역에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 분석권역 산업구조는 2차 산업 27.5%, 3차 산업 72.3%로 전국 2차 산업 19.4%, 3차 산업 80.4%보다 2차 산업 비중이 높고 3차 산업비중이 낮아 제조업 중심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 대비 분석권역의 2차 산업 비중은 2000년 39.1%에서 2010년 44.9%로 상승하여 타 산업에 비하여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았다

입지계수를 통한 분석권역 특화산업은 2차 산업에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 장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으로 나타났다 2000-

2010년간 분석권역 내 종사자수 성장효과는 지역경쟁력에 의한 성장은 73만명이며, 국가성장으로 인한 지역효과는 113만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통신제조업, 자동차 장비제조업, 정밀기기제조업, 1차금속 금속제품제조업 등 제조업은 지역성장 업종으로 분류되나 건설서비스업, 도소매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은 지역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중심지 위계를 인구와 산업규모 등 2가지 지표로 설정하고, 2가지 지표 모두 만족하는 시군구를 중심지 위계로 선택하였다 선정된 중심지 시군구는 총 14개 시군구이며 선정된 14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인접성, 인구이동, 지역 간 물동량 이동, 특화산업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1단계 경제권역을 기초로 권역별 유사성을 파악하여 14개 소단위 경제권역을 9개로 축소하여 최종 9개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9개 경제권역은 수원권, 화성 부천권, 광주권, 남양주권, 고양 양주권, 부평권, 천안 청주권, 춘천권, 원주권이다 분석결과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천안, 아산, 청주, 청원 등이 평택, 화성, 수원과 인구 및 산업 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업종과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동일한 경제권역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뿐 아니라 충남의 천안, 충북의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정된 9개 경제권역의 인구규모는 춘천권, 원주권, 남양주권을 제외하면 150-300만명으로 대도시에 해당되며 국제경쟁력을 지닌 세계 대도시들의 인구와 유사하다 또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실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자체 도시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규모라 할 수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화성 부천권, 고양 양주권, 천안 청주권이 2차 산업 비중이 높아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분석되었으며, 광주권, 남양주권은 3차 산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로 분류되었다 지역특화를 나타내는 입지계수와 지역성장효과를 나타내는 변이 할당분석 역시 동일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계량적 분석에 의한 경제권역 설정이 아닌 지역통계자료를 활용한 경제권역 설정으로 통계지표 분석 상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통계 지표의 한계로 인하여 산업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이 아닌 사업체총조사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역특성과 유사성, 연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권역설정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동안 계획권역 설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본 연구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권역을 설정하여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수도권에서 벗어나 충남, 충북, 강원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 록

여 백

부록 광역시도별 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

시도	산업	세분류	분류명
경기	정보통신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비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72	측정,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1	전기업
		631	자료처리, 호스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생명	102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문화콘텐츠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72	측정,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물류	411	건물 건설업
		491	철도운송업
		492	육상여객 운송업

앞장에서 계속

시도	산업	세분류	분류명		
경기	물류	493	도로화물운송업		
		494	소화물전문운송업		
		495	과이프라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1	정기항공 운송업		
		512	부정기 항공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부품소재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41		1차 절강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51		전기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천		자동차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1	1차 절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2		측정, 실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앞장에서 계속

시도	산업	세분류	분 류 명	
인천	자동차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기계금속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2	측정, 실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제조업	
강원	바이오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화학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2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의료기기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신소재 방재 프라즈마산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2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앞장에서 계속

시도	산업	세분류	분류명	
강원	신소재 방재 프라즈마산업	233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문화관광산업	492	육상 여객 운송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31	자료저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충북	반도체산업	2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855		일반교습학원		
차세대전자		2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충남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	2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앞장에서 계속

시도	산업	세분류	분 류 명
충남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자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612	전기통신업
		72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자정보산업	204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첨단문화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602	텔레비전방송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732	전문디자인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1	장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참고문헌

- 김광익 외(2008),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국토연구원”
- 김범식 외(1996), 광주 전남지역의 특화산업분석과 육성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김갑성, 홍순영(1996), 지역간 투입 - 산출기법을 이용한 지역특화산업 분석, “한국지역학회”
- 김원배(1997),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강화전략의 틀, “월간국토” 1997년 11월호, “국토연구원”
- 김영 하창원(2002), 지역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분석, 「국토계획」 제37권 제6호
- 문미성 외(2007), 경기도 산업클러스터발전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 박삼욱(2009),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 박승근(2005), 해방이후 한국의 인구중심분석, “통계청”
- 신기동(2010), 신성장동력 산업의 집적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신윤철(2003), 지역권역 설정에 있어서 지역간 연결도와 도시화도의 측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상협(200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동서대학교
- 원구환 신원부(2004), “도시산업구조와 성장률 시차분석”, 한국행정학회,
- 여상일(1996),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훈 외(2009),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전략,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훈 외(2010),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경기도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도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훈 외(2010),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외희(2009), 경기도 인구특성변화에 따른 도시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용우(1999), 계획권역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임병인(2010), 경기도 산업의 녹색성장구조로의 전환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하창현(2007), 기능적 공간적 측면에서의 경남지역 공간계획권역의 설정,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0호 제1호”,
- 황성수 외(2009), 지역별 전략 연고산업, 신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2009), 신성장유발 중소기업에 관한 표준산업분류 연구
- 통계청, 총사업체조사, 각 시도, 각 년도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GRDP), 각 시도, 각 년도
- 통계청, 인구통계, 각시도, 각 년도

토론 및 질의 · 응답

- 사 회 자 김기홍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자 신남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
신범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부장)

여 백

김기홍(사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김기홍 교수입니다 개회사에서 한국은행 경기본부 윤면식 본부장께서도 밝혔지만 이 연구는 경기대학교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시군 등 행정구역을 벗어나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북도를 비롯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과 연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인구이동패턴,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여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권역의 설정을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경기도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남현 과장이십니다

신남현(토론자)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경제정책과장 신남현입니다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로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대도시권(Mega City Region)의 경쟁이 더 치열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뉴욕 및 파리, 런던 권역을 mega-city region이라는 개념하에 초광역권으로 묶어 해당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동경과 오사카 권역을 광역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창장(長江), 주장(株江) 삼각주, 베이징 등 3개 지역을 mega region으로 설정해 경제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우리나라도 현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권역별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 각종 수도권규제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규제로 인접한 지역인 충남, 충북, 강원 지역에 일부 공장 이전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공장 신증설이 안 되는 경우 해외로 나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에 투자 후보지로 공항, 항만, 주거환경 등이 우수한 경기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게 수도권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한 경제권역 설정은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 대한 경제 권역 구분과 더불어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권역별 전략산업 등을 분석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고 의미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구, 산업적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경제권역 구분을 검토하는 데 있어 서울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시도 지역을 통근 통학, 주민이동, 산업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 부천, 광주, 남양주, 고양 양주, 부평, 천안 청주, 춘천, 원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중심업종과 광역단체별로 전략산업을 GRDP를 기준으로 구분했는데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결과와 실물부문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 경기도의 전략산업을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물류, 자동차, 부품소재 등으로 선정했는데 작년도 경기도의 수출은 반도체(1위, 169억불), 자동차(2위, 105억불), 휴대전화 등(3위, 88억불), LCD(4위, 39억불), TV 등 영상기기(5위, 28억불) 등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경제권역 설정에 대한 연구는 지역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물길을 따라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괴리로 주민불편 등 지역갈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권역 구분도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간 동질성과 특이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 및 생활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권역의 중심산업과 전략산업 선정은 기본현황에 대한 통계와 지역주민의 의지 등을 반영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제권역의 구분에 있어서 분석지표로 삼았던 인구구조, 산업구조, 전략산업 등을 활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석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경제적인 측면의 사회구조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이나 지역 간의 연계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연구의 범위, 기간, 연구인력 등의 한계로 인한 분석상의 어려운 점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구분했던 여러 가지 권역들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종합계획의 경우 5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권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전 주제발표에서 9개 지역을 권역으로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지금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원권입니다 경제권역의 구분이 기존의 행정구역과 차별성을 갖고 지역 간 경제적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권역의 명칭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사회자) 신남현 과장께서 정책 입안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략산업의 명칭 문제에서부터 그 전략산업의 특징, 지역의 사회구조, 역사성 등 비경제적 측면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종합계획과 현재 구분한 권역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의 조사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제발표자에게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 신범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신범철(토론자) 경기대학교 신범철입니다 이 연구는 인구(인구수, 성장률)와 종사자(규모와 이동), 특화산업 등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1차중심지와 2차중심지로 세분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권역의 구분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구(인구규모, 성장률)와 산업규모를 기준으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의 14개의 시를 1차 중심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14개 중심지를 접근성, 인구이동, 경쟁성을 기준으로 9개의 경제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와 그 인접지역의 시도를 경제권역으로 나누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합니다

정부에서도 국토를 5개의 광역권역(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특별자치권역(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고 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지역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생명, 자동차, 부품소재, 문화컨텐츠, 국제물류업 등이고, 인천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은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IT산업 등입니다

이 연구가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면 산업고도화 수행과 산업클러스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 혹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최종 9개 경제권역과 기존 정부의 권역구분과의 차이점, 이 권역에 따른 정부의 전략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경기도를 동북부 권역, 서해안 권역, 남부 권역, 북부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데 관련하여 이 보고서가 새로이 분류한 경제권역이 더 효과적임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 미 및 한 EU FTA 등 거대국가와의 FTA 발효로 인해 산업적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경쟁구조 하에서 새로운 산업정책과 산업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FTA 확대는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경제권역 구분 기준에 무역경쟁력(예컨대, 시장경쟁력지수, 무역특화지수 등)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경기도의 실제 20대 수출품 및 수입품과 경기도의 전략산업을 부합하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표> 경기도 20대 수출 품목

순위	품목명	수출금액 (백만달러)	수출비중 (%)	누적비율 (%)
	합계	87 557		
1	반도체	16,972	19.38	19.38
2	자동차	10,490	11.98	31.36
3	무선통신기기	8,803	10.05	41.42
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 976	4.54	45.96
5	영상기기	2,841	3.24	49.20
6	자동차부품	2 757	3.15	52.35
7	기구부품	2 432	2.78	55.13
8	플라스틱 제품	2 201	2.51	57.64
9	건전지및축전지	1 869	2.13	59.78
10	전선	1 736	1.98	61.76
11	동계품	1,657	1.89	63.65
12	컴퓨터	1,633	1.86	65.52
13	기타기계류	1 458	1.67	67.18
14	광학기기	1 432	1.64	68.82
15	반도체제조용장비	1 301	1.49	70.30
16	정전기	1 227	1.40	71.71
17	수동부품	1 041	1.19	72.89
18	전자용용기기	950	1.08	73.98
19	합성수지	893	1.02	75.00
20	금형	879	1.00	76.00

경기도의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가 3대 수출품목으로 경기도 전략산업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생명(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은 무역경쟁력이 높지도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에서 어떻게 전략산업으로 각 도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연구보고서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제시한 경제권역이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내외의 도전에 의한 변화가 있거나 어떤 추세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들까지 연구보고서에 담기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현재 있는 산업의 성과와 그 성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요인에 보면 전략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구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신범철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미, 한EU 등 거대국가와의 FTA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산업 clustering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데 지역별 산업생산액이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경제권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분석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손 박사님도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 교수님께서 중요한 과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전략산업을 LQ분석에 의한 경쟁력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된 원인, 요인분석을 해야 좀 더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일선현장의 연구 경험이 많은 이상대 부장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대(토론자) 반갑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입니다. 저는 첫토론에서 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종합계획의 프로젝트 책임자이기 때문에 권역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더라도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발표를 보면 여러분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고개가 좀 가우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오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접하게 되는 지역들이 사실 생활 속에서 경제권역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사연구를 접하면서 많은 분석을 해 줘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고 지역구분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권역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권역하면 수원시, 서울시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권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을 나누게 되는 데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는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도 전국을 7개로 나누는 것으로 권역구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제권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산업이라든지 경제활동의 단위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한 연구는 경제권역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해 있는 경기도 경제권역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고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인천, 경기지역을 수도권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범위가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 이전입니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이전하는 정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6개와 소속기관 20개 등 모두 36개 기관입니다 수도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처럼 수도 기능이 계속 세종시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범위가 세종시까지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 데 얼마 전 충청권에서 신수도권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이 각종 행정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의 범위가 변화되면 현재 시행 중인 국토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복잡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결국 충청권에서도 수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 '그것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잠잠해 졌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총176개 기관이 춘천, 원주, 전주, 창원 등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도권을 경제권역으로 구분할 때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개성공단을 보면 수도권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을 대상으로 경제권을 구분한다면 개성공단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여러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제권역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나 산업 등을 분석지표로 사용하는 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정적인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경제권역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동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동적인 지표로 보면 산업간 연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자리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연관된 1차, 2차 하청기업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있는 데 하청기업들이 천안이나 당진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경제권역은 그쪽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의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의 흐름이나 지식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식의 흐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경제권역 구분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 인구, 즉 2020, 2030년 이후를 예측해 보고 산업구조를 봤을 때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권역을 구분하는 목적에 따라서 활용도도 달라질 텐데 이번 연구의 목적을 보니까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구자료의 활용목적이 지역산업육성정책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공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을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그 평가가 앞서 삼성전자를 예로 말씀드린 산업연관 관계에 의해서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는 수원 화성에 있지만 연관산업은 충청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연관지역의 지역산업육성정책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산업입지정책면에서는 이것은 clustering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수원을 중심으로 연관지역을 묶어 cluster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력 단위로 묶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대적 과제인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정책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연구목적 중에 하나인 지역산업육성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금 추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은 경제권역이 변화할 것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산업의 변화입니다 9개 경제권역의 중심산업을 분석했는데 이 산업들이 성장산업이나, 아니면 이미 성장한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나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산업에 대한 판정은 산업연구원에 분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 경제권역 전체 성장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빼놓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정부 기능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경제권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통면에서 생각해 보면 KTX, GTX,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중앙선 복선화, 강릉까지 철도 급행화 등이 실현되면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은 원주까지 1시간 이내에 들어오지요 그러면 경제권역이 지금의 구분만으로는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5+2 광역경제권 정책인데 다음 정부는 어떤 식의 지역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과 인접지역의 경제권역이 좀 더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을 더 추가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이 연구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사회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대 부장께서 세종시로 일부 정부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실수도권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권역 분석에 사용한 경제지표가 정적인 지표들이었는데 물동량 이동 등과 같은 동적인 지표들을 사용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 연구에서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함께 교통 환경 변화, 즉 KTX의 수서-호남간 확대, GTX가 이루어졌을 때 경제활동의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손 박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손명기(주제발표자) 본 연구에 대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남현 과장님께서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경기도 종합계획에 의한 5대 권역과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9개 경제권역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와 인접지역 간에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지역을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행정구역 중심에서 경제권역으로 나누어 보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역 간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고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서로 그룹을 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들은 다음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경기도 종합계획이나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 등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본 연구에 담아서 같이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 연구가 그 권역에 어떻게 포함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다 봤습니다 그것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달라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9개 경제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본 연구가 경제지표만 가지고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후속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범철 교수님께서 산업 cluster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기초로 cluster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은 산업 cluster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군별 산업통계와 산업 cluster, 경제권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분석량이 너무 커서 시간상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포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cluster와 경제권역을 비교분석하려면 먼저 산업 cluster에 대한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개의 연구 아이템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범철 교수께서 경기도의 주력산업을 수출상위품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경제권역에서 제시한 비교우위 산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향후 산업별 트렌드 변화를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경제권역별로 미래 성장산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산업연구원 등에서도 미래 산업의 변화와 성장산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미래에 어떤 산업을 선택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고민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역시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래 산업발전과 성장잠재력에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향후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역학구도와 비교우위구조의 변동, 각종 신기술의 진전과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를 경제권역에 담아낸다면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쇠퇴산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산업이나 미래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방대한 작업이라 향후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대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중에 “경제권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한계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지역의 연구범위를 충청남도하면 충청남도 전체를 분석하여야 하는 데 천안, 아산, 당진, 예산만 봤습니다. 충청남도의 많은 시군들 중에서 4개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많은 분석입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데 일부만 대상으로 한 이유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통계를 다루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개성 공단이나 세종시 등은 경기도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권역이 묶이는 것인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사회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유익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와 인접지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권역별 도시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간의 다층적 협력이 원활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고 광역시도 간에는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산업 등을 발굴하고 권역 내 지자체는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신성장 거점의 연계발전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글로벌 지역경쟁력을 갖춘 도시권(Global city)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은 물론 대학 등 연구기관과 인프라, 교육, 의료 등 정주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신성장산업 등을 육성함에 있어 특정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이나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이 연구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도청 등에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연구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 지역경제 세미나 결과 보고서

경기도와 인접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2012년 10월 29일 인쇄
2012년 10월 31일 발행

발행 한국은행 경기본부
발행인 윤면식
인쇄 서원기업(주)

* 내용문의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홍보팀
☎(031)250-0073, 0075, E-mail gyeonggi@bok.or.kr

여 백

